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19년(4차년도) 연차보고서

202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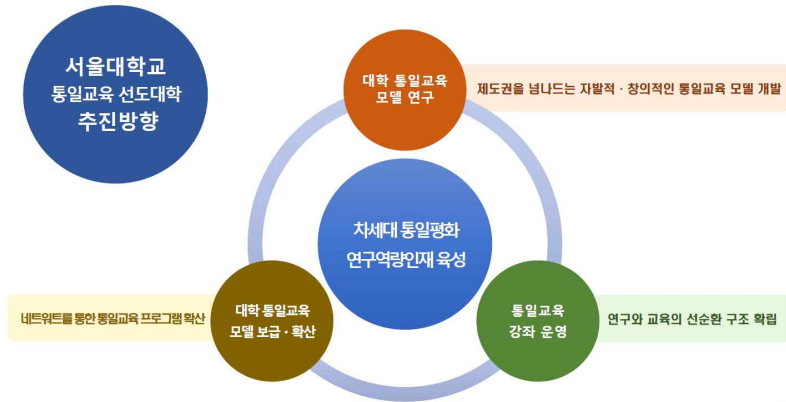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목 차

I. 4차년도 사업 개요.....	1
1. 기본구상(성과목표).....	1
2. 2019년 추진과제.....	3
II. 4차년도 사업 성과	6
1. 핵심성과	6
2. 추진 과제별 실적	14
1) 대학 통일교육 모델 연구 개발	14
2) 통일교육 강좌 운영	45
3) 통일교육 모델 보급·확산.....	212
III. 2019년 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등.....	268
1. 잘된 점.....	268
2. 향후 발전방안.....	270
3. 개선 및 건의사항.....	272
IV. 2019년 예산 집행 실적.....	273

I 4차년도 사업 개요

1 기본 구상(성과 목표)



□ 통일교육모델 연구개발

- 정규, 비정규 교과를 아우르는 자발적·창의적인 통일교육 모델 개발
 - 정규 교과과목뿐 아니라 학내 다양한 학과, 연구소, 센터들의 자발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통일평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21세기 탈중심적·탈권위적·다원화 사회에 걸맞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
 - 대학생 교양교육, 일반 시민교육을 위한 통일·평화 교재 개발 및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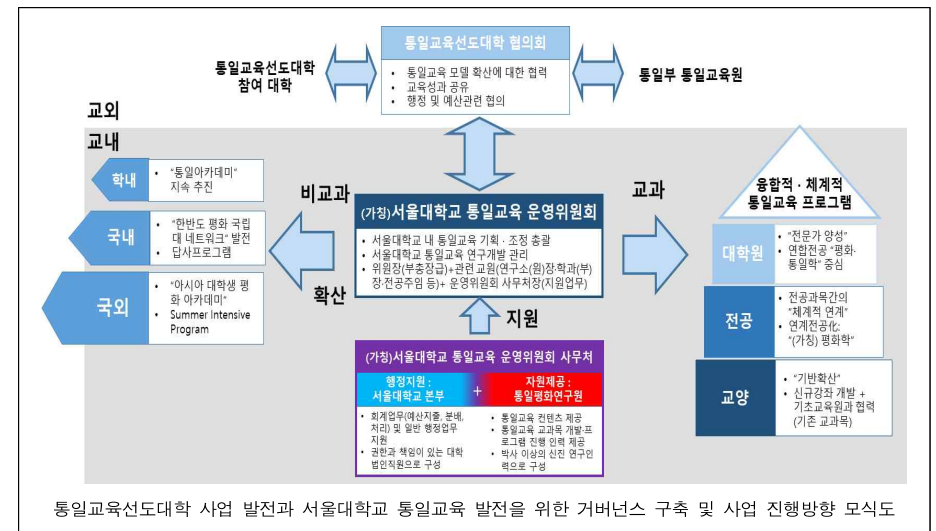
□ 통일교육 강좌 운영

-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 구조 확립
 -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의치학, 보건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연구 성과와 접목함으로써 통일평화교육 영역의 다양화
 - 현장답사를 통한 학생 참여형 통일평화교육 수혜
 - 남북한 보건의료 R&D, 한반도 응급의료협력 등 고도의 전문 실천 영역과 통일교육을 결합

□ 대학 통일교육 모델 보급·확산

- 유럽·아시아 우수대학과 연계하여 통일평화교육의 국제화 강화
 - 아시아와 유럽 등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통일평화교육의 전지구적 지평 확대 시야 확대
 - 한국-유럽 대학생 여름 평화캠프 (서울대-베를린자유대·독일 보훔대·프랑스 이날코 등)
 - 아시아대학생 평화아카데미 (서울대-싱가포르 국립대·홍콩 중문대·태국 출라롱콘대·인도 뉴델리대·인도네시아 에어랑가대 등)
-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를 통해 신한반도 시대에 걸맞은 개방적·진취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 확산
 - 2019년 서울대의 발의로 발족한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한반도의 동해와 서해, 그리고 DMZ를 연결하는 ‘신한반도구상’과 감응하는 대학간 통일교육 연계 모델 수립.
 - SNU-KNU 동해평화학교 (서울대-강원대-강릉원주대-춘천교대)
 - 통일평화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서울대-부산대-전북대)

□ 통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향 제시



2 2019년 추진과제

추진과제	주요내용	성과목표와의 관련성
통일교육 연구 개발	① 북한지리 교과서 개발	• 북한지리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학제통합 연구를 위한 전공교재 개발 『한반도 국토의 이해』(가제)
	② 남북·양안 통일외교 및 통일교육 모델 비교연구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중국 사면대학 대만연구원의 공동 심포지엄(서울대 주관) 및 공동 답사(DMZ 일대) 개최 • 양안과 한반도 통일/통합 교육을 위한 상호 참조를 위한 보고서 「양안의 통일/통합에 관한 고등교육의 현황 및 전망과 한반도 통일평화교육에 주는 시사점」 작성.
	③ 통일교육 교재개발1	• 대학 1학년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평화 관련 대중 단행본 출판: 『세계의 분쟁-평화라는 이름의 폭력들』
	④ 통일교육 교재개발2	• 교육 현장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동영상 강의) 교재 개발 『질문과 개념으로 보는 통일교육』
	⑤ 대학 평가와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	• 통일교육선도대학 1기로서 4년간 수행해 온 통일평화교육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 • 향후 대학의 통일교육에서 서울대의 역할에 대한 방향 모색 및 서울대 통일평화교육의 발전 방안 연구
강좌 운영	①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1학년을 대상으로 강의와 토론, 현장학습의 병행을 통해 '통일'과 '평화'를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함
	② DMZ 대학생 평화답사	• 자유전공학부 신입생 135명을 대상으로 DMZ 지역의 역사·문화·생태 자원 발굴 및 대학생 평화답사 모델 개발 • UCC를 제작하여 접경지역과 DMZ를 남북 평화공존의 장으로 홍보
	③ 북한정치 연구	• 정치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북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 고찰 및 연구 주제 도출
	④ 현대정치학 특강 북한정치 심화연구	• 정치학 및 북한 연구 관련 저명 학자 및 실무자 초청 세미나 진행 • 이론적 학술 연구에서 벗어나 현실의 정치동향을 이해하고 최근 동향 심화 인식
	⑤ 북한의 사회와 문화	• 국제대학원 소속 한국학생 및 외국학생들이 통일평화 이해 도모 및 국제적 소통 확산을 위한 북한문화 강의 및 답사 실시
		• 해외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창의적 교육모델 개발 및 상호 참조 기반 마련 • 학생 주도의 동영상 강의 개발을 통해 21세기 탈중심적 사회에 걸맞은 통일교육 매체의 지평 확대 • 대학생 및 일반 시민 교육을 위한 통일·평화 교재를 실제로 출판하였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목표 달성

비교 과	⑥ 탈북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어과 통일교육론	• 2019년 2학기 국어교육과 정규 교과목 개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연구자, 통일 한국의 국어과 연구자 양성	• 남북한 보건의료 R&D, 한반도 응급의료협력 등 고도의 전문영역과 통일교육을 결합 • 법학, 인문학, 공학, 의치학, 보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전문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 통일평화교육 영역의 다변화 도모 •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차세대 통일(교육) 리더 양성에 기여
	⑦ 북한지역연구 특강	• 다학제적, 현장 중심적인 북한 지역·지리 교육 • 2017년 2학기부터 비전공분야의 학생과 전문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3년차 수업	
	⑧ 동아시아 비교인문학	• 남북한과 동아시아의 역사갈등 탐구 강의 • 남북 협력 및 동아시아 화해를 위해 요구되는 적절한 지식 및 성숙한 시각 형성	
	⑨ 신입생세미나: 북한지역과 한국현대문학	• 북한 지역과 한국문학이 만나는 영역을 중심으로 문학작품을 살펴봄으로써 남북한의 역사적·문화적 공통성을 확인	
	⑩ 신입생세미나: 접경지역 개발의 이해	• 남북 접경지역인 강화도의 공간성을 논의하고, 현장학습을 통해 향후 접경지역 주민들의 통합을 위한 선결 조건 확인	
	⑪ 접경지역 평화 사회화 공동강의 및 체험학습	• 접경지역의 생태평화적 환경과 전략촌 주민들의 생활을 관찰함으로써 미래 남북 교류 및 시대를 대비하는 인재 양성	
	⑫ 민족사회학과 북한연구	•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 이해를 위해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정, 한국전쟁과 북중관계의 특징 등을 살핌	
	① 북한지역의 문학적 이해	• '철도'를 테마로 한 서북지방 배경 문학작품을 통해 북한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대중적 관심 유발	
	② 통일보건의료 전문교육을 통한 HPH 역량개발	• 보건의료 전 분야의 종사자 및 예비 의료를 대상으로 통일 보건의료 전문 인재 양성 및 통일의료에 대한 의식 배양	
	③ 통일법 강좌	• 비법학 전공생들이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해 법규범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통일관련 전문가로의 진로모색 가능성 제공	
	④ 통일법 논문 세미나 강좌	• 법학전문대학원 내 통일법 논문세미나를 통해 통일법제도에 대한 법이론 교육 심화	
	⑤ 통일법 학회 세미나 강좌	•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통일법 세미나 실시를 통해 통일실무자 양성	
⑥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 리더 양성	• 북한개방에 대비해 북한 국토인프라에 대한 인식도 향상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강의 운영안 개발 •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 전략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공개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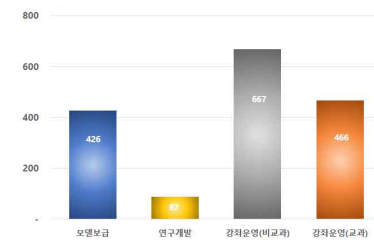
	<p>한반도 응급의료 ⑦ 협력의 현재와 미래</p> <p>제19기 ⑧ 통일아카데미</p> <p>제7기 ⑨ 평화아카데미</p> <p>⑩ 아시아 석학특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응급의료에 관심이 있는 보건의료인 및 응급의료종사자들에게 교육 수행 •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통합 응급의료체계 구축 •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통일에 관한 학문적 지식 향상을 위한 통일아카데미 •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실시된 통일평화연구원의 19기 프로그램 •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평화에 관한 학문적 지식 향상을 위한 통일아카데미 •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실시된 통일평화연구원의 7기 프로그램 • 비핵화, 탈사회주의 전환, 평화 분야의 해외 석학의 강좌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현안의 이슈에 대한 대학생들의 국제적 시야 확대 	
모델 보급 및 확산	① 통일·평화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서울대·부산대·전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다년간 진행한 통일 / 평화 아카데미 모델을 전북대와 부산대에 보급 • 서울대 통일평화교육 모델 확산 및 국립대 간 통일평화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대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서울대 통일 교육 모델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강원대·강릉원주대·춘천교대 - 서울대·부산대·전북대 •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통일평화교육의 국제적 시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싱가포르 국립대·홍콩 중문대·태국 출리롱 콘대·인도 뉴델리대·인도네시아 에어랑가대 등 - 서울대·베를린자유대·독일 보훔대·프랑스 이날코 등
	② 아시아대 학생 평화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지역 13개 대학생 25인을 대상으로 답사와 세미나가 결합된 아카데미 운영 • 아시아평화체제 구축을 대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산 	
	③ 서울대 한국냉전학회·한길사 평화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다년간 수행해 온 통일·평화아카데미 모델을 한국냉전학회와 결합하여 그 결과를 일반 시민들에게 확산 	
	④ SNU·KNU 동해 평화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대·강릉원주대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교육 모델 확산 및 국립대 간 통일평화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동해안 지역의 분단현장 및 DMZ 생태계를 직접 체험하여 평화통일의식 및 평화리더십 형성 	
	⑤ 한국·유럽 대학생 여름평화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베를린자유대·한국냉전학회가 협업하여 통일·평화 관련 국제 학생교류 프로그램 운영 모델 개발 및 보급 • 한국과 유럽 학생의 평화통일문제에 대한 의견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 증대 	
	⑥ 거레이야기 (서울대·김일성종합대 교류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재학생들의 창작 작품 공모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 조성 	

II 4차년도 사업 성과

1 핵심 성과

- 총 1,646명이 2019년 서울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에 참여. 타 대학 학생 (329명) 및 외국 대학 학생(55명)에게 개방하여 서울대 통일평화교육 모델의 국내외적 확산

사업분야별 참여인원



참여인원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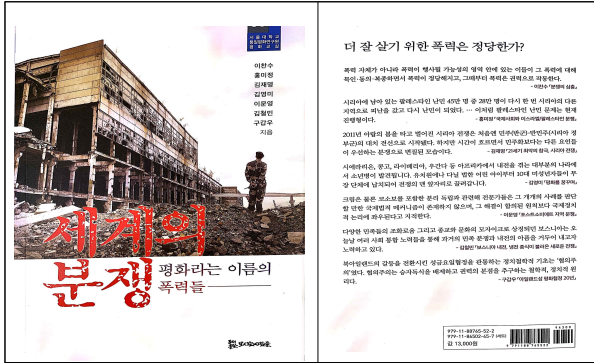
- 총 5건의 통일교육 커리큘럼 연구개발 (통일·평화관련 교재 개발 3건, 연구보고서 2건)의
- 총 22개의 통일평화관련 강좌 운영(교과형 12개, 비교과형 10개). 분야별 전문가 양성과 통일·평화 교양교육을 목적으로 한 투트랙 (Two-Track) 방식의 강좌들이 다양한 전공에서 개설
- 통일교육 선도대학 프로그램의 다년차의 경험과 안정적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통일교육 모델을 국내(8개 대학)·국외(16개 대학), 및 시민사회로 보급 및 확산
 - ‘한반도평화국립대네트워크’를 통한 국립대 연합 프로그램 (2건)
 - 유럽 및 아시아 대학들과 연계한 Summer Intensive Program (2건)
 - 한길사-한국냉전학회와 연계한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교양강좌 (1건)

□ 대학 통일교육 모델 연구 개발

① 대학생과 시민 교육을 위한 통일·평화 교재 출판

번호	도서명	비고
1	『세계의 분쟁: 평화라는 이름의 폭력들』	2019년 7월 출판
2	『한반도 국토의 이해』	원고 완성. 2020년 연내 출판 예정
3	『질문과 개념으로 보는 통일교육』	원고 완성. 2020년 연내 교육과학사와 협의하여 출판 예정

- 대학교 학부생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평화 교재의 원고를 집필 완료하였거나(A4 300매 이상) 출판
- 학생 주도의 동영상 강의 개발을 통해 21세기 젊은 세대들의 감성에 맞는 통일교육 매체의 지평 확대



단행본 『세계의 분쟁』 표지

『북한지도 교과서』 독자 구성 연방	목 차
<p>* 독자구성 내용은 교과서 프롤로그, 연례 수업준비기, 단행본, 교과서 내용과 주요 실천 수필 등</p> <p>1. 북한의 행정구역과 지방 : 정치(북한대학과 지역교육과 명세교수)</p> <p>1) 지방 행정의 세원 분배</p> <p>2) 지방의 정치</p> <p>(1) 북한의 정치 체계</p> <p>(2) 주요 기관</p> <p>3) 행정의 지방</p> <p>(1) 행정구역</p> <p>(2) 행정구역, 당조직, 주민자치의 발전</p> <p>2. 북한의 행정구역</p> <p>(1) 행정구역 개조</p> <p>(2) 분단 이후 행정구역 변화</p> <p>3. 행정구역의 변화 : 행정구역의 변화와 지역</p> <p>1) 북한의 행정 구역 변화</p> <p>(1) 행정 구역의 변화</p> <p>(2) 지방 조직의 변화</p> <p>2) 분기별 행정 구역의 변화</p> <p>(1) 행정 구역</p> <p>(2) 지방 행정구역의 변화</p> <p>3) 행정 구역의 변화</p> <p>4. 북한의 행정 구역 : 행정(행정대학과 지역교육과 교수)</p> <p>1) 북한의 행정 구역</p> <p>2) 북한의 행정</p> <p>3) 북한의 행정 구역</p> <p>4) 북한의 행정 구역</p> <p>(1) 북한의 행정 구역</p> <p>(2) 북한의 행정 구역</p> <p>(3) 북한의 행정 구역</p>	<p>I. 우리는 통일을 생각할까요?</p> <p>1. 통일 같은 주제</p> <p>2.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 질문들</p> <p>3. "통일, 한 번 물어다보자?"</p> <p>II. 통일을 해야 할까요?</p> <p>1.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p> <p>2. 과거, 현재, 미래 세대를 위한 통일 평화</p> <p>3. "내일의 통일은 JOB이라"</p> <p>III. 남북한 사람들은 함께 잘 살 수 있을까요?</p> <p>1. 사람통일</p> <p>2. 남북한과 통일에 대한 대화</p> <p>3. "개방강원 강나래의 통일 연습"</p> <p>IV. 통일 통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p> <p>1. 역사적 사실도 다 아는 통일</p> <p>2. 독일의 통일과 통일에 대한 대화</p> <p>3. "독일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러하는 독일 통일"</p> <p>V. 통일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p> <p>1. 통일정책이 아닌 교육적 원칙의 강조</p> <p>2. 통일교육 교육과정의 체계화</p> <p>3. "One Korea로 여행 떠나요, OK?"</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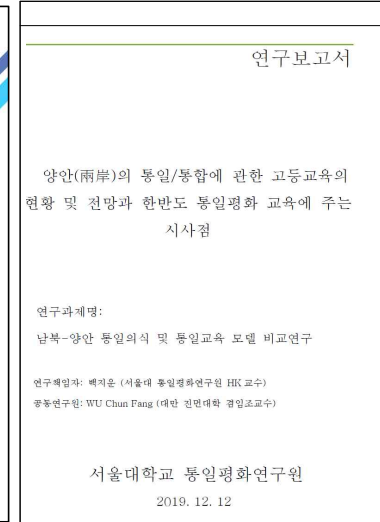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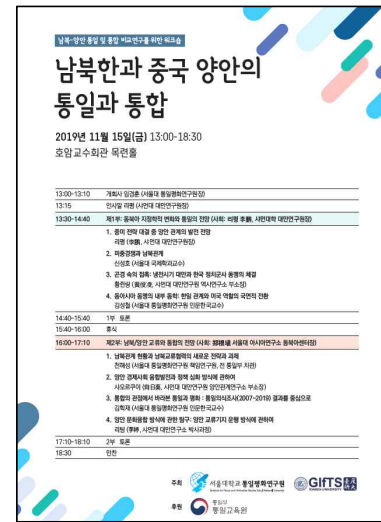
『한반도 국토의 이해』 목차

『질문과 개념으로 보는 통일교육』 목차

② 한반도와 중국 양안의 통일/통합 연구 및 교육 네트워크 확립

번호	추진과제명
1	남북·양안 통일의식 및 통일교육 모델 비교연구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중국 사면대학 대만연구원 공동으로, 통일평화 교육 및 연구 방법론에 대한 대학교육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 심포지엄 개최
- 양 기관의 1) MoU 체결 및 2) 접경지역 공동 답사, 3) 비교 연구 심포지엄 개최 4) 심화된 연구보고서 작성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사면대학 대만연구원 공동으로 '남북한-양안 통일과 통합'이라는 교류 협력 플랫폼을 연례적으로 지속하기로 협의.



③ 현장조사와 결합한 학생 참여형 통일평화교육

번호	추진과제명
1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2	DMZ 대학생 평화답사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들과 학부 1학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답사 중심 강의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통일평화 감수성 제고에 기여
- 분단의 상징인 접경지역과 DMZ 지역의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대학생 평화답사 모델 개발
- 답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통일을 당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보다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
- 학생들은 답사 후 UCC를 제작하거나 Youtube를 활용하여 소감을 제출함으로써 자기주도적으로 접경지역과 DMZ를 남북 평화공존의 장소로 되새길 수 있도록 함



답사 후 학생들이 제작한 동영상 샘플

번호	학생 발표 동영상 제목
1	기억의 재생산
2	망각된 존재, 민간인 지뢰피해자 이야기
3	사각지대에 놓인 여인들
4	지워진 사람들

□ 대학 통일교육 모델 보급·확산

① ‘한반도평화 국립대 네트워크’를 통한 국립대 통일평화교육 협력 플랫폼 구축

번호	추진과제명
1	통일 평화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서울대·부산대·전북대)
2	SNU·KNU 동해평화학교

- ‘한반도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결성을 통해 국립대 간 통일평화교육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수년간 진행해온 통일아카데미와 평화아카데미 모델을 전북대·부산대의 실정에 맞게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 학생들이 한반도의 통일 및 평화에 대한 시의성 있는 양질의 강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함 (통일평화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 서울대·강원대·강릉원주대·춘천교대와 공동으로 동해안 지역의 분단현장의 체험과 각 분야의 전문가의 강의로 구성된 ‘동해평화학교’ 프로그램 개최 (2박 3일)



②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통일평화교육의 국제화

번호	추진과제명
1	아시아 대학생 평화아카데미
2	한국·유럽 대학생 여름평화캠프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베를린자유대가 ‘한국·유럽 대학생 여름평화캠프’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유럽 및 한국의 학생들이 한반도 통일평화 문제를 글로벌한 시야에서 토론하고 학습하는 장을 마련 (6박 7일, 장소: 제주대연수원)
- 아시아지역 13개 대학에서 선발한 25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시아대학생 평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대비한 창의적·국제적 인재 양성 (6박 7일, 장소: 서울대)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을 기점으로 한 통일·평화 관련 국제 학생교류 프로그램 운영 모델의 해외 확산에 기여



2 추진 과제별 실적

□ 대학 통일교육 모델 연구 개발

번호	단위사업	담당자
1	북한지리 교과서 개발	박수진 (지리학과 교수)
2	남북·양안 통일의식 및 통일교육 모델 비교연구	백지운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3	통일교육 교재개발1	이찬수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4	통일교육 교재개발2	박성춘 (윤리교육과 교수)
5	서울대 통일교육 선도대학 평가와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	박수진 (지리학과 교수)

[1] 북한지리 교과서 개발 (박수진 지리학과 교수)

① 연구 목적

- 북한지리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학제통합 북한연구를 위한 북한지리학 전공교과서 개발 및 발전계획 수립
 - 북한지리 교과서 집필 네트워크 구축 및 “북한지리 전공교재” 집필
 - 2019년에는 학부 전공생 및 북한연구자 대상 “북한지리학 전공 교재” 개발 목표
 - 초중등교육 및 교양 교과서 개발은 추후 과제(2020년 이후)로 추진
 - 향후 북한지리 교과서 출판 및 수정계획 수립 후 응용교재(초중등교육 및 교양 교과서 등) 작성 계획 수립

② 운영 개요 및 운영 계획

- “북한지리 교과서 집필” 네트워크 구축
 - 북한지리 관련 연구성과·경험이 많은 주요 연구진·실무자를 섭외하여 북한지리 교재 개발 필진 확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할 계획임
 - 2018년 관련 사업을 통해 10~12명 정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와 지리학 외부 전문가도 초청하여 논의를 기 진행한 바 있음
 - 본 네트워크를 확대·발전시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고루 포함될 수 있게 구성할 계획이며, 특히 북한지리 연구 방법론 분야의 내용을 확대·발전시킬 계획임
- 북한지리학 연구 성과 정리 및 체계화
 - 북한지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재까지의 북한지리학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북한지리 교과서의 기초자료 구축
 - 정리된 성과를 활용하여 북한지리 교과서의 목차·개요로 활용
 - 학술회의를 통해 학계 및 일반인과 교류함으로써 수정·보완 진행

○ 북한지리 교과서 집필

- 북한지리 연구 성과 및 학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재 집필 단계적 진행
- 1단계 : 세부목차 및 개요 수정·보완(2019년 4월 ~ 6월)
 - * 기 완성된 세부목차에 대한 수정과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
- 2단계 : 교재 초안 집필(2019년 7월 ~ 11월)
- 3단계 : 교재 집필내용 수정(2019년 12월)

- 각 단계는 진척 사항에 따라 시기 및 범위가 수정될 수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서 최종 완성된 교재 또는 이에 활용될 수 있는 원고가 도출되는 것을 목표로 함

- 출판사 섭의를 진행하여, 출판 작업 진행 중

○ 북한지리 교과서 발전·응용계획 수립

- 본 사업은 학부생 및 북한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북한지리 교과서 개발사업으로, 이를 바탕으로 일반 대중 및 초·중등 교육과정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북한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 실체이며, 북한에 대한 정보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상 성과물에 대한 수정·보완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북한지리 교과서의 추가발간 및 발전·응용에 대한 장기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당초 계획한 사업 추진 일정

일 정	추진내용
2019. 3 ~ 4월	“북한지리 교과서 집필” 네트워크 구축
2019. 5 ~ 6월	북한지리 전공 교과서 세부목차 및 개요 완성 및 검토
2019. 6월	제 1차 “북한지리 교과서” 학술회의 개최
2019. 7 ~ 11월	북한지리학 전공교재 집필 : 초안
2019. 11월	제 2차 “북한지리 교과서” 학술회의 개최
2019. 12월	북한지리학 전공교재 집필 : 수정안 또는 최종안

③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 과정

□ 시기별 추진

일 정	추진내용
2019. 3 ~ 6월	사업 수주 및 예산 검토, 2018년 추진사항 정리
2019. 6월	북한지리 교과서 저술 착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1차 간담회)
2019. 7 ~ 10월	북한지리학 전공교재 집필 : 초안
2019. 10월	북한지리 교과서 개발 진행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2차 간담회)
2019. 11월	북한지리학 전공교재 검토 및 수정
2019. 12월	북한지리학 전공교재 집필 : 수정안

※ 학술회의는 연구진 일정상 진행하지 못함

□ 세부 일정

○ 1차 간담회

- 회의명 : 북한지리 교과서 저술 착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일시/장소 : '19. 6. 28.(금) 18:00-21:00/용산역 “기와 “
- 참석자 : 박수진 등 16명
- 회의내용
 - 북한지리 교과서의 제목 및 판형, 구성방식에 대한 논의
 - 사진 논의한 교과서의 개요, 구성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논의
 - 사용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확보 및 공식화 방안 논의
 - 회의참석자 이외의 추가적인 저자 및 주제 확인
 - 향후 추진계획 논의 : 초안 완성(10월), 초안을 활용한 강의(9~12월), 최종안(12월~내년) 등

○ 2차 간담회

- 회의명 : 북한지리 교과서 개발 진행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 일시/장소 : '19. 10. 18.(금) 18:30-21:00/용산역 “기와 “
- 참석자 : 박수진 등 17명
- 회의내용
 - 현재까지 작성한 목차 및 본문에 대한 검토
 - 집필 기한에 대한 확정 및 이후 행정 절차 안내
 - 미협의 저자 및 기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

○ 기타 회의

일시/장소	회의내용	참석자
'19. 9. 19 (수)	북한지리 교과서 저술진행 점검 회의(1차) - 북한지리 교과서의 현재까지 수합된 목차 정리내용 검토(첨부 참조) - 북한지리 교과서 진행사항에 대한 사업 비참가자(교수, 대학원생)의견 수렴 -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	박수진 등 9명
'19. 10. 2(수)	북한지리 교과서 저술진행 점검 회의(2차) - 북한지리 교과서의 현재까지 수합된 목차 정리내용 검토 - 북한지리 교과서 진행사항에 대한 사업 비참가자(교수, 대학원생)의견 수렴 -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	박수진 등 8명
'19. 11. 26(화)	북한지리 교과서 저술진행 점검 회의(3차) - 북한지리 교과서의 현재까지 수합된 본문 내용 - 북한지리 교과서 진행사항에 대한 사업 비참가자(교수, 대학원생)의견 수렴 - 출판일정에 대한 논의	박수진 등 10명

□ “북한지리 교과서 집필” 네트워크 구축

구분	분야/역할	인적정보		비고
		소속·직책	성명	
저자	북한의 행정구역과 지명	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김기혁	2차 섭외
	북한의 지형·지질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이광률	1차 섭외
	북한의 기후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이은걸	1차 섭외
	북한의 생태환경·식생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공우석	2018섭외
	북한의 생물다양성과 자연보호지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명수정	1차 섭외
	북한의 물환경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장석환	2차 섭외
	북한의 생태계 서비스와 환경문제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이훈종	1차 섭외
	북한 소재 '명승'과 자연관광 자원	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 연구위원	신성희	1차 섭외
	북한의 경제·산업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	이정훈	2018섭외
	북한의 지역, 농촌, 토지이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 본부장	김영훈	1차 섭외
	북한의 도시	북방연구회 사무국장	조총희	1차 섭외
	북한의 교통인프라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산학협력중점교원	이복남	2018섭외
검토	북한의 해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공간연구실 위촉전문연구원	임종서	1차 섭외
	북한의 자연환경 전반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이민부	2018섭외
진행	북한의 인문환경 전반	연변대학교 지리해양과학학원 교수	남 영	1차 섭외
	사업총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박수진	
	사업보조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안유준	

□ 북한지리 교과서 자료구축 및 목차구성, 초안 저술

○ 집필 가이드라인 설정

- 각 장당 집필분량: 참고문헌 및 그림 포함 A4 25페이지 이내 (12pt. 줄간격 160%)
- 집필의 난이도: 고등학교 졸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
- 원고편집규정: 대한지리학회 편집규정에 따라 표와 그림, 참고문헌 그리고 주 처리
- 집필내용구성 가이드라인

1. 서론: 해당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 및 각 장의 목차소개
2. 국내외 연구동향 소개: 관련 내용의 국내외 주요연구성과를 간략하게 소개
3. 본문: 각 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항목을 기술
4. 남북한간의 특성비교: 향후 적극적인 남북간 교류를 염두에 두고 차이를 줄이는 방안 제시
5. 더 읽을 거리: 관련내용의 서적 및 논문 약 5권/편을 1문단정도로 요약
6. 참고문헌

○ 내용 구성 : 세부내용 첨부 참조

I. 북한의 행정구역과 지명 : 김기혁(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II. 북한의 지형·지질 : 이광률(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III. 북한의 기후 : 이은걸(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IV. 북한의 생태환경·식생 : 공우석(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V. 북한의 생물다양성과 자연보호지역 : 명수정(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VI. 북한의 물환경 : 장석환(대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VII. 북한의 생태계 서비스와 환경문제 : 이훈종(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VIII. 북한 소재 '명승'과 자연관광 자원 : 신성희(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 연구위원)
IX. 북한의 경제, 산업 : 이정훈(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X. 북한의 농촌 : 김영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XI. 북한의 도시 : 조총희(북방연구회)
XII. 북한의 교통인프라 : 이복남(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산학협력중점교원)
XIII. 북한의 해양 : 임중서(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공간연구실 위촉전문연구원)

□ 북한지리 교과서 초안 원고 작성 및 검토

○ 초안 작성 : 첨부 참조

○ 검토

- 3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진행

단 계	내 용	인 원
1단계 : 편집상의 검토	- 오타 확인, 편집규정 준수 확인 - 2~3단계 검토의 실무작업 병행	박수진, 안유순
2단계 : 내용상의 검토	- 자료조사 및 내용구성에 대한 조언 - 필요시 보완자료 제공	이민부(자연), 남영(인문)
3단계 : 소비단계 검토	- 2019년 2학기 지리학과 전공선택 "북한지역연구특강"과 연계, 강사를 교과서 저자를 섭외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내용을 사전 체형케 함 - 강의 설문조사, 기말과제(강의에 대한 비판적 리뷰)를 통한 소비자(수강생)대상 의견 청취	

- 소비단계 검토는 2019년 2학기 학사일정 관계상 사업 종료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아래와 같은 수업일정을 통해서 진행 됨(진행 중)

주차	일정	강의제목	강사명(소속)	교과서 저술 연계 장
1주차	9/4	강의소개· 북한의 지리 일반	담당교수	
2주차	9/11	북한의 지형	이광률 (경북대학교 교수)	2장
3주차	9/18	북한의 생태환경·식생	공우석 (경희대학교 교수)	3장
4주차	9/25	휴강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답사)		
5주차	10/2	북한의 토지이용과 수문	남 영 (연변대학교 교수)	미연계

주차	일정	강의제목	강사명(소속)	교과서 저술 연계 장
6주차	10/9	휴강(한글날)		
7주차	10/16	개성공업지구의 역사와 변천	홍승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과장)	미연계
8주차	10/23	북한 소재 '명승'과 자연관광 자원	신성희 (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 연구위원)	8장
9주차	10/30	북한의 농업과 경제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장
10주차	11/6	북한의 교통인프라	이복남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12장
11주차	11/13	남북교류협력과 서해경제공동특구 추진방안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	9장
		한반도 생태계 서비스의 시공간 변화와 사회-생태적인 지속가능성	이훈종 (국토문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8장
		다행위자시스템을 이용한 한반도 토양의 사회생태적 건강성 평가	안유순 (지리학과 박사과정)	미연계
12주차	11/20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이 성공한 모델이 될 수 있는가?: 협력과 신뢰가 남북접경지역에 미치는 영향	백일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미연계
13주차	11/27	북한의 생물다양성과 자연보호지역	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5장
14주차	12/4	북한의 도시	조총희 (북방연구회 사무국장)	11장
15주차	12/11	북한의 기후	이은걸 (경희대학교 교수)	3장
보강 1	12/14 (토)	북한의 해양	임중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위촉전문연구원)	13장
보강 2	12/18	남북한 물 협력 무엇이 시급한가?/중강	장석환(대전대학교 교수)/담당교수	6장

□ 북한지리 교과서 출판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 출판계획

일 정	추진내용	비고
2019. 11~12월	북한지리학 전공교재 초안 완성 * 3단계 검토 포함	사업종료시 목표

2019. 12월 말	북한지리학 전공교재 출판 검토회의 - 초안 최종 검토 및 최종 수정사항 확인 - 저작권 및 보안문제에 관한 검토 - 출판사 섭외와 일정에 관한 최종 논의 - 교과서 제목 설정	사업종료 이후 진행예정
2020. 1월 중	북한지리학 전공교재 출판사 섭외	
2020년 전반기	북한지리학 전공교재 출판	출판사와 논의 후 세부일정 확정

○ 발전계획 : 2020년 및 이후 계획

- 내용 확장을 통한 “북한지리 교과서 2권” 또는 확장 개정판 발간
 - 이번 사업에서는 위성영상 등 간접 자료를 구하기 비교적 용이한 “북한의 자연지리”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경제·사회·농업적 이용에 관한 인문지리적 내용이 결합된, 자연지리 중심의 지리 교과서로의 한계가 있음
 - 본격적인 인문·사회·문화지리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교과서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교과서 개발 참여진과의 논의, “북한지역연구특강” 강사진 섭외를 통한 확인, 연변대학교와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일부 보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 현재 섭외 또는 네트워크 구축된 관련 연구진들을 이용하여 보강할 내용의 원고를 모집하고, 내용이 많을 경우 “북한지리 교과서 2권”으로, 내용이 많지 않을 경우 확장 개정판으로 기획하여 진행
- “북한지역연구특강” 강의 및 기타 강의를 통한 Feedback
 - 현재 본 사업의 진행과 마찬가지로, “북한지역연구특강” 및 북한에 대한 강의를 2020년 이후에도 지속 진행하고, 본 교재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교재의 효용성을 지속 확인
 - 이를 통해 데이터의 최신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표현 및 내용의 변화 등을 지속 수행하여 최신 교과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교과서의 목표 독자 확대 또는 지리지·백과사전 형태로 확장(장기 계획)
 - 본 교과서를 토대로, 북한지리에 대한 일반인 대상 교양서, 초·중·고등학생 대상 보조 교과서 등으로 변경해서 발간한다면 북한지리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교과서의 내용을 지속·발전시켜 “북한지리지” 등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해외 북한 연구 네트워크와 함께 가능성과 필요 자원 지원 여부를 지속 타진 중

④ 연구 성과 및 기대효과

□ 정량 평가

- “북한지리 교과서 집필” 네트워크 구축 : 당초 계획(15명 내외, 10개 이상 기관) 충족 (15명, 14개 기관)

○ 북한지리 연구성과 정리→북한지리 교과서 집필

- 북한지리 교과서 초안 단계 완성
- 총 13개 장, A4기준 334페이지로, A4기준 300장 이상이라는 기준 충족
- 북한지리 교과서의 질적 측면은 객관화되기 어렵지만, “북한지역연구특강”이 본 교재의 초안을 가지고 진행된 것을 감안하였을 때, 해당 과제의 강의평가·설문 결과가 질적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북한지리 관련 학술대회는 참여자들의 일정 관계상 진행하지 못하였음

□ 정성 평가

○ 북한지리학을 통한 북한학·통일학 분야의 지면 확대

- 북한지리 지식과 지리학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북한학·통일학 분야의 연구영역 및 시야를 확대시켰다고 자평함
- 본 교과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자료가 부족한 다른 지역의 연구에 대한 지식 확충 및 방법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북한지리 및 북한 융합연구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

- 북한지리 전문가 양성을 통해 북한지리에 대한 지식 증진
- 통일시대 국토공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진전문가 양성

⑤ 관련 자료

□ 교과서 목차 샘플

『북한지리 교과서』 목차 구성 현황	
2019. 12. 11 현재	
<p>· 독자구성 내용은 교과서 초안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과 다소 달라질 수 있음</p> <p>I. 북한의 행정구역과 지방 : 김기현(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p> <p>1. 지방 행정의 기본 요체</p> <p>1) 장과 안송기</p> <p>(1) 북한의 안기 체계</p> <p>(2) 주소 안</p> <p>2) 화할과 지방</p> <p>(1) 읍소</p> <p>(2) 행정구역 : 합숙장·투안장과 구역</p> <p>2. 북한의 행정구역</p> <p>(1) 행정구역 개조</p> <p>(2) 분단 이후 행정구역 변화</p> <p>3. 행정구역의 행정 : 시·군·구와 하향과 하향과 언어 지방</p> <p>(1) 하향의 언어와 지방 정책</p> <p>(2) 언어 정책과 지방</p> <p>(3) 지방 조사와 언어</p> <p>2) 국가행정조직 전환과 지방 협력</p> <p>(1) 사법 행정</p> <p>(2) 사법 행정에서의 사회화</p> <p>(3) 시·군 지방의 변화</p> <p>II. 북한의 지형 서질 : 이광훈(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 <p>1. 북한의 지형 개질</p> <p>(1) 북한의 지형</p> <p>(2) 북한의 지질</p> <p>2. 북한의 지형 개질</p> <p>(1) 북한의 지형 개질</p> <p>(2) 북한의 지형 개질</p> <p>(3) 북한의 지형 개질</p> <p>3. 북한의 지형 개질 및 국토 지형</p> <p>(1) 국토지형의 개질</p> <p>(2) 국토지형의 개질</p> <p>(3) 국토지형의 개질</p> <p>4. 북한의 지형 개질 및 국토 지형</p> <p>(1) 국토지형의 개질</p> <p>(2) 국토지형의 개질</p> <p>(3) 국토지형의 개질</p>	<p>2) 북한 지역 명승지의 현황</p> <p>(1) 명승지의 현황</p> <p>(2) 명승지의 현황</p> <p>3.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과 개발</p> <p>(1)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2)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3)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4.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과 개발</p> <p>(1)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2)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3)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5.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과 개발</p> <p>(1)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2)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3)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6.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과 개발</p> <p>(1)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2)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3)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7.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과 개발</p> <p>(1)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2)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3)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8.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과 개발</p> <p>(1)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2)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3)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9.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과 개발</p> <p>(1)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2)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3)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10.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과 개발</p> <p>(1)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2)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3)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11.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과 개발</p> <p>(1)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2)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3)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12.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과 개발</p> <p>(1)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2)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3)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13.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과 개발</p> <p>(1)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2)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3)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14.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과 개발</p> <p>(1)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2)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3)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15.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과 개발</p> <p>(1)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2)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3)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16.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과 개발</p> <p>(1)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2)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3)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17.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과 개발</p> <p>(1)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2)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3)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18.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과 개발</p> <p>(1)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2)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3)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19.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과 개발</p> <p>(1)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2)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3)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20.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과 개발</p> <p>(1)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2)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p>(3) 북한의 자연환경 자원</p>

□ 교과서 초안 원고 샘플

2) 관측환경
(1) 지리적 특성

요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북한의 기후 관측거점은 27개 지점으로, 그 위치는 그림 1과 같으며, 북한의 주요 도시 또는 지역을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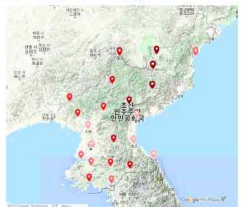



그림 1. 북한의 주요 기후자료 관측지점
<https://crme.google.com/open?id=1Nxd0w00hlpqkhw8F7gW0hYgLDgIev5kuywsharng>

(2) 기후자료의 특성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운영하는 기상통신망(GTS)을 통해 북한의 국제공인 관측소인 27개 지점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분석하여 북한의 기후가 언제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떻게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기후는 어떻게 될지를 분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12개의 기상대와 186개의 관측소에서 독자적으로 기상관측을 하고 있다. (2), (13~14P)

기후자료는 대부분 데이터 통계자료를 통해 처리하는데, 세계기상기구(WMO)에서는 이를

〈그림〉 북한의 통일지구 분포



① 행정·남포 공업지구

평양·남포공업지구는 평양, 남포, 송원, 사리원을 포함하는 북한의 최대 공업지구로 전기, 철강, 기계, 철강, 조선, 화학, 의류, 시멘트, 편유리, 방직, 식료, 신발 등의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¹⁰⁾. 평양시는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10) 10) 평양공업지구는 북한의 대규모 주요기업이 집중되어 있어 북한공업생산액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남북·양안 통일의식 및 통일교육 모델 비교연구
(백지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① 연구 목적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중국 사면대학 대만연구원 공동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남북, 중국-대만 간의 통일의식 및 통합지수에 대한 연구 방법론, 통일평화 교육방법론을 교환하여 통일, 평화, 통합에 대한 대학교육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 심포지엄 개최.
- 양안의 통일과 사회통합 방면에서 연구와 교육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사면대 대만 연구원의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 교육방법에 대한 조사연구와 더불어, 중국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안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 양안과 한반도 통일/통합 교육을 위한 상호 참조의 기초를 마련함.
- 한반도 접경지역에 대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사면대 대만연구원의 공동답사를 통해, 향후 남북과 양안 접경지역에 대한 양교 학생(대학원생)의 상호 답사를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도화. (2019년은 서울대 주관으로 공동 심포지엄 개최와 남북접경 지역에 대한 답사를 수행. 2020년은 사면대 주관으로 사면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양안 접경 답사를 수행할 예정.)

② 운영 개요 및 운영 계획

날짜	추진내용
2019.1	사면대학 대만연구원 방문, 대만-중국 접경지역인 금문도, 대등도 등을 답사하고, 공동 워크숍 개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사면대 대만연구원의 상호협력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2019.4-6	사면대 대만연구원의 교육 체제와 커리큘럼 및 중국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양안문제 관련 교육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 계획 수립.
2019.7-8	서울대-사면대 공동심포지엄을 위한 발표자 구성, 주제 기획, 초청장 발송 등을 진행
2019.9-10	심포지엄 주제 확정, 발표자 초청, 발표문 수합, 번역, 프로시딩 제작, 사면대학 대만연구원 통일/평화/통합 관련 교과목 자료 기초조사 및 연구보고서 집필.
2019.11	심포지엄 및 공동답사 개최(11월 14-15일), 연구보고서 완성.
2019.12	보고서 작성 및 사업 평가

③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 과정

- 2019년 1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사면대학교 대만연구원을 방문하여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양 기관의 상호협력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



○ 남-북 접경지역인 파주 일대의 공동답사 개최

- 답사지 및 답사일정: 2019년 11월 14일(목), 파주 통일촌 및 오두산전망대 일대

시간	내용
08:30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출발
10:00	파주 연백리 통일촌 도착
10:00-11:10	통일촌 답사
11:10-11:30	화석정으로 이동
11:30-11:50	화석정 관람
11:50-12:50	점심식사
12:50-13:10	오두산 전망대로 이동
13:10-14:10	오두산 전망대 관람
14:10	서울대학교로 이동
15:30	서울대학교 도착, 해산

- 답사내용

심포지엄 및 공동답사를 위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을 방문한 사면대학교 대만연구원의 4인(리핑 사면대 대만연구원장, 황권령 사면대 대만연구원 역사연구소 부소장, 샤오르쿠이 사면대 대만연구원 양안관계연구소 부소장, 리팅 사면대 대만연구소 박사과정)을 및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 통일평화연구원의 백지운 HK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및 국제대학원의 재학생을 포함한 20여명의 인원이 남-북 접경지역인 파주 일대의 통일촌과 오두산 전망대 등을 답사함.

통일촌은 남한 최북단지역에 형성된 마을 중 하나로, 한국전쟁 당시 모든 주민들이 후방으로 철수할 것을 권고 받아 황무지 상태였다가 1973년 새롭게 재건된 마을임. 통일촌 민가에서 불과 3.5km 떨어진 곳에는 제3땅굴이 위치하는 등, 양안을 연구하는 관계자들이 남-북한의 접경지대를 살펴보기에 적당한 지역이라고 판단되어 해당 지역 일대의 답사를 실시함.

- 답사 사진



○ 남북-양안 통일 및 통합 비교연구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일시: 2019년 11월 15일(금)
- 장소: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 식순

13:00-13:10	개회사: 임경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13:15	인사말: 리핑 (사면대학교 대만연구원장)
13:30-14:40	제1부: 동북아 지정학적 변화와 통일의 전망 (사회: 최규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1. 중미 전략 대결 중 양안 관계의 발전 전망 리핑 (사면대학교 대만연구원장)
	2. 미중경쟁과 남북관계

신성호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3. 끈경 속의 접촉: 냉전시기 대만과 한국 정치군사 동맹의 체결 황진링 (샤먼대학교 대만연구원 역사연구소 부소장)	
4. 동아시아 동맹의 내부 동학: 한일 관계와 미국 역할의 국면적 전환 김성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14:40-15:40	1부 토론
15:40-16:00	휴식
16:00-17:10 제2부: 남북/양안 교류와 통합의 전망 (사회: 정근식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장)	
1. 남북관계 현황과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전략과 과제 천해성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전 통일부 차관)	
2. 양안 경제사회 융합발전과 정책 심화 방식에 관하여 샤오르쿠이 (샤먼대학교 대만연구원 양안관계연구소 부소장)	
3.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통일과 평화 : 통일의식조사(2007~2019) 결과를 중심으로 김학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4. 양안 문화융합 방식에 관한 탐구: 양안 교류기지 운영 방식에 관하여 리팅 (샤먼대학교 대만연구소 박사과정)	
17:10-18:10	2부 토론
18:30	만찬

- 심포지엄 발표자 및 발표 내용

주제	강사(소속)	세부내용
미중경쟁과 남북관계	신성호 (서울대 국제학과 교수)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이 한국에 외교안보 딜레마를 가져오는 상황을 지적하고, 남북관계가 다시 경쟁국면에 접어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동맹의 내부 동학: 한일 관계와 미국 역할의 국면적 전환	김성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그동안의 한-미-일 삼각관계가 비동분담과 공약을 둘러싸고 위계적 관계에 있었음을 고찰하고, 안보삼각관계 내부의 긴장과 균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남북관계 현황과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전략과 과제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남북 교류협력, 특히 경제협력이 중단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지적하고, 향후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다양한 교류협력이 재개될 것에 대비해 내부 추진역량 제고 및 민간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제도개선의 추진 필요성을 제기한다.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통일의식조사(2007~2019) 결과를 중심으로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양안관계와 남북관계가 늘 상호간 비교와 참조의 대상이 되어 왔음을 전제하는 이 글에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13년간 수행해온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인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안관계와 남북관계는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살펴본다.
중미 전략 대결 중 양안 관계의 발전 전망	리팅 (샤먼대학교 대만연구원장)	최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심화되고 있는 경쟁 구도 속에서 양안 관계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시론을 제기한다.
끈경 속의 접촉:	황진링	근대 역사상 중국, 한국 양국은 모두 일본의 침략을 받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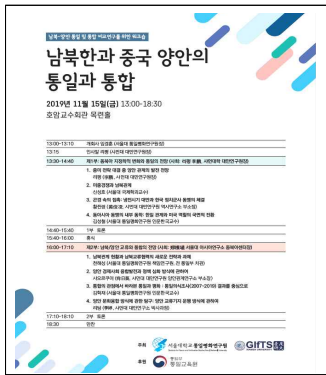
냉전시기 대만과 한국 정치군사 동맹의 체결	(샤먼대학교 대만연구원 역사연구소 부소장)	냉전의 시대적 배경 아래 분열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공통점을 지적하고, 냉전시기 대만과 한국 사이에 서로 어떠한 전략적 이유로 인해 정치동맹을 체결하였는지 그 배경과 과정, 함의를 고찰한다.
양안 경제사회 융합발전과 정책 심화 방식에 관하여	샤오르쿠이 (샤먼대학교 대만연구원 양안관계연구소 부소장)	양안의 유기적 통일 실현의 중요한 경로 중 하나로 양안의 경제 사회 융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만의 공공정책에 대해 살핀다.
양안 문화융합 방식에 관한 탐구: 양안 교류기지 운영 방식에 관하여	리팅 (샤먼대학교 대만연구소 박사과정)	해협양안문화교류기지의 운영 상황과 발전 대책에 대해 예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양안의 융합발전과 협력이 현재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④ 연구 성과 및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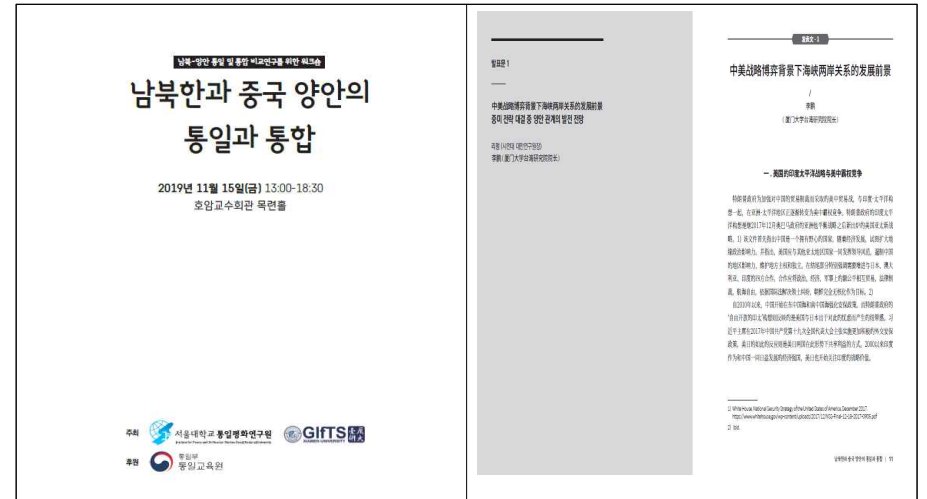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일찍부터 중국 양안관계와 남북관계의 비교연구 및 상호 교류에 대해 노력을 경주해 왔음. 2015년 1월에 샤먼대학 대만연구원을 방문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고 양안 접경지대(샤먼-진먼) 일대를 연구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며 그 성과물이 『양안에서 통일과 평화를 생각하다』(박명규 백지운 편, 진인진, 2016, 학술원우수도서 선정)로 출간된 바 있음. 본 연구사업은 이같은 기존의 연구사업의 일환이자 확장을 기한 것으로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샤먼대 대만연구원간의 '남북한-양안의 통일과 통합 비교 연구' 라는 안정된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2019년 1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샤먼대 대만연구원은 정기적 심포지엄 개최, 접경지역 학생 공동답사, 연구진 및 학생 교환 등을 내용으로 한 MoU를 체결.
- 양 기관 간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학술 심포지엄 개최 및 답사 활동을 통해 중국 양안과 한반도 통일/통합 교육을 위한 상호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중국의 양안통일평화정책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사업으로서 중국의 교육부와 국무원 등 주요부처에서 정책과 교육,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분야임. 양안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 대학교육에 연구와 교육의 시스템화를 위한 중국 정부 및 주요 거점 대학인 샤먼대학의 성과에 대한 기초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남북한과 양안의 비교 연구를 더 구체화하고 심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함. (연구보고서 「양안(兩岸)의 통일/통합에 관한 고등교육의 현황 및 전망과 한반도 통일평화 교육에 주는 시사점」 제출)

⑤ 관련 자료

○ 포스터 및 플래카드



○ 자료집 및 연구보고서 샘플



○ 사진



연구보고서

목 차

양안(兩岸)의 통일/통합에 관한 고등교육의
현황 및 전망과 한반도 통일평화 교육에 주는
 시사점

연구과제명:

남북-양안 통일의식 및 통일교육 모델 비교연구

연구책임자: 박지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EHK 교수)
공동연구원: WU Chun Fuang (대만 진먼대학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12. 12

- 제1장. 중국의 '양안 통일평화사상'의 역사개보
 - 제1절. 중국 정부의 통일관선 정책: 영 사료명에서 시
인명까지
 - 제2절. 양안 평화통일 사명
 - 제3절. 애국주의 교육과 통일관선 학자의 결집
- 제2장. 통일평화 교육의 거점: 사관대학 대안연구원
 - 제1절. 설립, 조직구성, 연구분야
 - 제2절. 교수진, 학생, 커리큘럼
 - 제3절. 양안 평화통일의 사상연구
- 제3장. 통일평화 교육의 제도적 통합과 교류거기서 살펴
 - 제1절. 양안관계개발발전협력총중심센터의 설립
 - 제2절. 양안관계 평화합력을 위한 교육훈련 거기
- 제4장. 양안 통일평화 교육의 한반도에 대한 함의

[3] 통일교육 교재개발 1 (이찬수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① 연구 목적

- 통일교육선도대학의 취지 확산을 위해 대학 1학년 및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어울리는 통일 및 평화 관련 대중적 단행본을 출판해 널리 보급한다.
- 평화를 원하는 이는 많지만, 평화는 없다. 저마다 평화마저 자기에 유리한 평화를 상상하고 구체화시키려 들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전쟁까지 벌어진다. 이 사업에서는 세계적으로 분쟁이나 전쟁은 왜 벌어지고 있는지, 분쟁을 넘어 화해와 통일로 가는 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 단행본으로 출판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의 대중적 기초로 삼는다.
- 한반도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평화 체제로 가는 길에 대해 모색하는 단행본을 출판한다. 특히 대학 1학년 및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어울리는 대중적 단행본을 출판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이해와 평화에 대한 감성을 확대시키는 기회로 삼는다.

② 운영 개요 및 운영 계획

날짜	추진내용
2019년 3월	2018년 평화아카데미 강연자 7인에게 요청해, 강연 원고를 단행본 취지에 맞게 재편집해서 3월까지 원고를 완성한다.
2019년 4~5월	전문 편집자를 섭외해 모두 7편의 원고에 대한 교정, 교열, 윤문, 편집을 진행한다.
2019년 6월	연구책임자, 실무 편집자, 출판사(모시는사람들)와 긴밀히 소통하며 단행본 출판을 위한 준비를 한다.
2019년 7월	7월 20일까지 <세계의 분쟁: 평화라는 이름의 폭력들>을 1000부를 출판한다.

③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 과정

- 당초의 사업 목적과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세계의 분쟁: 평화라는 이름의 폭력들>이라는 제목의 단행본 출간을 추진하였다.
- 출간한 책은 통일 분야 연구자에게 두루 보급해서 통일문화의 확산이라는 원래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교재는 2019 통일부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이라는 내용의 사사표기를 달았다.
- 주 내용은 한반도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 무엇보다 평화적 감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세계적 차원에서 전쟁이나 분쟁은 왜 벌어지는데, 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사례들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동안 세계에서 벌어진 분쟁의 양상과 분쟁 종식의 과정을 다룬 7가지 사례를 주로 다루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분쟁의 심층: 정체성 갈등과 평화의 논리(이찬수)
- ② 국제사회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홍미정)
- ③ 21세기 최악의 참극, 시리아전쟁(김재명)
- ④ 평화를 꿈꾸며: 다큐멘터리 피디가 바라보 전쟁(김영미)
- ⑤ 포스트소비에트 지역 분쟁: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문영)
- ⑥ 보스니아 내전, 냉전 종식이 불러온 새로운 전쟁(김철민)
- ⑦ 아일랜드 섬 평화협정 20년: 한반도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구갑우)

위 글은 모두 통일과 평화를 지향하는 한반도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어울리며 한반도가 분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글들이라고 생각된다.

④ 연구 성과 및 기대효과

□ 정량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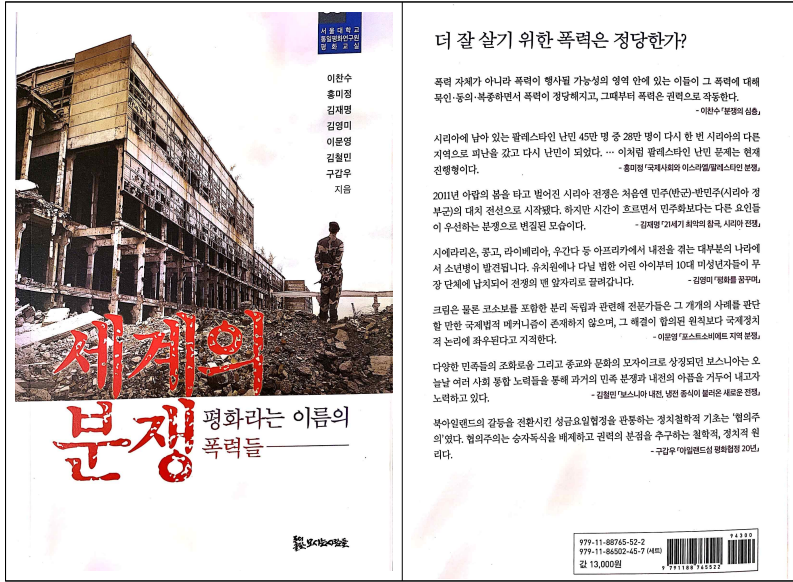
- 당초의 사업 목적과 계획에 따라 출판을 진행해서 <세계의 분쟁: 평화라는 이름의 폭력들> 1,000부를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에서 2019년 7월 31일자로 출판했다.

□ 정성 평가

- 원래의 계획 및 일정에 맞추어 소기의 목적대로 대중을 위한 평화 강의 교재를 출판했다. 흔히 ‘통일’을 정치적 차원의 체제 통합으로, 그것도 단박에 이루어지는 사건처럼 상상하다보니, 통일은 비현실적이거나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통일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사회, 문화적으로도 동질감이 커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대립으로 인한 기존의 갈등의 원인을 특정세력이나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상호 이해를 통해 똑같은 갈등을 반복하지 않는 일이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져온 분쟁들은 어떤 사태를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면서 갈등의 원인을 타자에게 전가시키면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분쟁의 원인, 경과, 결과를 정리해보면, 남북한의 화해와 한반도의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지도 잘 드러난다.
- 이 책은 한반도의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세계에서 벌어져온 분쟁의 원인과 현상과 결과와 의미 등을 사례별로 정리한 책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교재이다. 실제로 이 책은 출판한 뒤 바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동태평화학교’ 수강생들을 위한 독서교재로 사용되었다. 세계의 분쟁 사례 및 정체성 갈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한반도의 상황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게 되었다는 학생들의 반응도 제법 많았다. 이 책은 평화적 감성에 기반한 통일교육교재라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크다.

⑤ 관련 자료

○ 단행본 샘플



[4] 통일교육 교재개발 2 (박성춘 윤리교육과 교수)

① 연구 목적

-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통일 담론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분석을 통한 새로운 접근 및 개념 정립을 목적으로 함.
- 통일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을 통하여 기존 통일교육의 한계를 어려움 제시하며 통일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함.

② 운영 개요 및 운영 계획

-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통일교재의 개발을 다음과 같이 계획함.
 -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른 학교 및 공공기관 통일교육 실태 파악
 - 기존의 통일교육의 한계에 따른 새로운 접근법의 교재 개발 방향 정립
 -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교육 적용 방법 연구

③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 과정

기간	추진내용
3월~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과 개념으로 보는 통일교육> 동영상 강의의 기초한 초안 작업 • 출판사 컨택 및 기획 방향 협의회 : 동영상 강의 교재로 활용
5월~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차(가안) 완성 • 챕터별 내용 구성 •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선별 • 현직 교사들의 실제적인 교육방안 자문
7월~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보고서 제출 • 하반기 교재 개발 방향 계획 • 챕터별 지도안 개발 방향 계획 • 지도안 개발 및 수업 실연할 교사 섭외 방향 계획
9월~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제목과 목차 수정 • 개발진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원고 수정 • 자료수집 및 글쓰기를 위한 역할 분배 • 지속적인 원고 공유 및 피드백을 통한 수정
11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예산 마무리 • 결과보고서 작성 • 원고 초안을 토대로 한 발전 방안 논의

④ 연구 성과 및 기대효과

○ 기존에 주입식 강의로 이루어진 대다수 통일교육 현실에 대한 반성과 학생들 스스로 통일에 대한 질문과 생각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교육방법 고안.

○ 교육부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정중심 평가’와 수행평가 실시 방안 마련.

교재 목차	
I. 우리는 통일을 생각할까요?	
1. 통일 담론의 부재	
2.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 질문들	
3. “통일, 한 번 들여다보자!”	
II. 통일을 해야 할까요?	
1.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2. 과거, 현재, 미래 세대를 위한 통일 평화	
3. “내일의 통일을 JOB하라”	
III. 남북한 사람들은 함께 잘 살 수 있을까요?	
1. 사람통일	
2. 탈북민과의 대화	
3. “개성공단 개나리씨의 통일 연습”	
IV. 독일 통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1. 역사적 사실로 다가온 통일	
2. 독일의 통일과 통합에 대한 대화	
3. “동독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려보는 독일 통일”	
V. 통일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통일정책이 아닌 교육적 원칙의 강조	
2. 통일교육 교육과정의 체계화	
3. “One Korea로 여행 떠나요. OK?”	

○ 최종적으로 교재 <질문과 개념으로 보는 통일교육> 작성을 위한 8개 챕터 100쪽 분량의 유튜브(Youtube) 강의 원고를 완성했으며, 2020년 연내에 출판할 예정이다.

⑤ 관련 자료

○ 최종 교재 원고 샘플

1. 수업 개요		2. 수업 전개																			
수업 시간	총 2차시, 한 차시 당 2교시로 구성	수업	교사를 컴퓨터, 프로젝터 혹은 모니터, 합동기, 도화지, 바인더, 색필립, 3차 포스트잇, 스티커, 학생용 태블릿 혹은 노트북 6대																		
강사명	장소	수업 준비물																			
수업명	통일 한 번 들여다보자!	수업 소개	통일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하며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수업이다. 브레인 스토밍, 신로움 토론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동시에 학생들이 더 쉽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 강습식 단계로 보면 학생들은 원래 1단계 혹은 2단계가 가능하다. 학생들은 수업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갖고 있었던 편견에 대해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자신만의 주장과 근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단 시간 안에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만,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가지므로써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의 문제로 생각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수업 주제	통일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나누고 학습하며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근거를 만든다. 통일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들을 알아보고 학생들이 자신의 편견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수업 흐름도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활동 내용</th> <th>시간</th> </tr> </thead> <tbody> <tr> <td>1 1차시 1차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 나누기(브레인스토밍) -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작성, 반대, 무관심, 흥미라고 그 이유 쓰기 </td> <td>45분</td> </tr> <tr> <td>2 2차시 2차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찬성/반대하는 이유를 반대해보기 - 통일에 찬성함과 통일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토론활동을 통해 발표하기 </td> <td>45분</td> </tr> <tr> <td>3 3차시 3차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대한 나뉘어 나온 통일에 대한 생각을 점검해보기 - 모둠끼리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토의하기 </td> <td>45분</td> </tr> <tr> <td>4 4차시 4차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3단계 알아보기 - 학생들의 생각 다시 물어보기(반대편/투표) </td> <td>25분</td> </tr> <tr> <td>5 5차시 5차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대한 자신의 주장 정리하고, 그 근거 세우기 - 내가 생각하는 통일이란? 한 문장 쓰기 </td> <td>20분</td> </tr> </tbody> </table>	단계	활동 내용	시간	1 1차시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 나누기(브레인스토밍) -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작성, 반대, 무관심, 흥미라고 그 이유 쓰기 	45분	2 2차시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찬성/반대하는 이유를 반대해보기 - 통일에 찬성함과 통일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토론활동을 통해 발표하기 	45분	3 3차시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대한 나뉘어 나온 통일에 대한 생각을 점검해보기 - 모둠끼리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토의하기 	45분	4 4차시 4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3단계 알아보기 - 학생들의 생각 다시 물어보기(반대편/투표) 	25분	5 5차시 5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대한 자신의 주장 정리하고, 그 근거 세우기 - 내가 생각하는 통일이란? 한 문장 쓰기 	20분
단계	활동 내용	시간																			
1 1차시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 나누기(브레인스토밍) -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작성, 반대, 무관심, 흥미라고 그 이유 쓰기 	45분																			
2 2차시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찬성/반대하는 이유를 반대해보기 - 통일에 찬성함과 통일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토론활동을 통해 발표하기 	45분																			
3 3차시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대한 나뉘어 나온 통일에 대한 생각을 점검해보기 - 모둠끼리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토의하기 	45분																			
4 4차시 4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3단계 알아보기 - 학생들의 생각 다시 물어보기(반대편/투표) 	25분																			
5 5차시 5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대한 자신의 주장 정리하고, 그 근거 세우기 - 내가 생각하는 통일이란? 한 문장 쓰기 	20분																			
주제 선정 이유	다부종의 학생들은 통일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제제를 통해서만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다 보니 자신의 주장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친구들과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조별 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편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은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자신만의 주장과 근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단 시간 안에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만,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가지므로써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의 문제로 생각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수업 목표	<table border="1"> <thead> <tr> <th>목표</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자신의 주장이 뚜렷하게 없는 상태 - 이해를 통해서만 통일을 접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보다는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높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보며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세울 수 있다 - 이해를 통해 통일을 접하며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자신의 생각에 적용시킬 수 있다 </td> </tr> </tbody> </table>	목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자신의 주장이 뚜렷하게 없는 상태 - 이해를 통해서만 통일을 접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보다는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높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보며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세울 수 있다 - 이해를 통해 통일을 접하며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자신의 생각에 적용시킬 수 있다 														
목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자신의 주장이 뚜렷하게 없는 상태 - 이해를 통해서만 통일을 접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보다는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높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보며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세울 수 있다 - 이해를 통해 통일을 접하며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자신의 생각에 적용시킬 수 있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자신의 주장이 뚜렷하게 없는 상태 - 이해를 통해서만 통일을 접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보다는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높 	핵심 질문과 생각	<table border="1"> <thead> <tr> <th>질문</th> <th>통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입장을 갖는가?</th> </tr> </thead> <tbody> <tr> <td>생각 또는 개념</td> <td>통일, 편견, 고정관념, 주장, 근거, 토론, 문화 간 갈수록</td> </tr> </tbody> </table>	질문	통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입장을 갖는가?	생각 또는 개념	통일, 편견, 고정관념, 주장, 근거, 토론, 문화 간 갈수록														
질문	통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입장을 갖는가?																				
생각 또는 개념	통일, 편견, 고정관념, 주장, 근거, 토론, 문화 간 갈수록																				

2단계 VR교과 조립 및 명 설치

수업의 주안점

- 한편도 지역을 가상의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간지를 이용하여 제작한 것이 VR교과 체험을 통하여 확산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콘텐츠 이용을 장려합니다.

수업의 흐름

VR교과 조립 및 명 설치

<구글 스트리트뷰 앱> <알라딘 VR교과 체험>

VR(Virtual Reality) 교과는 가상현실보다 현실감 있게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이다. 또한 3D 인경과 같은 약적으로 2개의 눈만을 통해 입체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앱 (구글 스트리트뷰)은 전세계 여러 나라의 지역을 360° 입체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는 컨텐트 서버, 직접 가볼 수 없는 여러 곳을 가상현실 체험으로 경험할 수 있다.

VR 교과 조립

136

VR교과 조립 및 명 설치

VR(Virtual Reality) 교과는 가상현실보다 현실감 있게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이다. 또한 3D 인경과 같은 약적으로 2개의 눈만을 통해 입체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앱 (구글 스트리트뷰)은 전세계 여러 나라의 지역을 360° 입체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는 컨텐트 서버, 직접 가볼 수 없는 여러 곳을 가상현실 체험으로 경험할 수 있다.

VR 교과 조립

137

3단계 VR 고글 체험하기

수업의 주요점

- VR고글로 한반도의 형하는 지역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 아라 고글을 착용하여 한반도를 하여 고사는 학생들을 도와주도록 합니다.

수업의 흐름

지도에서 한반도 지역 살펴보기 → VR고글을 착용하여 한반도 지역을 살펴보기 → VR고글을 착용하여 한반도 지역을 살펴보기

이해 검역결과 스크린 → 검역결과 8개교 선택 → 고글머리 클러 및 분량형 디스플레이

■ VR고글로 각자 탐색하고 활동지2 작성하기

- 발간: 정으로 표시된 곳이 전 세계인들이 해당 지역을 여행하고 사진을 올린 지역입니다.
- 지역에 따라 구글스트리트뷰에 탑재된 사진의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 보고 싶은 지역을 VR고글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본 곳과 다른 국가 정보를 알면 더 재미있어서 찾아 보세요.
- 같이 볼 도시나 관광지를 찾아서 다른 국가를 여행 할동작이 재미있어서.
- VR고글을 착용 시 3D체험을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자전스탑을 걸어다니면서 활동하도록 합니다.

찾아본 장소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나요?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노벨인 에피소드나요?
1			
2			
3			
4			
5			

[5] 서울대 통일교육 선도대학 평가와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 (박수진 지리학과 교수)

① 연구 목적

- 통일교육선도대학 1기 사업에 참여하여 2016-2019년 4년간 수행해온 통일평화교육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를 통해, 향후 서울대 통일평화교육의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대학의 통일교육에서 서울대의 역할에 대한 방향을 모색함.

② 운영 개요 및 운영 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사업 기간: 2019년 8월 1일 ~ 2019년 12월 30일
- 연구 인력: 박수진(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박수용(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김범수(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민은경(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 사업 추진 일정

일 정	사업 추진 내용
2019년 8월-9월	연구진 확정 및 연구 방법론 및 역할 분담 확립
2019년 10월-11월	통일교육선도대학 연구 및 교육 책임자 심층 인터뷰 및 데이터 수집
2019년 11월	데이터 및 인터뷰 내용 분석 및 보고서 작성
2019년 12월	보고서 제출 및 정산

○ 사업달성 목표

- ① 서울대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지난 4년 사업 내용의 개요와 연도별 성과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
 - 사업 성과에 대한 양적 평가 개괄적 정리
- ② 심층 인터뷰를 통한 심화 평가
 - 4년간 서울대 통일교육 사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한 연구 및 교육 책임자들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이 사업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각 연구자의 전공 지식 및 교육 경험에 기초하여 다각적으로 분석.
- ③ 향후 서울대 통일평화교육의 발전 방안 모색
 - 서울대는 2020년 3월을 개강으로 통일평화화 협동과정을 준비하는 등 통일평화교육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에, 통일평화화 협동과정과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이 결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장기적 교육 방향을 수립.

4단계 의견 나누고 조절하기

수업의 주요점

- 자신의 의견과 주장하거나 할일이 수동적으로 참여 있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모든 모둠원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업의 흐름

모둠 활동

- 각각 VR고글로 체험하고 작성한 활동지 2 표 모둠원끼리 의견을 나눕니다.
- 모둠원들끼리 같이 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하고 여행할 장소 다섯 곳을 선택합니다.
- 식사는 관광지의 대표 음식을 두 개 이상 선택합니다.
- 비부원 One Korea 여행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여행할 도시의 위치를 비부원 활동지3 한반도 지도에 표시합니다.
- 한 모둠에서 제출할 결과물은 여행계획서 1매, 여행지가 표시된 한반도 지도 1매 (활동지3)입니다.

< 한반도 여행지 소개 지도 예시 >

논의, 표의하기, 카드보드지, 포스트잇을 사용하여

5단계 모둠발표 및 정리활동

수업의 주요점

- 모든 발표 시 모두 청취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모든 모둠원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업의 흐름

모듬발표

- 모듬발표활동 : 교사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각 모듬원에게 발표의 기회를 줍니다.
- 모든 모듬원이 교실 앞으로 나옵니다. 발표자는 자기 모듬활동을 소개하고 결과물을 보면서 활동내용을 발표합니다.
- 발표 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전체회의 및 평가활동

- 질의응답 : 교사는 전체 학생에게 질의응답 시간을 주고 종합 정리는 안토를 한다.
- 오늘 한반도 가상여행 수업시간을 기쁘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공급한 내용이 있으면 물론 하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 모듬 선정 및 시상 : 자신이 속한 모듬 외의 모듬을 평가합니다.

③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 과정

□ 시기별 추진

일 정	사업 추진 내용
2019년 8월-10월	연구진 확정 및 연구 방법론 및 역할 분담 확립
2019년 11월	통일교육선도대학 연구 및 교육 책임자 심층 인터뷰 및 데이터 수집
2019년 12월	데이터 및 인터뷰 내용 분석 및 보고서 작성
2019년 12월	보고서 제출 및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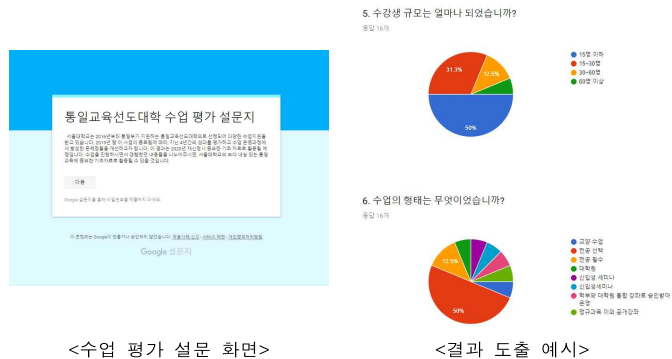
□ 세부 추진내용

○ 1차 간담회 및 심층 인터뷰

- 회의명 : 『서울대 통일교육선도대학평가와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 간담회
- 일시/장소 : '19. 11. 4(월) 12:00-14:30/호암교수회관
- 참석자 : 박수진 교수 등 11명
- * 심층 인터뷰 대상: 정근식(사회학과), 방민호(국어국문학과), 박성춘(윤리교육과) 교수
- 회의내용
 - 본 사업 소개 및 회의 안건 소개(사업 참여진)
 - 통일교육선도대학의 사업 경과, 사업 수립시 최초 모델에 대한 자문(정근식 교수)
 - 통일교육선도대학의 새로운 모델 및 발전방향(그 외 사업참여자)
 - “통일교육선도대학 수업 평가 설문지” 개선사항(박성춘, 방민호 교수)

○ 통일교육선도대학 통일관련 강좌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책임자(강사) 대상 설문조사 진행

- 일시 : '19. 11. 18(월)-12.18(수)
- 방법 : 구글 설문지 플랫폼을 통해 진행
 - 링크 : <https://forms.gle/MyQNarEjmc2KsY8u8> (* 현재는 설문 폐쇄)
 - 비교적 설문 참여가 용이하고, 결과의 정리와 분석이 용이하여 해당 플랫폼 사용



- 설문내용

- 지원 동기 :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에 지원한 동기
- 수업 현황 : 지원강좌 현황, 통일교육선도대학하고 연관성, 강의 속성, 교수법, 기대효과 등
- 만족도 : 통일교육선도대학 지원이 수업에 끼친 영향
- 문제점 : 통일교육선도대학을 통한 강의지원의 문제점
- 개선 방안 : 서울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의 발전방향

○ 설문조사 참여 독려 및 추가 의견청취

- 회의명 : 『서울대 통일교육선도대학평가와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참여자 의견청취 회의
- 일시/장소 : '19. 12. 2(월) 18:30-21:00/용산역 “기와”
- 참석자 : 박수진 교수 등 23명
- 회의내용
 - 설문조사에 대한 소개 및 방법 설명
 - 설문조사 응답내용에 대한 응답자들의 세부 의견 청취
 - 설문조사에는 담기 어려웠던 통일교육선도대학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
 - 기타 사업진행에 대한 논의

○ 추가 회의 및 심층 인터뷰

- 회의명 : 『서울대 통일교육선도대학평가와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 외부인력 의견청취 회의
- 일시/장소 : '19. 12. 5(목) 18:00/20:00
- 참석자 : 박수진 교수 등 13명
- * 심층 인터뷰 대상 조중희(북방연구회 사무처장) 포함
- 회의내용
 - 통일교육선도대학(2016-2019) 관련 학교 외 관계자 의견 청취
 - (사) 북방연구회 조중희 선생(탈북자 출신)의 “북한의 도시” 및 북한 생활 관련 강의 내용 청취 및 의견 공유
 - 북한관련 연구·교육을 다수 수행한 타 교 명예교수(한국교원대학교 이민부 교수) 의견 청취
 - 기타 사업진행에 대한 논의

④ 연구 성과 및 기대효과

- 성공적인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 자료 수집 수행 : 3분의 2 이상의 참여자의 의견 청취 및 자료 수집

- 정량적 평가내용 :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의 효과성 및 교원·학생의 만족도 등
- 정성적 평가내용 : 사업참여 동기, 성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등
- 대상 : 총 41개 강좌 21명의 교수, 2명의 강사진 중 16명의 교수·강사(31개 강좌 해당)이 응답하였으며, 현황은 아래와 같음

사업정보				강좌정보				
소속	사업책임자	연도	통일교육선도대학 과제명	과정	구분	교과목명	학기	담당교수
자유전공학부	김범수	2017	통일평화관련 신입생세미나	학사	교양	신입생세미나	1	김범수
		2017	현장연계형 통일평화 교과목 연구개발 (일본의 전쟁과 평화)	학사	전선	주제탐구세미나4	W	김범수
		2019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주제심화프로젝트1>	학사	전선	주제심화프로젝트1	1	김범수
		2019	DMZ 대학생 평화답사 <전공설계1>	학사	전필	전공설계1	1	김범수
국제대학원	김병로	2019	북한의 사회와 문화	대학원	전선	북한세미나(북한의 사회와 문화)	1	김병로
지리학과	김용창	2017	북한 지역연구 강의개발	학사	전선	북한지역연구특강	2	허정화
국어교육과	민현식	2019	탈북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어과 통일교육론	대학원	전선	통일 시대 국어교육 연구	2	민현식
윤리교육과	박성춘	2018	북한학개론	학사	교양	북한학개론	1	배영애
		2018	북한학개론	학사	교양	북한학개론	1	배영애
		2018	통일교육론	학사	전선	통일교육론	1	박성춘
		2018	통일교육연구방법론	대학원	전선	통일교육 연구방법론	1	박성춘
		2018	북한학개론	학사	교양	북한학개론	2	배영애
		2018	북한학개론	학사	교양	북한학개론	2	배영애
		2018	통일교육론	학사	전선	통일문제연구	2	박성춘
국제대학원	박태균	2016	연변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통일교육	대학원	전선	한국의 역사(한국근현대사)	2	박태균
정치외교학부	송지우	2017	글로벌리더십: 기후정의와 인권	학사	전선	글로벌 리더십 연습	1	송지우
의과대학 농경제사 회학부	신희영	2018	통일의료	학사	전선	통일의료	2	신희영
정치외교학부	안동환	2019	신입생세미나: 접경지역 개발의 이해	학사	교양	신입생세미나	2	안동환
	이옥연	2017	연방주의 비교연구: 통합·분리	대학원	전선	연방주의비교연구(분리와 통합)	1	이옥연

사업정보				강좌정보				
소속	사업책임자	연도	통일교육선도대학 과제명	과정	구분	교과목명	학기	담당교수
			사례(대학원)					
법과대학	이효원	2017	북한법 강좌(전공)	대학원	전선	북한법	1	이효원
		2018	공법1 헌법과 정치제도	대학원	전선	공법1 (헌법과정치제도)	1	이효원
정치외교학부	임경훈	2019	북한정치연구	대학원	전선	북한정치연구	1	임경훈
		2019	현대정치특강: 북한정치 심화 연구	대학원	전선	현대정치특강 (북한정치심화연구)	2	임경훈
사회학과	정근식	2017	통일평화관련 신입생세미나	학사	교양	신입생세미나	1	정근식
		2018	영상사회학	학사	전선	영상사회학	1	정근식
		2018	문화사회학	학사	전선	문화사회학	2	정근식
		2019	민족사회학과 북한연구	학사	전선	민족사회학과 북한연구	2	정근식
		2019	접경지역 평화사회학 공동 강의 및 체험학습	학사	전공	사회학특강	S	정근식
정치외교학부	조동준	2017	통일평화관련 신입생세미나	학사	교양	신입생세미나	2	조동준
		2018	신입생세미나-다큐멘 타리로 보는 통일	학사	교양	신입생세미나	2	조동준
인문학 연구원	홍종욱	2019	동아시아비교인문학	학사	전선	동아시아 비교인문학 특강	2	홍종욱

- 지난 4년간의 통일교육선도대학 각 사업의 결과보고서 수집, 분석
- 통일교육선도대학 교과지원 사업 및 통일관련 타 교과목의 강의평가자료 수집
 - 본부 교무과 협조를 바탕으로 진행
 - 2016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2019년 2학기는 자료수집이 되지 않음)
 - 통일교육선도대학 교과지원 사업 강좌(42과목), 북한 관련 통일관련 강좌(53개 과목, 이 중 전 자와는 30과목 일치)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 수집

○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 평가와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 이를 바탕으로 통일교육선도대학 2차 사업 응모의 기반이 되는 개선 방향 및 발전 계획 수립 및 서울대학교 통일·평화교육의 장기적인 발전방안 수립
 - 기 추진되고 있는 통일관련 교육과정(대학원 통일평화 협동과정) 및 통일관련 교과목(기초교육원 교양과목 개발 등)과 연계방안 모색

- 통일 및 평화 교육 선도 학문후속세대 양성방안 수립

- 연구보고서 목차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II. 서울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및 경과
2. 사업 목적 및 방향
3. 사업 공모·선정 및 성과관리
4. 사업 지원 내용
III.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성 분석
1. 연구 방법
2. 수강학생들의 수강 후 만족도와 장단점 비교
3. 강의 및 교육과정 개설자의 만족도와 개선점 추출
IV.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 발전방안
1. 교육적 측면
2. 행정적 측면
3. 기존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 분석
V. 요약 및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2. 발전방안

- 연구보고서 샘플

<p>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p> <p>1. 연구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는 2016년 3월 통일부가 주관하는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의 참여대학으로 선정되어 지난 4년 간 통일평화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다양한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을 운영 □ 2018년부터 시작한 제1기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은 2019년 종료 예정이며 2020년부터 제2기 사업이 채용계 추진될 예정임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지난 4년 간 제1기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을 수행하여 거둔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제2기 사업을 평가하고 서울대학교의 통일·평화 교육 프로그램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제2기 사업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2기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 공모 준비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p>2. 연구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관하여 2016년 이후 지난 4년 간 수행해온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 교육의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통일·평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평화 시대를 대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서울대학교의 비합리적 역할을 모색해고자 함 	<p>4. 사업 지원 내용</p> <p>1) 사업 지원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교육 보충 연구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 및 전공교육에서 활용할 통일교육 보충 연구개발 지원 ○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통일교육 강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통일역시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강좌 운영 ○ 구체적인 강좌 운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통일교육 보충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가 연구개발한 통일 교육 모델 확산 지원 ○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p>2) 연도별 사업 지원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서울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원 사업 <table border="1"> <thead> <tr> <th>단위사업</th> <th>세부사업</th> <th>사업 주제</th> <th>참여 인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안재양상사업</td> <td>홍익법 강좌</td> <td>한법 통일법 센터</td> <td>15명</td> </tr> <tr> <td>홍익차리원기문 혁신사업</td> <td>차리원 대학 공</td> <td>10명</td> </tr> <tr> <td rowspan="2">학위논문지원</td> <td>학위논문지원</td> <td>홍익논문지원</td> <td>8명</td> </tr> <tr> <td>남북 장애인 체육활동 비교연구</td> <td>사범대 체육교육과</td> <td>2명</td> </tr> <tr> <td>학술연구지원</td> <td>북한내부 경제교육 실태조사</td> <td>자유전공학부</td> <td>5명</td> </tr> </tbody> </table>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주제	참여 인원	안재양상사업	홍익법 강좌	한법 통일법 센터	15명	홍익차리원기문 혁신사업	차리원 대학 공	10명	학위논문지원	학위논문지원	홍익논문지원	8명	남북 장애인 체육활동 비교연구	사범대 체육교육과	2명	학술연구지원	북한내부 경제교육 실태조사	자유전공학부	5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주제	참여 인원																				
안재양상사업	홍익법 강좌	한법 통일법 센터	15명																				
	홍익차리원기문 혁신사업	차리원 대학 공	10명																				
학위논문지원	학위논문지원	홍익논문지원	8명																				
	남북 장애인 체육활동 비교연구	사범대 체육교육과	2명																				
학술연구지원	북한내부 경제교육 실태조사	자유전공학부	5명																				

□ 통일교육 강좌 운영: 교과

번호	단위사업	담당자
1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교수)
2	DMZ 대학생 평화답사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교수)
3	북한정치 연구	임경훈 (정치학과 교수)
4	현대정치학 특강 북한정치 심화연구	임경훈 (정치학과 교수)
5	북한의 사회와 문화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6	탈북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어과 통일교육론	민현식 (국어교육과 교수)
7	북한지역연구 특강	박수진 (지리학과 교수)
8	동아시아 비교인문학	홍종욱 (인문학연구소 교수)
9	신입생세미나: 북한지역과 한국현대문학	방민호 (국어국문학과 교수)
10	신입생세미나: 접경지역 개발의 이해	안동환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11	접경지역 평화 사회학 공동강의 및 체험학습	정근식 (사회학과 교수)
12	민족사회학과 북한연구	정근식 (사회학과 교수)

[1]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교수)

① 사업 목적

- 통일평화 관련 교과목 개설 및 운영
-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통일평화 감수성 제고 및 사회적 확산
- 통일과 남북한 화해공존을 대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

② 강좌 개요

- 개최학기 및 소속 학과: 2019년 1학기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 학점 및 성적 부여 방식: 3학점 / A-F 방식

③ 강좌 내용

- 주차별 강좌내용

주차 (일자)	강의 주제	강사 명	강사 소속
제1주 3월 4일	과목 소개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제2주 3월 11일	태평양전쟁의 역사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제3주 3월 18일	조선과 태평양전쟁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제4주 3월 25일	태평양전쟁의 기억과 표상1: 일본	김상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제5주 4월 1일	태평양전쟁의 기억과 표상2: 한국 vs. 일본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제6주 4월 8일	한국전쟁의 역사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제7주 4월 15일	신문으로 읽는 한국전쟁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제8주 4월 27일	전쟁기념관이 표상하는 한국전쟁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제9주 4월 29일	영화로 보는 한국전쟁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제10주 5월 6일	이미지로 표상된 한국전쟁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제11주 5월 13일	팀 프로젝트 프로포잘 발표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제12주 5월 20일	DMZ에 표상된 한국전쟁 / 북한과 한국정치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제13주 5월 25~26일	<현장학습> DMZ에서 경험하는 한국전쟁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제14주 5월 27일	베트남 전쟁의 기억과 표상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제15주 6월 3일	프로젝트 수행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제16주 6월 10일	팀 프로젝트 최종 발표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 주차별 세부내용

주차	세부내용
제1주 3월 4일	과목 소개, 강의 안내와 일정, 평가방법, 주의사항
제2주 3월 11일	태평양전쟁의 원인, 경과, 결과에 대해 강의
제3주 3월 18일	국민총동원령, 강제징용, 징병 등을 주제로 조선인이 경험한 태평양 전쟁에 대해 강의
제4주 3월 25일	일본 사회는 태평양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표상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의
제5주 4월 1일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는 태평양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표상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학생 발표
제6주 4월 8일	한국전쟁의 원인, 경과 결과에 대해 강의
제7주 4월 15일	1950~53년 당시 신문기사를 자료로 한국전쟁에 대해 강의
제8주 4월 27일	용산전쟁기념관 현장학습
제9주 4월 29일	추상미 감독이 제작한 영화 <플란다르 간 아이들>을 함께 감상한 후 추상미 감독과 한국전쟁의 잊혀진 기억들에 대해 논의함
제10주 5월 6일	한국전쟁과 분단, 평화는 한국 사회에 어떠한 이미지로 표상되고 있는지 용산전쟁기념관의 전시물을 중심으로 학생 발표
제11주 5월 13일	학기말 팀 프로젝트 발표
제12주 5월 20일	한국전쟁이 남긴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시도는 어떠한 이미지로 표상되는가, 평화와 통일은 한국 사회에 어떠한 이미지로 표상되는가 등을 주제로 강의
제13주 5월 25~26일	파주 임진각, 도라산역, 도라산전망대, 제3땅굴, 오두산전망대 등 답사
제14주 5월 27일	베트남의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구수정 한베재단 이사 특강 실시
제15주 6월 3일	팀 프로젝트 수행
제16주 6월 10일	팀 프로젝트 최종 발표 망각된 존재, 민간인 지뢰 피해자 이야기: 인터뷰를 통해 민간인 지뢰 피해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논의 기억의 재생산: 한국전쟁 당시 만주에서 피난 내려와 한국에 정착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 사각지대에 놓인 여인들: 전쟁미망인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전쟁의 참상과 기억을 재조명하는 애니메이션 제작 지워진 사람들: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에 거주하다 인천상륙작전으로 고향을 떠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

○ 전체 수업 수강생 명단

번호	성명	학년	소속(단과대/학과)	비고
1	이병재	4	자유전공학부	
2	강현욱	4	자유전공학부	
3	강형민	4	자유전공학부	
4	손소원	4	자유전공학부	
5	유은식	4	자유전공학부	
6	고현형	4	자유전공학부	
7	오성원	4	자유전공학부	
8	서지원	4	자유전공학부	
9	이상현	3	자유전공학부	
10	박선정	3	자유전공학부	
11	윤지민	3	자유전공학부	
12	윤재석	3	자유전공학부	
13	최은수	2	자유전공학부	
14	임혜인	2	자유전공학부	
15	강병주	4	자유전공학부	드림/청강
16	신하일	3	자유전공학부	드림/청강
17	김민지	2	자유전공학부	드림/청강
18	선우다빈	2	자유전공학부	드림/청강

○ 답사 참여 수강생 명단

번호	성명	학년	소속(단과대/학과)	비고
1	이병재	4	자유전공학부	
2	강현욱	4	자유전공학부	
3	강형민	4	자유전공학부	
4	손소원	4	자유전공학부	
5	유은식	4	자유전공학부	
6	고현형	4	자유전공학부	
7	오성원	4	자유전공학부	
8	서지원	4	자유전공학부	
9	이상현	3	자유전공학부	
10	박선정	3	자유전공학부	
11	윤지민	3	자유전공학부	
12	윤재석	3	자유전공학부	
13	최은수	2	자유전공학부	
14	임혜인	2	자유전공학부	

④ 사업 성과

- 학생들의 통일평화 감수성 제고에 기여
- 통일과 남북한 화해공존을 대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

□ 정량 평가(설문조사와 강의평가를 기반으로 작성)

1) 강의평가 (4점: 매우 만족/필요, 1점: 불만족/불필요)

- Q1. 이 강의가 통일, 평화, 북한 문제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 9명, 조금 도움 5명으로 평균 **3.64**점.
- Q2. 이 강의를 통해 통일, 평화, 북한 문제에 대한 귀하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 7명, 조금 도움 6명, 별로 도움 되지 않은 1명으로 평균 **3.43**점.
- Q3. 이러한 강의가 대학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 9명, 조금 필요 5명으로 평균 **3.64**점.
- Q4. 이 강의를 주변 분들에게 추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적극 추천 의향 있음 9명, 권유할 의향 있음 5명으로 평균 **3.64**점.
- Q5. 강의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다?
매우 만족 10명, 조금 만족 4명으로 평균 **3.71**점.

2) 용산 전쟁기념관 답사 설문조사

- Q1. 이번 현장학습이 통일, 평화, 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3명, 조금 도움이 된다 8명, 별로 도움이 안 된다 3명으로 평균 **3**점.
- Q2. 이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귀하께서 수강한 통일, 평화, 북한 교육 강좌와 연관성 있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8명, 조금 그렇다 4명, 별로 그렇지 않다 2명으로 평균 **3.43**점.
- Q3. 이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 7명, 조금 필요 6명, 불필요함 1명으로 평균 **3.43**점.
- Q4. 이 현장학습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다?
매우 만족 6명, 조금 만족 7명, 불만족 1명으로 평균 **3.36**점.
- Q5.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주변 분들에게 추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적극 추천 의향 있음 6명, 권유할 의향 있음 7명, 별로 추천 안함 1명으로 평균 **3.29**점.

3) 파주 DMZ 답사 설문조사

- Q1. 이번 현장학습이 통일, 평화, 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9명, 조금 도움이 된다 5명으로 평균 **3.64**점.
- Q2. 이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귀하께서 수강한 통일, 평화, 북한 교육 강좌와 연관성 있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13명, 조금 그렇다 1명으로 평균 **3.93**점.
- Q3. 이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 8명, 조금 필요 6명으로 평균 **3.57**점.
- Q4. 이 현장학습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다?
매우 만족 12명, 조금 만족 2명으로 평균 **3.86**점.
- Q5.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주변 분들에게 추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적극 추천 의향 있음 10명, 권유할 의향 있음 4명으로 평균 **3.71**점.

□ 정성 평가(설문조사와 강의평가를 기반으로 작성)

1) 강의평가

-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역사에 대한 인식을 통째로 바꿔놓았던 수업이었고, 살아가며 여러 문제를 접할 때 더 발전된 사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았음.
- 스스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배우는 수업임.
- 자유롭게 학생, 교수님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좋았음.
- 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만족스러움.
- 다양한 강사들의 강연과 직접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답사가 좋았음.
- 조별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
- 베트남 전쟁에 대해 짧게 다룬 것이 아쉬움.
- 기말 평가(조별 프로젝트)가 다소 버거움.

2) 용산 전쟁기념관 답사 설문조사

- 답사를 기회로 처음 전쟁 기념관에 와 볼 수 있어 좋음.
- 전쟁 기념관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미리 이론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도움이 됨.
- 수업을 함께 듣는 학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좋음.
- 식사가 만족스러웠음.
- 큐레이터가 동반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 무서운 분위기로 통일과 심리적으로 더 멀어진 느낌.
- 단순한 견학에서 더 나아가 관련 경험자들과(전쟁 피해자 등)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다면 더 좋았을 것.
- 용산 전쟁 기념과 전시는 승리 위주의 전시였음. 피해자의 경험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음.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이 강하게 드러남.

3) 파주 DMZ 답사 설문조사

- 통일전망대에서 바로 강 건너에 위치한 북한 가족과 경작지, 그리고 일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음. 북한이 우리와 먼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 할 수 있었음.
- 오두산 전망대 전시가 가장 인상 깊음. 통일 관련 강좌 현장 학습 시 반드시 포함할 것을 권함.
- 질문이 있을 시 현장에서 곧바로 여쭙볼 수 있다는 점이 좋음.
- 평소엔 가지 못한 장소를 가 볼 수 있어 좋음.
- 식사가 만족스러움.
- 땅굴은 추천하지 않음. 승강기 이용 권유.
- 현장에 안내자 혹은 답사 관련 특강이 있다면 더 좋았을 것.

[2] DMZ 대학생 평화답사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교수)

① 사업 목적

- 자유전공학부 신입생 135명을 대상으로 통일평화 관련 전공 탐색 및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통일평화 감수성 제고
- 통일과 남북한 화해공존을 대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
- 분단의 상징인 접경지역과 DMZ 지역의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대학생 평화답사 모델 개발
- UCC를 제작하고 Youtube를 활용하여 접경지역과 DMZ을 남북 평화공존의 장으로 홍보

② 강좌 개요

- 개최하기 및 소속 학과: 2019년 1학기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 학점 및 성적 부여 방식: 1학점 / Pass 또는 Fail 방식

③ 강좌 내용

○ 주차별 강좌내용

주차(일자)	강의 주제	강사 명	강사 소속
3월 6일	과목 소개	장대익	자유전공학부
3월 13일	자유전공학부 교육 목표, 비전, 인재상	양일모	자유전공학부
3월 20일	자유전공학부 교과과정 및 전공선택	이상민	자유전공학부
3월 27일	철원의 역사와 문화 특강	김영규	철원역사문화연구소
4월 3일	분반 수업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4월 5일	철원 지역 답사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4월 10일	장학, 복지, 비교과프로그램 안내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4월 17일	UCC 발표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4월 24일	학생 대담	장대익	자유전공학부
5월 1일	특강	조준희	자유전공학부
5월 8일	학내기관소개 (국제협력본부, 경력개발센터 등)	장대익	자유전공학부
5월 15일	통일평화연구원 교육 및 연구 활동 소개	이찬수	통일평화연구원
5월 22일	특강	홍석현	중앙일보
5월 29일	과제발표 1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6월 5일	과제발표 2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6월 12일	과제 제출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 주차별 세부내용

주차(일자)	세부내용
제1주 3월 6일	과목 소개, 강의 안내와 일정, 평가방법, 주의사항
제2주 3월 13일	자유전공학부 교육 목표, 비전, 인재상 등에 대한 소개
제3주 3월 20일	자유전공학부 교과과정 및 전공선택 절차에 대한 소개
제4주 3월 27일	철원의 역사와 문화 특강: 수복지구 철원 사람들의 삶과 애환에 대해 강의
제5주 4월 3일	분반 수업: 학생들과 통일, 남북 관계 개선 등의 변화가 진로 선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주제로 자유롭게 진행
제6주 4월 5일	철원 지역 답사: 제2땅굴, 철원평화전망대, 월정리역, 아이스크림고지, 노동당사, 철원생태평화공원 등 답사
제7주 4월 10일	장학, 복지, 비교과프로그램 안내 (통일아카데미 프로그램 소개)
제8주 4월 17일	UCC 제작 및 발표: 학생들이 철원 답사 후 철원지역 DMZ을 홍보할 수 있는 UCC 제작하여 발표
제9주 4월 24일	학생 대담
제10주 5월 1일	특강: 미국의 Liberal Arts 교육에 대한 특강
제11주 5월 8일	학내기관소개: 국제협력본부, 경력개발센터 등 학내 기관 소개
제12주 5월 15일	통일평화연구원 교육 및 연구 활동 소개
제13주 5월 22일	특강: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특강
제14주 5월 29일	과제발표1: 남북 화해협력과 평가가 자신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
제15주 6월 5일	과제발표2: 남북 화해협력과 평가가 자신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
제16주 6월 12일	과제 제출

○ 전체 수업 수강생 명단

번호	성명	학년	소속	번호	성명	학년	소속
1	강다은	1	자유전공학부	73	원효정	1	자유전공학부
2	강우진	1	자유전공학부	74	유동호	1	자유전공학부
3	강인아	1	자유전공학부	75	윤민수	1	자유전공학부
4	경제웅	1	자유전공학부	76	윤석원	1	자유전공학부
5	고명건	1	자유전공학부	77	윤준영	1	자유전공학부
6	구재윤	1	자유전공학부	78	윤하영	1	자유전공학부
7	권대현	1	자유전공학부	79	윤환이	1	자유전공학부
8	권민재	1	자유전공학부	80	이동우	1	자유전공학부
9	권정유	1	자유전공학부	81	이민성	1	자유전공학부
10	기도형	1	자유전공학부	82	이민행	1	자유전공학부
11	기민서	1	자유전공학부	83	이서영	1	자유전공학부
12	김나연	1	자유전공학부	84	이선호	1	자유전공학부
13	김나현	1	자유전공학부	85	이수연	1	자유전공학부
14	김동건	1	자유전공학부	86	이승주	1	자유전공학부
15	김명준	1	자유전공학부	87	이승현	1	자유전공학부
16	김민서 (2019-12028)	1	자유전공학부	88	이승희		자유전공학부
17	김민서 (2019-14796)	1	자유전공학부	89	이용우	1	자유전공학부
18	김민수	1	자유전공학부	90	이우진	1	자유전공학부
19	김민영	1	자유전공학부	91	이윤상	1	자유전공학부
20	김민지	1	자유전공학부	92	이은솔	1	자유전공학부
21	김민찬	1	자유전공학부	93	이은우	1	자유전공학부
22	김민하	1	자유전공학부	94	이정빈	1	자유전공학부
23	김성민	1	자유전공학부	95	이주언	1	자유전공학부
24	김시연	1	자유전공학부	96	이준원	1	자유전공학부
25	김시영	1	자유전공학부	97	이지효	1	자유전공학부
26	김연정	1	자유전공학부	98	이채성	1	자유전공학부
27	김예빈	1	자유전공학부	99	이하늘	1	자유전공학부
28	김유진	1	자유전공학부	100	이하령	1	자유전공학부
29	김윤빈	1	자유전공학부	101	이혁준	1	자유전공학부
30	김윤재	1	자유전공학부	102	이홍지	1	자유전공학부
31	김은서	1	자유전공학부	103	임수	1	자유전공학부
32	김재훈	1	자유전공학부	104	임정빈	1	자유전공학부
33	김정민	2	자유전공학부	105	임지훈	1	자유전공학부
34	김주연	1	자유전공학부	106	임채은	1	자유전공학부
35	김준원	1	자유전공학부	107	임혜지	1	자유전공학부
36	김지석	1	자유전공학부	108	장민혁	1	자유전공학부
37	김지원	1	자유전공학부	109	장연주	1	자유전공학부
38	김지윤	1	자유전공학부	110	장하영	1	자유전공학부
39	김지혜	1	자유전공학부	111	전수빈	1	자유전공학부
40	김진성	1	자유전공학부	112	정미학	1	자유전공학부

41	김진주	1	자유전공학부	113	정지호	1	자유전공학부
42	김진형	1	자유전공학부	114	정지환	1	자유전공학부
43	김채원	1	자유전공학부	115	정진안	1	자유전공학부
44	김하연	1	자유전공학부	116	정현조	1	자유전공학부
45	김현수	1	자유전공학부	117	조민영	1	자유전공학부
46	나동현	1	자유전공학부	118	조성준	1	자유전공학부
47	나정현	1	자유전공학부	119	조유진	1	자유전공학부
48	문민지	1	자유전공학부	120	주혜현	1	자유전공학부
49	문서운	1	자유전공학부	121	진남형	1	자유전공학부
50	문소원	1	자유전공학부	122	천주연	1	자유전공학부
51	민나영	1	자유전공학부	123	최민준	1	자유전공학부
52	박대경	1	자유전공학부	124	최선	1	자유전공학부
53	박리라	1	자유전공학부	125	최승호	1	자유전공학부
54	박병호	1	자유전공학부	126	최예주	1	자유전공학부
55	박상언	1	자유전공학부	127	최유리	1	자유전공학부
56	박성현	1	자유전공학부	128	최종현	1	자유전공학부
57	박수민	1	자유전공학부	129	최준환	1	자유전공학부
58	박시운	1	자유전공학부	130	최해성	1	자유전공학부
59	박윤유	1	자유전공학부	131	최희원	1	자유전공학부
60	박혜송	1	자유전공학부	132	표하영	1	자유전공학부
61	박홍근	1	자유전공학부	133	하진욱	1	자유전공학부
62	신동경	1	자유전공학부	134	한지원	1	자유전공학부
63	신예환	1	자유전공학부	135	한효정	1	자유전공학부
64	신주용	1	자유전공학부	136	함태원	1	자유전공학부
65	안동하	1	자유전공학부	137	홍세림	1	자유전공학부
66	양소연	1	자유전공학부	138	홍인택	1	자유전공학부
67	양재혁	1	자유전공학부	139	홍준하	1	자유전공학부
68	오아현	1	자유전공학부	140	홍지인	1	자유전공학부
69	오재아	1	자유전공학부	141	황승혁	1	자유전공학부
70	오재원	1	자유전공학부	142	황윤	1	자유전공학부
71	원서준	1	자유전공학부	143	황은서	1	자유전공학부
72	원재희	1	자유전공학부	144	황혜림	1	자유전공학부

□ 답사 프로그램: 2019학년도 전공설계1 철원 DMZ 현장체험학습

○ 필요성 및 개요

- 신입생들에게 교과 및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공설계에 도움을 주고 동시에 사회적·정서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분단의 현장인 철원 지역을 방문하여 안보의 현실과 철원의 문화적·역사적 위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

- DMZ 평화전망대, 철원 노동당사 등을 참관하여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전공 설계의 밑바탕으로 삼게 함
- 교외 프로그램 및 단체 활동 참여를 통한 학부 내 인적네트워크 향상에 기여함

○ 일자 및 장소

- 일자: 2019. 4. 5.(금) ~ 4. 6.(토)
- 장소: 강원도 철원 및 포천 일원

○ 참석인원: 총 155명

- 학생(142명): 전공설계1 수강생
- 교수(9명): 양일모, 이상민, 강성훈, 한경구, 김범수, 장대익, 차주황, 유화중, 조준희
- 전문위원(2명): 이원석, 이하경
- 조교(2명): 김찬미, 심인혜

○ 세부일정

4월 5일(금)	
9시	사당역 공영주차장 집결 및 인원확인(관광버스 4대 대기) 사당역 출발
9시 10분	고성정 관광안내소 도착 / 점심식사(문화해설사 각 버스에 탑승)
11시 30분	현장학습 시작
13시 ~16시 30분	제2땅굴, 철원평화전망대, 월정리역, 아이스크림고지노동당사
17시 20분	저녁식사(호텔인근)
18시 30분	강연(철원역사문화연구소 김영규 소장님)
20시 30분	토론회
4월 6일(토)	
7시	아침식사
8시 30분	철원생태평화공원으로 출발
11시 30분	점심식사
12시 30분	서울로 출발
15시 30분	사당역 도착

※ 숙소: 포천 아도니스호텔

※ 설문 조사: 버스 탑승 직후, 답사 완료 후 버스 안

※ 철원 답사 동영상 과제 부여

○ 답사 참여 수강생 명단

번호	성명	학년	소속	번호	성명	학년	소속
1	강다은	1	자유전공학부	72	유동호	1	자유전공학부
2	강우진	1	자유전공학부	73	윤민수	1	자유전공학부
3	경제웅	1	자유전공학부	74	윤석원	1	자유전공학부
4	고명건	1	자유전공학부	75	윤준영	1	자유전공학부
5	구재윤	1	자유전공학부	76	윤하영	1	자유전공학부
6	권대현	1	자유전공학부	77	윤환이	1	자유전공학부
7	권민재	1	자유전공학부	78	이동우	1	자유전공학부
8	권정유	1	자유전공학부	79	이민성	1	자유전공학부
9	기도형	1	자유전공학부	80	이민행	1	자유전공학부
10	기민서	1	자유전공학부	81	이서영	1	자유전공학부
11	김나현	1	자유전공학부	82	이선호	1	자유전공학부
12	김나현	1	자유전공학부	83	이수연	1	자유전공학부
13	김동건	1	자유전공학부	84	이승주	1	자유전공학부
14	김명준	1	자유전공학부	85	이승현	1	자유전공학부
15	김민서 (2019-12028)	1	자유전공학부	86	이승희	1	자유전공학부
16	김민수	1	자유전공학부	87	이용우	1	자유전공학부
17	김민영	1	자유전공학부	88	이우진	1	자유전공학부
18	김민지	1	자유전공학부	89	이윤상	1	자유전공학부
19	김민찬	1	자유전공학부	90	이은솔	1	자유전공학부
20	김민하	1	자유전공학부	91	이은우	1	자유전공학부
21	김성민	1	자유전공학부	92	이정민	1	자유전공학부
22	김시연	1	자유전공학부	93	이주연	1	자유전공학부
23	김시영	1	자유전공학부	94	이준원	1	자유전공학부
24	김연정	1	자유전공학부	95	이지효	1	자유전공학부
25	김예빈	1	자유전공학부	96	이재성	1	자유전공학부
26	김유진	1	자유전공학부	97	이하늘	1	자유전공학부
27	김윤빈	1	자유전공학부	98	이하령	1	자유전공학부
28	김윤재	1	자유전공학부	99	이혁준	1	자유전공학부
29	김은서	1	자유전공학부	100	이홍지	1	자유전공학부
30	김재훈	1	자유전공학부	101	임수	1	자유전공학부
31	김정민	2	자유전공학부	102	임정빈	1	자유전공학부
32	김주연	1	자유전공학부	103	임지훈	1	자유전공학부
33	김준원	1	자유전공학부	104	임채은	1	자유전공학부
34	김지석	1	자유전공학부	105	임혜지	1	자유전공학부
35	김지원	1	자유전공학부	106	장민혁	1	자유전공학부
36	김지윤	1	자유전공학부	107	장연주	1	자유전공학부
37	김지혜	1	자유전공학부	108	장하영	1	자유전공학부
38	김진성	1	자유전공학부	109	전수빈	1	자유전공학부
39	김진주	1	자유전공학부	110	정미학	1	자유전공학부
40	김진형	1	자유전공학부	111	정지호	1	자유전공학부
41	김채원	1	자유전공학부	112	정지환	1	자유전공학부

42	김하연	1	자유전공학부	113	정진안	1	자유전공학부
43	김현수	1	자유전공학부	114	정현조	1	자유전공학부
44	나동현	1	자유전공학부	115	조민영	1	자유전공학부
45	나정현	1	자유전공학부	116	조성준	1	자유전공학부
46	문민지	1	자유전공학부	117	조유진	1	자유전공학부
47	문서윤	1	자유전공학부	118	주혜현	1	자유전공학부
48	문소원	1	자유전공학부	119	진남형	1	자유전공학부
49	민나영	1	자유전공학부	120	천주연	1	자유전공학부
50	박대경	1	자유전공학부	121	최민준	1	자유전공학부
51	박리라	1	자유전공학부	122	최선	1	자유전공학부
52	박병호	1	자유전공학부	123	최승호	1	자유전공학부
53	박상언	1	자유전공학부	124	최예주	1	자유전공학부
54	박성현	1	자유전공학부	125	최유리	1	자유전공학부
55	박수민	1	자유전공학부	126	최종현	1	자유전공학부
56	박시윤	1	자유전공학부	127	최준환	1	자유전공학부
57	박윤유	1	자유전공학부	128	최해성	1	자유전공학부
58	박혜송	1	자유전공학부	129	최희원	1	자유전공학부
59	박홍근	1	자유전공학부	130	표하영	1	자유전공학부
60	신동경	1	자유전공학부	131	하진욱	1	자유전공학부
61	신예환	1	자유전공학부	132	한지원	1	자유전공학부
62	신주용	1	자유전공학부	133	한효정	1	자유전공학부
63	안동하	1	자유전공학부	134	함태원	1	자유전공학부
64	양소연	1	자유전공학부	135	홍세림	1	자유전공학부
65	양재혁	1	자유전공학부	136	홍인택	1	자유전공학부
66	오아현	1	자유전공학부	137	홍준하	1	자유전공학부
67	오재아	1	자유전공학부	138	홍지인	1	자유전공학부
68	오재원	1	자유전공학부	139	황승혁	1	자유전공학부
69	원서준	1	자유전공학부	140	황운	1	자유전공학부
70	원재희	1	자유전공학부	141	황은서	1	자유전공학부
71	원효정	1	자유전공학부	142	황혜림	1	자유전공학부

④ 사업 성과

- 통일평화 관련 전공 탐색 및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분단의 현장인 철원 지역을 방문하여 안보의 현실과 철원의 문화적·역사적 위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
- DMZ 평화전망대, 철원 노동당사 등을 참관하여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전공 설계의 밑바탕으로 삼게 함
- 전공과 진로에 대한 다양한 탐색을 도모하고,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
- 정량 평가

- 아래 표와 같이 5개 평가문항의 가중평균은 3점 이상으로 참가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또한 참가 학생들의 통일·평화·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평가문항	1. 이번 현장학습이 통일·평화·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수	가중치	가중평균
매우 도움이 된다	57	4	3.29
2. 조금 도움이 된다	68	3	
3. 별로 도움이 안 된다	13	2	
4.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	1	

평가문항	2. 이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귀하께서 수강한 통일·평화·북한 교육 강좌와 연관성 있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수	가중치	가중평균
매우 그렇다	56	4	3.27
2. 조금 그렇다	69	3	
3. 별로 그렇지 않았다	12	2	
4. 전혀 그렇지 않았다	3	1	

평가문항	3. 이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수	가중치	가중평균
매우 필요	60	4	3.34
2. 조금 필요	69	3	
3. 불필요함	9	2	
4. 매우 불필요함	2	1	

평가문항	4. 이 현장학습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응답자수	가중치	가중평균
매우 만족	52	4	3.30
2. 조금 만족	79	3	
3. 불만족	8	2	
4. 매우 불만족	1	1	

평가문항	5.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주변 분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응답자수	가중치	가중평균
1. 적극 추천 의향 있음	43	4	3.02
2. 권유할 의향 있음	68	3	
3. 별로 추천 안함	18	2	
4. 잘 모르겠음	11	1	

○ 정성 평가

- 개인적으로는 방문하기 쉽지 않은 지역을 답사하여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참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에는 발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평가문항	6.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

해설하시는 분의 설명이 자세하고 흥미로웠다. 혼자 관광했다면 놓치기 쉬웠을 자세한 내용들과 여러가지 특징, 역사를 자세히 알려주셔서 좋았다.
 교수님과 의 면담을 통해 매우 의미 있는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군사지역을 직접 들어가볼 수 있었다. 분단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마음이 아팠고 개성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직접 우리나라의 분단현실을 실감할 수 있었고 차가운 철창들이 늘어선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비무장지대의 다양한 새들을 보며 DMZ의 생태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었던 점이 만족스러웠다.

평가문항	7. 아쉬웠거나 차후 보강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하는 장소가 너무 많아서 기존의 80%로 줄였으면 좋겠다. (일정 지연 등) 전망대와 아이스크림 고지 중 한 곳, 월정리역과 노동당사 중 한 곳씩만 갔다면 더 여유있게 배울 수 있었을 것 같다. 적은 수의 장소를 방문하더라도 그 장소를 충분히 둘러 보고 생각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유사한 의견 다) 강의 내용이 모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소리가 더 크고 해설하시는 분의 인원이 증원되었으면 좋겠다. 걷는 일정이 너무 많았다. 체력을 고려해 더 체계적인 경로 구성이 필요할 것 같다. 가는 시기가 조정되어 생태체험을 할 때 주변 경관이 보기 좋았으면 좋겠다. 아직 추워서 둘러볼 것이 별로 없었다. 위험한 지역으로 가게 된다는 사전 설명없이 참가신청을 받았다는 점이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이렇게 휴전선과 가까운 곳을 가는데 완전히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고, 군인까지 대응해야 하는 지역인데 참가하지 않을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정전이 아닌 휴전인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관광, 체험하는 것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장소에 가서 관광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 UCC 만들 때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동일교육선도대학 현장학습 만족도 조사 문항지

※ 이 설문은 동일교육선도대학 현장학습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향후 현장학습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설문은 추후 익명처리하여 설문조사 프로그램 상에서 본 운영체제가 담당 여부와 무관으로 통계 처리되며, 개인별 응답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특성문항]

Q01. 소속 대학교
 1. 연세대학교 2. 서울대학교 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Q02. 성별 남 여

Q03.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생

[평가문항]

1. 이번 현장학습이 동일교육선도대학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조금 도움이 된다 3.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 이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귀하에서 수험생 통일평화체험교과 강화와 연관성 있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조금 그렇다 3. 전혀 그렇다 4. 전혀 그렇지 않았다

3. 이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 2. 조금 필요 3. 별로 필요함 4. 매우 불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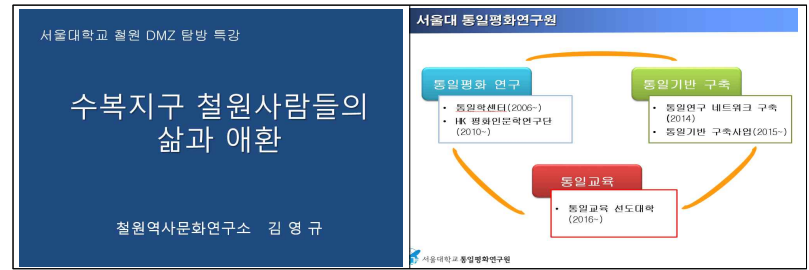
4. 이 현장학습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조금 만족 3. 별로 만족 4. 매우 불만족

5.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국민 불문하게 추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1. 적극 추천 의향 있음 2. 권장할 의향 있음 3. 별로 추천 의향 4. 불추천 의향 있음

6.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선택: 운영 개선에 도움이 될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의 생태의 개념을 통해 학습을 접하게 된 점이 좋았다.

7. 아쉬웠거나 차후 보강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택: 운영 개선에 도움이 될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고, 너무 많이 걸렸는데 아쉬운 점이 많았다.

○ 강의안 샘플



⑤ 관련 자료

○ 설문지 샘플



[3] 북한정치 연구 (임경훈 정치학과 교수)

① 사업 목적

- 북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함의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저명 학자를 모셔 세미나를 진행함으로써 최근 북한의 변화에 관한 연구 주제를 발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② 강좌 개요

- 개최학기 및 소속 학과: 2019년 2학기, 정치외교학부 정치학과
- 학점 및 성적 부여 방식: 절대평가(수업참여 50%, 10-15 페이지 분량의 research paper 50%)

③ 강좌 내용

- 주차별 강좌내용

주차(일자)	강의 주제	강사 명	강사 소속
제5주 4월 1일	북한연구방법의 변화와 방향	이정철	숭실대학교
제6주 4월 8일	극장국가, 북한	권현익	미국 캠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
제11주 5월 15일	북한, 국가와 인민에 대한 이해	오공단	미국 국방 연구소(IDA) 동아시아 책임연구원
제16주 6월 24일	북핵과 핵문제에 대한 이해	김성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 주차별 세부내용

주차(일자)	세부내용
제5주 4월 1일	북한연구 방법론의 1세대와 2세대 방법론은 냉전적 접근법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3세대부터는 서구의 영향을 받아 내재적 접근법을 시도한다. 현재는 북한의 문헌분석을 양적 연구로 수행하는 데이터마이닝과 같은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양적 연구에서는 wishful thinking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 연구의 기준이 왜 합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제6주 4월 8일	북한체제는 베버가 지적한 카리스마적 권위의 비영속성을 넘어섰으며, 베버가 혁명적 카리스마의 관례화라 부른 것을 오랜 기간 동안 명백히 세습적인 형태의 통치권 승계로 이뤄냈다. 북한이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대중적 사회동원과 대중적 정치교양이라는 국가정치 기술을 발명했기 때문이다.
제11주 5월 15일	북한은 비정상적 정상국가로서 수많은 이중성과 모순을 가진 나라이다. 북한은 개인숭배와 3대 세습, 주체사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물론 다른 공산주의 진영의 국가들과도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체제와 이념을 구축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체제가 지닌 연속성과 변화를 염두에 두어 북한 외교정책의 행태와 전략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주 6월 24일	북핵문제는 핵이라는 보편적 연구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핵 연구의 세 부문, 핵비확산, 핵통제와 폐기, 핵억제의 맥락에서 북핵 및 비핵화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북핵 확산과정의 공급측면과 관련한 국제정치적 역학에 관한 문제와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강제핵위협 사용 여부에 관한 문제 등을 연구할 수 있다.
----------------	---

- 전체 수업 수강생 명단

번호	성명	학년	소속(단과대/학과)
1	김민*	석사 2학기	사회대/정치학과
2	김정*	석사 1학기	사회대/정치학과
3	정요*	석사 3학기	사회대/정치학과
4	김인*	박사 2학기	사회대/정치학과
5	심동*	석사 3학기	사회대/정치학과
6	임초*	석사 2학기	사회대/정치학과
7	김채*	석사 1학기	사회대/정치학과
8	윤지*	석사 3학기	사회대/외교학과

④ 사업 성과

- 각 분야의 학자 분들을 모셔 북한 연구에 대한 이해, 북한 정권 세습의 성격에 대한 이해, 북한 국가와 인민에 대한 이해, 북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한 연구 주제를 도출하여 학생들마다 research paper를 작성.

- 정량 평가

- 1차 특강(4월 1일)

- 수강생 8명에게 설문조사 진행, Q3번 강의 만족도 질문에 대해 8명 모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

- 2차 특강(4월 8일)

- 수강생 8명에게 설문조사 진행, Q3번 강의 만족도 질문에 대해 8명 모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

- 3차 특강(5월 15일)

- 수강생 12명에게 설문조사 진행(오픈세미나), Q3번 강의 만족도 질문에 대해 12명 모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

○ 4차 특강(6월 24일)

- 수강생 8명에게 설문조사 진행, Q3번 강의 만족도 질문에 대해 7명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 1명은 조금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

□ 정성 평가

○ 1차 특강(4월 1일)

- 북한연구에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존의 연구가 직면하고 있는 한계들을 넘어서려는 시도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계량으로 북한 정치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잘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2차 특강(4월 8일)

- 저자 직강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북한이 카리스마를 어떻게 관례화하는지,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이 어떻게 쓰이는지 색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3차 특강(5월 15일)

-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강의 내용과 분위기가 만족스러웠습니다.
- 대단히 재미있었고 이론적 시각과 통찰력, 비전을 모두 들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 Q&A 시간이 길어서 유익했습니다.
-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 4차 특강(6월 24일)

- 핵문제에 대해 궁금했는데 세 부문으로 나누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들을 기회가 잘 없는 핵에 대한 기술적, 이론적 리뷰를 들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⑤ 관련 자료

○ 특강 사진



○ 설문지 샘플

“북한정치연구” 특강 만족도 조사 문항지

정치학과 대학원 “북한정치연구”에서는 북한정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히도 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 특성문항]

성명: 홍지현

Q01. 소속 대학

<input type="checkbox"/> 연세대학교	<input type="checkbox"/> 연세대학교	<input type="checkbox"/> 연세대학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대학교	<input type="checkbox"/> 서울대학교	<input type="checkbox"/> 서울대학교
<input type="checkbox"/> 고려대학교	<input type="checkbox"/> 고려대학교	<input type="checkbox"/> 고려대학교

Q02. 학년

<input type="checkbox"/> 1학년	<input type="checkbox"/> 2학년	<input type="checkbox"/> 3학년	<input type="checkbox"/> 4학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학원생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input type="checkbox"/> 외부인			

[평가문항]

Q03. 이 강제가 북한정치연구에 대한 문제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매우 도움	<input type="checkbox"/> 조금 도움
<input type="checkbox"/> 별로 도움 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전혀 도움 되지 않음

Q04. 이러한 강제가 대학원 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필요	<input type="checkbox"/> 조금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함	<input type="checkbox"/> 매우 불필요함

Q05. 이 강제를 주변 분들에게 추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적극 추천 의향 있음	<input type="checkbox"/> 권유할 의향 있음
<input type="checkbox"/> 별로 추천 의향 없음	<input type="checkbox"/> 잘 모르겠음

Q06.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Q07. 아래중거나 좌우 보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

○ 강의안 샘플

<p>학연구 권경에서 본 북핵과 비핵화*</p> <p>김성진 (서울대학교)</p> <p>국문초안</p> <p>본 논문은 북핵을 핵미사일을 보편적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적다는 윤리의식에 서 출발한다. 본 논문은 핵연구의 위혹, 즉 핵위험, 핵무기 제조, 핵실험의 태양에서 북핵 및 비핵화를 논의하고, 그 후속에서의 논쟁점의 가능성을 분석한 다. 첫째, 비핵화는 북한의 인권적 필요의 목적이다. 북한 핵전쟁의 가능성은 분석한 는 미국의 원자력발전 사업의 정된 정당성으로, 핵무기 제조의 원천이다. 둘째, 북핵에 의 기술이전/공급차단은 당대적인 경제, 핵전쟁의 국제정치 속에서 발생했다. 핵전쟁이후의 북한은 북핵을 통해 핵전쟁의 강제로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북핵은 가장 큰 위험은 핵전쟁의 발생을 위협하는 것이다. 넷째, 북핵은 비핵화의 등 안에서 신화적인 핵기 및 정권에 이르는 것이 유일한 정당한 경로로 보인다. 즉, 미국이 비핵화 가능성은 북핵이 아니다. 그러나, 남한은 북핵에 의해 남북관계는 대안 제기가 안락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다섯, 비핵화는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것으로 핵전쟁의 종식이다. 북핵의 양극적 영향을 남한적 핵전쟁의 목적이 아니라, 남한은 스스로 핵전쟁을 포기해야 만 이념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은 남한에 대한 위협이 남한의 경제개발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인위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남한이 핵전쟁 후 국가 정국의 새로운 연구 주제를 제기한다. 하나는 북핵 위험의 공존가능성과 관련된 핵전쟁의 위험을 연구하고, 다른 하나는 남 북관계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의 사용 여부를 연구한 것이다.</p> <p>*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된 연구임 (NRN-2010-001-A00017).</p>	<p style="text-align: center;">North Korea: An Isolated Anachronism*</p> <p style="text-align: center;">Kongdan Oh</p> <p>Introduction</p> <p>In 1945 Korea was liberated from the Japanese after 35 years of colonization. The liberated Koreans wanted to establish a modern republic, but Cold War politics dictated a cruel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ugust 1948 the Republic of Korea, commonly known as South Korea, was established with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and less than a month later, in September 1948,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mmonly known as North Korea, was formed under the sponsorship of the Soviet Union. The two Koreas went their separate ways except for the period from 1950 to 1953, when the North Koreans attempted to unify the country by force in what we know as the Korean War. The North Koreans call it the "Great Fatherland Liberation War," claiming they were trying to "free" the South Korean people from American domination.</p> <p>Division presented both Korea with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hallenges, many of which they still face today. More than 10 million Korean families were divided, including my own extended family. Before division, the northern half of the peninsula with its mountains, rivers, and mineral deposits, was the more industrialized, whereas the warmer southern region provided the bulk of Korea's rice harvest. During the first decade after division the North's economy grew more quickly than the South's under communist mass mobilization guidelines. After the Korean War, both Korea had to start life over, with millions of homeless and hungry people feeling that they had been marked for suffering. The political division of the peninsula created bitter animosity and mistrust, which continues to this day.</p> <p>The North's early economic advantage did not last long. By the 1960s the world's liberal capitalist economies were out-producing the communist economies, and North Korea was stuck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In the absence of private enterprise incentives, not enough people in North Korea were willing to work hard for the community's welfare, and communist slogans were unable to provide adequate motivation. By the 1980s, North Korea had fallen far behind South Korea in its economy and living standards.</p>
---	---

[4] 현대정치학 특강 (임경훈 정치학과 교수)

① 사업 목적

- 북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함의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저명 학자를 모셔 세미나를 진행함으로써 최근 북한의 변화에 관한 연구 주제를 발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② 강좌 개요

- 개최학기 및 소속 학과: 2019년 1학기, 정치외교학부 정치학과
- 학점 및 성적 부여 방식: 절대평가(수업참여 50%, 10-15 페이지 분량의 research paper 50%)

③ 강좌 내용

○ 주차별 강좌내용

주차(일자)	강의 주제	강사 명	강사 소속
제3주 9월 19일	북한 당, 군, 정 관계에 대한 특별 연사 초청 심화 세미나	김갑식 박사	통일연구원
제6주 10월 10일	북한에서의 경제계획과 시장화에 관한 특별연사 초청 심화 세미나	김병연 교수	서울대학교
제9주 10월 31일	북한 low politics와 일상 문화에 관한 특별연사 초청 심화 세미나	김성경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제11주 11월 14일	북핵 협상 과정에 관한 특별연사 초청 심화 세미나	임수호 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제14주 12월 5일	비교 시각에서 본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특성	이선우 교수	전북대학교

○ 주차별 세부내용

주차(일자)	세부내용
1주차(9월5일)	북한연구방법론(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현대북한학강의(장달중),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박형중)을 읽고 북한 연구의 방법의 변화와 방향, 접근법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2주차(9월12일)	북한 권력의 역사: 사상 정체성 구조(백학순),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서대숙), 북한체제의 기원: 인민 위 의 계급, 계급 위 의 국가(김재응),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기광서)을 읽고 북한 체제의 형성과 기원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3주차(9월19일)	통일연구원의 김갑식 박사님과 북한 당, 군, 정 관계에 대한 특별 연사 초청 심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4주차(9월26일)	From Stalin to Kim Il Sung: the Formation of North Korea, 1945-1960(Andrei Lankov), The North Korean Revolution, 1945-1950(Charles Armstrong)을 읽고 북한체제 형성의 역사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5주차(10월 3일)	개천절
6주차(10월 10일)	서울대학교의 김병연 교수님과 북한에서의 경제계획과 시장화에 관한 특별연사 초청 심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7주차(10월 17일)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서재진),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김연철), 북한 '수령권력'체제의 생성과 메커니즘(최경희)을 읽고 김일성 체제의 형성과 공고화 과정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8주차(10월 24일)	How Dictatorships Work(Barbara Geddes), Political Institutions under Dictatorship(Jennifer Gandhi), The Political Economy of Dictatorship(Ronald Wintrobe)를 읽고 독재체제의 보편적 특성과 독재국가의 경제체제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9주차(10월 31일)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김성경 교수님과 북한 low politics와 일상 문화에 관한 특별연사 초청 심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10주차(11월 7일)	북한의 당, 국가기구, 군대(세종연구소),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이대근), 북한기근의 정치경제학: 수령경제, 자력갱생, 기근(정광민)을 읽고 김정일 시대의 북한 체제가 가지는 특성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11주차(11월 14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임수호 박사님과 북핵 협상 과정에 관한 특별연사 초청 심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12주차(11월 21일)	김정은 시대의 경제와 사회: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양문수),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 Collapse and Transition(Byung-yeon Kim),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사금융과 돈주(임을출)을 읽고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 경제 체제 변화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13주차(11월 28일)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정치사회 균열(최대석), Hard Target: Sanctions, Inducements, and the Case of North Korea(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를 읽고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14주차(12월 5일)	전북대학교의 이선우 교수님과 비교 시각에서 본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특성에 관한 심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15주차(12월 12일)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Scott D. Sagan), "Lessons Learned from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es"(Siegfried S. Hecker), "The Unraveling of North Korea's Proliferation Blackmail Strategy"(Tristan Volpe)를 읽고 북한 핵 문제를 핵 연구에 대한 보편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16주차(12월 19일)	빙하는 움직인다(송민순), 두 개의 한국(Don Oberdorfer and Robert Carlin), 북핵위기의 전망: 벼랑 끝의 북미 협상(Joel S. Wit, Daniel Poneman & Robert L. Gallucci)를 읽고 북핵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외교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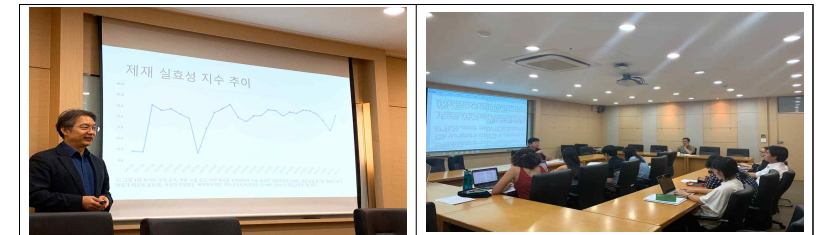
7	김수*	박사 2학기	사회대/외교학과
8	정다*	석사 3학기	사회대/외교학과
9	케일라 올*(Kayla Or*)	석사 4학기	국제대학원/한국학과

④ 사업 성과

- 북한 연구에 있어서 각 분야의 저명 학자 및 실무자를 모셔 직접 강의를 듣고 심화 세미나를 진행함으로써, 표면적이고 이론적이지만 한 학술 연구에서 벗어나 현실의 정치동학을 이해하도록 함.
- 심화 세미나를 통해 최근의 북한 연구가 어떤 주제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과 감각을 익히게 해 수강생들 스스로 최근 북한의 변화와 관련해서 연구할 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함.
- 정량 평가
 - 수강생 약 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에서 5점 만점에 4점 이상.
- 정성 평가
 - 강의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통해 매 강의에 대해 어떤 점이 만족스러웠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를 서술형으로 답변 받을 예정.

⑤ 관련 자료

- 특강 사진



○ 전체 수강생 명단

번호	성명	학년	소속(단과대/학과)
1	김민*	석사 3학기	사회대/정치학과
2	김정*	석사 2학기	사회대/정치학과
3	심동*	석사 4학기	사회대/정치학과
4	임초*	석사 3학기	사회대/정치학과
5	길지*	석사 2학기	사회대/정치학과
6	신주*	석사 2학기	사회대/정치학과

제12주 5월 22일	사회통합 구조와 역동성 평가 (발표회)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제13주 5월 29일	미래전망 토론 (발표회)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제14주 6월 5일	미래전략 및 '북한국제화' 구상 토론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 주차별 세부내용

주차(일자)	세부내용
제1주 3월 6일	강의 첫 수업으로, 강의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북한을 조선으로 다시 읽어야 하는 배경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주 3월 13일	북한을 연구하는 데 있어 어떠한 방법이 가능한지, 그 한계와 가능성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쟁이 낳은 사회적 트라우마로 인해 북한이 갖게 된 특수성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종합적인 사회분석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강의였습니다.
제3주 3월 20일	북한의 발전 전략인 지역자립체제에 대한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겪은 후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요 정책 3가지 중 하나인 지역자립경제는 다시 전쟁에 패배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지로, 어떻게 안보적으로 국가발전전략을 구축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4주 3월 27일	북한 내 계층 질서를 이해하는 것은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북한이 전쟁의 피해 정도에 따라 계층을 어떻게 구성하였으며, 계층 갈등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종합시장체제로 인한 새로운 상인인구는 어떤 의미인지, 이산가족 만남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5주 4월 3일	북한이 공식적으로 추구했던 주체사상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는지,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북한을 단결시킴으로서 오랫동안 북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6주 4월 10일	지난 시간에 이어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집단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의 어떤 양상을 띠고 있으며, 북한의 사회정책과 복지제도에 대한 영향력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7주 4월 17일	예술선전대 및 영화 등의 문화와 예술이 북한의 사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으며, 지도부는 이를 사상의 전파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지난 평창올림픽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향후 문화적인 통일에 대하여 토의를 나누었습니다.
제8주 4월 22일	탈북 출신 우석대 김민규 교수님을 초빙하여 김정은 시대의 북한주민 의식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북한과 실제의 모습의 차이, 통일에 대한 인식, 탈북만으로서 느끼는 북한과 한국의 통일에 대한 제언 등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9주 4월 24일	고난의 행군이 어떻게 북한사회를 바꾸었으며, 7.1 개혁과 종합시장의 확산으로 북한에서 일어난 개방 현상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0주 5월 8일	북한의 인권현황과 국제 사회로부터의 북한의 인권 현황에 대한 반응, 북한 내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 및 비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통일을 위해 어떻게 인권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지 토의를 나누었습니다.
제11주 5월 15일	통일부 통일교육원 김지영 교수님을 초빙하여, 현재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치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통일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제언을 들

	수 있었습니다. 이후 북한 내 종교 정책의 변화와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17일	현장학습 시간으로, 판문점을 비롯하여 파주 DMZ 일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2주 5월 22일	북한 내 사회통합구조와 역동성에 대하여, 북한은 왜 무너지지 않고 체제가 유지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른 사회주의와 차이, 전쟁, 아시아적 가치 등을 살펴봄에 북한체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3주 5월 29일	평화로의 통일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평화구축을 위해서 안보, 외교, 교류를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새로운 형태의 통일에 대하여 토의를 나누었습니다.
제14주 6월 5일	북한의 국제화를 위하여 어떠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하는가에 대하여 종합적인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까지의 대북지원을 살펴보고, 향후 통일을 위한 전략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 전체 수업 수강생 명단

번호	성명	학번	소속(단과대/학과)
1	이상윤	2011-30372	협동과정 미술경영
2	안배현	2013-21461	체육교육과
3	박재경	2015-31287	보건학과
4	조정균	2017-20653	국제학과
5	이진이	2017-23969	국제학과
6	신성	2017-27269	국제학과
7	윤현정	2017-29604	국제학과
8	강은초	2017-29667	국제학과
9	박세희	2017-30145	보건학과
10	윤하영	2017-38945	국제학과
11	팅팅	2018-20199	국제학과
12	이소영	2018-21238	국제학과
13	차영운	2018-22073	국제학과
14	윤영랑	2018-23339	국제학과
15	정수아	2018-24912	국제학과
16	금재영	2018-24946	국제학과
17	박서현	2018-25491	국제학과
18	김범수	2018-25788	국제학과
19	탕신	2018-26237	국제학과
20	곽대순	2018-27117	국제학과
21	박한술	2018-27304	환경계획학과
22	이청	2018-27640	국제학과
23	신동호	2018-28275	국제학과
24	강나경	2018-29724	국제학과
25	박다인	2018-29744	국제학과
26	김서린	2018-35803	협동과정 조경학
27	오치민	2019-22245	국제학과
28	케일라	2019-24611	국제학과
29	박정원	2019-28067	국제학과
30	김두이		조형연구소

○ 총 30명 모두 서울대학교 구성원. 국제학과 24명(80%), 타과생 6명 (20%)

○ 답사 프로그램

□ <북한세미나> 현장답사

- 목적: <북한세미나> 수강생들이 DMZ 일대를 답사하며 분단 현실을 체험하고,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답사 프로그램임.
- 기간: 2019. 5. 17.(금) 08: 30 ~ 18:00
- 장소: 임진각, 도라전망대, 남북출입사무소, 판문점, 보니아스부대, 도라산역 등 중서부 DMZ 일대
- 내용
 - ① 중·서부 DMZ를 방문하는 평화·안보 체험
 도라전망대 및 평화전망대를 방문하여 개성공단과 DMZ 내부를 조망하며 남·북 군사대치상황 및 안보현실을 이해하게 함.
 - ② 남북출입사무소 및 도라산역 방문
 북한 및 유라시아로 향하는 관문으로서 통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함.
 - ③ 판문점 방문
 정전협정 및 최근 남북회담의 현장을 방문하여, 이전과 달라진 남·북 대치상황을 이해하고, 향후 남·북 관계 개선 및 평화 통일에 대해 고민하게 함.

○ 답사 참여 수강생 명단

번호	성명	학년	소속(단과대/학과)
01	이상훈	2011-30372	협동과정 미술경영
02	안배현	2013-21461	체육교육과
03	박재경	2015-31287	보건학과
04	조정균	2017-20653	국제학과
05	이진이	2017-23969	국제학과
06	신성	2017-27269	국제학과
07	윤현정	2017-29604	국제학과
08	강은초	2017-29667	국제학과
09	박세희	2017-30145	보건학과
10	윤하영	2017-38945	국제학과
11	팅팅	2018-20199	국제학과
12	이소영	2018-21238	국제학과
13	차영운	2018-22073	국제학과
14	윤영랑	2018-23339	국제학과
15	정수아	2018-24912	국제학과
16	금재영	2018-24946	국제학과
17	박서현	2018-25491	국제학과
18	김범수	2018-25788	국제학과
19	탕신	2018-26237	국제학과
20	곽대순	2018-27117	국제학과
21	박한솔	2018-27304	환경계획학과
22	이청	2018-27640	국제학과
23	신동호	2018-28275	국제학과
24	강나경	2018-29724	국제학과
25	박다인	2018-29744	국제학과
26	김서린	2018-35803	협동과정 조경학
27	오치민	2019-22245	국제학과
28	케일라	2019-24611	국제학과

29	박정원	2019-28067	국제학과
30	김두이		조형연구소
31	백승훈		국제학과
32	허준	2013-10447	정치외교학과
33	배한들	2017-18749	자율전공학부
○ 총 33명 모두 서울대학교 구성원. 국제학과 24명(73%), 타과생 9명 (27%)			

④ 사업 성과

○ 정량 평가

- 강의평가 만족도 평가 지수 4.5/5 달성
- 참여자 수: 당초 목표했던 참여 인원 20명을 상회한 30명 수강 성공

○ 정성 평가

- 수강생들의 통일평화 인식 개선 및 제고

○ 현장학습 만족도 조사

□ 현장학습 만족도 조사 결과

번호	문항	답변(비율)
1.	이번 현장학습이 통일·평화·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79%) 조금 도움이 된다(15%) 별로 도움이 안 된다(6%) 4. 전혀 도움이 안 된다(0%)
2.	이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귀하께서 수강한 통일·평화·북한교육 강좌와 연관성 있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85%) 조금 그렇다(9%) 별로 그렇지 않았다(6%) 전혀 그렇지 않았다(0%)
3.	이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91%) 조금 필요(9%) 불필요함(0%) 매우 불필요함(0%)
4.	이 현장학습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다?	1. 매우 만족(67%) 2. 조금 만족(33%) 3. 불만족(0%) 4. 매우 불만족(0%)
5.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주변 분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적극 추천 의향 있음(76%) 권유할 의향 있음(18%) 별로 추천 안함(0%) 잘 모르겠음(6%)
참가자 의견 (만족스러웠던 점)		

<p>개인적으로 가기 어려운 판문점 견학을 갈 수 있었던 점 다채롭고 의미있는 견학 코스 알찬 당일 견학 코스 교수님과 인솔자분의 자세한 설명</p>
<p>참가자 의견 (아쉬웠거나 차후 보강돼야 할 점)</p>
<p>축박한 견학 일정 설명이 조금 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음 전체 일정이 다소 지체된 점</p>

○ 북한세미나 수강생 평가

□ 북한세미나 수강생 대상 강의평가 실시 결과

번호	문항	답변(비율)
1.	이 강의가 통일·평화·북한 문제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87%) 조금 도움(13%)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0%)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음(0%)
2.	2. 이 강의를 통해 통일·평화·북한 문제에 대한 귀하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67%) 그렇다(30%) 그렇지 않다(3%) 매우 그렇지 않다(0%)
3.	3. 이러한 강의가 대학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함(93%) 조금 필요함(7%) 별로 필요하지 않음(0%) 4. 매우 불필요(0%)
4.	4. 이 강의를 주변 분들에게 추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적극 추천 의향 있음(63%) 권유할 의향 있음(37%) 별로 추천 안함(0%) 잘 모르겠음(0%)
5.	5. 강의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83%) 2. 조금 만족(17%) 3. 불만족(0%) 4. 매우 불만족(0%)
6.	6.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향후 운영 개선에 도움이 될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전반적인 올바른 인식측면에 도움이 되고 더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로볼 수 있는 시각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p> <p>학생에 의한 발제식 강의시에는 느끼기 어려운 학문의 깊이가 있는데, 김병로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내부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균형있고 깊어지게 되었습니다.</p> <p>판문점 필드트립이 가장 인상에 깊습니다. 특히 김병로 교수님께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판문점의 역사와 널문리로서의 의미 등 주제적, 능동적 시각으로 통일을 우리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p> <p>교수님의 통일, 평화, 남북한 문제에 대한 진실성과 균형 잡힌 강의내용이 큰 감동과 자산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p>

		북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탈북자 출신 강연자 초청 특강 등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직접적으로 북한의 정치 및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그들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7.	7. 아쉬웠거나 차후 보강돼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운영 개선에 도움이 될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 할때 조금더 와닿고 이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통일에 대해서 연방제 찬반, 식량지원, 개성공단 찬반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좀더 활성화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학생들의 발표 발제식 수업은 참여도는 더욱 높일 수 있겠지만, 북한이라는 과목 특성상 연구의 깊이가 대학원생들 수준에서는 알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발제식 수업보다는 현재의 세미나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해당 주 수업주제에 대한 2가지 정도 질문을 실라버스에 포함시킨 후 그것에 대해 리딩을 하면서 답을 고민해오고, 연구중에 생긴 추가적인 질문을 포함하여 수업시간에 토론하는 방식이 되면 학생들의 참여도가 더 올라가고 더욱 유익한 수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로 교수님으로부터 북한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어 감사했고 다음 학기에 수업을 안하시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아쉽습니다.</p> <p>수업에 발제를 정하는 등, 학생들의 참여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0분은 교수님의 진귀한 강연, 90분은 학생 주도의 수업에 교수님의 코멘트와 학생들 토론위주로 구성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p>

⑤ 관련 자료

○ 사진



○ 설문지 샘플

통일교육선도대학 강좌 만족도 조사

이 설문은 통일교육선도대학 강좌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강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수강생 여러분의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은 주변 학생들에게 통과된 표로그림 파악 및 운영체제에 대한 개성을 위한 것으로 통계 자료로만 사용되며, 개인별 응답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소속 단과대학
 국제대학
 기타

성별
 남성
 여성

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3. 이러한 강의가 대학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
 조금 필요
 불필요함
 매우 불필요함

4. 이 강의를 주변 분들에게 추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적극 추천 의향 있음
 권유할 의향 있음
 흔쾌 추천 의향
 할 모르겠음

5. 강의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 강의안 샘플

한국의 북한연구 및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주체사상

- ▶ 주체사상과 김일성-김정일주의
 - 좁은 의미, 넓은 의미
 - 대내적 언어, 대외적 언어
- ▶ 김일성김정일주의 = 사상 + 이론 + 방법
- ▶ 주체사상 = 철학원리 + 사회역사원리 + 지도원칙
- ▶ "전당과 온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자!"

[6] 탈북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어과 통일교육론 (민현식 국어교육과 교수)

① 사업 목적

- 2019년 2학기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석·박사 과정의 정규 교과목 개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연구자, 통일 한국의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자, 통일 시대의 (한)국어교육 연구자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 개설 강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 강좌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 그중에서도 청소년기 탈북민(이하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사회문화적 통합(sociocultural integration)을 위한 국어과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의주제별 내용 구성안을 통해 모색한다.

② 강좌 개요

- 개최학기 및 소속 학과: 2019년 2학기,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학점 및 성적 부여 방식: 절대평가

③ 강좌 내용

○ 주차별 강좌내용

주차	일자	강의 주제	강사 명	강사 소속
1	09.04.	통일 시대 북한의 국어교육 개관(현황)	민현식	서울대
2	09.11.	북한의 국어교육 / 조 편성 계획 협의(1)	오현아	강원대
3	09.18.	북한의 매체와 인권	김은구	서울대
4	09.25.	탈북민 적응 실태	한정미	하나원
5	10.02.	남북한 전문용어와 거래말큰사전	한용운	사전편찬위원회
6	10.11.	탈북 대안 학교 현황 (한꿈 학교 방문)	김두연	한꿈학교
7	10.16.	북한이탈주민의 화법	양수경	서울대
8	10.23.	조선말규범집(2010)의 내용 고찰 / 중간고사	민현식	서울대
9	10.30.	남북한 언어 순화	권재일	국립국어원
10	11.06.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자료센터 방문	-	-
11	11.13.	남북한의 어문규범	이대성	국립국어원
12	11.20.	탈북 청소년의 학습 능력 증진 방안 (우리들 학교 방문)	윤동주	우리들학교
13	11.27.	조별 발표 및 토론(2), 탈북 청소년 적응 실태	수강생 김두연	- 한꿈학교
14	12.04.	조별 발표 및 토론(3), 기말고사	수강생	-
15	12. 11.	탈북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어과 통일교육의 방향	민현식	서울대

○ 주차별 세부내용

주차(일자)	세부내용
1주차 (09.04.) 민현식	통일교육 개관. 대한민국과 북한의 체제의 차이를 면밀히 살피고 통일 교육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정치체제, 경제체제, 외교동맹체제, 국가/민족의 개념, 교육체제, 존엄성, 언론체제, 복지체제, 통일정책, 경제선진국 정도, 인권선진국 정도. 향후의 통일교육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 공산의 세습과 폭압 체제에 대한 이해. 둘째, 북한 동포들의 고난과 자유 억압의 참상. 셋째, 북한 동포의 자유해방을 위한 전략과 행동 교육. 넷째, 남북의 자유평화통일을 위한 전략과 행동교육.
2주차 (09.11.) 오현아	북한 혹은 이북의 국어교육 혹은 조선어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소통하기. 북한 혹은 이북의 국어교육 혹은 조선어교육의 특성에 대해 탐구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북한 혹은 이북의 국어교육 혹은 조선어교육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기. 북한 혹은 이북의 한국어교육 혹은 조선어교육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기.
3주차 (09.18.) 김은구	인류는 국제법을 통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보호시스템을 발전시켜옴. 국제법의 종류와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13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를 설치하게 된 경위와 2014년 COI 보고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인권 침해의 상당 부분이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북한은 반인도적인 전체주의 국가임. 그 중에서 북한의 미디어와 인권, 교육의 실태를 살펴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국어교육의 역할.
4주차 (09.25.) 한정미	북한 이탈주민들의 언어 사용 특징. ①어휘 및 표현의 측면, ②발음 및 어조의 측면 ③의사 표출 방식의 차이, ④남한 사람들이 가진 북한 사람들의 언어에 대한 몇 가지 오해, 한국 사람들을 위한 통일시대 국어교육에서 염두 해두어야 할 점 등에 관하여 하나원 현장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름.
5주차 (10.02.) 한용운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북한의 조선어 철자법의 제정과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핌. 조선말 큰 사전의 의의에 대해서 살핌. 조선말 큰 사전이 없었다면, 표기법도 표준어도 제정되지 않은 채로 분단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 남북 언어 이질화의 최소화 크게 기여함. 거래말 큰 사전의 의의. 우리가 쓰는 말을 모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함께 만들고 있는 첫 사전.
6주차 (10.11.) 김두연	수강생 3명 참가. 한꿈 학교(북한 이탈 주민 대안학교) 소개. 학교 건물 내부 (강의실, 교무실, 교장실, 급식실 등) 탐방. 주요 연혁과 학교의 비전 살핌. 학생들의 진학 및 취업현황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 학교 조직도. 수업 및 활동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북한 이탈 학생들과의 인터뷰 시간 가짐.
7주차 (10.16.) 양수경	북한 화법 연구의 흐름에 대해 개관. 이후 실제 탈북민과 남한 토박이의 화법 차이를 설명하되, 실제로는 공통점이 더 많으며, 연구 결과 낮은 순위로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관한 내용. 이후 탈북민을 통한 북한 화법 연구의 한계로 두 가지 사항을 제시.
8주차 (10.23.) 민현식	남북한의 규범 차이에 관한 개괄적인 이해. 남북한 어휘의 표기 차이. 총칙과 자모, 받침 순서. 자모의 이름. 띄어쓰기. 두음법칙, 사이시옷, 문장부호, 문법 용어, 한국의 복수 표준어 규정 등을 세부 내용으로 살핌. 북한의 조선말 규범집(2010)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 이후 중간고사 실시.
9주차 (10.30.)	남북의 언어 순화를 말 다듬기와 전문용어를 중심으로 살펴 봄. 통일 시대의 바람직한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탐색. 남

권제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말다듬기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탐색.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전문용어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탐색.
10주차 (11.06.) 민현식	수강생 9명 참가. 국립 중앙 도서관의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방문함. 북한자료센터 이용 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함께 북한 영상 자료를 시청함. 이후 자유롭게 관심이 있는 북한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 등을 살펴보며 개인적으로 연구.
11주차 (11.13.) 이대성	북한의 어문 규범을 맞춤법과 발음법을 중심으로 살핌. 남한의 그것과 비교하여 둘의 차이를 알아보고, 그 이유와 통합 방안을 모색. 남북 어문 규범 체계, 남북의 자모, 남한의 표준발음법과 북한의 문화어발음법, 어미 표기, 한자어 표기(두음 법칙), 띄어쓰기 등을 세부 내용으로 살핌.
12주차 (11.20.) 윤동주	수강생 9명 참가. 북한이탈주민의 실상에 관하여 현장의 관점에서 자세히 살핌. 탈북 과정. 현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현황과 실태. 인가 학교와 비인가 학교.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에 관한 논의. 실제 운영에서의 예산 조달. 실제 북한이탈주민 대안학교의 운영과 커리큘럼 등에 관하여 다룸.
13주차 (11.27.) 김두연	- 수강생 기말 보고서 발표 (위햇님, 박상현) - 통일의 일상적 실현. 한꿈 학교의 학생들의 실제적인 예시들을 중심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의 탈북 과정의 실상에 대해서 다룸. 이후 북한 이탈 주민들의 남한 정착 과정과 이를 위한 과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진행. 현장 종사자로서 서울대 국어교육과에게 바라는 역할을 제시 (독서 논술 토론, 남북한 소통 체계).
14주차 (12.03.)	수강생 기말 보고서 발표 (김한성, 나상수, 안교원, 류연석, 박지수)
15주차 (12.10.) 민현식	- 수강생 기말 보고서 발표 (박수빈, 권선린, 이재원) - 탈북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어과 통일교육의 방향

2	서울시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2019년 11월 6일	통일부 북한 자료 센터 현장 방문 및 자료 열람
3	서울시 관악구 우리들학교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2019년 11월 20일	탈북 청소년 대안 학교 현장 방문 및 실태 파악

○ 답사 참여 수강생 명단

장소	번호	성명	학년	소속(단과대/학과)
한꿈 학교	1	박지수	석사과정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	김한성	석사과정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3	권선린	4학년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북한 자료 센터	1	박상현	박사과정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	위햇님	박사과정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3	박지수	석사과정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4	김한성	석사과정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5	나상수	석사과정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6	이재원	4학년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7	권선린	4학년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8	박수빈	4학년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9	안교원	4학년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우리들 학교	1	박상현	박사과정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	위햇님	박사과정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3	박지수	석사과정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4	김한성	석사과정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5	나상수	석사과정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6	이재원	4학년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7	권선린	4학년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8	박수빈	4학년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9	안교원	4학년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전체 수업 수강생 명단

번호	성명	학년	소속(단과대/학과)
1	박상현	박사과정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	위햇님	박사과정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3	류연석	박사과정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4	박지수	석사과정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5	김한성	석사과정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6	나상수	석사과정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7	이재원	4학년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8	권선린	4학년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9	박수빈	4학년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0	안교원	4학년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답사 프로그램

연번	장소	일시	내용
1	경기도 의정부시 한꿈학교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2019년 10월 11일	탈북 청소년 대안 학교 현장 방문 및 실태 파악

④ 사업 성과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통일·평화·북한 문제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도움을 줌으로써 통일 시대의 한국어교육 연구자 양성에 기여.
- 탈북민 언어 교육 및 남북한 사전 편찬 작업의 구체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청소년기 탈북민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국어과 통일교육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 정량 평가

강의 만족도 정량 평가	
1. 소속 단과대학	사범대학 (10)
2. 성별	남(5), 여(5)
3. 학년	4학년 (3), 석사과정(3), 박사과정(3)
4. 이 강의가 통일·평화·북한 문제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9)
5. 이 강의를 통해 통일·평화·북한 문제에 대한 귀하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8) 그렇다(1)
6. 이러한 강의가 대학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9)
7. 이 강의를 주변 분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적극 권유할 의사 있음(9) 권유할 의사 있음(1)
8. 강의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매우 만족(9)

현장학습 만족도 정량 평가	
1. 소속 단과대학	사범대학 (10)
2. 성별	남(5), 여(5)
3. 학년	4학년 (3), 석사과정(3), 박사과정(3)
4. 이번 현장학습이 통일·평화·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10)
5. 이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귀하께서 수강한 통일·평화·북한교육 강좌와 연관성 있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10)
6. 이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8) 조금 필요(2)
7. 이 현장학습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매우 만족(10)
8.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주변 분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적극 추천 의향 있음(9) 권유할 의향 있음(1)

○ 정성 평가 (4학년, 석사과정, 박사과정 예시)

강의 만족도 정성 평가		
권·린	만족도 평가	여러 전문가들의 강의를 매주 들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다. 주로 현장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이 강의를 준비해주셔서 실제로 탈북민 언어 교육 및 남북한 사전 편찬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구체적인 현황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전문가가 일반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 형식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강의 이후에도 토론과 같이 서로 배운 내용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상 깊은 프로그램	우리를 학교 탐방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이전까지 제시해온 탈북민 정착 방안과는 다른 방안을 제시해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탈북민들이 받는 자금 자체는 충분하다는 점이 가장 놀라웠다. 그런데도 탈북민들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섞이지 못하는 것은 돈 외의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운동주 선생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기초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통합교육의 부재에 있음을 역설하셨다. 아무리 많은 돈을 지원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적응해나갈 수 없는 역량이 없다면 어디에서든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씀해주셔서 충격을 많이 받았다. 앞으로 다문화 통합교육과 같이 탈북 학생들이 남한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족도 평가	수업마다 특정 주제를 돌려써서 관련 분야 조예 깊은 분들을 모셔서 수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러한 교수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의 여러 측면에 대해 더욱 전면적이고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향후에도 이 과목이 운영된다면 북한에 관해 더 광범한 분야(예를 들어 북한의 영화예술, 북한역사, 북한)에서 더 많은 차원에서 연구 토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김·성	인상 깊은 프로그램	저는 개인적으로 한정미 선생님의 강의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에서는 실제적인 탈북민의 예를 많이 들었기에 이해하기가 쉽고 또한 유머적인 강의 스타일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이론 수업에서도 실제적으로 탈북민과 직접 접촉해보고 소통을 해 본 '전선'에 계시는 분들의 경험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특강을 통해 처음으로 북한 사회 언어의 이질화가 이 정도로 심한지를 알게 되었고 탈북민만으로 전체 북한 사회와 인민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었으며 탈북민의 정착 교육은 급선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만족도 평가	통일 분야 관련 언어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연자분들의 강연을 통해 360도의 다채로운 각도로 통일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마련해주셨다. 진행된 모든 탐방이 학문적 관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꼭 알아야 할 많은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는 유익하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한 정말 감사할 정도로 가치가 큰 공부 시간이 되었다. (한)국어교육 언어와 관련지어서도 소중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였다. 개선될 사항은 딱 한 가지 뿐이다.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후속의 강연이 다음 학기에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워낙 방대하고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된 강의였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 한 학기에 끝나기에는 공부와 연구를 하기에는 너무 짧다.
	인상 깊은 프로그램	모든 강연이 훌륭했지만 다음의 세 강연은 관련 분야에 대한 강연자의 전문적 지식과 식견뿐만 아니라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살아있는 내용들을 전달해주셨다. 존경심이 절로 나는 강연이었다.

		<p>#2 - 김은구 선생님 강연 북한의 인권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소중한 강연으로 김은구 선생님의 수업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꼭 다시 수강하고 싶다. 방대한 페이지의 인권집까지 무료로 주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감사드립니다.</p> <p>#4 - 한용운 선생님 강연 남북한 국어의 차이점에 대해, 특히 전문용어 관련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주셨다.</p> <p>#8 - 윤동주 선생님 강연 이번 강좌의 꽃 중의 꽃이었다고 생각되는 “살아있는 강연”이었다. “책상에서 공부한 것(학위논문)으로 전문가인척 하지 마라!”는 말씀이 오래 가슴에 남았다.</p>
--	--	---

현장학습 만족도 정성 평가	
권*린	대안 학교를 탐방하고 그곳의 학생들을 직접 만날 수 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를 통해 탈북민들이 뉴스에서나 접할 수 있는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공간에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탈북민 학생들과의 만남이 너무 짧게 이루어져 아쉬웠습니다. 이런 일회성 만남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함께 무언가를 만들거나 협동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교류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성	대안학교로 가서 북한 이탈 주민과 대안 학교 선생님들과 직접 만나고 이야기 나누면서 탈북민 정착 실태와 언어 교육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총장님들의 강연을 통하여 대안학교가 면하고 있는 종종 어려움과 문제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국어 교육과 대학원생으로서 책임감을 짊어지고 탈북민의 정착을 위해 이바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해준 생동감 있고 유익하며 많은 생각할 거리를 가져다 준 -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었다. 북한교과서 포함 다양한 북한 매체들을 접할 수 있었던 북한센터는 앞으로 나의 연구를 위해 자주 방문하는 보물창고가 될 것이다. 우리들학교는 탈북민학교의 살아있는 오늘을 보여주는 너무나 소중한 사례였고, 현재 그 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모습과 선생님들의 상세한 교육관, 커리큘럼 등에 대한 설명들은 앞으로 연구주제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좌 관련) 기회가 된다면 더 다양한 관련 탐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방학 기간을 이용해 해외탐방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학습 관련)

⑤ 관련 자료

○ 사진



○ 설문지 샘플

통일교육선도대학 강좌 만족도 조사 문항지	
<p>※ 이 설문은 통일교육선도대학 강좌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강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수강생 여러분의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은 추후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체제에 대한 개선을 위한 것으로 통계 자료로만 사용되며, 개인별 응답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p>	
<p>[응답자 특성문항]</p> <p>Q01. 소속 단과대학 ① 인문대학 ② 자연과학대학 ③ 법과대학 ④ 사회과학대학 ⑤ 신법대학 ⑥ 경영대학 ⑦ 공과대학 ⑧ 생명과학계열 ⑨ 예체능계열 ⑩ 기타</p> <p>Q0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p> <p>Q03.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대학원생</p>	
<p>[평가문항]</p> <p>1. 이 강의가 통일·평화·북한 문제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 2) 조금 도움 3) 별로 도움 되지 않음 4) 전혀 도움 되지 않음</p> <p>2. 이 강의를 통해 통일·평화·북한 문제에 대한 귀의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별로 그렇다 4) 그렇지 않다</p>	
<p>한시, 서명, 인성(수업시간) 별도 '부외방어'인 (향후 운영 개선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만족스러운 점: 수업마다 특정 주제를 둘러싸서 관련 분야 자료도 짚어 주신 분들을 모셔서 수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러한 교수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 의 여러 측면에 대해 더욱 깊이있게 다룰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역 향후에도 이 과정이 운영된다면 북한에 관해 더 광범한 분야에를 좀더 북한 의 영화예술, 북한 역사, 북한에서 더 많은 차원에서 연구 토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p> <p>6-2. 이 강좌에서 이루어진 특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특강은 무엇입니까? 해당 특강에 표 시(말씀)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를 자세하게 서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1) 오현이 선생님(강연대), "북한 혹은 이북의 국어 교육 혹은 조선어 교육" 2) 김은구 선생님(서술대), "북한의 매체와 인권" 3) 원정민 선생님(학내원), "탈북민 적응 실태: 언어 적응 교육용 중심으로" 4) 황용준 선생님(겨레발전사전 남북공동발전사업회), "겨레발 총합을 위한 사전, <겨레 발전사전>" 5) 영수집 선생님(서술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연구" 6) 권재호 선생님(서술대), "남북한 언어 차이, 말다툼기와 전문용어" 7) 이대성 선생님(국어원), "북한의 어문규범" 8) 동동주 선생님(우리들학교), "탈북다문화학생의 정체성 인식과 교육" 9) 김두연 선생님(한글학교), "탈북다문화학생에 대한 이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 저는 개인적으로 한창이 선생님의 강의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에서는 실제적인 탈북민의 예를 많이 들었기에 이해하기가 쉽고 또한 유익적인 강의 스타일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수업에서도 실제적으로 탈북민과 직접 접촉 할수있고</p>	

○ 강의안 샘플

북한 혹은 이북의 국어교육 혹은 조선어교육

오현아(吳玄娥)*

O 강의 목표

(1) 북한 혹은 이북의 국어교육 혹은 조선어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소명할 수 있다.
 (2) 북한 혹은 이북의 국어교육 혹은 조선어교육의 특성에 대해 탐구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북한 혹은 이북의 국어교육 혹은 조선어교육의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3) 북한 혹은 이북의 한국어교육 혹은 조선어교육의 특성에 대해 탐구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북한 혹은 이북의 한국어교육 혹은 조선어교육의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1. 들어가며

북한의 국어교육에 왜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이 특강 시간에 어떠한 학습 경험을 기대하나요?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것과 제공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 혹은 낯간 혹은 이남의 연구자로서의 기본적인 한계

주제	주제 표현어	비고
대상	미흡	이북에 널리 다하는 발음 미묘의 현상이 표현어로 인정됨. '어리' 같이 모여 쓰는 등의 미묘한 소문 발음은 미흡함. 이 발음은 미흡의 발음으로, 발음이 또 다른 발음도 인정됨. (예) '나는 이북의 언문을 잘 읽는다' 같은 발음도 인정됨. (예) '이북의 언문을 잘 읽는다' 같은 발음도 인정됨.
이북어	미흡	(예) '나는 이북어' 내 서어(이)가 주어지.

[7] 북한지역연구 특강 (박수진 지리학과 교수)

① 사업 목적

- 지난 2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학부 전공선택 “북한지역연구특강”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을 고도화하고 이를 운영함으로써 통섭형 북한지역·지리 교육과정의 틀 (framework) 마련
- “북한지역연구특강” 과목의 교과 구성(curriculum) 및 내용의 체계화
- “북한지역연구특강” 과목의 기존 강점인 전문가·체험자 중심의 외부강사 활용·답사 진행에 대한 발전·확대
- “북한지역연구특강” 과목의 실제 운영을 통한 북한지역·지리 교육과정의 발전·확산방안 마련

② 강좌 개요

- 개최학기 및 소속 학과: 2019년 2학기,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 학점 및 성적 부여 방식: 3학점, S/U
- 과제: 답사대체행사 참가기(A4 3장 이내, 불참 시 북한관련 서적 서평 작성), 기말과제 (강의에 대한 비판적·건설적 평가보고서)

③ 강좌 내용

○ 주차별 강좌내용

주차(일자)	강의 주제	강사 명	강사 소속
9월 4일	강의 소개·북한의 지리 일반	담당교수	
9월 11일	북한의 지형	이광률	경북대학교 교수
9월 18일	북한의 생태환경·식생	공우석	경희대학교 교수
9월 25일	휴강(지리학과 답사주간)		
10월 2일	북한의 토지이용과 수문	남 영	연변대학교 교수
10월 9일	휴강(한글날)		
10월 16일	개성공업지구의 역사와 변천	홍승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과장
10월 23일	북한 소재 '명승'과 자연관광 자원	신성희	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 연구위원
10월 30일	북한의 농업과 경제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월 6일	북한의 교통인프라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산학협력전담교원

○ 사업 홍보·소개 PPT

프레젠테이션용 홍보 자료 (일부 슬라이드)

메일 발송용 홍보 자료 (일부 슬라이드)

○ 수강생 북한 교과서 서평 샘플

2019-2 통일시대 국어교육

북한 인민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 분석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018-14143 박수진

1. 들어가며

교육은 현 사회의 안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 미래 세대를 사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교육의 과정에서 교과서는 가장 대표적인 교육 재원으로 하나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 특히 박수진(2015)에서는 '국어 교과서는 정치, 문화, 교육의 원동기'라는 관점에서 그 힘이 발휘하는 텍스트라고 언급하고 있을 정도이다.¹⁾

한반도는 두 정치적 체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다. 북한은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이고, 그리고 남에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남한이 자리잡고 있다.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각 체제에서 쓰이는 교과서는 지향하는 이념을 담고, 이를 사회의 구성원들의 가치관에 편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문에서는 북한의 인민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가 어떠한 내용과 가치관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²⁾

2. 본문

2.1. 개요

이제 표를 활용하여 북한 인민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의 73장을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

기간	특징	비고	
1기 [1960-1972]	2기 [1973-1985]	3기 [1986-1995]	4기 [1996-2011]
유일사상 구축기	사회주의 교육제도 확립시기	세습제 확립기	김정일 일인 독재기

[표 1] 임창호(2012), 북한의 교육정책 변화와 이상화 시기

- 임창호(2012)에 따르면, 김정일을 원수로 칭한 것이 1996년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이며, 1992년 교육과정 개정 이후 12학년제였던 기초지급 과정부가 14학년제로 정쳐 중앙 시간제 가르치도록 하였다. 임창호(2012)는 김정일 부처의 구체적인 이상화 표본들을 중심으로 소학교 국어교과서를 살펴본 바 있다. 2007년 이후에 발간된 국어 소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경향이 계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이순영(2002)도 김정일이 사탕한 시정을 기준으로 북한의 정치사교육이 김정일을 이상화하고 동승하는 담론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 이장현(2007)은 2003년도까지 출간된 국어교과서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북한의 소학교 국어교과서가 순수 국어단편을 제외한 80% 이상의 단편에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8번의 교육과정의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비록 면에서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국민 기초 교육의 핵심에 해당하는 소학교 교과서를 통한 북한정체교육의 목적이 계속되어 왔음을 확인해준다.

11월 13일	남북교류협력과 서해경제공동특구 추진방안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
	한반도 생태계 서비스의 시공간 변화와 사회-생태적인 지속가능성	이훈중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다행위자시스템을 이용한 한반도 토양의 사회생태적 건강성 평가	안유순	지리학과 박사과정
11월 20일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성공한 모델이 될 수 있는가?: 협력과 신뢰가 남북접경지역에 미치는 영향	백일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11월 27일	북한의 생물다양성과 자연보호지역	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연구위원
12월 4일	북한의 도시	조총희	북방연구회 사무국장
12월 11일	북한의 기후	이은걸	경희대학교 교수
보강 12월 14일	북한의 해양	임중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위촉전문연구원

○ 주차별 세부내용

주차 (일자)	세부내용
제 1주 9월 4일	강의를 소개하고, 북한지역연구특강의 강의 주제 전반을 포괄하는 기초 강연을 수행하였다. 강연제목은 “새로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서울대인의 역할”으로, 남북의 관계개선과 통일 이후의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반도 환경·생태의 관리방안과 이에 대한 연구성과, 그리고 이를 위한 서울대의 역할로 구성되었다.
제 2주 9월 11일	북한의 지형에 대해서 다수의 연구를 해온 경북대학교 이광률 교수를 초청하여, 북한의 지형과 지질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였다. 북한의 지형특성과 지형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기후, 식생 등)을 소개하고, 이것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각종 연구 기법을 소개하였다.
제 3주 9월 18일	생물지리학, 특히 식물지리학 분야의 대가이자 북한 및 동북아시아 식생연구를 수십년간 진행해 온 경희대학교 공우석 교수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북한의 국화(합박꽃)소개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식생의 분포와 생태에 대해서 학부생 수준에서 흥미있는 소개를 진행하였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남북 식생생태계의 위기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학생들과 논의하였다.
제 5주 10월 2일	연변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며, 북한의 연구진들과 많은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던 남영 교수의 강의였다. 남영교수는 북한의 토지이용과 수문에 대해서 북한 학자들과 공동 연구하면서 얻은 많은 성과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환경화에 대응하는 북한의 노력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북한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소개하였다.
제 7주 10월 16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실제 근무하며 현장에서의 남북 실무협상을 진행하였던 경험이 있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홍승표 과장이 강연을 진행하였다. 홍승표 과장은 개성공업지구의 개요와 발전과정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강의는 학생들에게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사람들과의 교류와 북한사람들의 삶을 현장감있게 소개할 수 있었다.
제 8주 10월 10일	북한의 금강산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문화지리학자인 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의 신성희 박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하였다. 신성희 박사는 금강산에 대한 다양

주차 (일자)	세부내용
23일	한 사진과 도판, 북한 내·외의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명승과 자연관광자원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리고 김정은 이후 북한의 관광발전 전략에 대해서 잘 알려진 기사 위주로 소개하면서 그들의 발전전략과 명승과의 연결점에 대해서 강론했었다.
제 9주 10월 30일	북한의 농업협력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보유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박사의 이론과 실재가 겸비된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 강연에서는 강연자의 북한 방문 경험, 북한에 대한 농업 지식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돈된 지식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은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북한의 농업현실에 대한 이해를 충실히 할 수 있었다.
제 10주 11월 6일	한국의 토목분야 대가로 경부고속철도 등 인프라 구축 참여 경력이 다수 있는 건설환경종합연구원 이복남 교수를 초청하여, 최근 진행하고 있는 북한의 인프라에 대한 연구를 학생에게 소개하였다. 그 연구 중 핵심적인 분야는 북한의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으로, 그동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선도적인 연구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미래 통일국토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 11주 11월 13일	답사일정을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진행할 수 없어, 답사대체프로그램으로써 서울대학교-연변대학교의 통일관련 합동 학술행사를 참관하는 것으로 답사를 대체하였다. 다소 학생들에게는 어렵고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이어졌지만, 실제 진행되는 북한지역에 대한 최신 연구를 통해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접하기 어려웠던 공동 학술행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제 12주 11월 20일	접경지역 연구와 사회지리 분야에 전문가이고, 개성공업지구 관련 연구를 수 차례 수행한 바 있는 아시아연구소 백일순 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지난 개성공업지구 강의에 대한 학생의 관심이 높아, 사회지리학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백일순 박사의 강의를 추가하였다. 개성공업지구를 접경분야 전문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제 13주 11월 27일	한국을 대표하는 기후변화와 환경변화의 전문가이자, 북한환경분야 연구의 권위자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명수정 박사를 초청하였다. 명수정 박사는 본인의 전문분야뿐 아니라 북한의 주요 환경문제의 현황과 원인, 대책에 대해서 학부생 수준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북한의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한반도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었다.
제 14주 12월 4일	새터민으로 북한에 대한 많은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북방연구회의 조총희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였다. 강사의 북한에서의 경험과, 남한에서 북한 연구를 진행하며 얻은 지식과 정보가 결합된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북한의 도시에 대한 현장감있는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한 북한에 대한 경험 공유는 학생들에게 생동감있는 지식과 간접 경험을 제공해 주었다.
제 15주 12월 11일	기후 및 환경분야 전문가로 해외에서 활동하다 최근 한국(경희대학교 지리학과)으로 복귀한 세계적 기후학자인 이은걸 교수의 북한 기후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는 교육이지만, 북한에 대한 이론 중심의 기후 강의에 비해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향상시키고 살아있는 지식을 교육시킬 수 있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환경문제와 경제사회문제의 핵심적인 기후변화 문제를 본 수업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다.
보강 12월 14일	해양지리 분야의 신진 연구자이자, 북한 관련 원격탐사 연구를 다수 수행한 바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임중서 박사를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강연을 진행한다. 특별 강연에서는 자료가 부족한 북한의 해양 및 환경 관련 연구에서 위성영상의 사용

주차 (일자)	세부내용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소개한다. 이를 통해 북한연구에 대한 중요한 기법의 소개와 함께 북한의 해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 16주 12월 18일	수문학과 토목 분야 전문가로 북한의 수자원 관리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한 대전대학교 장석환 교수를 초빙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북한의 물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북한의 농업생산과 공업,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은 북한의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적 요인과 미래 기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수강생 명단

번호	성명	학년	소속	번호	성명	학년	소속
1	주덕현	4	인문대학 국사학과	29	김민주	2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	조윤재	3	인문대학 국사학과	30	서민석	2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3	권민성	1	인문대학 국사학과	31	전성배	2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	김세현	1	인문대학 국사학과	32	장주은	1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5	배거봉	4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33	석송주	1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6	오승준	4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34	강민수	1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7	김성주	3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35	임준서	1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8	김민석	3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36	오세빈	1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9	허수연	2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37	우성재	1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0	백종찬	4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38	박소화	1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1	정영진	4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39	김서윤	1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2	김세연	2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40	김민지	1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3	김민정	2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41	전성훈	1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4	신재섭	4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2	정희재	1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5	염인수	4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3	고창현	4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16	유기영	4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4	김기민	4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17	전선우	4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5	백승우	3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18	이승곤	4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6	김지윤	3	경영대학 경영학과
19	정의진	4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7	주혜린	1	경영대학 경영학과
20	하태영	4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8	김세은	1	경영대학 경영학과
21	정진우	4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9	김성제	4	농생대 농경제사회학부
22	김경도	4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50	진동영	4	농생대 농경제사회학부
23	박성환	4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51	장고은	4	농생대 농경제사회학부
24	김찬일	3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52	김성아	4	음악대학 국악과
25	이건학	4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53	김혜원	4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26	호태원	2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54	변상훈	3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27	박경준	2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55	김유진	2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28	윤한도	2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56	최준호	2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 답사 프로그램

- 답사대체 프로그램 : 통일관련 학술행사 참여
 - (당초 답사 프로그램: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취소)
 - 행사명 : 서울대-연변대 공동학술대회 “한반도의 사회생태적 건강과 지속가능성”
 - 주최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연변대학교
 - 후원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일시/장소 : '19. 11. 13(수) 13:00-18:30/아시아연구소 영일홀
 - 세부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소속)
13:00~14:00	오프닝 세션	
	세션 1 : 한반도의 생태적 건강 인식과 평가	
	한국명·한국인의 공간지리문화로서의 상지	성종상(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다행위자시스템을 이용한 한반도 토양의 사회생태적 건강성 평가	안유순(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박수진(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14:10~15:30	Urban expansion in the transnational area of Changbai Mountain: A scenario analysis based on the zoned Land Use Scenario Dynamics-urban model	Zhang Da(연변대학교 지리해양과학원 교수)
	토론	김대현(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남영(연변대학교 지리해양과학원 교수)
	세션 2 : 한반도의 환경복원과 지속가능성-연구와 정책	
	백두대간 복원을 위한 남한-북한-중국 공동연구의 제안	손학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5:50~16:50	두만강 유역의 습지생태평가 및 보존·복원에 관한 연구	리란(연변대 지리해양과학원 교수)
	토론	엄은혜(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강원(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세션 3 : 북한과 한반도연구를 위한 새로운 접근	
	남북교류협력과 서해경제공동특구 추진방안	이정훈(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
	한반도 생태계서비스의 시공간 변화와 사회-생태적인 지속가능성	이훈종(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17:05~18:30	환동해 지역의 고대 해상 교류 연구:성과와 한계	고일홍(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토론	김석주(연변대 지리해양과학원 교수), 박배균(서울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교수), 백일승(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18:40~19:30	학생-발표자 간담회(소담마루)	

○ 답사대체 프로그램 참여자 명단

- 상기 전체 수강생 명단과 동일

④ 사업 성과

○ “북한지역연구특강” 강의의 안정적 정착

- 본 프로그램은 지리학과 전공선택 “북한지역연구특강”으로 2017년 2학기에 강으로써 개발된 이후 3년차를 맞는 강의임
- 본 과에서는 대체로 전공선택 강의를 2년에 한번씩 개설하나, 본 강의는 1년에 한번씩 개설함에도 매년 강의에 대한 관심이 높음

연도	2017	2018	2019
수강정원	50	50	60
수강신청인원(명)	60	53	64

- 특히, 이번 북한지역연구특강 강의는 “(가칭) 북한지리 교과서 개발”과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지난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교과과정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지역연구 강의에 대한 관심 고양 : 강의 참여 인력 및 수강생의 다양성

- 강사 섭외의 다양성 : 섭외한 16명의 강사 중 5명(31.3%)이 비지리학 전공자이며, 많은 비지리학 분야 전문가들이 관심을 표명하였음
- 수강생의 다양성 : 학부 전공선택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학생이 본과 학생이 아니며, 40.6%(26명)의 학생들이 지리학 전공과도 무관

구분		지리학 주전공	지리학 복수전공	지리학 부전공	전공 무관	합계	
본과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30				30	
타과	인문대학	국사학과		1	3	4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1		5	6
		경제학부		1			1
		사회학과		1			1
		인류학과				4	4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2	2
		지구환경과학부				1	1
		경영대학	경영학과	1		4	5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1	3	4
	음악대학	국악과				1	1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2			3	5	
합계		32	4	2	26	64	

□ 정량 평가 : 설문조사 기반, 65명 중 61명 응답

○ 강좌 만족도 조사(공통)

- 90%이상이 강좌에 만족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이 인정함.

<강좌 만족도 조사 정량평가 공통부분>

1. 이 강의가 통일·평화·북한 문제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도움 (1)	조금 도움 (2)	별로 도움 되지 않음 (3)	전혀 도움 되지 않음 (4)
인원	35	25	1	0
비율	57.38%	40.98%	1.64%	0.00%
2. 이 강의를 통해 통일·평화·북한 문제에 대한 귀하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도움 (1)	조금 도움 (2)	별로 도움 되지 않음 (3)	전혀 도움 되지 않음 (4)
인원	24	30	7	0
비율	39.34%	49.18%	11.48%	0.00%
3. 이러한 강의가 대학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필요 (1)	조금 필요 (2)	불필요함 (3)	매우 불필요함 (4)
인원	41	20	0	0
비율	67.21%	32.79%	0.00%	0.00%
4. 이 강의를 주변 분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응답	적극 추천 의향 있음 (1)	권유할 의향 있음 (2)	별로 추천 안함 (3)	잘 모르겠음 (4)
인원	32	25	2	2
비율	52.46%	40.98%	3.28%	3.28%
5. 강의 전반에 걸쳐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응답	매우 만족 (1)	조금 만족 (2)	불만족 (3)	매우 불만족 (4)
인원	30	28	3	0
비율	49.18%	45.90%	4.92%	0.00%

○ 답사 만족도 조사(공통)

- 상황상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강의 만족도에 비해서 다소 낮은(50~70%) 수준이며, “매우 만족” 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20~30%수준으로 강의 만족도에 비해서 낮음
- 대체 프로그램이 상황상 급하게 준비되었음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답사가 상황상 진행되지 못했을 때를 고려한 예비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음

<답사 만족도 조사 정량평가 공통부분>

1. 이번 현장학습이 통일·평화·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도움 (1)	조금 도움 (2)	별로 도움 되지 않음 (3)	전혀 도움 되지 않음 (4)
인원	14	32	14	1
비율	22.95%	52.46%	22.95%	1.64%
2. 이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귀하께서 수강한 통일·평화·북한교육 강좌와 연관성 있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그렇다 (1)	조금 그렇다 (2)	별로 그렇지 않았다 (3)	전혀 그렇지 않았다 (4)
인원	23	27	10	1
비율	37.70%	44.26%	16.39%	1.64%
3. 이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필요 (1)	조금 필요 (2)	불필요함 (3)	매우 불필요함 (4)
인원	31	22	8	0
비율	50.82%	36.07%	13.11%	0.00%
4. 이 현장학습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다습니까?				
응답	매우 만족 (1)	조금 만족 (2)	불만족 (3)	매우 불만족 (4)
인원	17	28	15	1
비율	27.87%	45.90%	24.59%	1.64%
5.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주변 분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응답	적극 추천 의향 있음 (1)	권유할 의향 있음 (2)	별로 추천 안함 (3)	잘 모르겠음 (4)
인원	16	27	15	3
비율	26.23%	44.26%	24.59%	4.92%

강의정보			강좌의 기대정도		가장 만족한 강좌		가장 불만족한 강좌	
일시	강의주제	강사(소속)	명	%	명	%	명	%
11월 13일	북한의 경제와 산업	이정훈 (경기개발연구원)	9	14.75%	4	6.56%	2	3.28%
11월 13일	북한의 생태계서비스와 자연재해	이훈중 (국토문제연구소)	0	0.00%	0	0.00%	2	3.28%
11월 13일	다행위자시스템을 이용한 한반도 토양의 사회생태적 건강성 평가	안유순(지리학과)	0	0.00%	2	3.28%	2	3.28%
11월 20일	개성공업공단은 남북경협의 성공한 모델이 될 수 있는가	백일순(아시아연구소)	2	3.28%	4	6.56%	5	8.20%
11월 27일	북한의 생물다양성과 자연보호지역	명수정(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4	6.56%	11월 27일 강의 시작 전에 설문을 마감하여 이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없었음			
12월 4일	북한의 도시	조충희(북방연구회)	1	1.64%				
12월 11일	북한의 기후	이은걸 (경희대학교 교수)	0	0.00%				
12월 14일	북한의 해양	임중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0	0.00%				
12월 18일	남북한 물 협력 무엇이 시급한가	장석환 (대전대학교 교수)	0	0.00%				

○ 자체 추가 문항 조사-강좌별 만족도 조사

강의정보			강좌의 기대정도		가장 만족한 강좌		가장 불만족한 강좌	
일시	강의주제	강사(소속)	명	%	명	%	명	%
9월 11일	북한의 지형	이광률 (경북대학교 교수)	1	1.64%	0	0.00%	12	19.67%
9월 18일	북한의 생태환경과 식생	공우석 (경희대학교 교수)	1	1.64%	2	3.28%	10	16.39%
10월 2일	북한의 토지이용과 수문	남영(연변대학교 교수)	2	3.28%	5	8.20%	9	14.75%
10월 16일	개성공업지구의 역사와 변천	홍승표(개성공업 지구지원재단 과장)	18	29.51%	35	57.38%	0	0.00%
10월 23일	북한 소재 '명승'과 자연관광 자원	신성희(건국대학교)	7	11.48%	3	4.92%	9	14.75%
10월 30일	북한의 농업과 경제	김영훈(한국농촌 경제연구원)	6	9.84%	3	4.92%	2	3.28%
11월 6일	북한의 교통인프라	이복남 (건설환경종합연구소)	10	16.39%	3	4.92%	8	13.11%

□ 정성 평가

-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진 초청을 진행하고, 다른 곳에서 듣기 어려운 강연이 수업에서 구성되었다는 점을 만족스러워 함
- 그 외에도 강의 자체가 학점 부담이 적다(S/U)는 점, 학술대회 참여 등 평소에 하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 강의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새롭고 독특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높은 평가를 함

[8] 동아시아 비교인문학 (홍종욱 인문학연구소 교수)

① 사업 목적

-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북한 인식, 동아시아 인식 심화
 - 한일 간의 독도 문제, 북중 간의 백두산 경계 문제를 동아시아 및 세계의 영토 분쟁에 비추어 따져본 뒤, 근대에 들어 남북 사이 그리고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서 사람의 이동이 남긴 문제를 검토하고, 끝으로 동아시아 각국이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는 방식을 비교 검토하겠다.
- 남북 화해, 동아시아 화해 시대를 열어갈 인재 양성
 - 남북한과 동아시아 여러 나라 사이의 역사 갈등에 초점을 맞춰, 영토 문제, 국경을 넘는 이동, 역사와 기억 등 세 주제를 다룸으로써 남북 협력 및 동아시아 화해를 위해 요구되는 적절한 지식과 성숙한 시각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강좌 개요

- 개최학기 및 소속 학과: 2019년 2학기 동아시아비교인문학 연합전공
- 학점 및 성적 부여 방식: 수업참여도, 중간고사, 과제물을 평가

③ 강좌 내용

○ 주차별 강좌내용

주차(일자)	강의 주제	강사 명	강사 소속
제1주 0903	영토와 경계①: 사료 속의 독도	홍종욱	인문학연구원
제2주 0910	[해외학자 초청강연] 한일, 북일 관계의 역사와 전망	오타 오사무	도시사대학
제3주 0917	영토와 경계②: '울릉도 쟁계'와 안용복, 서양의 울릉도/독도 '발견'	홍종욱	인문학연구원
제4주 0924	[전문가 초청강의] 영토와 경계③: 북중 사이의 역사적 경계	배성준	동북아역사재단
제5주 1001	영토와 경계④: 러일전쟁과 울릉도/독도	홍종욱	인문학연구원
제6주 1008	영토와 경계⑤: 해방과 독도 영유 / 고문헌자료실 견학	홍종욱	인문학연구원
제7주 1015	중간시험	홍종욱	인문학연구원

제8주 1022	현장 답사	홍종욱	인문학연구원
제9주 1029	이동과 월경①: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조선인	홍종욱	인문학연구원
제10주 1105	[전문가 초청강의] 이동과 월경②: 제2차 대전과 한국인 BC급 전범	장문석	경희대학교
제11주 1112	[전문가 초청강의] 이동과 월경③: 일본에서의 북송과 남북	조수룡	국사편찬위원회
제12주 1119	역사와 기억①: 북거일의 "비명을 찾아서"와 조지 오웰의 "1984"	홍종욱	인문학연구원
제13주 1126	[전문가 초청강의] 역사와 기억②: 동북공정, 한국과 중국의 역사 갈등	위가야	성균관대
제14주 1203	역사와 기억③: 북한 역사학의 궤적 /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홍종욱	인문학연구원
제15주 1210	수강생 프레젠테이션	홍종욱	인문학연구원

○ 주차별 세부내용

주차 (일자)	세부내용
제1주 0903	영토와 경계①: 사료 속의 독도 사료 속의 독도: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및 일본 사료에 보이는 독도를 검토.
제2주 0910	[해외학자 초청강연] 한일, 북일 관계의 역사와 전망 한일청구권협정 '해결완료론' 비판. 구미 열강과 일본이 식민 지배 책임 회피라는 점에서 공범임을 지적. 북일관계의 현황과 전망을 검토.
제3주 0917	영토와 경계②: '울릉도 쟁계'와 안용복, 서양의 울릉도/독도 '발견' 울릉도를 둘러싼 조선 왕조와 일본 도쿠가와 막부 사이의 교섭을 검토. 울릉도, 독도 영유권 문제의 역사적 맥락을 확인.
제4주 0924	[전문가 초청강의] 영토와 경계③: 북중 사이의 역사적 경계 1712년 백두산정계비 건립에서 1962년 조중 국경조약에 이르는 간도문제의 역사와 쟁점을 소개
제5주 1001	영토와 경계④: 러일전쟁과 울릉도/독도 러일전쟁과 울릉도/독도: 일본의 독도편입과 한국의 대응을 양국의 근대화 과정과 관련지어 분석.
제6주 1008	영토와 경계⑤: 해방과 독도 영유 / 고문헌자료실 견학 해방과 독도 영유: 1947년 한국인의 독도 조사, 한일회담에서의 독도 문제 처리 등을 검토.
제7주 1015	중간시험
제8주 1022	현장 답사 서울 정동 일대 현장 답사: 환구단→덕수궁→구러시아공사관→서울역사박물관
제9주 1029	이동과 월경①: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조선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조선인: 일본에 의한 한국인 군사 동원 검토,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대외전쟁에서 야스쿠니 신사가 수행한 역할, 세계 국립묘지/군인묘지의 사례에 비추어 야스쿠니 신사를 둘러싼 쟁점을 검토.
제10주	[전문가 초청강의]

1105	이동과 월경②: 제2차 대전과 한국인 BC급 전범 최인훈의 장편 소설 『태풍』(1973)을 사례로 제국과 식민지의 이항대립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사의 원리를 탐색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데탕트 시기 최인훈의 그의 유년 시절에 걸친 '아시아태평양전쟁'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아시아의 여러 민족이 경험한 식민지 경험의 다양성을 인식한다. 『태풍』은 인도네시아를 배경으로, 식민지 민중의 삶에 근거한 '아시아주의'를 수행적으로 재구성한 소설이다. 최인훈은 베트남 방문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실감하고 '환경'이라는 조건에 유의하여 세계사를 재인식한다. 나아가 그는 선진과 후진이라는 서구적 원리와 구별되는 세계사 인식의 가능성을 아시아 민중의 삶에서 도출한다. [전문가 초청강의]
제11주 1112	이동과 월경③: 일본에서의 복송과 남북 해방 후 약 60만 명 이상이었던 재일조선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에 따라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들을 추방하고 싶어 했지만 남북 모두 받으려 하지 않았다. 급속한 공업화로 노동력이 대량으로 필요해진 북한 정부가 1959년부터 이들에 대한 '귀국사업'을 시행하였고, 84년까지 약 9만여 명이 이주하였다. 그러나 '귀국'한 고국에서도 이들은 자유와 평등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다시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유랑은 식민과 전쟁이 낳은 여러 코리안 디아스포라 중 하나이다.
제12주 1119	역사와 기억①: 북거일의 "비명을 찾아서"와 조지 오웰의 "1984" 역사와 기억을 통제하는 디스토피아를 다룬 두 소설을 비교 분석. 식민지 조선과 북한의 역사 기억 조작 문제를 검토. [전문가 초청강의]
제13주 1126	역사와 기억②: 동북공정, 한국과 중국의 역사 갈등 1. 중국에서 동북공정이 진행된 배경과 그 전개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소개한다. 2. 한국 학계의 대응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제3국(일본) 학자의 회고를 통해 관찰자적 시점에서 동북공정을 둘러싼 양국의 역사 분쟁을 검토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3. 고대의 역사상이 현재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행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정리하여 최근 불거진 사이비역사학 논란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적 기반을 제공한다.
제14주 1203	역사와 기억③: 북한 역사학의 궤적 /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북한 역사학의 궤적: 내재적 발전론, 주체 사관, 우리 민족 제일주의 등의 변천을 검토. /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의 궤적 '근린제국조항'의 추이, '새역모'의 성쇠를 중심으로 검토. 한국 역사교과서의 변천: 검인정, 국정 등 발행 방식 및 서술을 둘러싼 한국의 역사교과서 논쟁을 고찰.
제15주 1210	수강생 프레젠테이션

○ 전체 수업 수강생 명단

번호	성명	학년	소속(단과대/학과)
1	송시환	4	인문대 국사학과
2	홍동의	4	인문대 동양사학과
3	윤수진	4	인문대 중어중문학과
4	김유정	4	사회대 사회복지학과
5	최연우	4	인문대 중어중문학과
6	정영훈	3	자유전공학부
7	정수민	3	사회대 정치회교학부

○ 답사 프로그램

- 통일 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지원을 받아 동아시아비교인문학특강 수강생들과 함께 한국 근대사 격동의 현장인 서울 정도 일대 유적에 대한 학술 조사 및 답사를 실시하였다.
- 학술 조사는 2019년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다. 동아시아 비교인문학특강 수강생 7인 전원과 외부전문가 1인이 서울 정도 일대 한국 근대사 유적에 대하여 학술 논문 등을 참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학술 답사는 2019년 10월 15일에 실시하였다. 답사는 환구단 →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 덕수궁 석조전 → 덕수궁 중명전 → 정동교회 → 배재학당 → 구러시아공사관 → 서울역사박물관 순으로 진행하였다. 각 유적지에 대해 조사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을 가졌다.

○ 답사 참여 수강생 명단

- 상기 전체 수업 수강생 명단과 동일

④ 사업 성과

- 수강생들의 북한 인식 심화
- 수강생들의 동아시아 인식 심화
- 정량 평가

번호	문항	답변(비율)
	이 강의를 수강하고 난 후 귀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42.9%) 조금 그렇다(57.1%) 별로 그렇지 않다(0%) 전혀 그렇지 않다(0%)
2.	이 강의를 수강하고 난 후 귀하는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올 이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28.6%) 조금 그렇다(71.4%) 별로 그렇지 않다(0%) 전혀 그렇지 않다(0%)
3.	이 강의가 우리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의 변화와 방향을 이해하는 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57.1%) 조금 그렇다(42.9%) 별로 그렇지 않다(0%) 전혀 그렇지 않다(0%)
4.	이 강의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귀	매우 그렇다(71.4%)

	하의 전반적인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그렇다(28.6%) 별로 그렇지 않다(0%) 전혀 그렇지 않다(0%)
5.	이 강의가 통일의 파트너로서 귀하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28.6%) 조금 그렇다(57.1%) 별로 그렇지 않다(14.3%) 전혀 그렇지 않다(0%)
6.	이 강의의 수강이 귀하가 북한 주민 및 탈북민들을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바라보는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42.9%) 조금 그렇다(57.1%) 별로 그렇지 않다(0%) 전혀 그렇지 않다(0%)
7.	이 강의는 수업계획서 등에 따라 충실히 진행되었고, 수업 내용이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85.7%) 조금 그렇다(14.3%) 별로 그렇지 않다(0%) 전혀 그렇지 않다(0%)
8.	이 강의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다른 학생에게도 추천하고 싶은가?	매우 그렇다(71.4%) 조금 그렇다(28.6%) 별로 그렇지 않다(0%) 전혀 그렇지 않다(0%)
9.	이 강의의 전체적인 수업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 전개되었습니까?	조금 그렇다(28.6%) 별로 그렇지 않다(0%) 전혀 그렇지 않다(0%)



○ 설문지 샘플

통일 북한 관련 강좌 만족도 조사 설문지

본 조사는 통일관련 강좌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향후 강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지 조사는 익명처리되며, 설문지 제출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답자 특성사항]

Q01. 소속: 방화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듀테크칼리지
 기타

Q02. 성별: 남 여

Q03.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평가문항]

1. 이 강의를 수강하고 난 후 귀하는 통일에 필요한 것에 어떤 영향을 갖게 되었습니까?
 매우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의의 필요하지 않다

2. 이 강의를 수강하고 난 후 귀하는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올 이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없다 전혀 이익이 될 것 없다

3. 이 강의가 우리 정부에 대해 및 통일정책에 변화와 방향을 이해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4. 이 강의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귀하의 이해에 기여할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도움이 되었다 조금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5. 이 강의가 통일의 파트너로서 귀하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 이 강의의 수강이 귀하가 북한 주민 및 탈북민들을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바라보는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 이 강의는 수업계획서 등에 따라 충실히 진행되었고, 수업 내용이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8. 이 강의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다른 학생에게도 추천하고 싶은가?
 조금 추천한다
 매우 추천한다 전혀 추천하지 않는다

9. 이 강의의 전체적인 수업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 전개되었습니까?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 기타: 이 수업에서 개선할 점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관식)

○ 정성 평가 (수강생의 서술식 답변 소개)

- “시청각 자료 활용이 더 많았으면 좋을 것 같다.”
- “북한의 문화에 대해 더 알 수 있었다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 “학교에서 수업 홍보를 더 잘해서 이런 좋은 수업을 더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⑤ 관련 자료

○ 사진 (답사)

○ 강의안 샘플

4.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보식민주의'의 개념의 형성과
제국주의 및 수정주의 비판

김석현·김희일·손영철, 『조선 체제사』(조선 과학출판) 조선 과학서술의 일종인 조선체제 대역어, 『역사과학』(1963-5, 1963. 8).

고대로부터 근대에 걸쳐 타율성은, 정체성론을 비판.

보식민주의 역사학의 이점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보식민주의 본성이자 수정주의의 일부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형제국인 소련을 향해 발표.

4.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보식민주의'의 개념의 형성과
보식민주의 의제의 형해화

1960년대 북한의 역사학을 근근 대표적은 보식민주의 역사학의 실천은 고지, 고대사의 이른바 '분국론', 근대사의 출조와 및 甲斐政變 평가.

김석현, 『조선 체제사』(조선 과학출판) 조선 과학서술의 일종인 조선체제 대역어, 『역사과학』(1963-5, 1963. 8).

고대로부터 근대에 걸쳐 타율성은, 정체성론을 비판.

보식민주의 역사학의 이점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보식민주의 본성이자 수정주의의 일부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형제국인 소련을 향해 발표.

[9] 신입생 세미나: 북한지역과 한국현대문학 (방민호 국어국문학과 교수)

① 사업 목적

- 이 교과 강좌는 신입생들로 하여금 북한 및 남북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북한 여러 지역과 한국현대문학이 만나는 영역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하여 문학을 통한 문제 인식 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 ‘경원선’과 ‘경의선’을 키워드로 하여, ‘서울~원산’, ‘서울~신의주’에 해당하는 지역을 남북한의 연속성 위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 철도 부설의 역사를 통해 근대 초기에서 식민지에 이르는 시기의 역사와 해당 시기 문인들의 사소설·산문을 살펴봄으로써 남북한의 역사적·문화적 공통성을 확인한다.

② 강좌 개요

- 개최학기 및 소속 학과: 2019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 학점 및 성적 부여 방식: 출석 40%, 과제 30%, 수시 평가 및 태도 30%

③ 강좌 내용

○ 주차별 강좌내용

주차(일자)	강의 주제	강사 명	강사 소속
1주 (9월 3일)	수업 소개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2주 (9월 10일)	경원선은 어떤 철도인가?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3주 (9월 17일)	‘철원’과 한국문학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4주 (9월 24일)	이광수 장편소설 “흙”과 검불랑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5주 (10월 1일)	이광수 장편소설 “재생”과 석왕사, 금강산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6주 (10월 8일)	최인훈 장편소설 “서유기”와 원산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7주 (10월 15일)	김동인 소설 “마음이 열린 자여”와 경원선, 금강산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8주 (10월 29일)	경의선은 어떤 철도인가?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9주 (11월 5일)	개성과 박완서 문학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10주 (11월 12일)	작가와의 대화①	김정애	소설가

11주 (11월 19일)	황주와 “심청전”/ 평양과 이효석, 김사랑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12주 (11월 26일)	작가와의 대화②	이정	소설가
13주 (12월 3일)	정주, 광산과 김소월, 백석, 이광수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 주차별 세부내용

주차 (일자)	세부내용
1주 (9월 3일)	수업 소개 이 수업은 ‘경원선’과 ‘경의선’을 키워드로 ‘서울~원산’, ‘서울~신의주’에 해당하는 지역을 남북한의 연속성 위에서 이해하기 위해 개설되었음을 소개한다. 강의 전반(2~7주)은 ‘경원선’을 키워드로 철원, 검불랑, 금강산 등의 지역을 이광수, 최인훈, 김동인을 통해서 알아본다. 강의 후반(8~14주)은 ‘경의선’을 키워드로 개성, 황주, 평양, 정주, 광산, 신의주 등을 살펴본다. 수강자들은 세부 지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심화 학습한 뒤 결과물을 발표한다.
2주 (9월 10일)	경원선은 어떤 철도인가? 경원선은 서울~원산(元山)을 잇는 철도로 길이 223.7km이며 1914년 9월 16일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오늘날에는 국토 분단으로 용산역~백마고지역 사이의 94.4km만 운행되고 있다. 경원선이 지나가는 지역 - 철원, 평강, 검불랑, 삼방협, 석왕사 -등과 관련된 문인들과 그들의 작품을 살펴본다. 각자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수업시간에 다룰 세부 주제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3주 (9월 17일)	‘철원’과 한국문학 철원역은 1912년 경원선 개통 이후 1924년 금강산선까지 개통되다가, 1950년 9~10월 경 폐업하게 된다. 일제강점기 당시 강원도 북부의 철도 교통의 중심지였으나,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해 현재는 역의 모습은 찾기 어려워졌다.
4주 (9월 24일)	이광수 장편소설 “흙”과 검불랑 이광수의 『흙』은 1932년 4월 12일부터 1933년 7월 10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장편소설로, 당시의 농촌 계몽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갑진’이라는 인물은 정선과의 불륜 이후 느낀 바가 있어 검불랑에서 개간 사업 등을 펼치며 그간의 방탕한 생활에 대해 반성을 한다. 여기서 배경이 되는 검불랑은 경원선이 지나가는 역으로, 이광수의 소설을 통해 당시 검불랑 개간 사업의 풍경을 엿볼 수 있다.
5주 (10월 1일)	이광수 장편소설 “재생”과 석왕사, 금강산 이광수의 『재생』은 1924년 11월 9일부터 1925년 9월 28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장편소설로, 3·1운동에 가담할 만큼 의지가 굳은 신여성 주인공이 점차 세속적인 욕망에 젖어 자신의 삶을 파국으로 내모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현실에 끊임없이 타협하는 순영과 종교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깨닫게 되는 봉구의 대비를 통해 재생과 용서, 구원의 문제 등 이광수 문학의 주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석왕사와 금강산을 찾아보고, 당대 문인들의 다른 수필과 함께 읽어본다. 이를 통해 식민지 시기 석왕사와 금강산이 조선인에게 어떤 감흥을 주었는지 토의해 본다.
6주 (10월 8일)	최인훈 장편소설 “서유기”와 원산 1936년 4월 13일 함북 회령 출생인 최인훈은 원산중학을 거쳐 원산고등학교 재학 중 한국전쟁을 만나, 그해 12월 해군함정 LST 편으로 전 가족이 월남했다. 『서유

	기』의 주인공 독고준의 의식여행은 고향이라고 말해지는 W시를 향한 것인데, W시는 원산을 가리킨다. '원산'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는 '여러 검문소'를 거치면서, 그를 아직도 식민지 노예쯤으로 치부하는 일제를 표상하는 인물들, 한국사의 문제성을 드러내는 여러 인물들 등을 차례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주인공은 고향의 재판정에서 무죄 석방되는데, '고향에서의 방면'이라는 모티프는 『서유기』가 월남 작가의 고향 상실의 소설이자 고향을 회복하려는 소설임을 보여준다. 특히 원산은 최인훈, 이호철 등 많은 작가들이 월남을 하면서 거쳐 온 곳이다. 일제강점기부터 원산철수를 거쳐 현재의 원산까지 지도, 사진자료 등을 확인하면서 원산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개괄하여 살펴본다.
7주 (10월 15일)	김동인 소설 "마음이 열린 자여"와 경원선, 금강산 일제시대 금강산을 유람하는 방법의 하나는 경원선 고산역에 하차하여 금강산 장안사에서 차편으로 이동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원산역에서 원산항-장전항-온정리를 거쳐 금강산으로 가는 방법이다. 평양 출신 작가 김동인의 「마음이 열린 자여」에는 금강산을 여행하는 인물의 여정이 상세히 드러난다. 인물의 동선을 쫓아 '평양-장전항-온정리-금강산'으로 이어지는 장소들이 등장하고, 금강산 유람객의 일상과 풍경이 상세히 드러난다. 소설에 나타나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북한 지역의 풍경, 기차역의 모습, 장전항과 갑판 위의 풍경 등을 감상해 보도록 한다. 식민지 시대 기차역과 항구의 풍경을 사료들을 통해서 복원해보고, 북한 지역의 모습과 사람들의 생활사를 살펴본다.
8주 (10월 29일)	경의선은 서울을 시작으로 개성-사리원-신안주를 거쳐 우리나라 관서지방을 관통하는 총연장 299km의 종관철도다. 경의선 철도 부설과 관련하여 1876년~1910년까지는 근대화 담론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현재까지도 논란이 된다. 또한, 경의선 열차 운행이 만주 안동까지 연장되었고, 서울 남대문과 만주 장춘 사이 주 3회씩 직통 급행 열차가 운행되기도 했다. 일본 제국이 대륙 침략을 위해 부설한 경의선이 만주까지 열리게 되자, 식민지 조선인들은 만주를 둘러싼 제국주의 역학 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게 된다. 그만큼 경의선은 근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염두하면서 경의선이 지나는 평양, 사리원, 정주, 꾀산 등의 지역에 대해 문학을 통해 살펴본다.
9주 (11월 5일)	개성과 박완서 문학 1970년 장편소설 『나목』이 '여성동아현상모집'에 당선되어 문필활동을 시작한 박완서는 경기도 개풍군 출신이다. 박완서의 작품 중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작가의 어린 시절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소설로, 일제 강점기 말과 해방을 거쳐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10주 (11월 12일)	작가와와의 대화① 청진에서 태어나 2003년 탈북, 2005년 한국에 입국한 김정애 소설가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들어본다. 「오두막집 안주인」, 「서기골 로반」의 창작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설을 읽고 온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진다. 또, 북한 출신의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망명북한PEN'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청해 듣는다. 한국에서 북한에 대해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작품 활동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본다.
11주 (11월 19일)	황주와 "심청전"/ 평양과 이효석, 김사량 초기 한국 근대문학을 일구었던 김동인, 주요한을 비롯하여 김사량, 오영진 등 평양의 문학적 전통에 대해서 살펴본다. 식민지 시기 '구인회' 등 경성을 중심으로 문학장이 형성되기는 했으나, 평양 출신의 작가들은 문화적 유산과 지역 로컬리티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왕성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갔다. 주요한, 김동인,

	김이석, 오영진, 최명익 등의 작품에 나타나는 북한지역뿐만 아니라, 평양의 문화적 유산을 살펴본다. 또, 1934년부터 평양 송실공업전문대에서 교편을 잡았던 이효석, 평양 방문을 소재로 삼아 소설을 썼던 이태준 등의 작품 속에서도 북한 지역의 생활사를 살펴본다.
12주 (11월 26일)	작가와와의 대화② 북한 젊은이들의 남녀 간 연애프로세스를 묘사하면서 또 다른 메시지 즉 북한 젊은이들의 누려야 할 권리가 어떻게 권력 앞에 무너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편소설 「확대 재생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북한 당국의 감시에 의해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연애가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살펴보고, 북한 세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눈다. 또, 사랑과 권력을 다룬 세대소설인 만큼 한국 사회와 비교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소설을 읽어 온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13주 (12월 3일)	정주, 꾀산과 김소월, 백석, 이광수 1907년 12월 24일 독립운동가인 남강 이승훈에 의해 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 오산에 세워진 민족학교 '오산학교'는 조만식, 류영모, 주기용, 백인제, 김홍일, 한경직, 함석헌, 이충섭, 김억, 김소월 등 식민지 시기 지식인·문인이 거쳐간 곳이다. 한국의 대표 시인으로는 김억, 김소월, 백석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후, 경의선이 만주로 열리면서 백석은 신경 일대를 유람하면서 「남산의주유동박시봉방」, 「흰 바람벽이 있어」 등의 시와 「조선인의 요설」과 같은 산문을 썼다. 또 『테스』를 번역하기도 한다. 백석의 고민을 통해서, 당시 만주국을 둘러싼 일본의 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위치에 대해서 논의해 본다.

○ 전체 수업 수강생 명단

번호	성명	학년	소속(단과대/학과)
1	이정빈	1	체육교육과
2	강석훈	1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3	신주용	1	자유전공학부
4	신동경	1	자유전공학부
5	백나경	1	인문계열
6	김소정	1	언론정보학과
7	구도윤	1	경영학과
8	박희성	1	경제학부
9	신도협	1	경제학부
10	김세현	1	정치외교학부
11	정진안	1	자유전공학부
12	임서연	1	교육학과
13	정지웅	1	응용생물화학부
14	노희찬	1	컴퓨터공학부
15	조민제	1	경제학부

④ 사업 성과

- 신입생들로 하여금 북한 및 남북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북한 여러 지역과 한국현대문학이 만나는 영역을 중심으로 문학을 통한 문제 인식 형성

을 돕는다.

○ 한국 근대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통해 남북한의 공통적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깨닫는다.

○ 정량 평가

- 참여자 수: 신입생 15인으로 이루어진 교과목 운영
- 결과물: 수강생들의 발표자료 1인당 한 편 산출
- 만족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강의에 만족을 표하였고, 통일 인식의 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강의만족도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다음과 같다.

[평가문항 분석]

- 이 강의를 수강하고 난 후 귀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1) 매우 필요하다 7 2) 조금 필요하다 8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0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 이 강의를 수강하고 난 후 귀하는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올 이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6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7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2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0
- 이 강의를 우리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의 변화와 방향을 이해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이 된다 7 2) 조금 도움이 된다 5
 3) 별로 도움이 안 된다 3 4) 전혀 도움이 안 된다 0
- 이 강의를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귀하의 전반적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이 되었다 14 2) 조금 도움이 되었다 1
 3)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0 4)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0
- 이 강의를 통일의 파트너로서 귀하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4 2) 조금 그렇다 7
 3) 별로 그렇지 않다 4 4) 전혀 그렇지 않다 0
- 이 강의의 수강이 귀하가 북한 주민 및 탈북민들을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바라보는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13 2) 조금 그렇다 2
 3) 별로 그렇지 않다 0 4) 전혀 그렇지 않다 0

7. 이 강의는 수업계획서 등에 따라 충실히 진행되었고, 수업 내용이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 | | | |
|--------------|----|--------------|---|
| 1) 매우 그렇다 | 15 | 2) 조금 그렇다 | 0 |
| 3) 별로 그렇지 않다 | 0 | 4) 전혀 그렇지 않다 | 0 |

8. 이 강의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다른 학생에게도 추천하고 싶은가?

- | | | | |
|--------------|----|--------------|---|
| 1) 매우 그렇다 | 14 | 2) 조금 그렇다 | 1 |
| 3) 별로 그렇지 않다 | 0 | 4) 전혀 그렇지 않다 | 0 |

9. 이 강의의 전체적인 수업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전개되었습니까?

- | | | | |
|--------------|----|--------------|---|
| 1) 매우 그렇다 | 13 | 2) 조금 그렇다 | 2 |
| 3) 별로 그렇지 않다 | 0 | 4) 전혀 그렇지 않다 | 0 |

○ 정성 평가

- 북한 지역과 한국현대문학의 관련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 수업을 통하여 남북한 통일 또는 통합, 남북한간 평화 체제 형성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강생들로 하여금 지역학으로서의 북한 연구나 지역학을 매개로 한 북한 문학 접근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북한에서 온 작가와의 만남을 통하여 구체적인 북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⑤ 관련 자료

○ 사진



경의선의 현재(우리나라)

서울 파주시의 경의선 철도 중단점 사진

그러나...?

- 김정일이 원산을 관광단지로 만들고 있음
- 김정일이 원산이 고향이라고 한다는 설
 - 단순회 고향이 원산이라서?
 - 애초에 고향이 원산이긴함?
- 호텔, 카지노 등이 들어올 것이라고 함
- 주변에 금강산, 마식령 스키장, 갈마비행장 등이 이미 있긴 함

○ 설문지 샘플

북한 일상 복원한 관현악단 김성철과 단원격도도 조나소 관현악단지

5. 이 광경이 올랐을 때 피르네로서 위치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화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6. 이 광경의 수렴이 우리가 북한, 무한 및 일찍한 것을 주의를 할 목적으로 내러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7. 이 광경은 수렴계획서 등에 따라 충분히 진행되었고, 수렴 내용이 예상 분대에 대한 이해와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았다

8. 이 광경은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다른 학생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까?
 1) 매우 추천함 2) 조금 추천함 3) 별로 추천하지 않음 4) 전혀 추천하지 않음

9. 이 광경은 전체적인 수업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았다

■ 기타: 이 수업에서 개선할 점들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후면적)

○ 강의안 샘플

이광수와 장편소설 '흙'

갑진은 정선과의 불륜 이후 느낀 바가 있어 검볼랑에서 개간 사업 등을 펼치며 그간의 방탕한 생활에 대한 반성을 한다.

이호철의 소설 "판문점"

신문기자 진수는 취재를 위해 판문점에 간다. 북한의 젊은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 함께 지프차 안으로 몸을 피하게 된다. 진수는 여기자에게 월북을 권유받는다.

○ 학생 발표 자료 샘플

[10] 신입생 세미나: 접경지역 개발의 이해 (안동환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① 사업 목적

- 우리나라의 경우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의 산물인면서 낙후지역의 대표적인 예로 통한다. 일반적으로 접경지역은 서로 다른 국가간에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교류의 중심지로 기능하며, 이러한 공간적 기능에 따라 타 지역과 다른 발전경로 및 지역적 특성을 보인다.
- 본 세미나는 이러한 접경지역의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분단의 현상이자 군사적 대치가 상존하는 지역으로서 경제활동이 제약받는 낙후지역인 남한의 접경지역 개발의 과제에 대한 논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구체적으로는 남북한 접경지역인 동시에 역사적으로 접경지역으로서의 의의가 큰 강화도의 공간성을 논의하고, 중국과 대만의 접경지역을 활용한 양안간 이해 증진 사례의 시사점을 찾아본다. 다음으로 북중러 접경지역을 활용한 남북한 통합의 기반구축을 위한 일환의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가능성에 대해 토의한다.
- 아울러 남북한 접경지역 사례에 대한 현장 학습을 통해 향후 접경지역 주민들의 통합 과정을 위한 선결 조건을 살펴본다.

② 강좌 개요

- 개최학기 및 소속 학과: 2019학년도 2학기, 농경제사회학부
- 학점 및 성적 부여 방식: 1학점, S/U

③ 강좌 내용

○ 주차별 강좌내용

주차(일자)	강의 주제	강사 명	강사 소속
제1주 (9월 2일)	참가자 및 세미나 소개	안동환	서울대학교
제2주 (9월 16일)	역사 속 접경지역 강화도	김영애	우리누리 평화운동
제3주 (9월 30일)	동북아 다자 협력 방안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4주 (10월 21일)	북한특구전략의 선택적 이중구조	강채연	서울대학교
제5주 (11월 11일)	남북농업협력 가능성과 도전과제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월 22일)	답사프로그램(인천 차이나타운)	-	-
제6주 (12월 02일)	우리나라 접경지역 지원제도의 이해 종합 및 현장학습 결과 발표	이성우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 주차별 세부내용

주차 (일자)	세부내용
제1주 (9월 2일)	세미나 내용과 목적에 대해 소개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함. 각 수강생의 수강 목적을 발표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을 공유함. 국내 접경지역 현장 탐방을 위한 조편성(4인 1조), 탐방 지역 선정 및 목적, 탐방 일정에 대한 발표.
제2주 (9월 16일)	접경지역의 정의, 접경지역의 국내외 주요 사례, 접경지역의 경제사회문적 의의 이해. 역사적으로 강화지역은 외국 문물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접경지역으로서 큰 의의를 가지는 지역임. 또한 수 많은 외침의 최전방으로서 전쟁과 관련한 많은 역사와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그리고 개항 과정에서 강화도의 군사적 의의와 접경지역으로서 강화의 역사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접경지역으로서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이해함. 또한 한반도분단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커뮤니티의 특성과 발전 경로를 살펴봄.
제3주 (9월 30일)	북한의 농업문제와 식량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북중 및 북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교역의 실태와 전망에 대해 토의함. 엄밀한 통계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의 식량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식량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통계, 식량 과부족의 추정 방법,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협력의 방향 등에 대해 토의함.
제4주 (10월 21일)	북한의 주요 접경지역 개발 과정과 전략에 대해 이해함. 접경지역으로서 주요 경제특구의 의의와 차별성, 개성공단의 개발 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이해. 북한의 경제특구를 통한 중국 및 러시아 등과의 협력, 해외투자 유치, 산업개발전략, 경제특구를 활용한 남북 경제협력의 가능성, 남한내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특구 설치의 가능성 등에 대해 토의함.
제5주 (11월 11일)	북중러 접경지역을 활용한 남북한 농업협력의 사례와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함.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의 연해주는 과거 한반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정착한 대표적인 접경지역으로서, 한반도와 유사한 농업 생산 양식이나 사회문화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특히 벼농업을 포함한 영농형태와 기술 등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남북 통합과 통일을 대비한 농업 및 식량 문제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농업개발협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북중러 접경지역의 활용 방안을 논의함.
제6주 (12월 02일)	접경지역(border area)은 국가간의 경계(border)가 서로 맞닿은 국경지역 또는 국경에 인접한 지역 의미. 세계에서 접경지역이 생기는 원인은 바로 국경의 설정으로 인한 것임. 접경지역이란 국가 간의 관계에 따라 어디나 생기는 일반적인 개념. 하지만, 접경지역을 두고 벌어지는 국가간의 갈등 혹은 협력의 양상에 따라 세계적 관심과 연구의 주제가 되기도 함. 구서독과 동독의 접경지역(동서양진영 체제경합),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접경지역(중동분쟁), 인도와 파키스탄의 접경지역(군사적 긴장), 남에렌과 북에렌의 접경지역(접경지역개발), 멕시코와 미국의 접경지역(경제협력) 등이 대표적 DMZ 임.

○ 전체 수업 수강생 명단

번호	성명	학년	소속(단과대/학과)
1	송시연	2019-16368	정치외교학부
2	황이슬	2019-12381	전기·정보공학부(전기·정보공학전공)
3	오지형	2019-14310	조소과(조소전공)
4	최혜연	2019-13831	디자인학부(디자인전공)
5	이돈빈	2019-10004	농경제사회학부

6	길현민	2019-10286	농경제사회학부
7	이다영	2019-13767	농경제사회학부
8	성규륜	2019-15510	농경제사회학부
9	박선호	2019-15778	농경제사회학부
10	박지명	2019-16103	농경제사회학부
11	신현욱	2019-18363	농경제사회학부
12	홍주은	2019-19041	농경제사회학부
13	강지원	2019-17800	의예과(의예전공)

□ 답사 프로그램

-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의 우려로 답사지 선정 변경에 따른 현장학습 관련 일정 및 내용 수정(DMZ-> 인천 차이나타운)
 -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의 연해주는 과거 한반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정착한 대표적인 접경지역으로서, 한반도와 유사한 농업 생산 양식이나 사회문화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인들과 한국의 다양한 지역민들과 일본인들과 함께 어우러진 문화 및 경제적 발전과정을 “접경지역”의 과정으로 살펴보고자 함.
- 인천 차이나타운 지역은 이주 중국인들이 건너와 사는 지역, 일본인들의 거주지역, 대한민국 주민이 사는 지역으로 나뉘어져있음. 이들의 접경지로 바라볼 수 있는 인천 차이나타운 지역은 그들의 상업지구로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 있음. 독특한 상업 경제지구로 이어져 가고 있었음.
- 항구를 띄고 있는 지역적 특징 때문에 최초 호텔, 최초 자장면집, 최초 교회, 대한민국의 “최초”가 붙은 명칭이 많이 존재했음. 일반적인 장소보다도 접경지일수록 다양한 문화와 경제, 사람들로 인해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음.
- 백아더장군의 인천상륙 작전이 펼쳐졌던 이 곳은 평화공원이 조성되어 통일을 염원하는 장소도 확인할 수 있었음. 통일후, 남과북의 접경지역에서 인천 차이나타운과 같은 대내외 교류의 활발화, 인구 증가로 긍정적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조별로 차이나타운내 조사 지역을 선정하고 자율적인 일정으로 현장학습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 답사프로그램 일정표

- 일시: 2019.11.22.(금)
- 장소: 인천 차이나타운

○ 참여인원: 총 19명(인솔교수 1명, 학생 13명, 대학원생 5명)

일자	시간	내용
22(금)	09:00~	서울대 정문 출발
	09:00~10:00	이동 (서울대->인천차이나타운: 30.6km, 예상소요시간: 45분)
		중구생활사 전시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3번길 97 (근대역사 박물관 여행)
		01. 중구생활사전시관(대불호텔) -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인 대불호텔, 경인선 철도가 없던 시절 인천에서 서울로 12시간 넘는 육로, 뱃길이용-> 인천의 숙박필요로 건설/1919년엔 증화루라는 음식점으로 변경
		02. 짜장면 박물관 (우리나라 짜장면이 처음 탄생한 '공화춘'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 곳/1908년 지어진 건물, 1983년 폐업, 옛 공화춘 건물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짜장면 박물관으로 활용됨.) -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56-14
	10:00~12:30	03. 인천개항박물관 (옛 인천일본제일 은행지점으로 사용되었던 곳, 1883년 인천항의 개항부터 시작된 개항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곳(포토존, 경인선 철도 관련 정보 확인)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3번길 89
		04.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 http://www.icjgss.or.kr/architecture/index.asp (근대 건축물 모형 확인 가능- 존스본빌딩, 인천해관 등)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3번길 77 인천개항장근대건축전시관
		05. 한중 문화관 한중문화관은 2005년 차이나타운의 활성화와 중국과의 우호적인 문화 교류를 위해 건립됨. -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38 한중문화관
12:30~13:30	점심(공화춘) (주소: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로 43-복성동3가 5-6)	
13:30~15:30	- 개별조로 나뉘어 현장 조사(인터뷰 및 사진촬영)	
15:30~16:20	인천 차이나타운 -> 서울대로 이동	
16:20~18:00	견학학습 최종 평가	

□ 답사 프로그램 설문지 결과

○ 답사 프로그램 설문지 응답자 총 12명

평가문항	매우 도움	조금	별로	전혀
1. 현장학습이 접경지역 교육에 대한 이해도	6	6	-	-
2. 현장학습과 접경지역 교육 강좌와의 연계성	8	3	1	-
3. 현장학습의 필요성	7	5	-	-
4. 현장학습 만족도	9	3	-	-
5. 현장학습 주변 권유 의향	8	4	-	-

○ 답사 프로그램 의견

- 접경지역인 차이나타운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 기회
- 자장면 박물관 등 다양성의 문화를 배울 수 있었던 곳
- 다양한 박물관 체험으로 접경지역과 더불어 다양한 화교문화 경험할 수 있는 기회
- 차이나타운에 대해 얽혀 있는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음.
-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음.

○ 답사 참여 수강생 명단

번호	성명	학번	소속(단과대/학과)
1	송시연	2019-16368	정치외교학부
2	황이솔	2019-12381	전기·정보공학부(전기·정보공학전공)
3	최혜연	2019-13831	디자인학부(디자인전공)
4	이문빈	2019-10004	농경제사회학부
5	길현민	2019-10286	농경제사회학부
6	이다영	2019-13767	농경제사회학부
7	성규륜	2019-15510	농경제사회학부
8	박선호	2019-15778	농경제사회학부
9	박지명	2019-16103	농경제사회학부
10	신현욱	2019-18363	농경제사회학부
11	홍주은	2019-19041	농경제사회학부
12	강지원	2019-17800	의예과(의예전공)

④ 사업 성과

- 수강생들의 접경지역 농촌 개발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 증진
-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례 및 강의로 접경지역에 대한 이해도 확장
- 정량 평가
 - 만족도 평가지수 (4점 만점), 참여자 수 등
 - 강의 만족도 3.5점/4.0점
 - 참여자수: 총 13명

평가문항	매우 도움 (4점)	조금 (3점)	별로 (2점)	전혀 (1점)
1. 이 강의가 통일 평화 북한 문제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도움	7	6	-	-
2. 이 강의를 통해 통일 평화 북한 문제에 대한 귀하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생각	5	7	1	-

3. 이러한 강의가 대학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	8	5	-	-
4. 이 강의를 주변분들에게 추천할 용의가 있는지	6	7	-	-
5. 강의 전반의 만족도	8	5	-	-

○ 강의 설문지 의견

- 훌륭한 강사진들로 구성되어 유익한 강의였음.
- 정규교과에 속하지 않은 강의의 내용에 대해 수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은 경험이었음.
- 개인적으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통일 전문가, 경제연구원 분들을 만나보고 그분들의 경험과 연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음.
- 교내외 각 분야 전문 연구원을 초청한 점이 좋았고, 지역 개발이 국내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로 시야가 넓어진 점이 좋았고 진로에 도움이 되었음.
-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강연을 하셔서 접경지역의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었음.
- 타강의에서는 배울 수 없는 남북한 통합과 접경지역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발표를 통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운 것이 아주 만족스러움

⑤ 관련 자료

○ 사진



[11] 접경지역 평화 사회학 공동강의 및 체험학습 (정근식 사회학과 교수)

① 사업 목적

- 미래 남북 교류 및 평화번영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인재 양성
- 수강생들이 접경지역의 생태평화적 환경과 전략촌 주민들의 생활을 관찰함으로써 분단의 현실을 보다 다각도로 파악하며 이를 구조적으로 이해
- 전략촌 구조와 형성 등 전반적인 맥락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회학적 시각을 통해 연구를 진행

② 강좌 개요

- 개척학기 및 소속 학과: 2019학년도 여름학기
- 학점 및 성적 부여 방식: 레포트 및 결과보고서를 통한 절대평가

③ 강좌 내용

○ 주차별 강좌내용

주차(일자)	강의 주제	강사 명	강사 소속
제1회 6월 24일	수업 OT 및 DMZ 개관	정근식	사회학과
제2회 6월 26일	비무장지대의 이해	정근식	사회학과
제3회 7월 1일	수복지구의 역사와 현황	한모니가	통일평화연구원
제4회 7월 3일	자료조사방법(미국 국립문서)	전갑생	사회발전연구소
제5회 7월 5일	GP 사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박종우	인디비전
제6회 7월 6일	철원 DMZ 예비답사 (대마리,양지리,생창리)	정근식	사회학과
제7회 7월 7일	철원 DMZ 답사 및 특강 (철원의 역사)	정근식, 김영규	사회학과, 철원역사문화연구소
제8회 7월 8일	비무장지대의 생태환경 형성과 보존방안	서재철	녹색연합
제9회 7월 10일	비무장지대와 유엔군사령부	이시우	사진가
제10회 7월 12일	전략촌의 형성과 이주	정근식	사회학과
제11회 7월 15일	DMZ 철새평화타운 만들기	조경진	환경대학원

○ 설문지 샘플

통일교육신도대학 강사 인력도 조사 문항지

※ 이 설문은 통일교육신도대학 강사 수당결산에 필요한 수당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강의료 결정 수당률 제고하기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 수당률 제고로써 충분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은 추후 학생들에게 및 교외 교육기관에서 활용될때까지 해당 내용을 위한 것으로 절대 타인에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밀보장 내용은 유지됩니다.

[응답자 특성문항]

Q01. 소속 대학교

연세대학교 자강대학교 법곡대학
 사회과학대학 서울대학교 광명대학
 공과대학 성명과학계열 예계농기계열
 기타

Q02. 성별 남성 여성

Q03.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생

[연구문항]

1. 이 강의가 통일평화교육 관련 문제 및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 도움 있음
 도움 적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2. 이 강의를 통해 통일평화 관련 문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3. 이 어떤 강의를 더 하고 싶어 하십니까?
 북한 통일 통일 통일
 통일 통일 북한 통일

4. 이 강의를 주변 분들께 추천을 하기가 쉽습니까?
 매우 추천 좋음 추천 좋음 있음
 별로 추천 안함 잘 모르겠음

6.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항후 운영 개선에 도움이 될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강의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북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7. 아쉬웠거나 추가 보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후 운영 개선에 도움이 될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 강의안 샘플

강화도의 미래 비전

접경지역에서 통일의 관문으로

2019. 9. 16.

(사) 우리누리 평화운동 김영애

2. 남북 농축산업 여건 비교

◆ 남한의 경지면적은 162만 ha(논 87만, 밭 75만)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 반면, 북한은 191만 ha(논 57만, 밭 134만)의 경지면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추이(중국 기준, 1995~2018, 천 톤)

한반도 여건 변화

- 2018
- 28 평안북도농민회
- 18-4 학사 대학(신대)개교
- 437 내륙형 관광단지 조성
- 477 내륙형(외) 관광단지 조성
- 139-2 조물(내) 관광단지 조성
- 124 내륙(내) 관광단지 조성
- 612 학사(내) 관광단지 조성(외) 관광단지 조성
- 1.8 학사(내) 관광단지 조성
- 114 내륙형(내) 관광단지 조성
- 118-2 학사(내) 관광단지 조성, 평안북도
- 1236 남북통일 기념식
- 2019
- 227-38 학사(내) 관광단지 조성
- 11 평안(내) 관광단지 조성(내) 관광단지 조성
- 14-10 내륙(내) 관광단지 조성
- 430 남북통일 기념식

두만강 개발계획 (豆滿江開發計劃) / 1991. 10. 15~21.

제12회 7월 17일	냉전경관과 폐허: 금문도사례	정근식	사회학과
제13회 7월 19일	철원 전략촌(유곡리, 양지리, 생창리) 현지조사	학생팀별	사회학과
제14회 7월 20일	철원 전략촌(유곡리, 양지리, 생창리) 현지조사	학생팀별	사회학과
제15회 7월 21일	철원 전략촌(유곡리, 양지리, 생창리) 현지조사	학생팀별	사회학과
제16회 7월 22일	철원 전략촌(유곡리, 양지리, 생창리) 현지조사	학생팀별	사회학과
제17회 7월 24일	냉전경관과 안보관광	정근식	사회학과
제18회 7월 31일	보고서 초고 발표	정근식	사회학과
제19회 8월 7일	결과보고서 발표	정근식	사회학과

○ 주차별 세부내용

주차	세부내용
제1회 6월 24일	사회구조와 사회질서는 각각 시공간적 차원의 사회학적 근본문제이다. 현재의 사회질서를 규정하는 것은 분단체제이다. 우리는 여전히 한국전쟁이 규정한 질서, 그 영향력이 미치는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DMZ의 가치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철의 삼각지대'로 대표되는 진지전의 주요 무대였던 철원은 냉전경관 형성에 핵심적인 장소이며 전후 민간인 통제구역에 전략촌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전략촌을 중심으로 평화의 문제를 생각해볼 것이다. 그것의 일부는 현재 일반 마을로 전환되었으나 과거의 흔적과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아직까지 생존해있다.
제2회 6월 26일	분단과 통일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크게 베트남, 독일, 예멘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베트남은 한국에서 전개된 전략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물론, 베트남은 벤하이강이라는 자연 지형지물을 통해서 경계를 형성했다. 또한 전략촌 연구에서 베트남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전략촌의 원형은 이스라엘의 '키부츠'이며 평시에는 일상생활을 구가하다가 전시에는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기능적인 모습을 수행한다. 전략촌의 계보학이 필요하다.
제3회 7월 1일	수복지구는 일제지배 경험과 함께,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UN 통치의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기억의 단절과 재편이 이루어지는 다차원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 지역은 행정부와 군이 모두 영향력을 끼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정착의 유형은 다양하다. 제대 군인이 정착시 계급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인우보증 등을 통해 토지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등 토지에 대한 갈등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4회 7월 3일	한국전쟁과 전후 영상자료는 대부분 미군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연출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를 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NARA에 보존하고 있는 214개의 영상 중 현재 79개만 공개대상이며 영상은 제작자의 계급에 따라 퀄리티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미군의 영상은 Order(명령장), Caption Card(계획서), Video(영상)의 과정을 거쳐 생

	산되며 미군기지에 관한 영상은 파주 문산이 대부분이다. 전후 영상들의 경우, 당시 한국의 일반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매체로 활용되기도 한다.
제5회 7월 5일	한국은 고지대에 GP를 건설하고 북한은 지하에 GP를 건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진영 모두 기존의 한계선을 추진하여 철책을 설치해왔으며 시대에 따라 점점 가까워져 왔다. GP에는 민사경찰만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은 서로 다른 명칭이지만 구호의 목적을 띤 경찰만을 출입시키고 있다. 육지에서의 한계선은 크게 문제가 된 경우가 없지만, 해상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백령도 등 서해 해안의 경우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용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비를 하기도 했다.
제6회 7월 6일	DMZ 전략촌 중 철원을 대마리, 동송읍 양지리, 김화읍 생창리 등을 방문하여 마을을 탐방하고 주민대표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백마고지, 포전벙커, 노동당사 등 대표적인 냉전경관을 방문했다. 이후 답사를 진행한 인원들이 모두 모여 자유토론을 통해 느낀 감정과 정보 등을 공유했다. 밤에는 두 시간동안 노인 증언자로부터 이 지역의 역사적 경험을 청취하였다.
제7회 7월 7일	철원은 강원선의 길목이면서 금강산으로 가는 전철로 인하여 매우 번성했다. 당시 인구는 9만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철인 금강산선의 출발역이었다. 이후 한국전쟁에서는 '철의 삼각지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으며 많은 주민들이 피난을 가거나 희생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이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설정되었던 시기에 강한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한국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했다. 현재는 냉전경관 등을 안보관광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여러 시설작물 등을 통한 농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8회 7월 8일	예비답사에 대한 소감을 공유하였다. 한국전쟁이후 형성된 지뢰지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현재 전세계에서 이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폴 메카트니 등이 설립한 ICBL과 같은 NGO 단체들이 지뢰 제거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김화읍 생창리 등과 같은 계획 지뢰 지대가 10곳 정도로 파악되지만 미확인 지뢰지대가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임진강 민통선 라인을 기점으로 비무장지대의 지뢰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무장지대 생태조사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
제9회 7월 10일	비무장지대 통제권은 유엔군사령부가 갖고 있다. 2007년 한국에는 국민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등을 일정 부분 감시할 수 있는 권리인 '평화감시권'이 대법원 판결에 처음 등장했다. 이는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된 이래 미군의 생화학 무기 등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면서 등장한 개념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위협의 반입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형성과 변화에는 항상 유엔군사령부의 의견과 행동이 함께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10회 7월 12일	전략촌을 현재 구성하고 있는 인원들의 대부분은 이주 2세대이며 1세대는 고령화 등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1세대들이 이주해온 배경은 마을 별로 차이가 있는데, 어떤 마을의 경우 사라호 태풍으로 피해를 입고 이주해온 경우도 있다. 전형적인 이주의 계기는 전역 혹은 인근 거주 후 선별을 통해 이주한 경우가 가장 많다. 최초의 민간인 통제구역 전략촌의 경우, '출입영농'으로 시작했다 이후 농민들의 요구로 '가유숙'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군에서 건설한 가옥으로 입주하게 되는 '입주영농'으로 이어지게 된다.
제11회 7월 15일	동송읍 양지리에 설립된 철새평화타운은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양지리에 있던 분교를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로 여타 국책사업들과 달리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자 노력을 많이 한 사업이다. 건축, 철새 전문가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양지리의 다양한 컨텐츠와 수의 창출을 위해 노력했으며 지금까지 철새평화타운은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 유지되고 있다.
제12회	대만은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유사한 면모를 공유한다. 특히, 냉전경관의 측면에서도

7월 17일	대만의 케이스를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금문도에서는 과거 군사기지 등으로 쓰이던 곳들을 상당 부분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냉전의 경관을 평화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과거 정부들을 통해 냉전 공간이 변화해가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제 13회 7월 19일	철원군의 전략촌 중 근북면 유곡리, 동송읍 양지리, 김화읍 생창리 등의 마을을 수강생들이 3개조로 나뉘어 현지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각 마을은 공통의 질문을 통해 객관적인 전략촌의 형성과 발전 등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마을 주민들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도 함께 실시하였다. 이후 숙소로 모여, 조사된 사항들을 공유하고 마을 3곳에 대한 비교와 조사에서의 유의점을 토론했었다.
제 14회 7월 20일	유곡리, 양지리, 생창리는 모두 전략촌이지만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향군 중심의 전략촌 외에 출입영농자들의 정착마을이 양지리이다. 마을 주민들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이런 차이를 확인하였다.
제 15회 7월 21일	유곡리, 양지리, 생창리 마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숙소로 돌아와 마을 3곳에 대한 비교와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철원군청에서 전략촌들에 대한 자료가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 16회 7월 22일	조사결과를 종합하고 보고서의 윤곽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토론했었다. 마을의 역사와 구술내용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를 토론했었다. 아울러 마을의 미래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제 17회 7월 24일	경관은 '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누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탐구는 해당 공간이 가지는 의미를 전혀 달리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관에 대한 접근과 재현이 중요하다. 또한 반대 편에 대한 의미의 '피안'은 다른 선택으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정한 근경과 원경을 제공한다. 현재 한국의 경우 안보관광을 통해 냉전경관이 형성되었고 대체로 위로부터의 거시적 변화에 안보관광 움직임이 좌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 18회 7월 31일	각 마을별 (근북면 유곡리, 동송읍 양지리, 김화읍 생창리) 보고서 초고 발표 및 토의
제 19회 8월 7일	수강생 결과보고서 발표

○ 전체 수업 수강생 명단

번호	성명	학년	소속(단과대/학과)
1	김나운	4	경상대학교 / 서울대 사회
2	박미경	3	사회과학대 / 사회
3	김민성	3	성균관대/ 서울대 사회
4	공민우	3	인문대 / 서양사학
5	김영광	3	인문대 / 서양사학
6	최민열	4	사회과학대 / 사회
7	이원규	4	인문대 / 서양사학
8	최주원	2	사회과학대 / 사회
9	양진영	3	사회과학대 / 사회
10	김하정	3	공과대 / 전기정보공학
11	안혜영	3	사회과학대 / 사회
12	이재용	4	경북대학교 / 서울대 경제

□ 답사 프로그램

- 참가자 : 학부생 13명, 대학원생 1, 박사 3명, 교수 2명.
- 일 시 : 2019년 7월 6일(토) ~ 7월 7일(일), 1박 2일
- 방문장소 : 강원도 철원군 일대
- 일 정 표

시 간	장 소	세 부 내 용	비 고
09:00	서울대입구역	-집결 및 인원점검	7.6 (토)
10:20	포천시 방어벙커	-벙커 등 냉전경관 탐방	
11:00	백마고지	-백마고지 전적지 탐방	
12:00	대마리 두루미회관	-점심식사	
12:30	대마리 두루미회관	-대마리 주민과의 대화	
13:30	노동당사	-노동당사 탐방 및 양지리 이장과의 대화	
15:00	양지리	-양지리 마을 탐방	
16:00	유곡리	-유곡리 마을 탐방	
17:30	생창리	-DMZ생태평화공원 방문자센터 도착	
18:00	오성산식당	-저녁식사	
19:00	생창리	-생창리 이장 및 주민들과의 대화	
20:00	생창리	-특강(전략촌의 이주와 전개)	
21:00	생창리	-자유토론	
22:00	생창리	-취침	
08:00	오성산식당	-아침식사	7.7 (일)
09:00	생창리	-특강(철원의 역사)	
10:00	DMZ 생태평화공원	-DMZ 생태평화공원 옹양보 코스 탐방	
12:00	산내들 가든	-점심식사	
13:30	승리전망대	-승리전망대 탐방	
16:00	서울대입구역	-도착 및 해산	

○ 답사 참여 수강생 명단

번호	성명	학년	소속(단과대/학과)
1	김나운	4	사회과학대 / 사회
2	박미경	3	사회과학대 / 사회
3	김민성	3	사회과학대 / 사회
4	공민우	3	인문대 / 서양사학
5	김영광	3	인문대 / 서양사학
6	최민열	4	사회과학대 / 사회
7	이원규	4	인문대 / 서양사학
8	최주원	2	사회과학대 / 사회
9	양진영	3	사회과학대 / 사회

10	김하정	3	공과대 / 전기정보공학
11	안혜영	3	사회과학대 / 사회
12	이재용	4	사회과학대 / 경제
13	차선우	3	간호학과
14	김우창	박사생	환경대학원
15	전원근	객원연구원	사회발전연구소
16	강인화	객원연구원	사회발전연구소
17	주윤정	선임연구원	사회발전연구소
18	한모니까	조교수	통일평화연구원
19	정근식	교수	사회대

④ 사업 성과

- 수동적 지식의 전달이 아닌 수강생과 전문가, 현지 주민 사이의 적극적인 토론과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하여 자율적인 학습을 수행
- 답사를 통해 DMZ를 갈등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
- 전략촌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이후 냉전경관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회학적 함의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추구
- 2019년 하반기 녹색연합의 비무장지대 생태조사에 참여의사가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량 평가
 - 사회학특강을 통해 통일과 평화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데에 대한 5분 척도 질문(1점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5점이 도움이 안 되었다.)에 수강생들은 평균 약 1.66로 답변하여 대부분의 학생이 많은 도움을 느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 사회학특강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 약 1.58, 주변 추천 여부에 대해서는 평균 약 1.72,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약 1.58로 대다수의 수강생들이 사회학특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외부 강사 초청 특강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수복지구의 역사와 현황’(한모니까), ‘비무장지대와 유엔군사령부’(이시우), ‘GP사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박중우) 등의 강의를 수강생들에게 유익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단일 주제로 특강이 이루어지므로 효과가 좋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사회학특강의 답사프로그램 만족도는 평균 약 1.58이었으며 답사 내용의

흥미도 등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약 1.55로 답변하여 답사가 비교적 교육적으로 잘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답사 인원내 대한 질문에는 평균 약 1.83, 인술자 등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약 1.45, 운전기사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약 1.17, 식사량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약 1.73으로 답사 프로그램 진행이 수강생 등의 편의에 상당부분 잘 부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답사 프로그램 중 흥미로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마리, 양지리, 유곡리, 생장리 주민과의 대화’로 응답하여 수강생들이 답사를 통한 현장답사에서 상당한 흥미를 느꼈음을 알 수 있다.

○ 정성 평가

- 최종설문에서 수강생들은 이론에만 집중되어 있던 기존의 학습방법을 벗어나 현장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답사가 개인 단위 혹은 일반적인 경우에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했다. 또한 단기간에 경비에 대한 부담 없이 일정한 연구를 진행해볼 수 있었던 부분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그리고 특강의 경우, DMZ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 활동가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해 폭넓은 분야에서 강의를 진행하여 의미가 있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 전반적인 수업의 진행에 있어서는 사전조사를 충분히 진행하고 답사가 진행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답사 이후 연구보고서 작성 시 지도교수, 수강생 등과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이 처음 연구를 진행해보는 수강생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 향후 사회학 특강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탈식민주의에 대한 개념과 이론, 평화 등의 기본적 개념에 대한 원론적 논의, DMZ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난민 문제, 철원과 함께 파주 전략촌에 대한 연구 등이 언급되었다.

⑤ 관련 자료

○ 사진



○ 설문지 샘플

<2019. 여름학기 사회학특강> 평가 설문조사 (답사용)

안녕하세요. 2019 여름학기 사회학특강 수강생 여러분. 본 설문지는 사회학특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설문은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해 주신 개인정보와 답변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용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름 김수연 | 학과 생물학과 | 학번 201901010101 | 과목/세션명 사회학 (교수님: 박민서)

Q1) 귀하는 사회학특강 평가 설문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 5. 매우 불만

Q2) 귀하는 답사 내용이 흥미롭고 교육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Q3) 귀하는 답사 프로그램이 작성한 일정으로 편성되어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Q4) 답사 프로그램의 인솔자, 지도교사는 친절하게 지도하였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Q5) 답사 프로그램의 운영자는 친절하게 응대하였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Q6) 답사 프로그램 중 가장 흥미로운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Q7) 답사 프로그램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답사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사가 될 항목으로, '아니오'에 해당하시면 '없음'으로 기재하십시오.)

김치 연구에 필요한 정보에서 기해.
정찬민 교수님

Q8) 답사 프로그램 내용 중 아쉬웠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사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사가 될 항목으로, '아니오'에 해당하시면 '없음'으로 기재하십시오.)

교수님

○ 강의안 샘플

2.1. 답사: 향거리 형성과정 및 발달

2.1.1. 초기 답사 과정

향거리는 1970년대부터 답사가 시작되어 1990년대까지 순차적으로 100여대,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한 채 형성되어, 현재는 답사 100여 대가 참여하고 있다. 향거리의 발달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답사 100여 대가 참여하고 있었지만, 이후는 답사 100여 대가 참여하고 있다. 향거리의 발달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답사 100여 대가 참여하고 있었지만, 이후는 답사 100여 대가 참여하고 있다.

II. 연구 개요

1. 연구 질문 및 포럼

연구 질문

파라 본 연구의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향거리의 발달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하는가?
2	향거리의 발달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하는가?

연구 포럼

향거리에서 제기된 연구 질문은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포럼을 구성하였다.

국가 기회

↓

환경

국가 지원

↓

정책적 지원

개인적 노력

↓

개인적 지원

본 문헌에서 향거리의 발달을 설명하는 데 있어 주요하게 다뤄진 부분은 '이웃의 집단으로서의 향거리'와 '향거리의 발달'이다. 향거리의 발달은 향거리의 발달을 설명하는 데 있어 주요하게 다뤄진 부분은 '이웃의 집단으로서의 향거리'와 '향거리의 발달'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론으로서 향거리의 발달을 설명하는 데 있어 주요하게 다뤄진 부분은 '이웃의 집단으로서의 향거리'와 '향거리의 발달'이다.

[12] 민족사회학과 북한연구 (정근식 사회학과 교수)

① 사업 목적

- 한반도와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북한에서의 국가 및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정, 한국전쟁과 북중관계의 특징, 시장경제의 발전, 북한의 대학 등을 다룸.
- 북한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초청하여 이야기를 듣고 토론함.

② 강좌 개요

- 개좌하기 및 소속 학과: 2019학년도 2학기/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 학점 및 성적 부여 방식: A-F학점 차등부여

③ 강좌 내용

○ 주차별 강좌내용

주차(일자)	강의 주제	강사 명	강사 소속
제1주 (10. 8.)	북한의 대학교육과 엘리트	김수연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전문위원
제2주 (10. 15.)	북한의 외교관계	이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제3주 (10. 22.)	북한의 종교	김윤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제4주 (10. 29.)	북한의 미사일 정치	이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제5주 (11. 5.)	국경에서의 경제거래	이경란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제6주 (11. 12.)	북한의 대학생	길광혁	엘리주식회사 대리
제7주 (11. 19.)	북한의 문화예술	김철웅	서울교육대학교 연구교수
제8주 (11. 26.)	고난의 행군 경험	김혁	경남연구원 남북교류협력 연구센터 팀장

○ 주차별 세부내용

주차	세부내용
제1주 (10. 8.)	흔히 '민족간부 양성의 모체이자 골간기지'로 불리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강연자가, 북한의 기초과학, 그 중에서도 수학교육의 발전 수준과 현황을 중심으로 강연.
제2주 (10. 15.)	북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북-중 관계의 역사, 중국에 대한 북한의 시각을 강연자가 북한에서 취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전달. 특히 김일성 시대에서 김정일 시대를 거쳐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대중국민이 어떤 점에서 연속적이고

제3주 (10. 22.)	어떤 점에서 단절적인지 강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북중관계에 관한 전망을 제시. 북한의 종교사에 관해 강의. 한국전쟁 이전까지 서북지방의 지주를 중심으로 뿌리 내리던 기독교가 어떻게 영향력을 잃어갔고, 그 뒤 어떤 종교가 힘을 얻었는지, 북한의 주체사상에 천도교가 미친 영향 등을 강연. 대외적으로 북한은 종교를 말살하고 통제하는 체계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체계에서 종교적 현상이 어떤 외양을 띠고 나타나는지 강연.
제4주 (10. 29.)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개발을 시작한 것은 현실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한 이후. 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국방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주로 발전시키는 것은 재래식무기인데, 경제적 여력이 없어지면서 재래식무기가 아닌 비대칭무기로서 핵개발에 매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능력을 평가하고, 핵미사일 전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오늘날 북미간 핵미사일정치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이 무엇인지 강연.
제5주 (11. 5.)	북한과 중국 국경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경제 생활에 관해 강연. 북한주민들이 국경경제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지, 그곳에서 주로 교역되는 물품은 무엇인지, 이곳 경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밀수에 대해 중국 당국과 북한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들을 탄압함에 있어 '남한과의 결탁'이라는 죄명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을 강연.
제6주 (11. 12.)	북한의 고등학교 제도, 북한의 입시 제도, 북한의 대학 생활에 관해 강연. 북한의 대학 생활에서는, 어떤 과목을 강연하는지, 이수학점은 어느 정도인지, 대학 졸업 이후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강연. 아울러 기숙사 생활에서 겪은 일화, 북한의 평가 체계, 이후 진로에서 출신 성분이 하는 역할 등을 강연.
제7주 (11. 19.)	북한이 건국 이래 음악 분야를 상당히 중시해 왔고, '민족적 형식'이라는 문예이론에 따라 '민족 음악의 개량화'를 1960년대부터 주창해 왔고, 특히 국악기와 서양 악기를 배합하기 위해 국악기에 대한 대대적인 개량을 진행하여 배합 관현악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든 과정 등을 강연.
제8주 (11. 26.)	북한이 1990년대 초 경제위기를 맞고 배급이 축소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시장'과 '장마당'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곳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꽃제비'의 다양한 유형이 무엇인지, 시장 상인들과 파장꾼, 꽃제비들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강연.

○ 전체 수업 수강생 명단

번호	성명	학년	소속(단과대/학과)
1	신현욱	2008학번	사회학과
2	하승윤	2012학번	사회학과
3	김민기	2013학번	사회학과
4	김선익	2013학번	사회학과
5	김환	2013학번	사회학과
6	송연주	2013학번	자유전공학부
7	소현성	2014학번	사회학과
8	이원규	2015학번	서양사학과
9	송인학	2015학번	사회학과
10	김해빈	2016학번	중어중문학과
11	김하정	2016학번	전기·정보공학부
12	김상호	2016학번	사회학과
13	한만희	2017학번	사회학과
14	박민지	2017학번	자유전공학부
15	정단우	2017학번	사회학과

16	이민주	2017학번	사회학과
17	김효민	2017학번	사회학과
18	정규성	2017학번	철학과
19	류서연	2017학번	사회학과
20	추소현	2018학번	사회학과
21	강민선	2018학번	사회학과
22	정신아	2018학번	사회학과
23	박가영	2018학번	사회학과
24	장동수	2018학번	사회학과
25	고은	2018학번	사회교육과
26	권동훈	2018학번	사회학과
27	이승현	2018학번	자유전공학부
28	박인화	2018학번	사회학과

④ 사업 성과

- 미래 통일시대를 열어갈 대학생들이 본 강좌 수강을 통해 북한의 객관적 사정을 이해하도록 하였음. 강의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통일과 평화 비전을 고민할 수 있게 하였음.
- 강연을 통해 박제화된 북한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통일 이후 더불어 살아가야 할 현실의 인간들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정량 평가
 - 절대 다수의 학생이 “이 강의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귀하의 전반적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한 데서 알 수 있듯,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함. 그런 점에서 강연을 통해 박제화된 북한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통일 이후 더불어 살아가야 할 현실의 인간들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정성 평가
 - 하지만 이와 같은 평가와 별개로 “통일의 필요성”이나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올 이익”, “통일의 파트너로서 귀하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와 관련해서는 크게 높아지지 않음. 이는 이 강의가 당위적인 통일지상주의가 아니라 북한의 객관적 조건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임.

⑤ 관련 자료

○ 설문지 샘플

통일북한 관련 강좌 만족도 조사 문항지	
<p>※ 이 설문은 통일관련 강좌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향후 강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의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은 주위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프로그램 파악 및 운영체제에 대한 개선을 위한 것으로 통계 자료로만 사용되며, 개인별 응답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p>	
<p>[응답자 특성문항]</p> <p>Q01. 소속 대학교 <input type="radio"/> ① 연세대학교 <input type="radio"/> ② 자연과학대학 <input type="radio"/> ③ 법과대학 <input checked="" type="radio"/> ④ 사회과학대학 <input type="radio"/> ⑤ 시범대학 <input type="radio"/> ⑥ 공영대학 <input type="radio"/> ⑦ 공과대학 <input type="radio"/> ⑧ 경영과학계열 <input type="radio"/> ⑨ 예체능계열 <input type="radio"/> ⑩ 기타</p> <p>Q02. 성별 <input type="radio"/> 남성 <input checked="" type="radio"/> 여성</p> <p>Q03. 학년 <input type="radio"/> ① 1학년 <input checked="" type="radio"/> ② 2학년 <input type="radio"/> ③ 3학년 <input type="radio"/> ④ 4학년</p>	
<p>[평가문항]</p> <p>1. 이 강좌를 수강하고 난 후 귀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input type="radio"/> ① 매우 필요하다 <input type="radio"/> ② 조금 필요하다 <input type="radio"/>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radio"/>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p> <p>2. 이 강좌를 수강하고 난 후 귀하는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올 이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input checked="" type="radio"/> 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input type="radio"/> ②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input type="radio"/> ③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input type="radio"/> ④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p> <p>3. 이 강좌가 우리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의 변화와 방향을 이해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radio"/> ① 매우 도움이 된다 <input type="radio"/> ② 조금 도움이 된다 <input checked="" type="radio"/> ③ 별로 도움이 안 된다 <input type="radio"/> ④ 전혀 도움이 안 된다</p> <p>4. 이 강좌의 복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귀하의 전반적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radio"/>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input type="radio"/> ② 조금 도움이 되었다 <input type="radio"/> ③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input type="radio"/> ④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p> <p>5. 이 강좌가 통일의 피로너로서 귀하가 복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radio"/> ① 매우 그렇다 <input type="radio"/> ② 조금 그렇다 <input type="radio"/> ③ 별로 그렇지 않다 <input type="radio"/> ④ 전혀 그렇지 않다</p> <p>6. 이 강좌의 수강이 귀하가 북한 주민 및 당북인들을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바라보는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radio"/> ① 매우 그렇다 <input type="radio"/> ② 조금 그렇다 <input type="radio"/> ③ 별로 그렇지 않다 <input type="radio"/> ④ 전혀 그렇지 않다</p> <p>7. 이 강좌는 수업계획서 등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되었고, 수업 내용이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input type="radio"/> ① 매우 그렇다 <input type="radio"/> ② 조금 그렇다 <input type="radio"/> ③ 별로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radio"/> ④ 전혀 그렇지 않았다</p> <p>8. 이 강좌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다른 학생에게도 추천하고 싶은가? <input type="radio"/> ① 매우 추천한다 <input type="radio"/> ② 조금 추천한다 <input type="radio"/> ③ 별로 추천하지 않다 <input type="radio"/> ④ 전혀 추천하지 않다</p> <p>9. 이 강좌의 전체적인 수업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 되어있었습니까? <input type="radio"/> ① 매우 그렇다 <input type="radio"/> ② 조금 그렇다 <input type="radio"/> ③ 별로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radio"/> ④ 전혀 그렇지 않았다</p> <p>■ 기타. 이 수업에서 재관할 항목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관식)</p>	

□ 통일교육 강좌 운영: 비교과

번호	단위사업	담당자
1	북한지역의 문학적 이해	방민호 (국어국문학과 교수)
2	통일보건의료 전문교육을 통한 HPH 역량개발	신희영 (의과대 교수)
3	통일법 강좌	이효원 (법대 교수)
4	통일법 논문 세미나 강좌	이효원 (법대 교수)
5	통일법 학회 세미나 강좌	이효원 (법대 교수)
6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 리더 양성	이현수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7	한반도 응급의료협력의 현재와 미래	신상도 (의과대 교수)
8	제9기 통일아카데미	이찬수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9	제7기 평화아카데미	이찬수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10	아시아 석학특강	손인주 (사회대 교수)

[1] 북한지역의 문학적 이해 (방민호 국어국문학과 교수)

① 사업 목적

- 문학을 매개로 북한 지역에 대한 대중적 이해 촉진 및 확산
 - 서북지방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 기행문 등을 통해 북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철도’를 테마로 하여 북한 지역을 살펴봄으로써 북한 지역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유발.

- 문화적 재현물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남한 사회의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고, 통일을 상상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 제공
 - 영화, 문학작품 등에 나타난 ‘북한’ 재현을 통해서 한국 사회 및 세계인의 ‘북한’ 인식을 비판적으로 검토.
 - 통일과 관련된 미래 소설의 유토피아적/ 디스토피아적 전망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인식 재고.

- 남북의 공통성을 확인하고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시각 제공
 - 한국 문학적 유산을 살펴봄으로써 남북의 공통성을 확인.
 - 문학을 통해 통일에 대한 본질적 가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 마련.

② 강좌 개요

- 개최학기 및 소속 학과(단위): 8월~11월, 매월 2회(총 8강), 오픈 강좌
- 평가 방식: 참여자의 강의평가(설문조사 실시)

③ 강좌 내용

○ 주차별 강좌내용

주차(일자)	강의 주제	강사 명	강사 소속
1강 (8/19)	가지 못하는 철로와 한국문학① - 경원선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2강 (8/20)	가지 못하는 철로와 한국문학② - 경의선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3강 (9/25)	문학과 대중 미디어에 재현된 탈북여성① - 소설 속 북한 여성의 탈출기	이지은	서울대 국문과
4강	문학과 대중 미디어에 재현된 탈북여성②	이지은	서울대 국문과

(9/26)	-수기/미디어에 재현된 탈북 여성		
5강 (10/30)	북한 지역과 한국문학의 관계 양상① - 한국 근대문학과 정주/해주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6강 (10/31)	북한 지역과 한국문학의 관계 양상② - 탈북 문학에 나타난 평양과 국경	이지은	서울대 국문과
7강 (11/27)	작가와와의 대화① -떠나온 북한에 대해서 쓴다는 것	도명학	소설가
8강 (11/28)	작가와와의 대화② -북한 여성에 대해 쓴다는 것	설송아	소설가

○ 주차별 세부내용

주차	세부내용
1강 8월 19일	가지 못하는 철로와 한국문학① - 경원선 '경원선'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평강, 함흥, 원산 등에 나타난 한국문학 작품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남북이 공유하는 문화적 지반을 확인하고, 북한 지역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특히, 한국 문학의 주요 작가인 한용운, 이광수, 이상협 등의 산문을 통해서 경원선과 금강산이 당대의 한국문학에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살펴본다. 더불어 한국문학의 연변지역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탈북자, 연변 동포 등의 텍스트를 한국문학의 범주로 사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본다.
2강 8월 20일	가지 못하는 철로와 한국문학② - 경의선 한반도의 서쪽을 잇는 '경의선'을 따라 서울을 시작으로 개성, 사리원, 평양, 신의주에 이르는 지역을 한국 문학을 통해 탐사한다. 일제강점기와 함께 시작된 철도의 역사를 살펴보고, 남북한 공통적인 역사의 아픔을 이해한다. 이호철, 박완서, 채만식, 이상 등 한국문학의 대표 문인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신의주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문학을 통해 북한 지역을 살펴봄으로써 남북의 문화적 공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더불어 탈북 작가 도명학의 「간리역 광장」(2019)과 같은 소설을 통해 북한 지역에 대한 단절적인 인식을 극복한다.
3강 9월 25일	문학과 대중 미디어에 재현된 탈북여성① -소설 속 북한 여성의 탈출기 1990년대 이후 급증한 탈북자의 수기나 소설, 혹은 탈북자를 재현한 문학 작품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살펴본다. 탈북자 중 특히 여성은 인신매매, 구금, 성착취 등 취약한 조건에 내몰리는데, 이들의 탈출기를 그려낸 소설을 통해 탈북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나아가 이들이 한국 사회에 도착한 후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없는 조건들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의 경제적 소수자들과 합류하는 지점을 포착한다. 강좌를 통해 탈북자 문제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마이노리티들이 처한 보편적 문제를 함께 사유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4강 9월 26일	문학과 대중 미디어에 재현된 탈북여성② -수기/미디어에 재현된 탈북 여성 탈북자들의 수기에서 나타난 '북한-중국/제3세계-남한/제3세계'에 이르는 탈출 경로를 살펴보고, 이러한 경로에 나타나는 평양, 길주, 청진, 무산 등 북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북한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더불어 탈북자들의 해외로의 난민 신청이 증가하면서 영미권에서 영어로 된 탈북자들의 텍스트 출간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북한 인권활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연미의 In Oder to live(2015)를 대표 사례로 들어, 탈북자들의 수기가 영미권에서 어떻게 번역·출간되고 수용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서구 저널리즘과 미디어의 북한 재현 양상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
5강 10월 30일	북한 지역과 한국문학의 관계 양상① - 한국 근대문학과 정주/해주 정주와 해주에는 한국 문학의 주요 인물- 김소월, 이광수, 선우휘, 백석, 이미륵 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인물들 -김구, 안중근, 이승

	<p>훈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오산학교'는 당대 중요한 지식인과 문인들이 식민지 현실 속에서도 학문적인 열의를 갖고 운영해온 교육기관으로, 이를 통해 이광수, 김소월, 백석, 등 한국 근대문학의 주요 사상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대중에게 익히 알려지지 않은 근대 문학, 역사의 주요 인물을 통해 정주와 해주의 특수성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p>
6강 10월 31일	<p>북한 지역과 한국문학의 관계 양상② - 탈북 문학에 나타난 평양과 국경 1990년대 이후 탈북자에 의해 생산된 텍스트(소설, 수기 등)에 나타나는 평양과 국경 지역을 살펴본다. 익명 작가인 반디의 「유령의 도시」(『고발』, 2015)와 박연미의 수기 『내가 본 것을 당신이 알게 됐으면』(2015)에 나타난 평양지역을 살펴본다. 전자에서 평양은 독재 권력과 몰락한 사회주의 이념이 통치하는 '유령의 도시'로 재현되고 있으며, 후자에서 평양은 '예루살렘과 붉은 광장과 디즈니랜드'가 존재하는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 둘의 차이를 규명하고, 이들 텍스트가 상징하고 있는 내포 독자에 대해 논의한 뒤, 북한 지역이 한국 및 서구 독자들에게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지 살펴본다.</p>
7강 11월 27일	<p>작가와의 대화① -떠나온 북한에 대해서 쓴다는 것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를 수료하고, 조선작가동맹 소속 시인으로 활동하다 반체제 작품 혐의로 국가안전보위부에 투옥, 2006년 출옥 후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작가 도명학을 초대하여 '떠나온 북한에 대해서 쓴다는 것'의 의미를 들어본다. 사전 신청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한 도명학의 대표작 「책도둑」, 「정아바비네」의 창작 과정에 대해서 들어보고,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또, 탈북 문인들의 활동 현황과 '국제펜클럽 망명북한작가센터'의 활동 소개하고, 한국 문학장 내에서 북한 출신 문인들의 고층에 대해서 들어보기도 한다.</p>
8강 11월 28일	<p>작가와의 대화② -북한 여성에 대해 쓴다는 것 평안남도에서 태어나 2011년 대한민국에 입국, 현재 북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북한 여성에 관해 소설을 쓰고 있는 설송아 작가를 초대하여 '북한 여성에 대해 쓴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본다. 작가는 북한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작가는 북한의 참혹한 경제난이 북한 여성에게 극심한 고난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탈출의 기회'가 되었던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본인의 경험을 비추어 북한 여성이 살아가는 환경과 고층에 대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눈다. 또, 사전 신청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한 <진옥이>, <사기꾼> 등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본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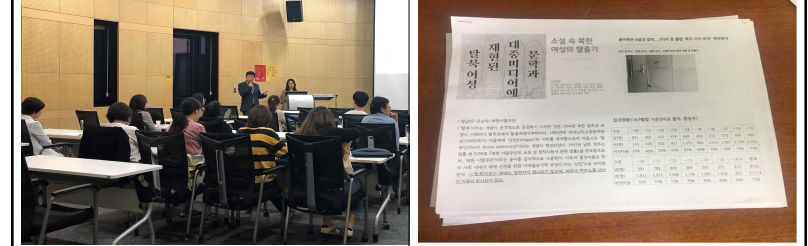
○ 전체 수강생 명단 (오픈 강좌이므로 사진으로 증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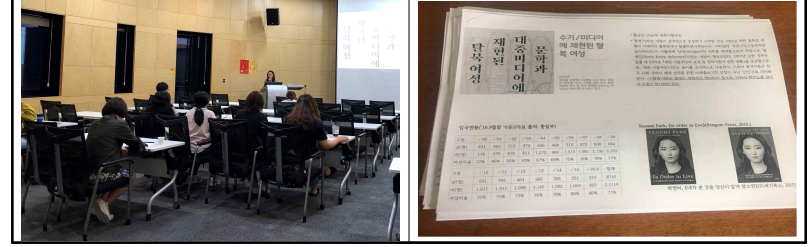
[2강] : 가지 못 하는 철로와 한국문학 ②-경의선



[3강] : 문학과 대중 미디어에 재현된 탈북여성① -소설 속 북한 여성의 탈출기
- 9월 25일(수) 오후 6시 30분~8시 30분 - 서울대학교 8동(두산인문관) 605호



[4강] : 문학과 대중 미디어에 재현된 탈북여성②-수기/대중미디어에 재현된 탈북여성
- 9월 26일(목) 오후 6시 30분~8시 30분 - 서울대학교 8동(두산인문관) 605호



[5강] : 북한 지역과 한국문학의 관계 양상①- 한국 근대문학과 정주/해주
- 10월 30일(수) 오후 7시~9시- 서울대학교 8동(두산인문관) 605호



[6강] : 북한 지역과 한국문학의 관계 양상②- 탈북문학에 나타난 평양과 국경

- 10월 31일(수) 오후 7시~9시 - 서울대학교 8동(두산인문관) 60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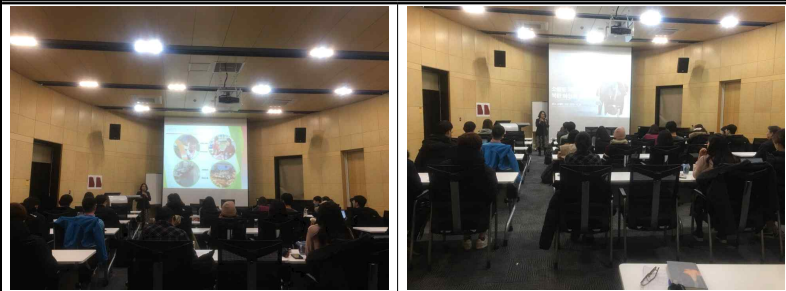
[7강] : 작가와의 대화①- 떠나온 북한에 대해서 쓴다는 것

- 11월 27일(수) 오후 7시~9시 - 서울대학교 8동(두산인문관) 605호



[8강] : 작가와의 대화②- 북한 여성에 대해서 쓴다는 것

- 11월 28일(목) 오후 7시~9시 - 서울대학교 8동(두산인문관) 605호



- 기존의 문화적 재현물에 등장하는 북한 표상을 통해 북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남북한 관계를 전망하는 인문학적 시각 확보한다.
- 경원선, 경의선 등 철도를 테마로 북한 지역학을 대중에게 소개한다.
- 한국 문학의 전통이 유구한 정주/해주 지역의 문학적 유산과 문인들의 이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국 문학을 더욱 풍요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문학을 통해 북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통일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학술적 측면

- 기존의 학술적 성과를 대중 강연으로 기획함으로써 학술성과의 파급효과를 기대한다.
- 환경과학, 간호학, 국제정치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함께 모여 북한지역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탈북 여성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학제간의 협업 가능성을 타진한다.
- 다른 언어권에서 번역·출간된 탈북자의 텍스트를 소개하고,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외국문학 전공자와의 융합 연구의 계기를 마련한다.
- 연구 입문자 또는 인접 연구자에게 참고점이 될 수 있는 강의 제공한다.

○ 사회적 측면

- 북한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담긴 전제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 근대 초기 문학을 통해 북한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남북의 문화적 공통성을 확인한다.
-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시각 제시를 통해 포용력 있는 사회적 인식의 토대를 마련한다.

□ 정량 평가

- 160여 명 참석자의 강의만족도 응답 사항을 분석한 결과, 참석자의 대부분이 본 강좌에 만족을 나타내었다. 통일·평화·북한 문제 인식 및 지식 향상과 의식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으며, 많은 참석자들이 본 강좌가 필요하며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평가문항 1-5에 대한 구체적 수치다.

평가문항1) 이 강의가 통일·평화·북한 문제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④ 사업 성과

○ 문화적 측면

- 다양한 전공자들에게 인문학 시민 강좌 제공하여, 통일·평화·북한 문제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도움을 준다.

-‘매우 도움’-							
1강	19/24	2강	17/23	3강	8/14	4강	14/14
5강	16/21	6강	13/15	7강	15/26	8강	15/28
-‘조금 도움’-							
1강	4/24	2강	5/23	3강	6/14	4강	0/14
5강	5/21	6강	2/15	7강	8/26	8강	13/28
평가문항2) 이 강의를 통해 통일·평화·북한 문제에 대한 귀하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그렇다’-							
1강	11/24	2강	13/23	3강	5/14	4강	7/14
5강	12/21	6강	11/15	7강	11/26	8강	14/28
-‘그렇다’-							
1강	9/24	2강	9/23	3강	8/14	4강	7/14
5강	7/21	6강	2/15	7강	9/26	8강	12/28
평가문항3) 이러한 강의가 대학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							
1강	21/24	2강	20/23	3강	11/14	4강	14/14
5강	17/21	6강	13/15	7강	15/26	8강	20/28
평가문항4) 이 강의를 주변 분들에게 추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적극 추천 의향 있음’-							
1강	14/24	2강	15/23	3강	8/14	4강	12/14
5강	13/21	6강	12/15	7강	15/26	8강	16/28
-‘권유할 의향 있음’-							
1강	9/24	2강	8/23	3강	5/14	4강	2/14
5강	8/21	6강	2/15	7강	6/26	8강	11/28
평가문항5) 강의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1강	19/24	2강	21/23	3강	10/14	4강	14/14
5강	16/21	6강	15/15	7강	17/26	8강	20/28
-‘조금 만족’-							
1강	4/24	2강	2/23	3강	4/14	4강	0/14
5강	5/21	6강	0/15	7강	7/26	8강	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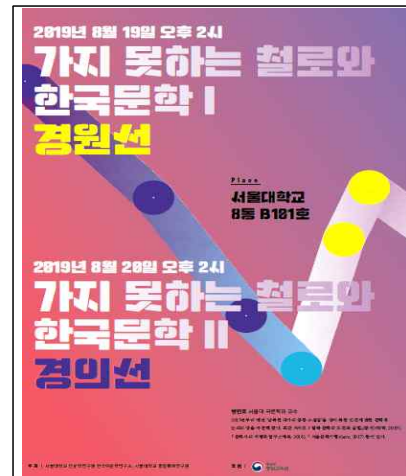
□ 정성 평가

- 문학을 통해 북한 지역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해서 친근하게 접근하도록 하였다. 특히, 한반도를 잇는 ‘경원선’ 과 ‘경의선’ 을 키워드 삼아 서울에서 출발하여 북한 지역까지 두루 살펴봄으로써 청중의 호평을 받았다.

- ‘경원선’, ‘경의선’ 을 키워드로 한 북한지역 탐사는 이후 대중교양서 혹은 통일교육 교재로 발전시킬 수 있다.
- ‘탈북’ 의 개념을 ‘월남’, ‘귀순’ 등의 용어와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북한문제의 현재성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를 도왔다.
- ‘탈북 여성’ 이 처한 상황을 문학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 현재 우리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 지도 등 다양한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북한 지역을 살펴보고, 해당 지역의 문인을 소개함으로써 북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 이광수, 안중근, 김구 등 한국 근대사에 주요한 인물들과 북한 지역이 맺고 있는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남북한이 공유하는 역사적 연원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영미권 등 외국어로 번역·출간되는 탈북자의 텍스트(소설, 수기)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북한/탈북 문제가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제시하고, 서구에서 재현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 탈북 이후 남한에서 문필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청중에게 호평을 받았다. 북한 현실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청중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청중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⑤ 관련 자료

- 포스터



[2] 통일보건의료 전문교육을 통한 HRH 역량개발 (신희영 의과대 교수)

① 사업 목적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는 통일 보건의료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자 2012년 센터 개소 이후부터 통일 보건의료 교육을 꾸준히 해온 기관으로서 의·치의·수의·간호·약학 등 보건의료 전 분야의 종사자 및 예비 의료인을 대상으로 통일 보건의료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각계의 통일의료에 대한 의식을 배양하고자 함
- ‘HRH’란 Human Resources for Health의 약자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의료인력 양성 교육의 필요를 위한 사업에서 쓰인 용어이며, 본 사업에서는 예비 보건의료 인력인 의과대학, 치의학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학생을 포함한 보건학 전공자 및 잠재적으로 의료인을 목표로 한 일반 대중을 위한 통일 보건의료 강좌를 열어 폭넓은 통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현재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통일 보건의료 강좌는 기존 의료인력 대상의, 시니어 혹은 박사급 이상의 연구자를 위한 경우가 다수이며 학생이 주도하는 강좌가 부재함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여 이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② 강좌 개요

- 일시: 2019년 7월 4, 11, 18일 목요일 (3주) 14:00~18:00
- 대상: 서울대학교 및 타 대학의 보건의료와 북한 관련 전공자
- 장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 옥정홀
- 진행 방식: 사전 제공된 전문 교수진(강사진)의 주제별 논문을 미리 읽고 분석한 후, 전문가 강의 후 주제에 따른 질의응답 및 토론. 9개 세션 중 7개 세션 이상 참석한 수강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평가 방식: 매주 강의 후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주요 활동: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열린강좌와 아카데미 등 다수의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꾸준히 서울대학교 의예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료’ 강의를 운영하여 예비 보건의료인의 통일 의식 증진을 돕고, 나아가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고취에 앞장서왔음
- 사업달성 목표: 정량적 목표로 매 주차별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5점 척도로 4.0점 이상의 만족도 지수를, 30명 이상의 참석자를 목표로 함, 정성적 목표로 수강자들 간의 통일의료 지식 공유의 장 형성을 기대함

○ 설문지 샘플

<p style="text-align: center;">통일교육선도대학 강좌 만족도 조사 문항지</p> <p>* 이 설문은 통일교육선도대학 강좌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향후 강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수강생 여러분의 응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설문은 익명 처리되며, 응답 내용은 오로지 대학 및 중앙정부에 대한 개선을 위한 것으로 활용될 사용되며, 개인을 특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p> <p>[응답자 특성문항]</p> <p>Q01. 소속 학교대학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대학교 <input type="checkbox"/> 연세대학교 <input type="checkbox"/> 고려대학교 <input type="checkbox"/>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nput type="checkbox"/> 서울대학교 <input type="checkbox"/> 강원대학교 <input type="checkbox"/> 포항공과대학교 <input type="checkbox"/> 영남대학교 <input type="checkbox"/> 연세대학교 <input type="checkbox"/> 기타</p> <p>Q02. 학년 <input type="checkbox"/> 1학년 <input type="checkbox"/> 2학년 <input type="checkbox"/> 3학년 <input type="checkbox"/> 4학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학원생 <input type="checkbox"/> 기타</p> <p>Q03. 이틀(대안)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보기 가능) 비공개함 <input type="checkbox"/> 아니요</p> <p>[평가문항]</p> <p>1. 이 강의를 통일보건의료 관련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별로 도움 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전혀 도움 되지 않음</p> <p>2. 이 강의를 통해 통일보건의료 관련 주제에 대한 주의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p> <p>3. 이 강의 내용이 교양필수과목서 포함하고 생각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부분 포함 <input type="checkbox"/> 불필요함 <input type="checkbox"/> 매우 불필요함</p> <p>4. 이 강의를 수업 분량에 비해 수강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별로 그렇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지 않음</p>	<p>5. 강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매우 만족 <input type="checkbox"/> 조금 만족 <input type="checkbox"/> 평범함 <input type="checkbox"/> 불만족</p> <p>6.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공간) 북한과 관련해 대해 깊이있게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p> <p>7. 강의를 다시 자주 보길래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공간) 북한 관련 자료와 함께 수강하는 통일성 대중의 인지도에 대해에 대한 준비, 특히에서 정면과 전쟁에 대해 고민을 들을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됐습니다.</p>
---	--

○ 강의안 샘플

2019년 8월 19일 오후 2시

가지 못하는 철로와
한국문학 1
경원선

통일시대 한반도를 위하여 1

탈북여성

재현된
대중미디어에

문학과

수기/미디어에 재현된 탈북여성

9.25
수업
문헌강연
10.1
9.25
수기/미디어에 재현된 탈북여성

이제는 한학을 공부하고 비평을 쓰고 있다. 일본은 '열린문' 서사, 기묘한 귀담 서사, 활활 여명의 서사 등 굵직한 경계를 넘나드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연구하고 있다.

③ 강좌 내용

○ 주차별 강좌내용

주차	강의 주제	강사 명	강사 소속
제1주 (7/4)	세션① (보건의료)북한을 통달하다, 통일의료	신희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세션② Ice Breaking	안형순	국립암센터
	세션③ (농업)김정은 시대 북한 농업 정책과 과제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주 (7/11)	세션④ (법)김정은 시대 북한 법과 보건의료	이규창	통일연구원
	세션⑤ (사회주의)체제 보건의료 정책과 과제	권순만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세션⑥ (사회문화)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문화 정책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제3주 (7/18)	세션⑦ (경제)김정은 시대 경제 정책과 남북과제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세션⑧ (개발협력)국제사회의 북한 개발협력 평가	이종운	극동대학교
	세션⑨ (보건안보)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 보건협력	조한승	단국대학교

○ 주차별 세부내용

주차	세부내용
제1주 (7/4)	세션① (보건의료) 북한을 통달하다, 통일의료 - 신희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김정은 시대 북한 보건의료의 기본 특징과 전달 및 조직체계는 조금씩 변화를 꾀하고 있다. 현재 북한 의료기관 시설과 의료인력 현황 또한 북한 의료 인프라 수준에 따라 변화 중이며, 최근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참고하면 북한 전략 우선순위로 식량 및 영양보장과 사회적 개발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고 궁극적으로 R&D를 통한 통일 비용 마련이 시급하다.
	세션② (Ice Breaking) 소통의 시간 - 안형순 (국립암센터) → 통일과 북한, 보건疫료를 전공하고 실무로 일을 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궁극적으로 남북한 보건疫료의 격차를 줄이고 통일 대비 보건疫료 정책 수립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션③ (농업) 김정은 시대 북한 농업 정책과 과제 -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북한은 경제위기 이후 15년간 주요 지표의 변화를 보이며 식량 부족 실태를 보여왔다. 농업 분야 북한 비핵화 대화의 핵심은 완전화 비핵화(CVID) 약속과 이행이며 후호적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 개혁, 개방 국면에 따른 농업 교류협력 추진 방향을 EU의 SAPARD 사례와 UNDP의 APED 지원 사례를 통해 설정해 볼 수 있다.
제2주 (7/11)	세션④ (법) 김정은 시대 북한 법과 보건疫료 - 이규창 (통일연구원) → 북한의 규범적 문건인 성문법에는 헌법과 법령, 정령, 결정, 명령, 지시의 6가지 종류가 있으며, 북한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제97조), 국무위원회의는 결정과 지시를(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제120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제129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제150조) 각각 제정할 수 있다.
	세션⑤ (사회주의) 체제 보건疫료 정책과 과제 -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사회주의 체제 국가는 정치적 경제적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대표적으로 급작스런 변화에 따른 정책과 견고하게 계획된 변화에 따른 정책의 두 가지로 구분 가

	<p>능하다. 북한의 건강수명은 러시아의 패턴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며, 영유아 사망률은 러시아와 비교했을 때 더욱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 및 북한의 보건疫료 정책은 예산 범위를 보다 면밀히 설정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p> <p>세션⑥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정책과 인민생활 -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 북한의 사회문화적 계층 변화 양상의 특성은 계층위계의 변화, 계층화의 기준 변화, 새로운 계층 등장, 생활환경문화 등 라이프 스타일의 분화, 수직적 계층 분화와 더불어 지역 등 수평적 계층 분화도 진행됨을 의미한다. 북한의 사회 변화에 발맞춰 당국은 통제체제 재정비와 더불어 새로운 통합 정책을 시행 중이다.</p>
제3주 (7/18)	<p>세션⑦ (경제)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정책과 남북 경제협력 -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 남북경협 30년 역사를 살펴보면, 1988년부터 1997년의 '도입기'를 시작으로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성장기'를 거쳤다. 이 시기에 1998년 금강산 관광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본격화 되었으며 2003년 개성공단 착공을 토대로 남북경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정체기'로,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남북경협 또한 함께 정체 상태에 놓여있다.</p> <p>세션⑧ (개발협력) 국제사회 북한 개발협력 평가와 시사점 - 이종운 (극동대학교) → 1995년부터 시작된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는 남북관계 및 북한과 주변국 간의 관계에 따라 규모와 성격이 변화해왔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원조 투명성 확보, 인권문제 등과 복잡하게 연계되어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및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추가 경제 제재가 반복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근 대북지원은 구호형 활동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상태이다.</p> <p>세션⑨ (보건안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남북 보건협력 거버넌스 - 조한승 (단국대학교) → 신홍안보는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다차원적 네트워크를 거치며 미시적 안보가 거시적 안보로 창발한 것을 의미한다. 보건안보란 각종 질병의 예방, 처치, 대응을 집단적 인간 공동체 유지와 안전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말한다. 대북 보건안보의 위협 요인은 신종 전염병의 북한 유입 가능성, 북한 토착 질병의 외부 전파 가능성, 북한 생화학무기의 테러 가능성,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등이다.</p>

○ 전체 수강생 명단

- 3주간 아카데미 참석자 총 77명 중 수료자 48명

번호	성명	소속	직책	비고
1	신희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소장	
2	최민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부소장	
3	김혜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직원	
4	전지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연구원	수료
5	박샘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연구원	수료
6	안경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연구원	수료
7	최소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연구원	수료
8	강기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연구원	수료
9	강병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수료
10	강혜영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료
11	고호석	서강대학교	학생	수료
12	구동형	-	-	수료
13	권혁준	연삼어패럴	대표	수료
14	김동수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수료
15	김동준	한국한의학연구원 글로벌연구협력팀	팀장	수료
16	김성우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학생	수료
17	김세영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18	김소연	서울아산병원 ARC팀	과장	

19	김영선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내과	교수	수료
20	김은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실무관	수료
21	김정하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간호대학 간호학과	학생	수료
22	김채린	LSHTM & LSE joint program	학생	수료
23	김태완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학생	수료
24	김홍석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학생	수료
25	목승현	국립중앙의료원 교육개발평가팀	연구원	
26	문주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27	박건희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보건소장	
28	박서빈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학생	수료
29	변현지	EHESP	학생	수료
30	신인순	수원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수료
31	신정현	서울대학교 의예과	학생	수료
32	신현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33	안선주	월드비전 북한사업팀	대리	수료
34	오현주	경희의료원 동서건강증진센터	진료교수	
35	유수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연구원	
36	이규현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홍보팀	대리	수료
37	이락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가톨릭국제보건의료연구소	책임연구원	수료
38	이소현	성신여자대학교 글로벌의과학과	학생	수료
39	이순남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수료
40	이시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연구원	수료
41	이신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민족협력사업부	과장	
42	이은영	국제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연구원	수료
43	이장규	-	-	수료
44	이정임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	연구원	수료
45	이정훈	Emory University 생물학과	학생	수료
46	이준석	북서울오양병원 한방과	과장	수료
47	이지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	수료
48	이진희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복지원예사	수료
49	이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민족협력사업부	과장	
50	이황미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운영팀	팀장	수료
51	이효린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 석사과정	학생	
52	임동은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사회봉사단 행정팀	매니저	수료
53	임성현	북경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수료
54	임영웅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학부	학생	수료
55	임영재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학생	수료
56	임진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통일정책학과	학생	수료
57	전상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인도개발협력팀	대리	수료
58	조성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생	수료
59	조수빈	고려대학교	학생	
60	조재권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	수료
61	진주	산림청 남북산림협력단	직원	수료
62	천영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학생	수료
63	최영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공의	수료
64	한수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생	
65	황일웅	서울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교수	
66	황조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	
67	한만영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종욱연수부	부장	
68	최경오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학생	
69	고연주	-	-	수료
70	최지영	-	-	
71	이신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협력실	직원	
72	이호석	-	-	

73	고재성	-	-	
74	김초롱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연구원	
75	김유진	차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76	이수인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77	전민경	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생	

④ 사업 성과

-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의 목적으로 통일의료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통일 의식 함양이 가능하도록 함
- 통일 보건의료 분야 전략 수립을 단계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으로써 김정은 시대 북한의 분야별 정책을 파악하도록 함
- 남북한 및 통일의료 분야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초석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범용성 있는 데이터를 보다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분야 강사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사진 DB 구축에도 역할을 함
- 보건의료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범분야적 주제 선정으로 예비 보건의료인과 일반 학생 및 실무자로 하여금 HRH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통일 이후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
- 일방적인 강의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통일 교육을 실천하여 통일 보건의료 인적자원으로서의 성장과 진로 탐색을 모색하는 계기 마련 및 통일의료 전문 인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발현에 도움

□ 정량 평가

- 1주차 강의만족도 평가 결과 (응답자 47명, 5점 만점 기준)

연번	문항	평균
	강좌 기획	
1	본 강의는 교육목표달성에 적절하게 구성되었습니까?	4.77
2	본 과정은 해당 통일 보건의료 및 산업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75
	매체/환경	
3	교재 등 교육자료는 강의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4.81
4	강의장 환경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4.85
	교육 성과	
5	본 과정 이수를 통해 전문성 또는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66
6	본 과정은 통일 보건의료 및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72
	종합 평가	
7	이번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만족하십니까?	4.72

- 2주차 강의만족도 평가 결과 (응답자 40명, 5점 만점 기준)

연번	문항	평균
	강좌 기획	
1	본 강의는 교육목표달성에 적절하게 구성되었습니까?	4.35
2	본 과정은 해당 통일 보건의료 및 산업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45
	매체/환경	
3	교재 등 교육자료는 강의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4.40
4	강의장 환경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4.58
	교육 성과	
5	본 과정 이수를 통해 전문성 또는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48
6	본 과정은 통일 보건의료 및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48
	종합 평가	
7	이번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만족하십니까?	4.55

- 3주차 강의만족도 평가 결과 (응답자 43명, 5점 만점 기준)

연번	문항	평균
	강좌 기획	
1	본 강의는 교육목표달성에 적절하게 구성되었습니까?	4.67
2	본 과정은 해당 통일 보건의료 및 산업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30
	매체/환경	
3	교재 등 교육자료는 강의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4.56
4	강의장 환경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4.56
	교육 성과	
5	본 과정 이수를 통해 전문성 또는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51
6	본 과정은 통일 보건의료 및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56
	종합 평가	
7	이번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만족하십니까?	4.60

- 3주에 걸친 아카데미 강좌의 종합 평가 항목은 5점 만점에 4.5점을 모두 넘길 만큼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음
- 본래 정량적 목표로 계획한 5점 척도 중 4.0점 이상의 만족도 지수를 달성하였으며, 설문 응답 인원 수가 1주차 47명, 2주차 40명, 3주차 43명으로 계획안의 주차별 30명 이상의 참석자 목표를 달성함

□ 정성 평가

- 보건의료 외 분야에 대한 통일 보건의료 인적자원의 요구에 따른 강좌 구성 및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나아가 관련 연구에 대해 사전에 제공된 논문과 발간물 분석을 통해 통일을 대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 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차세대 통일 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시기별로 적절한 세미나 주제를 기획함에 따라 매년 새롭게 변화하는 남북한 보건의료 교육 커리큘럼 마련에 있어 지식 공유의 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
- 다양한 분야별 강좌 제공을 통해 3주간의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일정한 참석자 수를 유지하여 관련 분야 종사자 및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음

⑤ 관련 자료

○ 강의 사진



아카데미 강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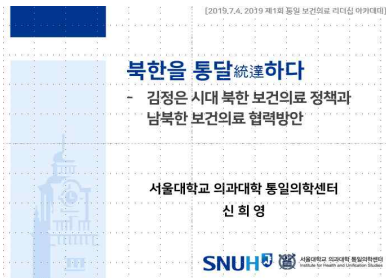


단체 사진

○ 아카데미 홍보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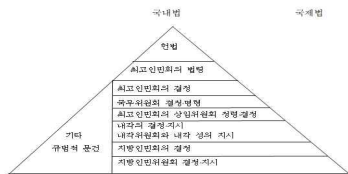
○ 아카데미 강의 자료



(세션 1) 보건의료
김정은 시대 북한 법과 보건의료

1. 북한법의 특징과 실태

1. 북한법의 세계 및 규범의 상하관계



(세션 4) 법



(세션 6) 사회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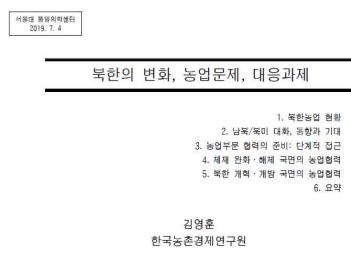
국제사회의 북한 개발협력 평가와 시사점

이종문 (국동대학교, jwlee@kd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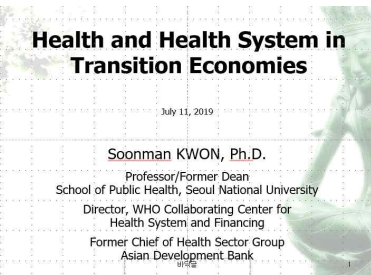
1. 머리말

2010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변화하고 북한의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는 경제 관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된 남북한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북한은 4월 20일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함에 대한 새로운 전략노선'을 발표하며 관련된 2건의 결정을 채택하였다. 첫 번째 결정은 김정은 김관아후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채택하였던 '경제, 핵 병진노선'은 경제발전의 과업목표가 완수되었기 때문에 다른 한축인 경제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결의의 모습을 갖추었다. 두 번째 결정서인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하여'는 북한의 새로운 전략의 노선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 결의서 내용은 포괄된 북한의 새로운 전략노선의 핵심은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에서 경제사업을 우선시해야 하며, 경제사업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경제발전의 나래를 일깨워,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활용 강조하였다고

(세션 8) 개발협력



(세션 3) 농업



(세션 5) 사회주의 보건의료



(세션 7) 경제



(세션 9) 보건안보

[3] 통일법 강좌 (이효원 법대 교수)

① 사업 목적

- 비법학 전공생들이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법규법적인 측면의 접근가능
-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 전문가로의 진로모색 가능성 향상의 계기
- 법실무적인 관점에서의 강의 진행으로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모색

② 강좌 개요

- 19-1학기 통일법 강좌 / 19-2학기 통일법 강좌
- 목적 : 자교 및 타교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 통일법 이론 강의
- 기간 : 매주 목요일(19:00 ~ 20:30)
-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0주년 기념관 최중길 홀
- 방식 : 이론강의 및 질의응답

③ 강좌 내용

○ 주차별 강좌내용 (1학기)

주차(일자)	강의 주제	강사 명	강사 소속
03. 07.(목)	북한 법률체계의 특성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3. 14.(목)	북한헌법	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
03. 21.(목)	북한의 주권기관 관련 법제	송진호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03. 28.(목)	북한의 행정 관련 기본법제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04. 18.(목)	북한의 사법제도	박종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04. 25.(목)	북한의 형사법	김태현	통일부 법률자문관
05. 02.(목)	북한의 민사법	한철웅	법무법인 (유) 지평 변호사
05. 09.(목)	북한의 상사법	김은정	통일부 사무관
05. 16.(목)	북한의 가족법과 상속법	전세영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05. 23.(목)	북한의 남북협력 관련 법제	장소영	대전지검 부장검사
05. 30.(목)	헌정부의 한반도 정책	천해성	통일부 前 차관

○ 주차별 세부내용 (1·2학기)

주차	세부내용
1	① 북한 법률체계의 특징 북한의 법은 사회주의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법을 사회주의

	전취물을 수호하는 수단이자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무기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법이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주체의 법이론, 혁명적 수령론, 사회주의법무생활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구체화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 김정은의 교시, 그리고 조선노동당 강령·규약이 헌법 등 모든 법규범의 근거이자 한계가 된다.
2	② 북한의 민사법 일반적으로 개인의 법률문제는 '개인 사이의 문제'와 '개인과 국가 사이의 문제'로 구분하고, 이 중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는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로 구분하여 왔다. 북한은 이를 '민법', '가족법', '상속법'의 3개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이 중 민법은 구성에 있어서부터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는 북한의 특성을 보여준다. 개인 사이의 재산관계에까지도 전체주의적 개입이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가 근간이 되고, 집단주의원칙에 따라 재산관계가 설정·실현되고 있다.
3	③ 북한헌법 북한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사회주의에 기초하여 대한민국과는 상이한 헌법체제를 형성하였다. 북한은 정치현실과 국제환경을 반영하면서 북한의 특수한 성격이 가미된 사회주의 헌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을 제시하고,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를 바탕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전체주의 독재국가를 뒷받침하는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
4	④ 북한의 행정 관련 기본법제 대부분의 자유주의 국가는 권력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분화되어 있다. 북한은 서구식 입헌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하에 모든 활동을 진행하며, 국가기관과 당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특성을 보여준다. 북한은 행정조직이나 행정 효율성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 하지만,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권익구제에 관한 언급은 없다.
5	⑤ 북한의 사법제도 북한 사법제도는 '재판소구성법'을 중심으로 나름 심급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공증법, 변호사법 등 사적 영역에서의 법조인의 활동역역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법제도는 노동당의 사법정책을 구현하고 권력에 대한 보위를 법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제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법률은 주민통제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 법치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이와 정반대로 사법제도를 도구화하고 있다.
6	⑥ 북한의 형사법 북한의 형사법은 사회주의 체제를 국가 내외부의 반혁명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민들은 계급투쟁과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형법 등 관련

	기본법을 살펴본다. 더 나아가 실체법과 절차법적인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법률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7	⑦ 북한의 주권기관 관련 법제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의 조직원리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채택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주권기관을 중앙과 지방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중앙주권기관에는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지방주권기관으로는 '각급 인민회의'와 인민회의 휴회 중에 지방주권기관으로 되는 '각급 인민위원회'가 있다.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에 대하여는 지방주권기관법과 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다.
8	⑧ 북한의 상사법 북한 상업법은 상업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품유통과 봉사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즉, 기업 활동 중 '상품유통'과 '봉사사업'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 상법이 기업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것과 차이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에 따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였을 때, 우리와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상업법 뿐만 행위와 권리에 따른 다양한 법률을 함께 살펴야 함을 의미한다.
9	⑨ 북한의 가족법과 상속법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관계와 가족, 친척들 사이의 인격 및 재산관계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은 가정을 형성하는 기초이자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권리, 결혼연령, 이혼, 양육, 사망 등을 규율한다. '상속법'은 상속과 증여, 상속 집행, 유언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이 법률에 의하여 개인소유재산 보호를 강조하면서, 상속에 따른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10	⑩ 북한의 남북협력 관련 법제 북한의 남북협력 관련법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관계의 법적성격과 규범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즉, 남북교류협력법을 이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남한은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제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북남경제법 등을 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야 북한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 전체 수강생 명단 (1학기)

번호	성명	소속	구분
1	강영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내 학생
2	강지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내 학생
3	고선우 1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내 학생
4	고선우 2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타교 학생
5	공현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학생
6	권태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학생

7	김동운	서울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내 학생
8	김성태	서울대학교 법학과 일반대학원	교내 학생
9	김연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내 학생
10	김원형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타교 학생
11	김진수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내 학생
12	남건희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불어불문학과	타교 학생
13	박상하	연세대학교 문화디자인경영학과	타교 학생
14	변상훈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내 학생
15	신민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타교 학생
16	송영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타교 학생
17	송효근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타교 학생
18	심유진	서울대학교 법학과 일반대학원	교내 학생
19	안인경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	교내 학생
20	엄세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내 학생
21	오정미	상명대학교 법학과	타교 학생
22	윤승일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내 학생
23	윤태빈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타교 학생
24	윤하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내 학생
25	이경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내 학생
26	이정환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타교 학생
27	이주수	연세대학교 사학과	타교 학생
28	이충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내 학생
29	임주미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내 학생
30	장혜신	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 졸업	교내 학생
31	정유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내 학생
32	조승현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내 학생
33	조운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내 학생
34	조현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내 학생
35	천현정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교내 학생
36	최용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타교 학생
37	한지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타교 학생
38	허세론	서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교내 학생
39	홍세훈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타교 학생

○ 주차별 강좌내용 (2학기)

주차(일자)	강의 주제	강사 명	강사 소속
09. 05.(목)	북한 법률체계의 특징	정구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
09. 19.(목)	북한의 민사법	한철웅	법무법인 (유) 지평 변호사
09. 26.(목)	북한헌법	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
10. 24.(목)	북한의 사법제도	박종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10. 31.(목)	북한의 행정 관련 기본법제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11. 07.(목)	북한의 주권기관 관련 법제	송진호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11. 14.(목)	북한의 형사법	김태현	통일부 법률자문관
11. 21.(목)	북한의 상사법	김은정	통일부 사무관
11. 28.(목)	북한의 가족법과 상속법	전세영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12. 05.(목)	북한의 남북협력 관련 법제	장소영	대전지검 부장검사

○ 전체 수강생 명단 (2학기)

번호	성명	소속	구분
1	김재은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타교 학생
2	김민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내 학생
3	김홍균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내 학생
4	고정욱	연세대학교 철학과	타교 학생
5	김진수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내 학생
6	김태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내 학생
7	이은호	한양대학교 체육학과	타교 학생
8	임시현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타교 학생
9	장민아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내 학생
10	전동현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타교 학생
11	조수민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내 학생
12	조수빈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내 학생
13	오형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내 학생
14	윤승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교내 학생
15	배병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내 학생
16	강윤성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내 학생
17	차시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타교 학생
18	조성근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타교 학생
19	정동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내 학생
20	김나형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	교내 학생

④ 사업 성과

○ 통일에 대한 법학적인 관점에서의 실무적 접근으로 통일관련 주요 법적쟁점의 이해도 향상

○ 통일을 규율하는 현 법체계 교육

- 구체적 지표로는 두 개 학기동안 각 학기별로 국내 통일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등이 총 21강에 걸쳐 강의실시, 총 59명의 교육대상자 중 총 33명의 수료인원을 배출

□ 정량 평가

번호	문항	답변(비율)
1.	성별	1. 남성(61.5%) 2. 여성(38.5%)
2.	학년	1. 1학년(0%) 2. 2학년(0%) 3. 3학년(23.1%) 4. 4학년(76.9%)
3.	이 강의를 수강하고 난 후 귀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1. 매우 필요하다(76.9%) 2. 조금 필요하다(23.1%) 3. 별로 필요하지 않다(0%) 4. 전혀 필요하지 않다(0%)
4.	이 강의를 수강하고 난 후 귀하는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올 이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100%)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0%)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0%)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0%)
5.	이 강의가 우리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의 변화와 방향을 이해하는 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이 된다(100%) 2. 조금 도움이 된다(0%) 3. 별로 도움이 안된다(0%) 4. 전혀 도움이 안된다(0%)
6.	이 강의의 복합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귀하의 전반적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이 되었다(100%) 2. 조금 도움이 되었다(0%) 3. 별로 도움이 안되었다(0%) 4.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0%)
7.	이 강의가 귀하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84.6%) 2. 조금 그렇다(7.7%) 3. 별로 그렇지 않다(7.7%) 4. 전혀 그렇지 않다(0%)
8.	이 강의의 수강이 귀하가 북한주민 및 탈북민들을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바라보는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69.2%) 2. 조금 그렇다(30.8%) 3. 별로 그렇지 않다(0%) 4. 전혀 그렇지 않다(0%)
9.	이 강의의 수업계획서 등에 따라 충실히 진행되었고 수업 내용이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100%) 2. 조금 그렇다(0%) 3. 별로 그렇지 않다(0%) 4. 전혀 그렇지 않다(0%)
10.	이 강의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다른 학생에게도 추천하고 싶은가?	1. 매우 추천한다(100%) 2. 조금 추천한다(0%) 3.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0%) 4. 전혀 추천하지 않는다(0%)
11.	이 강의의 전체적인 수업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 전개되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100%) 2. 조금 그렇다(0%) 3. 별로 그렇지 않았다(0%) 4. 전혀 그렇지 않았다(0%)

□ 정성 평가

- 국내 통일법 관련 전공자와 실무가에 의한 강의 실시
-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답변

⑤ 관련 자료

○ 시각자료



강사진행	수료기념	강좌 수강진경
------	------	---------

○ 설문지 샘플

<p>통일법학 관련 강좌 만족도 조사 설문지</p> <p>이 설문지 목적은 통일법학 관련 강좌의 수강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강의의 질을 높이고 강의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설문지 결과는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 조사에 활용됩니다.</p> <p>응답자 특성분류</p> <p>성별: 남() 여()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공: 통일법학() 기타()</p> <p>평가항목</p> <p>1. 이 강의가 수업시간 외에도 나의 학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 매우 만족한다 ○ 조금 만족한다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p> <p>2. 이 강의가 나의 학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 매우 만족한다 ○ 조금 만족한다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p> <p>3. 이 강의가 나의 학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 매우 만족한다 ○ 조금 만족한다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p> <p>4. 이 강의가 나의 학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 매우 만족한다 ○ 조금 만족한다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p>	<p>5. 이 강의가 흥미로웠습니까? ○ 매우 그렇다 ○ 조금 그렇다 ○ 별로 그렇다 ○ 전혀 그렇다</p> <p>6. 이 강의의 내용이 귀하의 복합 수준 및 일반인들을 위한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까? ○ 매우 그렇다 ○ 조금 그렇다 ○ 별로 그렇다 ○ 전혀 그렇다</p> <p>7. 이 강의는, 수업계획서 등에 따라 충실히 진행되었고, 수업 내용이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매우 그렇다 ○ 조금 그렇다 ○ 별로 그렇다 ○ 전혀 그렇다</p> <p>8. 이 강의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다른 학생에게도 추천하고 싶은가? ○ 매우 추천한다 ○ 조금 추천한다 ○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 전혀 추천하지 않는다</p> <p>9. 이 강의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다른 학생에게도 추천하고 싶은가? ○ 매우 추천한다 ○ 조금 추천한다 ○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 전혀 추천하지 않는다</p> <p>■ 기타: 이 수업에서 가장 흥미를 가져왔던 주제가 무엇입니까?</p> <p style="text-align: right;">없습니다.</p>
--	---

○ 2019-1학기 강의자료 샘플

<p>헌법의 의의</p> <p>가. 헌법의 정의 -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범</p> <p>나. 헌법의 기능 -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 원리 : 국가권력의 창설과 배분(이론· 통치구조) - 국민의 기본권 보장</p> <p>다. 헌법의 분류 - 성문헌법, 불문헌법 - 경성헌법, 연성헌법 - 규범적 헌법, 명목적 헌법, 가식적 헌법</p>	<p>제정의의</p> <p>◆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p> <p>북한인권법</p> <p>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목적 및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p>
---	--

○ 2019-2학기 강의자료 샘플

<p>북한의 가족관계 법제를 둘러싼 변화</p> <p>1.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과 그 시행세칙을 통한 가족 영역의 규율 - 남녀간 관리의 평등, 혼인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 - 자유결혼의 원칙, 혼인연령, 일부일처제원칙, 혼인등록제도, 이혼절차, 이혼시의 자녀 부양 등 규정</p> <p>2. 이혼의 자유를 억제하고 가족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 리혼절차를 일부 변경한 데 관하여(1956. 3. 8. 내각결정 제24호) : 기존의 협의이혼 폐지, 재혼소인 판결을 통해서만 이혼가능하도록 규정 - 공민권 선문등록에 관한 규정(1955. 3. 8. 내각결정 제28호) : 호주제도와 호주제 폐지</p> <p>3. 가족 영역을 포함한 민사관계 종합 규율을 위한 법 제정 - 민사규정</p> <p>4. 독자법으로서의 가족법과 상속법의 제정 및 개정</p>	<p>북한의 남북협력 관련 법제 - 남북교류협력관련 특수경제지대법제</p> <p>남북합의서</p> <p>- 4대 경제합의서를 통해 현재 북한이 새경제구역기구(WTO),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분쟁해결센터(ICSID) 등 국제기구나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산의 보호, 이종과세의 금지, 청산절개의 절차, 분쟁해결 등을 규범적으로 보장</p>
--	--

③ 통일법 논문 세미나 (이효원 법대 교수)

① 사업 목적

○ 법학전문대학원 내 통일법 교육과정 개설

- 통일정책추진은 구체화된 법제도로 이루지는 법치주의 질서에 구속
- 하지만,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사회 전문가에 비해 법전문가는 부족
- 그러므로, 법전문가 양성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역할이 필요
- 본 사업은 이러한 역할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교육활성화의 일환

○ 통일법제도에 대한 법이론 교육 심화

- 통일문제가 복잡·다양하고 통일법 연구주제·대상도 이에 준하나, 크게 북한법, 남한 내 북한관련 법제도(남북교류법제 등)로 구분가능
- 본 사업기간 중에는 북한법을 중심으로 진행예정
- 통일법 교육대상자의 관심주제, 연구방법, 논증과정에 대한 검토와 지도로 학업진척도 확인 및 지도

② 강좌 개요

- 기간 : 1, 2학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15:00 ~ 16:30)
-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305호
- 방식 : 이론강의 및 질의응답

③ 강좌 내용

○ 주차별 강좌내용

주차(일자)	강의 주제	강사 명	강사 소속
03. 30.(토)	남북한 법률체계의 비교	김은정	통일부 사무관
05. 25.(토)	남북한 농업, 산림 관련 법률의 비교	윤형석	국회 비서
06. 29.(토)	남북한 환경, 도시경영관련 법률의 비교	김현창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
08. 31.(토)	남북한 분쟁해결 관련 법률의 비교	이상협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남북한 에너지, 자원관련 법률의 비교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09. 28.(토)	남북한 노동 관련 법률의 비교	홍영기	법무부 공익법무관
10. 26.(토)	남북한 지적 재산권 관련 법률의 비교	김성태	법무부 해송 변호사
11. 30.(토)	남북한 교육, 문화 관련 법률의 비교	황신영	통일부 주무관

○ 전체 수강생 명단

번호	성명	소속	구분
1	손원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2	김진욱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3	정구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4	김남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5	전세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6	김태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7	박유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8	신유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9	이윤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10	이은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11	박기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12	이혜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13	진영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14	김정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15	황신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16	김용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17	김우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18	김영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19	서결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20	강민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④ 사업 성과

○ 북한법령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

- 2019년 북한 헌법 등 최신 북한법령집 확보로 북한 법제도의 동향 분석 가능
- 남북한 법령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분석
- 북한체제 시스템의 법적근거 분석·연구

○ 정량 평가

번호	문항	답변(비율)
1.	성별	1. 남성(85.7%) 2. 여성(14.3%)
2.	학년	1. 1학년(11.1%) 2. 2학년(0%) 3. 3학년(44.4%) 4. 4학년(44.4%)
3.	이 강의를 수강하고 난 후 귀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1. 매우 필요하다(84.6%) 2. 조금 필요하다(7.7%) 3. 별로 필요하지 않다(7.7%) 4. 전혀 필요하지 않다(0%)
4.	이 강의를 수강하고 난 후 귀하는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올 이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69.2%)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23.1%)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7.7%)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0%)
5.	이 강의가 우리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의 변화와 방향을 이해하는 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이 된다(100%) 2. 조금 도움이 된다(0%) 3. 별로 도움이 안된다(0%) 4. 전혀 도움이 안된다(0%)
6.	이 강의가 북한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귀하의 전반적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이 되었다(53.8%) 2. 조금 도움이 되었다(46.2%) 3. 별로 도움이 안되었다(0%) 4.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0%)
7.	이 강의가 귀하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38.5%) 2. 조금 그렇다(30.8%) 3. 별로 그렇지 않다(23.1%) 4. 전혀 그렇지 않다(7.7%)
8.	이 강의의 수강이 귀하가 북한주민 및 탈북민들을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바라보는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46.2%) 2. 조금 그렇다(30.8%) 3. 별로 그렇지 않다(15.4%) 4. 전혀 그렇지 않다(7.7%)
9.	이 강의는 수업계획서 등에 따라 충실히 진행되었고 수업 내용이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84.6%) 2. 조금 그렇다(15.4%) 3. 별로 그렇지 않다(0%) 4. 전혀 그렇지 않다(0%)
10.	이 강의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다른 학생에게도 추천하고 싶은가?	1. 매우 추천한다(92.3%) 2. 조금 추천한다(7.7%) 3.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0%) 4. 전혀 추천하지 않는다(0%)
11.	이 강의의 전체적인 수업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 전개 되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76.9%) 2. 조금 그렇다(23.1%) 3. 별로 그렇지 않았다(0%) 4. 전혀 그렇지 않았다(0%)

○ 정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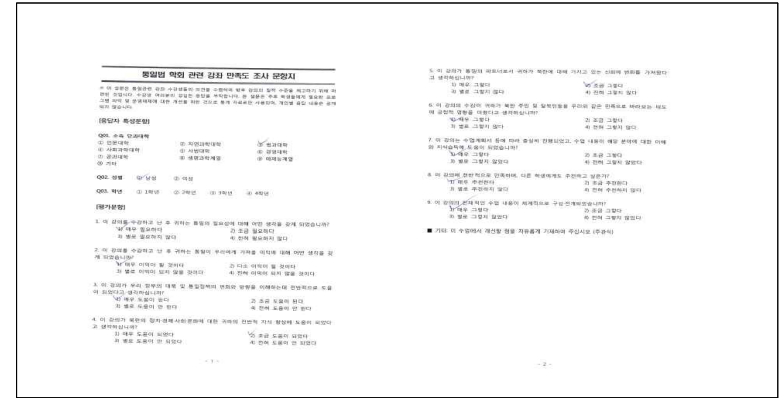
- 이론학습의 측면에서는 강의교재와 참고자료를 통하여 충분히 습득가능하였다는 평가.
- 강의 및 토론시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음.
- 북한법의 이론체계와 특징에 대하여 강의중심으로 진행함.

⑤ 관련 자료

○ 강의사진



○ 설문지 샘플



○ 강의안 샘플

<p>남북한 노동 관련 법률의 비교</p> <p>사용계약서 명목내역 직제명령 통령지</p>	<p>나. 북한 제각권별의 특징*</p> <p>1) 우리나라 제각권법에 비하여, 포괄적 2) 사유재산권 인정 - 제각권자의 재산의 권리 인정(제128, 제158) - 재산의 동전의 양분·양속 인정(제233) - 개인 영구권에 대한 제각권 인정(제163)</p> <p>3) 국가의 통제 강화 - 제각권자의 사유물자와 방법을 국가가 정함(제33) - 제각권 상황에 대한 국가의 지도와 통제 강화 규정(제413) - 공적권 제각권자의 취업료(제633)·종신권의 징계 목표와 맞지 않는 제각권을 제각권명령 보호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남한의 제각권은 이 규정제 외의 제각권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제각권자의 재산의 권리를 다른 나라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 해당국가의 승인 필요(제233)·불한 조약을 양수시 승인부족 확인 필요. - 제각권자에게 대한 사유재산권 제정(제233)</p> <p>4)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교육·문화 교류 보장 -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문화 교류 보장 -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이 취업료 보호(제158)</p> <p>5) 제각권법을 위반하여 제각권자에게 양도한 권리를 지닌 자에 대하여 징계처치, 형질정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는 개별적인 규정(제473)을 두고 있고, 북한 헌법에서는 일반 제각권 침탈의 징벌로서 제각권자의 경우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을 부과하고 있다(헌법 제100조, 제101조).</p>
<p>1. 서론..... 1</p> <p>2.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법률..... 2</p> <p>가. 헌법, 민법상 노동 관련 규정..... 3</p> <p>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p> <p>다. 기타 법률..... 4</p> <p>3. 북한의 노동 관련 법률..... 5</p> <p>가. 헌법 및 노동 관련 규정..... 5</p> <p>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5</p> <p>다. 기타 법률..... 6</p> <p>4. 남북한 노동 관련 법률 비교..... 7</p> <p>가.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법률의 체계..... 8</p> <p>나. 북한의 노동 관련 법률의 체계..... 8</p> <p>다. 남북한 노동 관련 법률의 차이..... 11</p> <p>5. 결론..... 12</p>	

[5] 통일법 학회 세미나 (이효원 법대 교수)

① 사업 목적

- 장차 법조인이 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북한 법체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입헌주의체제를 심도 있게 이해하도록 함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통일실무자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전체적인 강의진행은 헌법에 대한 내용이나, 북한법 및 통일법을 병행하여 강의 실시(비중 : 헌법 80%, 북한법 및 통일법 : 20%)

② 강좌 개요

- 기간 : 1, 2학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17:00 ~ 19:00)
-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305호
- 방식 : 이론강의 및 질의응답

③ 강좌 내용

- 주차별 강좌내용

주차(일자)	강의 주제	강사 명	강사 소속
03.30.(토)	헌법 제정과 개정의 구별기준	정구진	서울대학교 박사
05.25.(토)	헌법상 평화주의 실현을 위한 법률	유성욱	법무부 공익법무관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규범적 의미와 통일헌법에의 시사점	이재희	서울 북부지검 검사
06.29.(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의 심사기준	유성욱	법무부 공익법무관
08.31.(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범적 의미	강승우	성균관대 법전원
	기본권 충돌과 경합의 헌법재판에서의 규범적 의미	박종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09.28.(토)	행복추구권의 실천적 특징	서경준	육군사관학교 강사
10.26.(토)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위헌심사기준	정구진	서울대학교 박사
11.30.(토)	사회적 기본권의 실천적 특징	손원우	해군 법무관
12.21.(토)	통일국가 준비를 위한 헌법개정의 내용	이동건	법무법인 아주 변호사

- 전체 수강생 명단

번호	성명	소속	구분
1	이윤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2	김충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3	신유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4	강민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5	정구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6	김우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7	이은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8	이혜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9	박기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10	김남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11	김정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12	김태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13	서혜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14	이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15	이상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16	방지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17	임성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18	주민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19	김은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20	박유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21	홍영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22	황신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23	이동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④ 사업 성과

- 통일관련 헌법적인 쟁점 및 북한체제 비교과정으로 우리 헌법현실과 북한의 법현실을 고찰, 객관적이고 올바른 헌법관을 이해하는 바탕이 됨.
- 헌법에 대한 이해는 곧 북한을 바라보는 올바른 가치관과 원칙을 형성, 통일관련 교육은 향후 통일실무자로 진로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정량 평가

번호	문항	답변(비율)
1.	성별	1. 남성(69.2%) 2. 여성(30.8%)
2.	학년	1. 1학년(22.2%) 2. 2학년(0%) 3. 3학년(44.4%) 4. 4학년(33.3%)
3.	이 강의를 수강하고 난 후 귀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1. 매우 필요하다(76.9%) 2. 조금 필요하다(15.4%) 3. 별로 필요하지 않다(7.7%) 4. 전혀 필요하지 않다(0%)
4.	이 강의를 수강하고 난 후 귀하는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올 이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61.5%)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30.8%)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7.7%)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0%)
5.	이 강의가 우리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의 변화와 방향을 이해하는 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이 된다(76.9%) 2. 조금 도움이 된다(15.4%)

		3. 별로 도움이 안된다(7.7%) 4. 전혀 도움이 안된다(0%)
6.	이 강의가 복한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귀하의 전반적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이 되었다(53.8%) 2. 조금 도움이 되었다(46.2%) 3. 별로 도움이 안되었다(0%) 4.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0%)
7.	이 강의가 귀하가 복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30.8%) 2. 조금 그렇다(30.8%) 3. 별로 그렇지 않다(23.1%) 4. 전혀 그렇지 않다(7.7%)
8.	이 강의의 수강이 귀하가 북한주민 및 탈북민들을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바라보는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53.8%) 2. 조금 그렇다(23.1%) 3. 별로 그렇지 않다(15.4%) 4. 전혀 그렇지 않다(7.7%)
9.	이 강의의 수업계획서 등에 따라 충실히 진행되었고 수업 내용이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84.6%) 2. 조금 그렇다(15.4%) 3. 별로 그렇지 않다(0%) 4. 전혀 그렇지 않다(0%)
10.	이 강의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다른 학생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까?	1. 매우 추천한다(84.6%) 2. 조금 추천한다(15.4%) 3.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0%) 4. 전혀 추천하지 않는다(0%)
11.	이 강의의 전체적인 수업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 전개되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69.2%) 2. 조금 그렇다(30.8%) 3. 별로 그렇지 않았다(0%) 4. 전혀 그렇지 않았다(0%)

○ 정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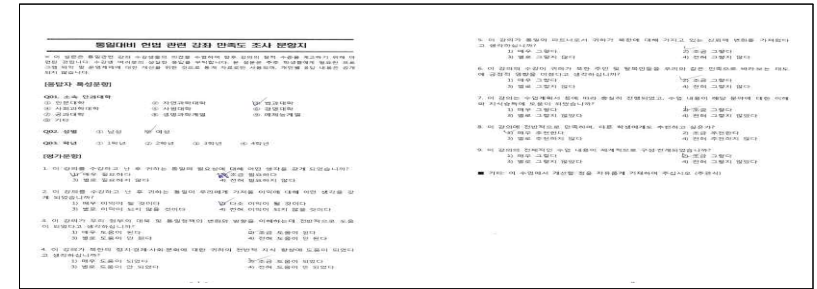
- 통일 실무가를 초빙하여, 법이론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음.
- 통일에 대한 헌법적인 검토를 통하여 심도있는 강의를 진행함.
- 특히, 통일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 이슈들을 주제별로 세분화 함.

⑤ 관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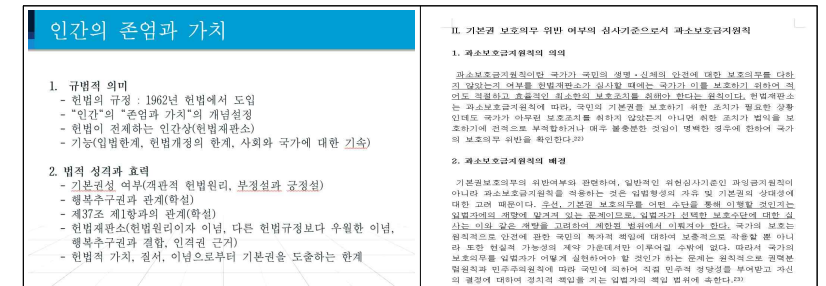
○ 강의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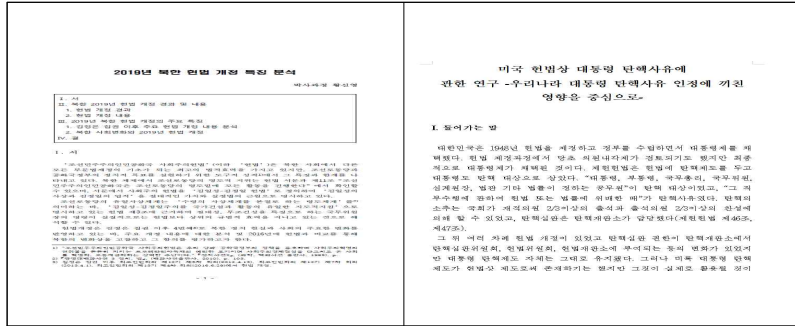
○ 설문지 샘플



○ 강의자료 샘플



○ 워크샵 자료 샘플



[6]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 리더 양성 (이현수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① 사업 목적

- 북한개방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국토인프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현안 공유를 통해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프로그램 기획 중요성 인식 제고
- 국가경쟁력 향상 수단으로서의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으로 인식 전환

② 강좌 개요

- 개좌학기 및 소속 학과(단위): 각 학기별 1회 (6월, 12월 실시), 전공무관
- 평가 방식: 본 사업에서 개최한 특별강좌의 참석자들로부터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기반으로 강좌 주제 및 강좌 진행방식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수행함
- 수업 목표
 - 학문적 이론에 앞서 경험 사례 강의를 통해 기초 지식 습득
 - 북한지역 국토인프라 실태에 대한 연구 성과 및 전문기관의 연구 성과 공유

③ 강좌 내용

○ 주차별 강좌내용

주차(일자)	강의 주제	강사 명	강사 소속
1회 (19.06.10)	통일한반도 구상과 유라시아	정 창 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의 선결과제	신 승 우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2회 (19.12.04)	스마트홈의 현재와 미래	공 성 호	SK Telecom(주)
	Work Place Innovation	김 채 완	WeWork
	고속도로 휴게소 공간 활용	조 성 민	한국도로공사
	남북한 휴게소 공간 활용 전략	신 승 우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 주차별 세부내용

주차	세부내용
1회 (19.06.10)	강사: 정창무 교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주제: 통일한반도 구상과 유라시아 한반도와 주변국가와의 이해관계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강의함. 현재

	<p>세계는 미중패권경쟁 맥락 속에 있고, 북한과 관련한 교역로와 에너지원은 세계패권과 뿔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국제관계학 역학을 배제하고 우리나라 마음대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음을 강조함. 미중 패권경쟁이 동북아시아 말고도 한반도 인프라 구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당부하고 통일한반도를 생각할 때 한반도 내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외부로 나아갈 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무엇에 투자 할지에 대한 접근이 중요함을 제시함.</p> <p>강사: 신승우 박사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주제: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의 선결과제</p> <p>통일 인프라 구축기반 사업에 참여하면서 도출한 인프라 섹터별 접근의 한계와 북한인프라 실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알리며 국가인프라 마스터플랜이 부재한 현실을 강조함. 통일 이후 예상되는 국가 인프라 문제를 밝히고 인프라 구축의 양·질적 목표수준과 구축 우선순위 등 통일비용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시하고, 한반도 국가인프라 구축의 우선순위와 투자 효율적인 관점에서 통일한반도 국가인프라 구축 전략 구상안을 공유함. 또한 나아가 통일한반도 국가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산·학·연·관 주체별 역할 분담에 대해 제안함.</p>
	<p>강사: 공성호 부장 (SK Telecom(주)) 주제: 스마트홈의 현재와 미래</p> <p>통일한반도 국토공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의 적용과 프로세스 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스마트 오피스 시스템과 물리적 공간을 접목한 사례를 소개하며 IOT, AI, Big Data가 지원하는 통일한반도인프라 서비스의 확장 가능성을 강의함. 현재 스마트홈/오피스 시스템을 공유오피스에 적용하여 도로휴게소 지점에 테스트 베드를 시행할 경우와 같은 신상품 창출에 대한 시도를 독려함. 이와 같은 시도를 통일한반도 인프라 구축에 적용할 경우 북한지역 인프라 구축 등 개발사업에 요구되는 모빌리티 장비와 SW의 공유 방식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강조함.</p> <p>강사: 김재환 이사 (WeWork) 주제: Work Place Innovation</p> <p>통일한반도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시 민간과 공공의 협업을 위한 물리적 공간과 프로그램 연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을 제시함. 특히 북한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개발사업에서 요구되는 임시 건설기지에 공유오피스 방식이 도입될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글로벌 공유 오피스 비즈니스 현황과 도시 공간 개발 사례를 공유함. WeWork의 비즈니스 모델과 같이 모빌리티 장비와 소프트웨어 기능을 공유하는 방식이 북한지역의 인프라 구축사업과 같은 대규모·다국적 사업에서 사업 참여자들의 협업을 지원하고 민간자본활용을 유인할 수 있는 통일한반도 인프라 구축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함.</p> <p>강사: 조성민 박사 (한국도로공사) 주제: 고속도로 휴게소 공간 활용</p> <p>한반도 신경제지도에 기반한 접경지역 평화벨트와 국토공간 이용 계획을 소개하며 북한지역 개발과 교통인프라의 연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지식을 향상 시키고자 국내외 선진 사례를 공유함. 통일한반도 국토활용성 제고와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서 도로기능의 혁신 방향, 지역개발과 물류교통체계의 연계 등 북한지역 고속도로 활용 구상의 중요성을 강조함. 고속도로 휴게소에 의료보건, 교육훈련, 공공행정 기능과 긴급 재난시 그리고 대규모 인구 이동시 대응 및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의 탑재 등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함.</p>

<p>강사: 신승우 박사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주제: 남북한 휴게소 공간 활용 전략</p> <p>대북제재 해제이전이나 통일 전후 북한지역에도 기존 기반시설(도로, 휴게소)에 모빌리티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민관협력 도로거점 공유공간 활용 플랫폼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한반도 인프라 구축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함. WeWork의 공유오피스, SK Telecom의 모빌리티 장비와 스마트시스템, 도로휴게소 공간을 융합 또는 연합 시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과 역할분담을 강조함. 스마트 오피스 개념을 적용한 도로거점 공간공유 활용 플랫폼은 건설비즈니스 핵심기술인 프로세스설계 기술이며, 이에 대한 역량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이 한반도인프라구축 리더로서 향후 북한지역을 글로벌 시장으로 보고 접근하도록 신사업, 신상품 구상안을 공유함.</p>

○ 전체 수강생 명단

- 1차 : 세계 속의 통일한반도 (총 51명)

번호	성명	학년(직급)	소속	번호	성명	학년(직급)	소속
1	이현수	소장	건설환경종합연구소	27	권영준	석사과정	건설환경공학부
2	이복남	산학협력 중점교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28	남궁은	책임연구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3	정창무	교수	건설환경공학부	29	이수빈	학부생	경영학과
4	Tsolmon	박사과정	환경대학원	30	권영상	교수	건설환경공학부
5	강다혜	학부생	송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1	전웅주	석사과정	건설환경공학부
6	김세진	연구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32	이상호	박사과정	건설환경공학부
7	김정호	박사과정	건설환경공학부	33	김경민	박사과정	건설환경공학부
8	김진우	연구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34	안진호	박사과정	건설환경공학부
9	김태용	박사과정	건설환경공학부	35	이종재	석사과정	건설환경공학부
10	김형선	석사과정	체육교육과	36	김충현	연구원	건설환경공학부
11	변지은	석박사 통합과정	건설환경공학부	37	안준용	박사과정	건설환경공학부
12	석준기	석사과정	건설환경공학부	38	임예슬	박사과정	건설환경공학부
13	송용준	박사과정	건축학과	39	이호현	박사과정	건설환경공학부
14	송준호	교수	건설환경공학부	40	임현홍	석사과정	건설환경공학부
15	신형엽	박사과정	건축학과	41	유철환	박사과정	교량설계핵심기술연 구단
16	유승민	박사과정	건설환경공학부	42	정웅희	연구원	교량설계핵심기술연 구단
17	유재심	연구원	환경계획연구소	43	유승민	대리	교량설계핵심기술연 구단
18	이동규	대학원생	건설환경공학부	44	박세미	사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19	이소연	대학원생	윤리교육과	45	정영은	대리	교량및구조공학회
20	이승후	석사과정	건축학과	46	유용재	박사과정	건설환경공학부
21	임성현	석사과정	건설환경공학부	47	진상희	사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22	장석길	박사과정	환경대학원	48	안광선	행정실장	건설환경종합연구소
23	정길수	석사과정	건축학과	49	이초령	사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24	정상선	석박사 통합과정	건축학과	50	이슬기	선임연구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25	정수진	-	수의과대학	51	신승우	선임연구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26	최봄이	박사과정	건설환경공학부				

- 2차 : 상상의 날개 달기: 스마트 공간 공유 신사업 모델 (총 53명)

번호	성명	학년(직급)	소속	번호	성명	학년(직급)	소속
1	이현수	소장	건설환경종합연구소	30	이기택	대학원생	건설환경공학부
2	이복남	산학협력 중점교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31	이동혁	대학원생	건축학과
3	정창무	교수	건설환경공학부	32	이우강	대학원생	조경학과
4	공성호	부장	SK Telecom	33	이은경	대학원생	건설환경공학부
5	김채완	학부생	WeWork	34	임다혜	학부생	건설환경공학부
6	조성민	실장	한국도로공사	35	전명호	학부생	건설환경공학부
7	장성욱	과장	SK Telecom	36	전형운	학부생	건설환경공학부
8	고영현	대학원생	고고미술사학과	37	정길수	석사과정	건축학과
9	권현아	학부생	건설환경공학부	38	정상선	석사과정	건축학과
10	김대환	학부생	건설환경공학부	39	조성민	석사과정	고고미술사학과
11	김민주	학부생	컴퓨터공학부	40	황정빈	학부생	건설환경공학부
12	김성현	연구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41	김영민	학부생	전기정보공학부
13	김세진	연구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42	백석현	학부생	건설환경공학부
14	김소연	대학원생	인문대학	43	이현무	대학원생	환경대학원
15	김영섭	석사과정	건축학과	44	전용주	대학원생	건설환경공학부
16	김정훈	석사과정	건설환경공학부	45	박진영	대학원생	건축학과
17	김진우	연구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46	이수진	박사과정	환경대학원
18	김채현	석사과정	환경대학원	47	진시	박사과정	건축학과
19	김홍주	학부생	바이오소재공학	48	이상민	학부생	건축학과
20	김혜수	대학원생	환경대학원	49	김민호	석사과정	건설환경공학부
21	문성현	박사과정	건설환경공학부	50	이현승	석사과정	건설환경공학부
22	박목인	대학원생	건축학과	51	안혁준	석사과정	건설환경공학부
23	박수현	대학원생	건축학과	52	이자혜	기획실장	건설환경종합연구소
24	박재현	연구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53	안광선	행정실장	건설환경종합연구소
25	박찬혁	학부생	건설환경공학부	54	박세미	사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26	석의찬	학부생	건설환경공학부	55	배혜인	사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27	송영우	연구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56	이슬기	책임연구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28	웨이	대학원생	건축학과	57	신승우	선임연구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29	유혜정	학부생	건설환경공학부				

④ 사업 성과

□ 1차 강좌의 운영성과

○ 한반도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고취

-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의 일환으로 학내 건설관련 전공학생들을 타겟으로 한반도 차원의 국가마스터플랜과 인프라 구축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을 고취시키고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건물에서 <세계 속의 통일한반도>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특별강좌를 개최함.

-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가치를 인지하고, 국제정세와 연계하여 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관심을 유도하였음.

○ 다양한 전공분야 및 연구자들의 참여 확대

- 특별강좌의 주요 대상이 건설관련 전공 학부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참여 신청을 한 참가자들의 소속과 전공분야가 다양하며 대학원생들의 사전참여가 높았음.
- 특히 본 강좌에 대한 참가자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본 강좌로 인해 통일한반도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관련강좌의 필요성과 추천의향이 강했으며, 강좌운영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음.

□ 2차 강좌의 운영성과

○ 한반도 인프라 구축 리더의 요구역량에 대한 인식제고 및 진로탐색 유도

- 통일한반도 국토활용성 제고와 효율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마트 공간공유 개념 소개와 통일 전후 북한지역 적용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서 통일한반도 인프라 구축 리더로서 학생들이 역량 강화 분야에 대한 시야를 넓힘.
- 한반도 도로거점 공간공유 활용전략과 같은 신사업모델을 구상하는 프로세스 설계가 건설비즈니스의 핵심기술분야임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각기 다른 전공분야, 산업이 융합하고 협업하여 통일이대를 준비하고 한반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범산업적 진로탐색을 유도함.

○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 및 후속 강좌에 대한 기대 고취

- 1차 강좌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2차 강좌에 사전신청률이 높았으며, 강좌의 주요 대상이 건설관련 전공 학부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참여 신청을 한 참가자들의 소속과 전공분야가 다양하고 대학원생들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 특히 본 강좌에 대한 참가자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본 강좌로 인해 통일의 효익과 파트너로서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되는 계기가 되었고, 관련강좌의 시리즈 확대의 필요성과 추천의향이 강했으며, 강좌내용과 구성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음.

□ 정량 평가

○ 1차 강좌에 대한 정량평가

- 문제 인식 및 지식 향상: 응답자 전체가 본 강의가 통일·평화·북한 문제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응답자의 42%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함.
- 인식의 변화: 응답자의 73%가 본 강좌를 듣고 통일·평화·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으며, 특히 응답자의 27%는 인식의 변화정도가 컸다고 답함.
- 본 강의의 필요성: 응답자의 96%가 본 강의가 대학교육에 필요하다고 평가함.
- 본 강의에 대한 추천 의향 : 응답자의 88%가 본 강의를 주변 지인에게 추천할 용의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특히 응답자의 23%는 적극적으로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함.
- 본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전체 응답자가 본 강의에 대해 만족하였다고 답하였으며, 특히 응답자의 38%는 본 강의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다고 평가함.

○ 2차 강좌에 대한 정량평가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향상: 응답자의 91%가 본 강의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응답자의 27%는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함.
- 통일 효익에 대한 인식의 제고 : 응답자의 88%가 본 강좌를 듣고 통일효익에 대한 인식의 제고되었으며, 응답자의 24%는 통일이 우리에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함.
- 인식의 변화 정도 : 응답자의 57%가 본 강좌를 듣고 통일파트너로서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도가 변화되었으며, 특히 응답자의 12%는 통일이 인식의 변화정도가 매우 컸다고 답함.
- 이해도 제고 및 지식습득 향상 : 응답자의 97%가 본 강좌를 듣고 한반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응답자의 52%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답함.
- 본 강의에 대한 추천 의향과 전반적인 만족도 : 응답자의 97%가 본 강의를 주변 지인에게 추천할 용의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응답자의 45%는 적극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함.
- 강좌 구성의 체계성: 응답자의 97%가 본 강의의 수업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전개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응답자의 39%는 본 강의 구성이 매우 체계적이었다고 평가함.

□ 정성 평가

○ 1차 강좌에 대한 정성평가

-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신 교수님들이 초청되었다고 생각함.
- 학교수업, 논문, 뉴스 등 기존의 정보수집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시각과 관점을 접할 수 있었음.
- 북한만이 아니라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세계적인 정세와 정치적, 외교적 맥락 하에 바라보아야한다는 인식의 확대가 좋았음.
- 대북 인프라시설 구축의 시선으로 통일문제를 고민해본 새로운 경험이었음.
- 북한의 건설역량과 과거 개발역사, 그리고 이에 따른 통일한반도 구축을 위한 과제와 한계점에 대해 대략적인 개념을 잡을 수 있었음.
- 한반도에 대한 대외환경에 대해들을 수 있는 기회였음.

○ 2차 강좌에 대한 정성평가

- 통일과 연관성이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한반도 차원의 인프라 구축과 북한 지역의 인프라 구축시 고려해야하는 사항, 추진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유익한 기회였음.
- 학교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에 대해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 장기적으로 보면 통일이 우리에게 매우 이익일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음.
- 강의내용과 구성이 흥미롭고 다음 기회에도 참여하겠음.

⑤ 관련 자료

○ 강연 포스터(1·2차)



<1차 강좌 포스터>



<2차 강좌 포스터>

- 2차 강좌

[제 11회 관리자포럼]
상상의 날개 달기
- 스마트 공간 공유 신사업 모델 -

- 일시 : 2019년 12월 04일(수) 12:30-14:30
- 장소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5동 223호
- 주관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프로그램

1. 일시 : 2019년 12월 04일(수) 12:30-14:30
2. 장소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5동 223호
3. 주관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4. 일정:

구분	시간	활동
등록 및 접수	12:30~13:00	• 등록
개회	13:00~13:05	• 개회사 : 이현수 소장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13:05~13:25	• 스마트공공의 현황과 미래 공성호 부장 (SK Telecom)
	13:25~13:45	• Work Place Innovation 김재현 이사 (WeWork)
	13:45~14:05	• 고학도로 휴게소 공간 활용 조성민 실장 (한국도로공사)
질의응답	14:05~14:20	• 남북한 휴게소 공간 활용 전략 신승우 박사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14:20~14:30	• 질의응답

* 본 세미나는 서울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이 지원하는 '2019 통일교과연도대학사업'이 지원함.

○ 강연 자료 샘플(1·2차)

- 1차 강좌

세계속의 통일반도

- 일시 : 2019년 06월 10일(월) 12:00-14:00
- 장소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35동 223호
- 주관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프로그램

1. 일시 : 2019년 06월 10일(월) 12:00-14:00
2. 장소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35동 223호
3. 주관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4. 일정:

구분	시간	활동
등록 및 접수	12:00~12:30	• 등록
개회	12:30~12:35	• 개회사 : 이현수 소장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12:35~13:25	• 통일반도 구상과 유러시아 공성호 교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13:25~13:50	• 통일반도 북극항로 구축의 선결과제 신승우 박사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질의응답	13:50~14:00	• 질의응답

* 본 세미나는 서울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이 지원하는 '2019 통일교과연도대학사업'이 지원함.

○ 강좌 사진(1·2차)

- 1차 강좌



[7] 한반도 응급의료협력의 현재와 미래 (신상도 의과대 교수)

○ 주차별 세부내용

① 사업 목적

- 북한에는 현재 효과적인 응급의료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한반도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응급의료지원 및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통합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통일 응급의료에 관심이 있는 보건의료인·응급의료종사자·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통일 응급의료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함.

② 강좌 개요

- 개최학기 및 소속 학과(단위): 2019년도 1-2학기 / 의과대학
- 평가 방식: 강의 후 설문지 작성

③ 강좌 내용

○ 주차별 강좌내용

주차(일자)	강의 주제	강사 명	강사 소속
제1차 05월 08일	한반도 응급의료 체계 구축 전략	이경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제2차 05월 29일	한반도 응급의료 체계 선행 연구	김대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제3차 06월 26일	남북 응급의료체계 비교	박관진	충북대학교병원
제4차 07월 10일	한반도 재난의료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정 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제5차 07월 31일	한반도 재난 발생의 역학	노영선	서울대학교병원
제6차 08월 21일	북한 응급의료인력 현황과 특성	선경민/ 정 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제7차 09월 18일	한반도 응급의료 전문인력 양성방안	김솔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제8차 10월 02일	남북교류 사업에서 응급의료지원	홍원표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제9차 11월 06일	한반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홍기정	서울대학교병원
제10차 12월 04일	한반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아젠다	정 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주차	세부내용
제1차 05월 08일 한반도 응급의료 체계 구축 전략 (이경원)	북한은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있으며, 응급의료체계는 논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됨.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응급의료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매우 부족하였음. 응급의료 측면에서의 통일을 준비 단계(남북 교류 시 응급의료 문제), 시작 단계(가상의 베를린 장벽 붕괴와 같은 시기), 과정 단계(북한 개발 시기), 완료 단계(현재의 통일 독일과 같은 시기)의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음. 한반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한응급의학회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 단체의 관심, 노력, 창의성이 필요함. 남한의 응급의료체계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북측의 보건 행정 관료들과 의료인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하여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함. 한민족 누구나, 한반도 어디에서나 양질의 응급의료로 통해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임.
제2차 05월 29일 한반도 응급의료 체계 선행연구 (김대곤)	북한은 현재 국제적 제재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협력이 어려운 상태임. 한반도 응급의료체계 또는 응급의학 관련된 선행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음. 북한과의 응급의료협력을 위한 연구를 위하여 북한의 보건 의료체계(의료진, 보건의료인력, 의료법규), 소방체계,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고찰하였음. 북한에는 구급소, 구급차가 있으나 응급의료체계를 논의하기에는 인프라가 극도로 부족한 상황으로 추정됨. 한반도 응급의료협력은 추후 경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인력 교류가 이루어질 때 북측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의 인력을 대상으로 한 응급의료체계를 고민하면서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제3차 06월 26일 한반도 응급의료 협력의 현재와 미래 (박관진)	북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직접적 조사 연구가 불가능하며, 객관적인 자료 확보 역시 어려워 비슷한 보건의료체계를 경험하였다고 추정하는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응급의료체계를 고찰하였음. 이를 위하여 탈북 의사를 대상으로 한 focused group interview, 북한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독일 현지 방문 및 전문가 자문회의, 북한·중국·베트남·몽골의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문헌 고찰을 응급의료체계의 15가지 필수 구성 요소(인력, 훈련, 통신, 이송, 재난 대비 등)를 기준으로 고찰하였음. 북한은 구 사회주의식 중앙집권 형태의 보건의료체계를 갖추고 있고 심각한 경제난으로 사회간접자본 및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 상태이며, 의료진에게 상응하는 응급의료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짐작하나 기본적인 체계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함.
제4차 07월 10일 한반도 재난의료 협력체계 구축방안 (정주)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6년)에서 정의하는 해외재난은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한 재난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2017년)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을 정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도 아니고 명백한 해외도 아닌 북한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우리의 재난의료지원법적 근거가 부족함. 남북관련 기존 법률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18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14년)이 있으나 대북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구호 및 의료 내용이 부족함.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연구실에서는 <북한긴급구조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음. 조사 결과, 법률의 필요성 및 의료지원 등을 위한 긴급구호대 파견을 합의하였고, 대한민국 정부 주체로 민간 합동의 구조대, 국제협력단원, 의료지원팀을 구성하는 것을 합의하였음. 긴급구호의 주관부처 및 전담조직 운영 방법, 신분 보장 방식은 합의하지 못하였음.
제5차 07월 31일 한반도 재난역학	북한의 재난의료체계 및 재난 발생에 대한 역학적 고찰이 많지 않았으나, 남북한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에 대하여 비교하였음. 2007년 이후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해로 북한 전체 인구에 달하는 약 2,400만명이 재난의 영향을 받았고, 1,533명이 사망하였음(CRED).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중 재난 의료수요가

(노영선)	필요한 재난은 모두 풍수해였음. 하지만 풍수해로 인한 2차적 건강영향, 예를 들어 감염병, 등은 확인할 수 없었음. 남한은 2008년도 이후 10년간 재재해로 인하여 285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그 중 사망자는 143명이었음. 세월호 참사, 경주 리조트 붕괴, 가스누출 사고 등 인적재난에 의한 피해가 많았음. 이를 통하여 재난 대응능력에 따른 피해 규모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남북 공동의 재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음.
제6차 08월 21일 북한 응급의료 인력 현황과 특성 (신경민장주)	남한의 보건의료인력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북한에는 '보건일군'이 있음. 상등보건일군으로는 의사, 고려의사, 위생의사, 구강의사, 약제사가 있으며, 중등보건일군으로는 준의사, 준의, 조제사, 조산원, 보철사가 있고, 노동자(보조의료일군)으로는 간호사가 있음. 응급의료인력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북한의 의사는 급수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하급 의사가 남한의 응급구조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구급소(구급과) 자체는 의사들에게 큰 인기가 없으며, 체계적 훈련 및 교육 과정이 부족함.
제7차 09월 18일 한반도 응급의료 전문 인력 양성 방안 (김솔아)	북한의 보건의료인력(의사, 준의사, 준의, 간호사 등) 및 응급의료인력에 대하여 고찰함.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사가 병원 전 단계 환자의 진료 요청이 있을 시 왕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주로 경제수준이 높은 층에서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로 전담의사가 구급소에서 근무하지만 별도의 교육 및 훈련체계는 없음을 확인함.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를 위하여 의료진 역량평가 방법, 교과과정 개발 및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음.
제8차 10월 02일 남북교류 사업에서 응급의료 지원 (홍원표)	남북교류사업에 있어서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2005년 그린닥터를 시작으로,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등의 그간의 활동을 되짚어봄. 요청기관, 실행기관별로 분류될 수 있는 재난응급의료 지원기관별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해보는 계기와 남북교류 응급의료지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였음.
제9차 11월 06일 한반도 응급의료 체계구축 을 위한 국제협력 (홍기정)	통일시 북한 응급의료 발전방향과 국내외 교육 네트워크를 탐색해봄. 북한의 대학들과 MOU 체결한 국내외 대학들에는 울산과학기술대-평양과기대, 서울대-연변대-김일성대-베를린대-김일성대, 서울대-김일성대 등이 있었음. 북한과 교류중인 국제 Ngo에는 Eugene Bell Foundation, DoDaum, DPRK IFRC 가 있음. 한반도 응급의료체계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학계, NGO 등 다양한 북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협력 기관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국제협력기관의 운영특성에 따른 한반도 응급의료체계 파트너십 구축 전략 수립, 학술대회, 의료서비스 직접 지원, 의료관련 자원 지원 등 다양한 협력 방법론 개발을 향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겠음.
제10차 12월 04일 한반도 응급의료 체계구축을 위한 연구아젠다 (정주)	북한에 국내 인력들이 파견된다면(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같이) 응급의료지원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 볼 수 있겠음. 현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 수준, 어떤 경우에 남측으로 긴급하게 복귀해야 하는지, 긴급출격의 방법과 절차, 이동 중 제공받아야 하는 응급의료서비스는 어떠한지 세부적인 내용이 될 것임. 북한의 응급의료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현실임. 북한의 정보나 자료를 획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북한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음. 이를 위해 탈북 의사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계획할 수 있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료 활동을 하고 있는 타 기관과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응급의료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수 있음.

탈북 난민이 집단적으로 남한으로 내려오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휴전선 인근 지역, 수도권 지역의 탈북 난민 및 군·경찰에 대한 응급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응급의료 계획 및 관련 시나리오에 대한 훈련을 계획할 수 있음. 만약 탈북 난민촌 및 보호소가 운영된다면 이곳에서는 북한에서 유행률이 높은 감염병(결핵 등)에 대한 감염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임. 남북 보건의료 R&D에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응급의료 개발협력을 기획할 수 있음. 당장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인적 교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응급상황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장비,약품 등에 대한 개발 및 보급 방법을 연구할 수 있음.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국제보건의료 사업 경험에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을 배울 수 있음.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음. 자원이 매우 부족한 나라에서 응급의료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통일 또는 남북협력과정에서 보건의료 순위 중 응급의료는 어디쯤 인지? 응급의료 영역(외상, 재난, 비감염성 질환 중 일부)의 규모와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국제보건의료 사업에서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지는?
--

○ 전체 수업 수강생 명단

연번	차수(일시)	성명	소속
1	1차 강의 (5월 8일)	김대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		최명재	서울대학교병원
3		김솔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4		위대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5		신상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6		송경준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7		김미영	차음의원
8		정 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9		김종환	서울대학교병원
10		이경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前서울백병원)
11		김수희	서울대학교병원
12		최은미	서울대학교병원
13		김유진	서울대학교병원
14		정지희	서울대학교병원
15		이효주	서울대학교병원
16		이정경	서울대학교병원
17		김정은	서울대학교병원
18		여지운	서울대학교병원
19		유종희	서울대학교병원
20		안혜원	서울대학교병원
21		신지영	서울대학교병원
22		이덕균	서울대학교병원
23		강현정	서울대학교병원
24		하정민	서울대학교병원
25	2차 강의 (5월 29일)	이경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26		김솔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7		박정호	서울대학교병원
28		위대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29		김수희	서울대학교병원
30		이효주	서울대학교병원
31		최은미	서울대학교병원

32	3차 강의 (6월 26일)	김대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33		김종환	서울대학교병원
34		정 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35		정지희	서울대학교병원
36		홍원표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37		이덕균	서울대학교병원
38		김설린	서울대학교병원
39		강현정	서울대학교병원
40		이정경	서울대학교병원
41		강명신	서울대학교병원
42		김현미	서울대학교병원
43		김수희	서울대학교병원
44		김설린	서울대학교병원
45		이미지	동국대학교 약학과
46		김대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47		김솔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48		김민우	서울대학교병원
49		최은미	서울대학교병원
50		정지희	서울대학교병원
51		이효주	서울대학교병원
52		임효빈	서울대학교병원
53		이덕균	서울대학교병원
54		강명신	서울대학교병원
55		강현정	서울대학교병원
56		박관진	충북대학교병원
57		김솔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58		김대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59		위대한	원광대산본병원
60		김설린	서울대학교병원
61		이효주	서울대학교병원
62		정 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63		김수희	서울대학교병원
64		최은미	서울대학교병원
65		정지희	서울대학교병원
66		임효빈	서울대학교병원
67		강현정	서울대학교병원
68		강명신	서울대학교병원
69		이정경	서울대학교병원
70		여지윤	서울대학교병원
71		김정은	서울대학교병원
72		안혜원	서울대학교병원
73		이락현	가톨릭의과대학
74		이효주	서울대학교병원
75		박현주	서울대학교병원
76		김대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77		이미지	동국대학교약학대학
78		박정호	서울대학교병원
79		정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80		최은미	서울대학교병원
81		정지희	서울대학교병원
82		김수안	서울대학교병원
83		김설린	서울대학교병원
84		임효빈	서울대학교병원
85		강명신	서울대학교병원

86	6차 강의 (8월 21일)	정 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87		김수희	서울대학교병원	
88		김설린	서울대학교병원	
89		김솔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90		이락현	가톨릭대학교병원	
91		박정호	서울대학교병원	
92		김대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93		이미지	동국대학교병원	
94		위대한	원광대의과대학	
95		김종환	서울대학교병원	
96		이경원	인제대서울백병원	
97		김민우	서울대학교병원	
98		이승철	일산동국대병원	
99		김태한	서울대학교병원	
100		최은미	서울대학교병원	
101		정지희	서울대학교병원	
102		임효빈	서울대학교병원	
103		강명신	서울대학교병원	
104		김정은	서울대학교병원	
105		이정경	서울대학교병원	
106		여지윤	서울대학교병원	
107		안혜원	서울대학교병원	
108		강현정	서울대학교병원	
109		박현주	서울대학교병원	
110		박정호	서울대학교병원	
111		김민우	서울대학교병원	
112		김솔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13		정 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14		김대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15		김수희	서울대학교병원	
116		최은미	서울대학교병원	
117		김설린	서울대학교병원	
118		김서현	서울대학교병원	
119	정지희	서울대학교병원		
120	임효빈	서울대학교병원		
121	강명신	서울대학교병원		
122	이정경	서울대학교병원		
123	김정은	서울대학교병원		
124	강현정	서울대학교병원		
125	안혜원	서울대학교병원		
126	송경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127	홍원표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128	김기홍	서울대학교병원		
129	정 주	서울대학교병원		
130	김대곤	서울대학교병원		
131	이락현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132	김수희	서울대학교병원		
133	최은미	서울대학교병원		
134	정지희	서울대학교병원		
135	임효빈	서울대학교병원		
136	홍기정	서울대학교병원		
137	최은미	서울대학교병원		
138	김수희	서울대학교병원		
139	김솔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7차 강의 (9월 11일)			
	8차 강의 (10월 2일)			
		9차 강의 (11월 6일)		

140		위대한	원광대산본병원
141		이락현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142		정 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43		김태한	서울대학교병원
144		김서현	서울대학교병원
145		김설린	서울대학교병원
146		정지희	서울대학교병원
147		임효빈	서울대학교병원
148		박정호	서울대학교병원
149		홍원표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150		김중환	서울대학교병원
151		김대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52		김기홍	서울대학교병원
153		송경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154		이승철	동국대학교의과대학
155		김민우	서울대학교병원
156		안혜원	서울대학교병원
157		김수안	서울대학교병원
158		김규희	서울대학교병원
159		강현정	서울대학교병원
160		강명신	서울대학교병원
161		김정은	서울대학교병원
162		이정아	서울대학교병원
163		황현길	서울대학교병원
164		이정경	서울대학교병원
165		이태희	서울대학교병원
166		정유진	전남대학교병원
167	10차 강의 (12월 4일)	정 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68		김대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69		김기홍	서울대학교병원
170		이락현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171		김솔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72		김영수	중앙 119 구조본부
173		김수희	서울대학교병원
174		임효빈	서울대학교병원
175		박지원	서울대학교병원

인력들이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통일 응급의료에 관한 정기적·체계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음.

□ 정량 평가

- 만족도를 측정하지 않았던 1차와 2차를 제외하고 총 8회 강의에 총 50명(중복자 포함)의 설문이 회수됨.

[응답자 특성]		(%)			
1. 전공	의학(50.0)	간호학(18.0)	응급구조학(0.0)	기타(32.0)	
2. 성별	남성(50.0)	여성(50.0)			
3. 연령	20대(22.0)	30대(50.0)	40대(22.0)	50대(6.0)	
[평가문항]					
이 강의가 통일·평화·북한 문제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90.0)	조금 도움(10.0)	별로 도움되지 않음(0.0)	전혀 도움되지 않음(0.0)	
2. 이 강의를 통해 통일·평화·북한 문제에 대한 귀하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62.0)	그렇다(32.0)	그렇지 않다(6.0)	매우 그렇지 않다.(0.0)	
3. 이러한 강의가 대학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92.0)	조금 필요(8.0)	불필요함(0.0)	매우 불필요함(0.0)	
4. 이 강의를 주변 분들에게 추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적극추천의향 있음(82.0)	권유할 의향 있음(18.0)	별로 추천 안함(0.0)	잘 모르겠음(0.0)	
5. 강의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92.0)	조금 만족(8.0)	불만족(0.0)	매우 불만족(0.0)	
6.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정성평가에 기재				
7. 아쉬웠거나 차후 보강돼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성평가에 기재				

④ 사업 성과

- 강의 내용을 정리하여 한 권의 출판물로 제작하기 위하여 강의 파일을 정리 중임. 강의 후 강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2점이었음 (목표: 8점 이상).
- 통일 응급의료 현안 발굴 및 통일 응급의료 관련 인력 네트워크 구축이 본 사업의 주된 정성적 목표였으며, 현재 한반도 응급의료협력이라는 주제로 시행된 선행 연구나 고찰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현안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향후 이에 대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을 경험함.
- 국내에서 한반도 응급의료협력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는데 본 선도 대학 교육 과정이 큰 도움을 주고 있었음. 본 교육 과정을 통하여 통일 응급의료 관련

○ 문항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문항1) '이 강의가 통일·평화·북한 문제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매우 도움 90.0%, 조금 도움 10.0%의 순이었음.
- 문항2) '이 강의를 통해 통일·평화·북한 문제에 대한 귀하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그렇다. 62.0%, 매우 그렇다. 32.0%, 그렇지 않다. 6.0% 순이었음.
- 문항3) '이러한 강의가 대학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매우 필요 92.0%, 조금 필요 8.0% 순이었음.
- 문항4) '이 강의를 주변 분들에게 추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라는 물음에 적극 추천 의향 있음 82.0%, 권유할 의향 있음 18.0% 순이었음.

- 문항5) '강의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라는 물음에 매우 만족 92.0%, 조금 만족 8.0% 순이었음.

□ 정성 평가

○ 설문조사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강의 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았음.

- 의견1: "생소한 환경의 북한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 의견2: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북한 실정을 함께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비교함으로써 북한 모습이 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 좋았다."
- 의견3: "응급의료 외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의견4: "해의를 우선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이후 북한, 남한 순서대로 강의해 주어 각국의 비교가 확인하게 보여 저 빠른 이해가 되어 좋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좋았고, 하나하나 설명 해주어서 매우 흥미로운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도 있었고, 물론 현재는 통일의 불이 조금은 사그러든 감도 있지만 상황은 예측할 수 없으니 응급의료와 관련된 일을 하는 혹은 공부중인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⑤ 관련 자료


○ 사진



○ 설문지 샘플

<p style="text-align: center;">통일교육선도대학 강좌 만족도 조사 문항지</p> <p>※ 이 설문은 통일교육선도대학 강좌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강의 질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수강료 여하와는 상관없이 정당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은 중추 학생들에게 발송되는 프로세스를 따라 통 일정책학에 대한 개선을 위한 것으로 특히 자유로운 사용되며, 개인별 발표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p> <p>[응답자 특성문항]</p> <p>Q01. 전공 <input checked="" type="radio"/> 의학 <input type="radio"/> 간호학 <input type="radio"/> 응급구조학 <input type="radio"/> 기타</p> <p>Q02. 성별 <input type="radio"/> 남성 <input checked="" type="radio"/> 여성</p> <p>Q03. 연령 <input type="radio"/> 20대 <input type="radio"/> 30대 <input checked="" type="radio"/> 40대 <input type="radio"/> 50대 <input type="radio"/> 60대 이상</p> <p>[평가문항]</p> <p>1. 이 강의가 통일 정책 관련 문제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 <input checked="" type="radio"/> 조금 도움 2) 도움 주지 않음 <input type="radio"/> 전혀 도움 되지 않음</p> <p>2. 이 강의를 통해 통일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input checked="" type="radio"/>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input type="radio"/> 매우 그렇지 않다</p> <p>3. 이 과정을 수강한 후 통일교육에 참여하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 <input checked="" type="radio"/> 조금 필요 2) 불필요함 <input type="radio"/> 매우 불필요함</p> <p>4. 이 강의를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1) 적극 추천 의향 있음 <input checked="" type="radio"/> 추천할 의향 있음 2) 별로 추천 안함 <input type="radio"/> 잘 모르겠음</p> <p>5. 강의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input checked="" type="radio"/> 조금 만족</p>	<p>6.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항후 운영 개선에 도움이 될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80px; width: 100%;"></div> <p>7. 아쉬웠거나 차후 보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후 운영 개선에 도움이 될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80px; width: 100%;"></div>
---	---

○ 강의안 샘플

<p>북한; "Rogue nation", "Axis of Evi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8. 정권 수립 이후 1950.-1953. 전쟁. • 70여년째 3대 세습(Kim's Dynasty). • 핵 개발과 경제 제재 지속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교통, 통신, 전력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노후와 붕괴 상태 • 의료체제 붕괴 • 응급의료체제는 얘기할 수도 없는 상태 • 평양과 그 외 지역의 엄청난 격차 	<p>한반도 재난의료 협력체계 구축 방안</p> <p>안</p> <p>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연구소</p> <p>정 주</p> 
---	--

[8] 제19기 통일아카데미 (이찬수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① 사업 목적

- 올해로 19번째 진행된 통일아카데미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의 통일의식 및 지식 함양을 위해 진행되는 권위를 지닌 아카데미
- 정규 교과 과목에서 소화하기 힘든 가장 최근의 시의성 있는 통일 및 한반도 평화 관련 내용들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한 공개강좌를 통해 폭넓게 제시함으로써 현안의 통일평화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사고능력을 함양
- 다양한 전공 및 학교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의 참여를 통한 서울대학교 통일교육 모델의 보급 및 확산에 주력

② 강좌 개요

- 개최학기 및 소속 학과(단위): 2019년 1학기 통일평화연구원 비교과 자체 강좌
- 평가 방식: 강의 2회 이상 불참 시 수료가 불가 (15분 이상 지각 시 불참으로 인지)

③ 강좌 내용

○ 주차별 강좌내용

주차(일자)	강의 주제	강사 명	강사 소속
1주차 (2019.04.02.)	오리엔테이션 & 평화를 위한 통일론	이찬수	통일평화연구원
2주차 (2019.04.09.)	북한 시장화 어디까지 왔나?	강채연	통일평화연구원
3주차 (2019.04.16.)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결과로 본 북한정치	문인철	서울연구원
4주차 (2019.04.23.)	남북방송문화교류의 효과: 삼지연관현악단, 모란봉악단 공연을 중심으로	오기현	경주문화재단
5주차 (2019.04.30.)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과연 가능한가?	전재성	서울대학교
6주차 (2019.05.07.)	해외분단국 경험: 독일,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김학재	통일평화연구원
7주차 (2019.05.14.)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평화	김태균	서울대학교
8주차 (2019.05.21.)	수료식/ 북한의 변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임경훈	통일평화연구원

○ 주차별 세부내용

주차	세부내용
1주차 (2019.04.02.)	프로그램 소개 및 평화의 정의와 이에 기반을 둔 통일에 대한 논의
2주차 (2019.04.09.)	북한의 시장화 과정과 현재까지의 경과에 대한 강의
3주차 (2019.04.16.)	최근 개최된 제14기 최고인민위원회의 이후 북한 국내정치 변화 논의
4주차 (2019.04.23.)	남북 방송문화 교류의 역사와 현장에서의 경험 공유
5주차 (2019.04.30.)	북핵 관련 협상의 경과와 향후 평화체제 구성에 대한 논의
6주차 (2019.05.07.)	독일,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등 해외 분단국 사례 검토
7주차 (2019.05.14.)	국제연합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국제협력에 토대를 둔 북한 개발협력 가능성 논의

○ 전체 수업 수강생 명단

번호	성명	소속	전공	구분	번호	성명	소속	전공	구분
1	안배현	서울대학교	체육교육	졸업생	39	함형진	홍익대학교	자율전공	학부
2	정주원	서울대학교	서양사학	학부	40	강연주	서울대학교	도시설계	박사
3	박기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	학부	41	유민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	졸업생
4	량미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	박사	42	김종주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5	이민석	한양대학교	정치외교	학부	43	김서영	서울대학교	한국학	석사
6	이광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	학부	44	김수인	서울대학교	도시설계	석사
7	이다혜	성신여자대학교	사학/불문	학부	45	김지유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독과	석사
8	이영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	학부	46	서준원	서울대학교	조경학	박사
9	이으뜸	서강대학교	정치외교	석사	47	손효동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부
10	이희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	석사	48	신주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	석사
11	정선혜	북한대학교 대학원	북한학	석사	49	임초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	학부
12	김정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생	50	정재철	북한대학교 대학원	정치통일	석사
13	허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	학부	51	조문정	서울대학교	국제학	석사
14	김경	한림국제대학원	정치외교	석사	52	김나연	경희대학교	국제통상	학부
15	김승교	서울대학교	국사	학부	53	정원희	고려대학교	통일정책	졸업생
16	김진수	서울대학교	사회교육	석사	54	케일라 올타	서울대학교	한국학	석사
17	박지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독과	석사	55	박현규	서울대학교	교육심리	석사
18	유은혜	서울대학교	국제법	박사	56	김승진	서강대학교	경영학	박사
19	이윤하	서울대학교	국제학	석사	57	이병주	송실대학교	자유전공	학부
20	이재연	서울대학교	인문학	학부	58	유지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어	학부
21	김성준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부	59	이사	서울대학교	국제학	석사
22	정다운	서울대학교	체육교육	학부	60	김대환	서울대학교	도시설계	석사

23	김태진	한림대학교	빅데이터	학부	61	최정민	한양대학교	정치외교	학부
24	김동훈	서울대학교	의류학	학부	62	손주원	명지대학교	정치외교	학부
25	김준형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	학부	63	김희연	서울대학교	일반	석사
26	권여리	서울대학교	국제학	석사	64	박승희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27	이광무	서울대학교	전정공	박사	65	신원미	송실대학교	사회복지	학부
28	강유정	서울대학교	독어교육	학부	66	김수진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	학부
29	차지은	연세대학교	국제학	학부	67	윤찬솔	서울대학교	국사학	학부
30	박다한	고려대학교	국제학	학부	68	이민영	고려대학교	철학	졸업생
31	이학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란어	학부	69	카토 세이카	서울대학교	한국학	석사
32	박주성	서울대학교	국제법	박사	70	배한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	학부
33	최봄이	서울대학교	도시설계	박사	71	임진희	서울대학교	국제학	석사
34	윤소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	박사	72	김채린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
35	양경철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73	고석배	경기대학교	다문화교육	석사
36	전충용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74	김민지	서울대학교	철학,인류학	석사
37	조상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	학부	75	손민서	한양대학교	정치외교	학부
38	최태현	광운대학교	국제지역	학부	76	이서연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학부

○ 답사 프로그램

- 답사 참여 수강생 명단

번호	이름	소속	전공	구분
1	정재원	서울대학교	인문학	학부
2	고석배	경기대학교	다문화교육	석사
3	이광무	서울대학교	전정공	박사
4	김준형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	학부
5	허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	학부
6	김대환	서울대학교	도시설계	석사
7	정주원	서울대학교	서양사학	학부
8	김성준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부
9	배현지	일반		
10	최봄이	서울대학교	도시설계	박사
11	강연주	서울대학교	도시설계	박사
12	권여리	서울대학교	국제학	석사
13	이다혜	성신여자대학교	사학/불문	학부
14	케일라 올타	서울대학교	한국학	석사
15	김채린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
16	신주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	석사
17	김수인	서울대학교	도시설계	석사
18	유지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어	학부

□ 행사 일정표

시 간	방 문 지	내 용	비 고
<1일자> 5월 10일 (금)			
09:00	서울대학교	-DMZ관광 관계자 미팅 -서울대 경관 집결 및 인원파악	
09:00~11:30	이 들	서울대학교 → 승리전망대	
11:30~12:30	승리전망대	-국토 정중앙의 전망대 -가장 북한 관측이 잘 되는 곳 -경원선 철도, 광삼평야, 아침리 마을 등	육군보병제15사단
12:30~12:50	이 들	승리전망대 → 오성산 식당	
12:50~13:50	오성산 식당	-중식	맞춤식
13:50~14:00	이 들	오성산 식당 → 생창리 방문자센터	
14:00~16:30	D M Z 생태평화공원 용양보코스	-생창리 감화이야기 -용양보 생태답방로 답사 -DMZ 걸력선 직전선 -남방관계선 표지판 전입	
16:30~17:30	생창리 방문자센터	-DMZ 관련 독강	
17:30~17:50	이 들	생창리 방문자센터 → 철원편선	
17:50~	철원편선	-석식 -방배정 및 자유시간	맞춤식
<2일자> 5월 11일 (토)			
07:30~08:30	철원편선	-조식 및 휴식	맞춤식
08:30~09:00	이 들	철원편선 → 고석정	
09:00~09:30	고 석 정	민중선 출입 수속	
09:30~10:00	이 들	고석정 → 제2땅굴	
10:00~13:00	철원평화 안보탐방	-제2땅굴 -평화전망대 -철원리역 -노동당사	
13:00~14:00	황금밥상	중식	
14:00~16:20	이 들	철원 → 서울대학교	
16:20	서울대학교	도착 및 해산	

*상기 일정은 군부대 및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사업 성과

- 전문가 초청을 통해 통일이론 및 현장경험을 전달함
- 수강생들 간의 토론과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함
- 강의 참가자 76명 중 56명의 수료자 및 18명의 현장답사인원 배출

□ 정량 평가

번호	문 항	답 변(비율)
1.	성별	1. 남성(43.9%) 2. 여성(56.1%)
2.	학년	1. 1학년(13.2%) 2. 2학년(5.3%) 3. 3학년(13.2%) 4. 4학년(15.8%) 5. 대학원생(52.6%)
3.	이번 강의가 통일·평화·북한 문제 인식 및 지식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56.1%) 2. 조금 도움(41.5%) 3. 별도 도움되지 않음(2.4%) 4. 전혀 도움되지 않음(0%)
4.	이 강의를 통해 통일·평화·북한 문제에 대한 귀하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19.5%) 2. 그렇다(65.9%) 3. 그렇지 않다(14.6%) 4. 매우 그렇지 않다(0%)
5.	이러한 강의가 대학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85.4%) 2. 조금 필요(12.2%) 3. 불필요함(2.4%) 4. 매우 불필요함(0%)
6.	이 강의를 주변 분들에게 추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1. 적극 추천 의향 있음(56.1%) 2. 권유할 의향 있음(41.5%) 3. 별로 추천 안함(2.4%) 4. 잘 모르겠음(0%)
7.	강의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46.3%) 2. 조금 만족(51.2%) 3. 불만족(2.4%) 4. 매우 불만족(0%)

□ 정성 평가

- 이번 제19기 통일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남성과 여성,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 성별과 학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수강생들이 참여하였음.
- 대다수의 수강생들이 프로그램이 미친 지식향상, 인식의 변화, 교육의 필수 여부, 추천의향, 만족도 정도와 관련해 대다수가 도움이 되었으며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을 나타냈음.

⑤ 관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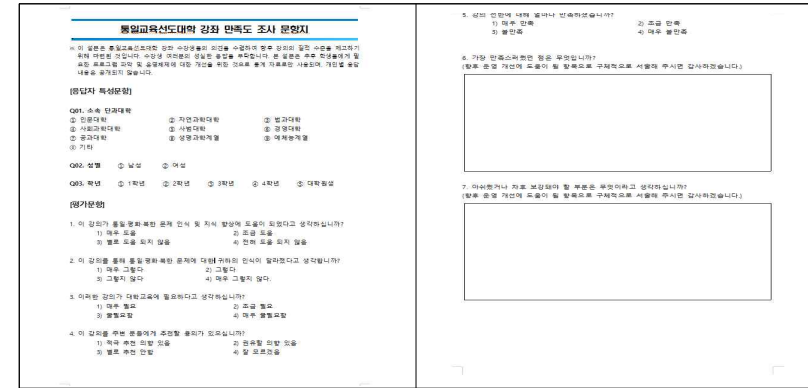
○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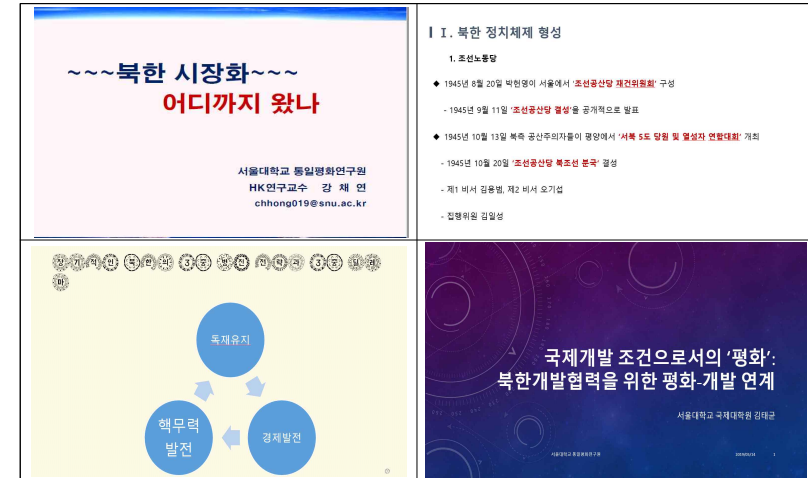
○ 강의 및 답사 사진



○ 설문지 샘플



○ 강의안 샘플



[9] 제7기 평화아카데미 (이찬수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① 사업 목적

- 올해로 7번째 진행된 평화아카데미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과 시민의 평화의식 및 지식 함양을 위해 진행되는 권위를 지닌 아카데미
- 정규 교과 과목에서 소화하기 힘든 가장 최근의 시의성 있는 평화 관련 내용들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한 공개강좌를 통해 폭넓게 제시함으로써 현안의 평화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사고능력을 함양
- 다양한 전공 및 학교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의 참여를 통한 서울대학교 평화교육 모델의 보급 및 확산에 주력
- 특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교육 모델을 타 국립대에 확산하기 위하여, 평화아카데미 모델을 전북대와 부산대에 보급함

② 강좌 개요

- 개최학기 및 소속 학과(단위): 2019년 2학기 통일평화연구원 비교과 자체 강좌
- 평가 방식: 강의 2회 이상 불참 시 수료가 불가 (15분 이상 지각 시 불참으로 인지)

③ 강좌 내용

○ 주차별 강좌내용

주차(일자)	강의 주제	강사 명	강사 소속
1주차 (2019.10.01.)	오리엔테이션 & 일본의 평화사상과 한반도	이찬수	통일평화연구원
2주차 (2019.10.08.)	도덕정치 가능성: 니버의 정치사상과 한반도의 평화	전재성	서울대학교
3주차 (2019.10.15.)	남북한 언어의 변화와 한반도의 평화	오현아	강원대학교
4주차 (2019.10.22.)	북한의 대외전력과 한반도 평화	안문석	전북대학교
5주차 (2019.10.29.)	북한 경제와 한반도 평화	김병연	서울대학교
6주차 (2019.11.05.)	북한의 평화 사상과 한반도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7주차 (2019.11.12.)	북·중 관계와 한반도 평화	김지운	충남대학교
8주차 (2019.11.19.)	수료식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임경훈	통일평화연구원

○ 주차별 세부내용

주차	세부내용
1주차 (2019.10.01.)	프로그램 소개 및 일본의 평화사상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 토론
2주차 (2019.10.08.)	니버의 정치철학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및 한반도 평화 논의
3주차 (2019.10.15.)	남북한 학자들의 해외학술대회 사례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 논의
4주차 (2019.10.22.)	평화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서로 다른 견해 설명
5주차 (2019.10.29.)	통계기법을 활용한 북한의 시장경제시스템의 현황 분석
6주차 (2019.11.05.)	북한에서 말하는 평화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에 관한 설명 및 논의
7주차 (2019.11.12.)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대한 논의

○ 전체 수업 수강생 명단

번호	성명	소속	전공	구분	번호	성명	소속	전공	구분
1	최안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33	유수영	서울대학교	간호학	박사
2	김성중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박사	34	이동민	서울대학교	불어교육	학부
3	유연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	학부	35	이보연	서울대학교	미술사학	학부
4	박명수	연세대학교	한국어교육	졸업	36	이수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	석사
5	김향숙	카톨릭교회	탈북자사역	수녀	37	추재훈	동국대학교	북한학	학부
6	유성남	카톨릭교회	탈북자사역	수녀	38	최태현	광운대학교	국제지역	학부
7	권은신	카톨릭교회	탈북자사역	수녀	39	함형진	홍익대학교	자율전공	학부
8	김승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학부	40	고페이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
9	권도윤	행정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41	이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10	김대훈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부	42	박하늘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	학부
11	김병덕	장로회신학대 학원	기독교문화	석사	43	배기찬	서울대학교	철학과	학부
12	김수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부	44	이승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학부
13	김진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45	이시규	카톨릭수녀회	탈북자사역	수녀
14	박관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	46	이희규	카톨릭수녀회	탈북자사역	수녀
15	송현이	서울대학교	한국음악	박사	47	진위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부
16	안상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부	48	왕사오위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	석사
17	최경숙	충암초등학교	전문상담	교사	49	조혜리	서울대학교	생명공학	학부
18	최정철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문화	석사	50	최준호	송실대학교	기독교통일	석박사
19	장두원	연세대학교	국어교육	학부	51	이선중	카톨릭수녀회	탈북자사역	수녀
20	고현빈	서울대학교	인문학	학부	52	김승진	서강대학교	인사조직	연구

									교수
21	김보현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부	53	김다원	서울대학교	영어교육	학부
22	김상훈	연세대학교	정치외교	학부	54	방우서	서울대학교	한국학	석사
23	김윤희	한국외국어 대학	정치외교	석사	55	이다혜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직장	일반인
24	김이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56	최순옥	카톨릭수녀회	탈북자지역	수녀
25	김종주	서울대학교	거시경제	박사	57	박채연	서울대학교	사회교육	학부
26	김종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58	최보이	옥길버들초 등학교	국어심리	교사
27	박은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59	이다민	한국외국어 대학교	국제학	학부
28	부시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부	60	이지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 원	석사
29	성경림	서울대학교	체육학	학부	61	고석배	경기대학교	다문화교 육	박사
30	손정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62	손희재	서울대학교	철학과	학부
31	송정운	서울대학교	자유전공	학부	63	박수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 원	석사
32	염승선	국방대학교	안보정책	박사	64	김나연	경희대학교	국제통상	학부

21:00~21:10	이 동	화천 생태영상센터 → 화천 펜션	
21:10~	화천 펜션	-자유시간 및 취침	
<2일차>			
07:00~08:00	화천 펜션	-기상	
08:00~09:00	펜션 내 식당	-조식 및 체크아웃	현지맞춤식
09:00~09:30	이 동	화천 식당 → 평화의담 -평화의담	
09:30~11:30	평화의담	-비목공원, 평화의담 물문화관 -세계평화의 종 공원 -평화의담 → 화천 식당	
11:30~12:00	이 동	-중식	
12:00~13:00	화천 식당	-중식	현지맞춤식
13:00~	이 동	화천 식당 → 각 학교	

- 답사 참여 수강생 명단

번호	이름	소속	전공	구분
1	방우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2	염승선	국방대학교	안보정책	박사
3	부시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4	고명자	카톨릭수녀회	탈북자지역	수녀
5	김병덕	장로회신학대학원	기독교와문화	석사
6	배기찬	서울대학교	철학	학부
7	김다원	서울대학교	영어교육	학부
8	권도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9	김보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학부
10	최안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11	송현이	서울대학교	한국음악	박사
12	유성남	카톨릭수녀회	탈북자지역	석사
13	이희규	성신여자대학교	사학/불문	수녀
14	이승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부
15	최경숙	옥길초등학교	전문상담	교사
16	박은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
17	성경림	서울대학교	체육교육	학부
18	손정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19	고페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박사
20	고현빈	서울대학교	서어서문	학부
21	최순옥	카톨릭수녀회	탈북자지역	수녀
22	최준호	숭실대학교	기독교통일학	박사
23	김승진	서강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교수
24	김향숙	카톨릭수녀회	탈북자지역	수녀
25	이선중	카톨릭수녀회	탈북자지역	수녀

○ 답사 프로그램

- 올해는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 중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교육 모델보급·확산을 위하여 전북대학교·부산대학교에 해당 모델을 보급하고, 세 기관의 아카데미 공동 답사를 실시함.
- 일정표

시 간	방 문 지	내 용	비 고
<1일차>			
06:30	전북대학교	-인원점검 및 출발	대형버스 1대
06:00	부산대학교		
~12:00	이 동	각 학교 → 양구 식당	
12:00~13:00	양구 식당	-중식(서울대 식당 합류)	현지맞춤식
13:00~13:10	이 동	양구 식당 → 양구 통일관	
13:10~16:10	양구 안보관광	-을지전망대	민통선 출입절차
		-편치볼 -제4땅굴	
16:10~17:50	이 동	제4땅굴 → 화천 식당	
17:50~18:50	화천 식당	-석식	현지맞춤식
18:50~19:00	이 동	화천 식당 → 화천 생태영상센터 -특강 및 토론	
19:00~21:00	화천 생태영상센터	한모니까(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접경지대: 비무장지대의 무장화, 다시 탈군사회”	

④ 사업 성과

- 전문가 초청을 통해 강의 수강자들에게 평화이론 및 현장경험을 전달함
- 수강생들 간의 토론과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함
- 강의 참가자 64명 중 44명의 수료자 및 25명의 현장답사인원 배출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아카데미 모델을 전북대 및 부산대에 성공적으로 보급함

□ 정량 평가

번호	문항	답변(비율)
1.	귀하는 평화아카데미 프로그램 전반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67.6%) 2. 다소 만족(27.0%) 3. 다소 불만족(5.4%) 4. 매우 불만족(0%)
2.	귀하는 평화아카데미가 처음 기대를 얼마나 충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충족(56.8%) 2. 다소 충족(35.1%) 3. 다소 불충족(5.4%) 4. 매우 불충족(2.7%)
3.	평화아카데미 강연 중 가장 유익했거나 흥미로웠던 강연(2개)은 무엇입니까?	1. 일본의 평화사상과 한반도 (이찬수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17.3%) 2. 니버의 정치사상과 한반도의 평화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3.3%) 3. 남북한 언어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 (오현아 강원대 언어교육학과 교수) (4.0%) 4. 북한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평화 (안문석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2.0%) 5. 북한 경제와 한반도 평화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18.7%) 6. 북한의 평화 사상과 한반도 (김병로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12.0%) 7. 북중 관계와 한반도 평화 (김지운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8.7%) 8. 수료식 (임경훈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장) (4.0%)
4.	귀하는 평화아카데미가 귀하의 평화 인식 및 지식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63.9%) 2. 다소 도움(33.3%) 3.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음(2.8%) 4.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음(0%)
5.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평화아카데미 강의 수준은 어떠했습니까?	1. 너무 쉬움(5.6%) 2. 다소 쉬움(25.0%) 3. 적당함(55.6%) 4. 다소 어려움(13.9%) 5. 너무 어려움(0%)
6.	귀하는 평화아카데미 수강을 주변 분들께 추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1. 적극 추천 의향 있음(64.9%) 2. 일단 권유는 해보겠음(35.1%) 3.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음(0%) 4. 잘 모르겠음(0%)

□ 정성 평가

- 제7기 평화아카데미 수강생들은 강의만족도, 기대충족도, 지식향상 정도와 관련해 대부분이 높은 만족도와 충족감을 표시했음.
- 강의수준은 수강생의 절반 이상이 적당한 수준의 난이도였다고 응답했음.
- 수강생 전체가 평화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추천하거나 권유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냄으로써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면을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었음.
- 강연 주제와 관련해서는 북한경제(경제 분야), 북중관계(정치·외교 분야)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가장 흥미로웠던 강연 주제로 선정했음. 이외 악화된 한일관계 이슈를 반영하여 일본의 평화사상과 관련해서도 높은 흥미를 보인 바 있음.

⑤ 관련 자료

○ 포스터



○ 강의 및 답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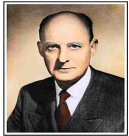




답사 사진

○ 설문지 샘플

<p>«제가 평화이카데미» 참가 설문조사 2019. 11. 19(화)</p> <p>안녕하세요. 제가 평화이카데미 소장으로 있습니다. 한 달간 평화이카데미 교육적인 활동을 위하여 제가 평화이카데미를 수강할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설문조사 후 결과 발표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받은 내용은 평화이카데미 운영 팀에 송부되는 통용되지 않습니다.</p> <p>[Q1] 귀하는 평화이카데미 프로그램 관련에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1. 매우 만족함 □ 2. 다소 만족함 □ 3. 조금 만족함 □ 4. 매우 불만족 □</p> <p>[Q2] 귀하는 평화이카데미 학습 내용을 얼마나 유용하셨습니까? 1. 매우 유용함 □ 2. 다소 유용 □ 3. 조금 유용 □ 4. 매우 불만족 □</p> <p>[Q3] 평화이카데미 교육 중 가장 흥미있거나 흥미로운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1. 소위 냉전 이후의 한반도 평화(남북 2자) □ 2. 냉전 이전의 한반도 평화(남북 4자) □ 3. 남북 안보의 변화(남북 2자, 4자, 6자, 7자) □ 4. 북한의 경제개혁(남북 2자, 4자, 6자, 7자) □ 5.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남북 2자, 4자, 6자, 7자) □ 6. 북한의 정치 개혁(남북 2자, 4자, 6자, 7자) □ 7.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남북 2자, 4자, 6자, 7자) □</p> <p>[Q4] 귀하는 평화이카데미가 귀하는 어떤 것 같습니까? 1. 매우 도움 □ 2. 다소 도움 □ 3. 도움 없음 □ 4. 매우 도움 □ 5. 매우 도움 □</p> <p>[Q5] 귀하는 평화이카데미 참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 매우 중요 □ 2. 중요 □ 3. 적당함 □ 4. 매우 중요 □ 5. 매우 중요 □</p> <p>[Q6] 귀하는 평화이카데미 수강 중 어떤 부분이 흥미 있었습니까? 1. 매우 흥미 □ 2. 흥미 □ 3. 평범 □ 4. 매우 흥미 □ 5. 매우 흥미 □</p> <p>[Q7] 귀하는 평화이카데미 수강 중 어떤 부분이 흥미 있었습니까? 1. 매우 흥미 □ 2. 흥미 □ 3. 평범 □ 4. 매우 흥미 □ 5. 매우 흥미 □</p> <p>[Q8] 귀하는 평화이카데미 수강 중 어떤 부분이 흥미 있었습니까? 1. 매우 흥미 □ 2. 흥미 □ 3. 평범 □ 4. 매우 흥미 □ 5. 매우 흥미 □</p> <p>감사합니다. <i>홍성희</i></p>	<p>«제가 평화이카데미» DMZ방사 만족도조사 2019. 11. 30(화)</p> <p>안녕하세요. 제가 평화이카데미 소장으로 있습니다. 한 달간 평화이카데미 교육적인 활동을 위하여 DMZ방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후 결과 발표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받은 내용은 평화이카데미 운영 팀에 송부되는 통용되지 않습니다.</p> <p>[Q1] 귀하는 DMZ방사 프로그램 관련에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1. 매우 만족함 □ 2. 다소 만족 □ 3. 조금 만족 □ 4. 매우 불만족 □</p> <p>[Q2] 귀하는 DMZ방사 학습 내용을 얼마나 유용하셨습니까? 1. 매우 유용 □ 2. 다소 유용 □ 3. 조금 유용 □ 4. 매우 불만족 □</p> <p>[Q3] DMZ방사 방문이 좋았던 것들 중 가장 흥미있거나 흥미로운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1. DMZ방사 프로그램 □ 2. DMZ방사 프로그램 □ 3. DMZ방사 프로그램 □ 4. DMZ방사 프로그램 □</p> <p>[Q4] 귀하는 DMZ방사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있거나 흥미로운 것들이었습니까? 1. 매우 흥미 □ 2. 흥미 □ 3. 평범 □ 4. 매우 흥미 □ 5. 매우 흥미 □</p> <p>[Q5] 귀하는 DMZ방사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있거나 흥미로운 것들이었습니까? 1. 매우 흥미 □ 2. 흥미 □ 3. 평범 □ 4. 매우 흥미 □ 5. 매우 흥미 □</p> <p>[Q6] 귀하는 DMZ방사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있거나 흥미로운 것들이었습니까? 1. 매우 흥미 □ 2. 흥미 □ 3. 평범 □ 4. 매우 흥미 □ 5. 매우 흥미 □</p> <p>[Q7] 귀하는 DMZ방사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있거나 흥미로운 것들이었습니까? 1. 매우 흥미 □ 2. 흥미 □ 3. 평범 □ 4. 매우 흥미 □ 5. 매우 흥미 □</p> <p>[Q8] 귀하는 DMZ방사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있거나 흥미로운 것들이었습니까? 1. 매우 흥미 □ 2. 흥미 □ 3. 평범 □ 4. 매우 흥미 □ 5. 매우 흥미 □</p> <p>감사합니다. <i>홍성희</i></p>
---	--

○ 강의안 샘플

<p>인물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06년 11월 11일 - 1997년 인도 독립 운동가 인도의 독립 운동가, 정치인, 사상가 1947년 인도 독립 운동가 1947년 인도 독립 운동가 1947년 인도 독립 운동가 1947년 인도 독립 운동가 1947년 인도 독립 운동가 1947년 인도 독립 운동가 1947년 인도 독립 운동가 	<p>북한 경제는 사회주의?</p>  <p>□ «조선어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는 어디인가?</p> 
<p>평화학: 폭력(갈등)의 원인과 평화의 조건</p> <p>▶ 평화학 - “전쟁과 폭력의 원인 및 평화의 조건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다학제적 영역” C. M. Stephenson</p> <p>▶ 평화란?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평온함”(국어사전), 갈등과 폭력이 없는 상태</p> <p>1. 내면적 평온함 - Prem Pal Singh Rawat</p> <p>2.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 - 소극적 평화</p> <p>3.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이익에 기반한 조화와 공감이 이루어진 상태 (Johan Galtung) - 적극적 평화</p>	

[10] 아시아 석학특강 (손인주 사회대 교수)

① 사업 목적

- 비핵화, 탈사회주의 전환, 평화연구 분야의 해외 석학의 특별 강좌를 개최하여, 통일, 평화, 비핵화와 북한 개방을 포함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의 이슈에 대한 대학생들의 국제적인 시야를 확대함.

② 강좌 개요

- 개최학기 및 소속 학과(단위): 2019년 1-2학기 오픈강좌
- 평가 방식: 해당 없음

③ 강좌 내용

○ 주차별 강좌내용

일자	강의 주제	강사 명	강사 소속
1회 3/27	중일 관계와 동아시아(및 한반도)의 평화	Takahara, Akio	동경대학
2회 4/29	권위주의 정권의 반부패 운동	Zhu, Jiangnan	홍콩대학
3회 5/14	동북아 전략문화: 중국, 일본, 남북한 비교	Oh, Kongdan	IDA (미국방연구원)
4회 5/21	포퓰리즘과 신자유주의적 접근으로 보는 동북아의 미래	Cui, Zhiyuan	청화대학 (중국)
5회 10/7	한반도 분단의 기원	Okonogi, Masao	게이오대학
6회 10/22	Patrolling Harmony: Pre-emptive Authoritarianism and the Preservation of Stability in China	Yan, Xiaojun	홍콩대학
7회 11/5	Is the Future Truly Asian?	Chan, Heng Wing	싱가포르 대사
8회 11/18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질서	Jin, Jingyi	북경대학

○ 주차별 세부내용

주차	세부내용
1회 (3/27)	중일 관계와 동아시아(및 한반도)의 평화: This lecture by Professor Akio Takahara examines the tensions between China, the U.S., and Japan, and prospects for peace in Northeast Asia.. President Xi Jinping of China has been promot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lthough no one can easily explain what the BRI is, it is amazing how much it has spread and gained recognition worldwide. This lecture approaches the BRI by comparing it to China's Reform and Opening, and argues that both are

	products of the Chinese genius for formulating constellational concepts. Meanwhile, Prime Minister Shinzo Abe advocates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another constellation. While tension mounts between the US and China, another task of the lecture is to discuss whether the FOIP and the BRI can coexist for a peaceful Northeast Asia.
2회 (4/29)	권위주의 정권의 반부패 운동: This lecture by Professor Jiangnan Zhu explores how authoritarian oversight agent manages the dilemma between needing to have discretionary power while establishing credible commitment to the autocrat's agenda, by studying the Central Inspection Teams (CIT) formed during the anti-corruption campaign launched by President Xi Jinping. Professor Zhu's findings indicate that the CIT's scope of corruption investigation was significantly and consistently different from Xi's own focus on party discipline at the aggregate level. At the same time, the agency remained highly sensitive to changes in the autocrat's focus, setting the emphasis on corruption and discipline of individual inspections in close alignment with the autocrat's changing interest.
3회 (5/14)	동북아 전략문화: 중국, 일본, 남북한 비교: This lecture by Dr. Kongdan Oh compares differing strategic cultures between Korea, Japan, and China. The three countries are in different economic stages: China is developing, Korea is developed, and Japan is in a post-development stage. Japan's early modernization raised the country to Asian leadership. Korea copied the Japanese beginning in the 1960s, and China began its serious economic reforms in the early 1980s. By the 2000s, Korea had surpassed Japan in some economic sectors, and China's size now threatens to wash over its neighbors. All three societies share the deep roots of Chinese civilization and Confucian culture. Yet, the spread of modern culture has resulted in three different strategic cultures and national personalities.
4회 (5/21)	포퓰리즘과 신자유주의적 접근으로 보는 동북아의 미래 This lecture by Professor Cui Zhiyuan discusses the topic of "Populism and/or Neoliberalism: Trump, Brexit, and Northeast Asia." Professor Cui is a leading member of the Chinese New Left, and his work on political and legal philosophy focuses on alternatives to neo-liberal capitalism. In this lecture, Professor Cui focuses on how Brexit and Trump came about because they took advantage of populism, which arose as a flawed response to neoliberalism, and explores how this impacts Northeast Asia. Trade can be beneficial for advanced countries as well as emerging markets, but if the distributional consequences and adjustment costs of trade are not addressed properly, many countries will experience an anti-trade backlash. Korea, China, and the East Asian region are not exempt from this phenomenon, and governments must be able to skillfully navigate through this dilemma.
5회 (10/7)	한반도 분단의 기원

	한반도 분단은 제 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미소 냉전의 시작이라는 두 대전의 골짜기에서 시작된 하나의 국제 정치 프로세스이며,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대한 역사 드라마이다. 냉전은 그 자체가 글로벌 국제 정치의 양극화 현상이며,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강연에서는 분단의 의미를 "독립과 통일의 비양립성"으로 정의하고,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가 복잡하게 얽힌 과정에서 미·소의 정책과 이승만, 김구, 박헌영, 김일성 등의 정치노선이 어떻게 교착되었는지 살펴본다.
6회 (10/22)	Patrolling Harmony: Pre-emptive Authoritarianism and the Preservation of Stability in China Today, with social protests a daily phenomenon in China, the Party-state's survival hinges upon its institutional capacity to prevent, monitor, process information on, and overcome real and potential challenges. Over the past decade, the Communist Party has consistently stressed the critical importance of "stability preservation" (weiwen) as central to ensuring the longevity of the authoritarian regime. Drawing upon intensive interviews and archival research, this talk looks into the stability-preservation system in W County in East China. By exploring the institutional configuration, work mechanisms, daily activities and operational principles of the stability-preservation apparatus in the county, Dr. Yan seeks to gain insight into the PRC regime's mythical operations of "system maintenance" and the ways in which the Party-state exerts control over society.
7회 (11/5)	Is the Future Truly Asian? An Asian Century has been bandied around with writers speaking about this phenomenon as if it has already arrived. Such predictions make for skepticism and even suspicion in non Asian countries. The idea fuels great power rivalry as any incumbent power feels compelled to protect against its own displacement. This lecture attempts to analyze the rise of this concept and whether strong economic performance can truly lead to the vaunted Asian Century.

○ 전체 수업 수강생 명단

- 전회차 오픈 강좌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체 수업 수강생 명단은 작성하지 않음.
- 5/14 3회차 강연(오공단 박사)의 참석자 명단을 예시로 첨부함.

번호	성명	학년	소속	번호	성명	학년	소속
1	강서연	2학년	인문대학	27	이종훈	4학년	자유전공학부
2	김중휘	2학년	경영대학	28	임진우	4학년	사회과학대학
3	문도원	2학년	사회과학대학	29	조인준	4학년	인문대학

4	이경빈	2학년	사회과학대학	30	조현서	4학년	자유전공학부
5	이은지	2학년	사회과학대학	31	X	대학원생	국제대학원
6	이승구	2학년	사회과학대학	32	X	대학원생	인문대학
7	최지은	2학년	사회과학대학	33	X	대학원생	사회과학대학
8	황지선	2학년	사회과학대학	34	김민정	대학원생	인문대학
9	경준서	3학년	사회과학대학	35	김채린	대학원생	사회과학대학
10	구범서	3학년	인문대학	36	백이원	대학원생	사회과학대학
11	김민석	3학년	사회과학대학	37	신주영	대학원생	사회과학대학
12	김수민	3학년	사회과학대학	38	심동영	대학원생	사회과학대학
13	오현식	3학년	사회과학대학	39	오정현	대학원생	사회과학대학
14	이가영	3학년	사회과학대학	40	유수진	대학원생	행정대학원
15	이미소	3학년	사회과학대학	41	이상민	대학원생	행정대학원
16	이소현	3학년	사회과학대학	42	이주원	대학원생	사회과학대학
17	정인화	3학년	자유전공학부	43	이하나	대학원생	사회과학대학
18	채제우	3학년	사회과학대학	44	조은영	대학원생	사회과학대학
19	공한별	4학년	인문대학	45	허설화	대학원생	사회과학대학
20	권형구	4학년	사회과학대학	46	홍정돈	대학원생	사회과학대학
21	김세영	4학년	인문대학	47	김승구	교직원	경영대학
22	문지윤	4학년	사회과학대학	48	안도경	교직원	사회과학대학
23	박재아	4학년	사회과학대학	49	X	교직원	사회과학대학
24	변지영	4학년	인문대학	50	민선현	외부인	X
25	서동근	4학년	경영대학	51	신선호	외부인	X
26	이수연	4학년	인문대학	52	이선휘	외부인	X

Q03. 이 강의가 동북아/한반도 문제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① 매우 도움	② 조금 도움	③ 별로 도움되지 않음	④ 전혀 도움되지 않음
	101	58	5	1
Q04. 이러한 강의가 대학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	② 조금 필요	③ 불필요함	④ 매우 불필요함
	123	44	3	1
Q05. 이 강의를 주변 분들에게 추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① 적극 추천 의향 있음	② 권유할 의향 있음	③ 별로 추천 안함	④ 잘모르겠음
	89	66	6	5

□ 정성 평가

- 본 사업의 정성적 목표는 냉전 및 평화 연구 분야의 세계 최고의 전문가 초청을 통해 한반도의 냉전과 평화를 다양한 국제적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데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아시아석학특강”에 대한 피드백으로:
 - 다양한 현안에 대해 뛰어난 석학들의 견해를 학교에 앉아 돌아가면서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 평소 궁금했지만 접하기 어려웠던 내용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 평소 접하기 힘든 해외 석학들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최근 연구 동향 및 방법론에 대한 실질적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곁핥기식이 아닌 충분하고 성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 중국이나 북한처럼 다소 폐쇄적인 아시아 국가에 대해 직접 연구를 하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보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 등이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사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함.
 - 그 외에도, “아시아석학특강”이 흥미로우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으로 차 있어 대학교육에 꼭 필요하며, 인문대 학생으로서 사회과학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두 학문의 연결점을 제시해 주었으며, 강연자들의 연구 내용 및 실무 경험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배울 점이 많아 롤모델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등 다양한 긍정적 피드백을 받음.

④ 사업 성과

- 총 8회의 강연을 성공적으로 주최하였음.
- 정량적 성과로는, 매회 수강생이 증가하여 1회 때 30여명에서 4회 때부터 60여명으로 증가한 데에 있음.
- 정성적 성과로는, 냉전 및 평화 연구 분야의 세계 최고의 전문가 초청을 통해 한반도의 냉전과 평화를 다양한 국제적 사례를 통해 이해를 고취시킴.
- 정량 평가
 - 매회 수강생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것을 정량적 목표로 삼은 바, 실제 1차 강연에 약 3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이후 매회 수강생이 증가하여 3-4회차 강연부터는 참석자 수가 60명에 다다름.
 -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 수 166개 (5회에 걸쳐 설문 실시, 복수응답자 존재) 중:
 - 아시아석학특강이 동북아/한반도 문제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매우 또는 조금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96%, 이러한 강의가 대학교육에 매우 또는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98%, 해당 강의를 주변에 적극 추천 또는 권유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93%로, 전체적으로 참여 학생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음.

○ 설문지 샘플

“아시아 석학 특강” 만족도 조사 문항지

“아시아 석학 특강”은 해외 석학의 특강을 통해 세계화 역량을 함양도 및 동아시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한 사업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활동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거나 될 수 있으면 구체적인 의견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특성분할]

Q01. 소속 대학대학
 ① 건국대 ② 고려대 ③ 서울대 ④ 연세대
 ⑤ 한양대 ⑥ 중앙대 ⑦ KAIST ⑧ 기타

Q02.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대학원생
 ⑥ 교직원 ⑦ 외부인

[평가문항]

Q03. 이 강좌가 동아시아학과 전체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 ② 도움 있음 ③ 도움 없음 ④ 전혀 도움 없음

Q04. 이 강좌의 질이 기대치에 비해 높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Q05. 이 강좌를 주변 분들에게 추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매우 추천 있음 ② 추천 있음 ③ 추천 없음 ④ 불응

Q06.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Q07. 아쉬웠거나 자주 보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 통일교육 모델 보급·확산

번호	단위사업	담당자
1	통일·평화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서울대·부산대·전북대)	백지운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2	아시아대 학생 평화아카데미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교수)
3	서울대·한국냉전학회·한길사 평화학교	백지운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4	SNU·KNU 동해평화학교	한모니까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5	한국·유럽 대학생 여름평화캠프	김학재·백지운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6	겨레이야기 (서울대-김일성종합대 교류추진위원회)	강재연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 사진



③ 통일·평화 아카데미 인큐베이팅(서울대·부산대·전북대)
(백지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① 사업 목적

- 통일·평화아카데미 인큐베이팅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12년째 진행해온 통일아카데미와 6년째 수행한 평화아카데미 모델을 전북대학교 및 부산대학교에 보급함으로써, 서울대학교 외의 학생들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의성 있는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해온 통일아카데미 및 평화아카데미가 교내외의 다양한 전공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여 통일교육 모델의 보급 및 확산에 주력하였다면, 통일·평화아카데미 인큐베이팅은 해당 모델을 타 기관에 보급하여 해당 기관이 아카데미 운영 능력에 있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유의미한 역사현장을 답사하고 토론을 병행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상상을 보다 입체화하고 캠퍼스 안팎에서 평화문화를 진작시키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 본 강좌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서울대 통일평화교육 모델을 확산, 발전시킴과 동시에 국립대 간 통일평화교육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② 운영 개요

- 개최학기 및 소속 학과(단위): 2019년 10-11월, 통일한국연구원(부산대)/정치외교학과(전북대)
- 평가 방식: 수강생의 평가를 결합하여 만족도 조사 실시

③ 추진 내용

- 주차별 강좌내용
- 부산대학교

일자	강의 주제	강사 명	강사 소속
제1주 09월 26일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의 미래	전제성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2주 10월 08일	남북한 언어의 이해	오현아	강원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제3주 10월 15일	북한의 자원과 남북교류	전충환	부산 기계공학과 교수
제4주 10월 23일	북한의 군사전략	박성용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5주	북한의 영양과 음식문화	윤지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11월 12일 제6주 11월 19일	북한의 경제현황과 남북한 경제협력	김영재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제7주 11월 26일	북한의 도시와 한반도 균형발전	김지현	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특임교수
제8주 12월 03일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	임경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 전북대학교

일자	강의 주제	강사 명	강사 소속
제1주 (9.30)	북한 체제의 성립과 존속	안문석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제2주 (10.14)	북한의 교육 체계	차승주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제3주 (10.28)	북한 과학사	김근배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제4주 (11.11)	북한 군사의 이해	박성용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제5주 (11.18)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성격과 향후 전망	임경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주차별 세부내용

- 부산대학교

주차	세부내용
제1주 09월 26일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큰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으며, 세부적인 목차로는 북한 비핵화의 전망 불투명,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통일 추구, 지구적 경제 상황 악화, 세계화의 문제, 자유민주주의 후퇴 등 나아가 비전통 안보 문제의 등장에 대해서 강의하였습니다.
제2주 10월 08일	북한 혹은 이북의 국어 교육 혹은 조선어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으며, 사용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특히, 이북의 국어교육, 나아가 통일시대 이남의 사람, 주민, 연구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제3주 10월 15일	북한의 자원과 남북에너지 상황 및 통독 사례와 비교, 갈탄 수소화의 이점과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을 들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북한 석탄의 수소화 Process 및 Database 구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4주 10월 23일	북한 군사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으며, 북한군의 성격/역할, 조직과 제도, 군사정책과 전략 등 북한의 비대전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5주 11월 12일	북한의 영양과 음식문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으며, 수치를 통한 북한 주민의 영양 실태, 북한 주민의 음식 문화 등 나아가 한반도의 지속가능영양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6주 11월 19일	북한경제의 실태 및 신 남북경협 추진경향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의 주요 경제 및 사회 지표에 대한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새로운 남북경협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7주	북한의 도시와 한반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정책으

11월 26일	로서 계획, 도시계획이 국토 및 도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아가 남북한,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차이나는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

- 전북대학교

주차	세부내용
제1주 (9.30)	해방 이후부터 김정은의 등장까지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북한 체제의 성립과 존속을 조명.
제2주 (10.14)	북한의 교육 체계와 관련하여 북한 교육의 전반을 살펴봄과 동시에 북한 대학생의 일상을 강의.
제3주 (10.28)	북한 과학사를 살펴 보면서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제약과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를 분석.
제4주 (11.11)	북한군의 성격, 역할, 조직, 제도, 정책, 전력과 함께 비대칭 전력에 대한 현황을 조명.
제5주 (11.18)	정치학 이론을 중심으로 북한 체제를 규명하고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전체 수업 수강생 명단

- 부산대학교

번호	성명	학년	소속	번호	성명	학년	소속
1.	강동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4)	16.	우지은	부산대	불어불문학과(4)
2.	강혜진	부산대	아동가족학과(3)	17.	이윤우	부산대	경영학과(mba)
3.	김기범	부산대	경영학과(2)	18.	장수오	자영업	운영
4.	김대성	총련고	교원	19.	장연주	부산분권 혁신운동본부	연구위원
5.	김도윤	부산대	경영학과(4)	20.	장윤식	일반인	일반인
6.	김종경	진주교대	한국어교육학 석(3)	21.	정성재	부산도시공사	기전사업처장
7.	김진욱	부산대	건축학과 박(2학기)	22.	조아라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석(3학기)
8.	김철	부산대	경영학과(졸)	23.	조영현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석(1)
9.	나호선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석(수료)	24.	조한성	한국경제신문	한경경영지원단 법무지원실/이사
10.	박명선	신라대	경제금융학과 초빙교수	25.	채소롱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국제지역협력과정 (수료)
11.	박선미	사회자본 연구소	대표	26.	최민수	부산대	나노에너지공학과(4)
12.	박청일	부산대	행정학과 박(2)	27.	최영란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박(4학기)
13.	백웅기	아름다운 공유	대표	28.	하상현	부산대	사학과(1)

14.	서정희	경성대(경남정보대)	외식경영학	29.	홍주은	부산대	IT응용공학과(2)
15.	손수근	부산대	행정학과(2)	30.	황순화	일반인	일반인

- 전북대학교

번호	성명	소속	번호	성명	소속
1	양정원	전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24	윤수현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	오영균	전북대학교 졸업생	25	윤지훈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	박도연	전북대학교 정치학과	26	이경욱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	진윤호	전북대학교 정치학과	27	이나은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5	강승현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8	장지은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6	강유민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9	정세진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7	강지현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0	주승찬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8	권은지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1	최종완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9	김경민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2	추연경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0	김광일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3	한윤희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1	김원오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4	임정주	전주대학교 영화방송제작학과
12	김철호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5	양지훈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
13	김태현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6	손영일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14	노은선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7	신유정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15	박초현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8	유형동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6	방용승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9	양승원	전북대학교 사학과
17	서성혁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0	배봉은	전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18	서이을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1	박지혜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19	성다연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2	박세영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20	안상민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3	임정우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21	안세원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4	김석중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22	우승민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5	김재영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23	유명환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답사 프로그램 (공동답사)

답사 세부 일정		
시간	장소	내용
<1일차>		
9:00	서울대학교	집결 및 인원파악
9:00~11:30	이 동	서울대 → 철원 DMZ
11:30~13:00	철 월 D M Z	-노동당사: 러시아공법, 북한노동당사 건물 -백마고지: 6.25전쟁중 중부전선 최대 견적지
13:00~13:30	이 동	철원 DMZ → 식당
13:30~14:30	식 당	중식
14:30~14:50	이 동	식당 → 태풍전망대
14:50~15:50	태풍전망대	-휴전선상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로 DMZ 및 굽이쳐 흐르는 임진강 감상
15:50~16:10	이 동	태풍전망대 → 지질공원
16:10~17:00	지질공원	

17:00-17:30	이 동	지질공원 → 연천펜션
17:30	연천펜션	- 저녁식사 - 강연회 및 대화의 시간
<2일차>		
8:00-9:00	숙 소	기상 및 아침식사
9:00-9:30	이 동	숙소 → 재인폭포
9:30-10:00	한탄강댐	- 한탄강댐 물문화관: 남북을 가로지르는 한탄강의 의미 탐색
10:00-10:20	이 동	좌상바위 → 송의전지
10:20-11:20	송의전지	고려4왕(태조,현종,문종,원종)과 고려조 16공신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봄과 가을 제향을 올리는 고려의 실질적인 종묘
11:20-11:40	이 동	송의전지 → 식당
11:40-12:40	식 당	중식
12:40-13:40	이 동	식당 → 임진각
13:40-14:20	임진각	- 서부전선 평화안보관광 - 자유의 다리 / 증기 기관차 - 임진각 평화수호 기념탑
14:20-16:00	이 동	임진각 → 서울대학교
16:00	서울대학교	해산

○ 답사 참여 수강생 명단

- 부산대학교

번호	성명	학교	전공(학년)
1	김대성	총렬고	교원
2	김도윤	부산대	경영학과(4)
3	김종경	진주교대	한국어교육학 석(3)
4	김진욱	부산대	건축학과 박(2학기)
5	박명선	신라대	경제금융학과 초빙교수
6	손수근	부산대	행정학과(2)
7	우지은	부산대	불어불문학과(4)
8	장윤식		
9	책소룡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국제지역협력과정(수료)
10	최민수	부산대	나노에너지공학과(4)
11	최영란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박(4학기)
12	하상현	부산대	사학과(1)
13	홍주은	부산대	IT응용공학과(2)
14	황순화		

- 전북대학교

번호	성명	소속(단과대/학과)
1	김경민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	박도연	전북대학교 정치학과
3	강유민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	박지호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5	장지은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6	권은지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7	강지현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8	유형동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9	노은선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0	윤지훈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④ 사업 성과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추진함으로써 국립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기여함
- 학계 전문가 및 평화 활동가를 초청하여 이론과 실천이 융합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이론적 이해를 도모하고 살아있는 현장경험을 전달하여 높은 만족감 도출

□ 사업 평가

○ 부산대학교: 정량평가

번호	문항	답변(비율)
1.	평화아카데미 프로그램이 통일평화인식 및 지식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78.9%) 2. 다소 도움(21.1%)
2.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평화아카데미의 강의 수준은 어떠했습니까?	1. 다소 쉬움(26.3%) 2. 적당함(63.2%) 3. 다소 어려움(10.5%)
3.	평화아카데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84.2%) 2. 필요(15.8%)
4.	귀하는 평화아카데미를 주변 분들께 추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1. 적극 추천 의향 있음(73.7%) 2. 권유할 의향 있음(21.1%) 3. 잘모르겠음(5.3%)
5.	귀하는 평화아카데미 프로그램 전반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78.9%) 2. 다소 만족(21.1%)
6.	평화아카데미 강연 중 가장 유익했거나 흥미로웠던 강연은 무엇입니까?	1. 제1강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미래(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57.1%) 2. 제2강 북한의 국어교육(오현아 강원대 국어교육학과 교수)(35.7%) 3. 제3강 북한의 자원과 남북교류(전충환 부산대 기계공학과 교수) (42.9%)

		4. 제4강 북한의 군사전략(박성용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64.3%) 5. 제5강 북한의 영양과 음식문화(서울대 윤지현 식품영양학과 교수) (71.4%) 6. 제6강 북한의 경제현황과 남북한 경제협력(김영재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28.6%) 7. 제7강 북한의 도시와 한반도 균형발전(김지현 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특임교수) (71.4%) 8. 제8강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평화(임경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35.7%)
--	--	---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2. 다소 만족(38%) 3. 다소 불만족(0%) 4. 매우 불만족(0%)
6.	평화아카데미 강연 중 가장 유익했거나 흥미로웠던 강연은 무엇입니까?	1. 제1강 북한체제의 성립과 존속(안문석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30%) 2. 북한의 교육 체계(차승주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 (17%) 3. 북한 과학사(김근배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교수) (4%) 4. 북한 군사의 이해(박성용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2%) 5.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성격과 향후 전망(임경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26%)

○ 부산대학교: 정성평가

- 통일평화아카데미 프로그램이 통일·평화 인식 및 지식향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전체 수강생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나타냈음. 강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적당했거나 쉬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나 일부(10.5%)에서는 다소 어려웠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와 같은 의견은 다음 프로그램 구성 시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임.
- 이외에도 평화학교 프로그램의 추천의향, 만족도와 관련해서 수강생 대다수가 추천 의향이 있으며 만족도가 높았다는 의견을 표명했음.

○ 전북대학교: 정량평가

번호	문항	답변(비율)
1.	평화아카데미 프로그램이 통일평화인식 및 지식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78%) 2. 다소 도움(22%) 3.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음(0%) 4.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음(0%)
2.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평화아카데미 강의 수준은 어떠했습니다습니까?	1. 너무 쉬움(0%) 2. 다소 쉬움(22%) 3. 적당함(67%) 4. 다소 어려움(11%) 5. 너무 어려움(0%)
3.	평화아카데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56%) 2. 다소 필요(44%) 3. 다소 불필요(0%) 4. 매우 불필요(0%)
4.	귀하는 평화아카데미를 주변 분들에게 추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1. 적극 추천 의향 있음(33%) 2. 권유할 의향 있음(67%) 3.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음(0%) 4. 잘 모르겠음(0%)
5.	귀하는 평화아카데미 프로그램 전반에	1. 매우 만족(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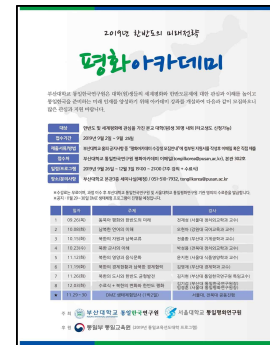
○ 전북대학교: 정성평가

- 수강생들은 통일평화아카데미 프로그램이 통일·평화 인식 및 지식향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전체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나타냈음. 강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적당했거나 쉬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나 다소 어려웠다는 소수의견도 제기됨.
- 이외에도 평화학교 프로그램의 추천의향, 만족도와 관련해서 수강생 전체가 추천 의향이 있으며 만족도가 높았다는 의견을 나타냈음.

⑤ 관련 자료

○ 부산대학교

- 포스터



- 사진



- 설문지 샘플

<인척대학교 평화아카데미> 평가 설문조사 (강사용)

만남이후로, 인척대학교 평화아카데미 강사 여러분, 본 설문은 평화아카데미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의를 평가하는 것인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은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해주시는 답변 내용은 평화아카데미 운영 및 개선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Q1] 귀하는 평화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다소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Q2] 귀하는 평화아카데미 수업방식 참여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적극 2. 다소 적극 3. 다소 소극 4. 매우 소극

[Q3] 귀하는 평화아카데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 2. 다소 필요 3. 다소 불필요 4. 매우 불필요

[Q4] 귀하는 향후 평화아카데미 강사 직책을 주변 지식인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1. 적극 추천 의향 있음 2. 권유할 의향 있음
 3.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음 4. 잘 모르겠음

[Q5] 강학 진행 중 흥미를 잃은 적이 있으신가요?
 (항우 프로그램 운영 개편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Q6] 강학 진행 중 아쉬웠거나 채우 보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우 프로그램 운영 개편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설문제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인척대학교 평화아카데미> 평가 설문조사 (강학생용)

만남이후로, 인척대학교 평화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본 설문은 평화아카데미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반향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설문은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해주시는 답변 내용은 평화아카데미 운영 및 개선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름 [] 학과/학과 [] 학년/학년 [] 학과/학년 [] 성별 [] 나이 []

[Q1] 귀하는 평화아카데미 프로그램이 귀하의 흥미를 인식 및 지지 할지 예상하십니까?
 1. 매우 도움 2. 다소 도움 3.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음 4.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음

[Q2] 귀하는 생각하기전에 평화아카데미 프로그램의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으신가요?
 1. 네, 도움 2. 네, 도움 3. 네, 도움 4. 네, 도움 5. 네, 도움

[Q3] 귀하는 평화아카데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 2. 다소 필요 3. 다소 불필요 4. 매우 불필요

[Q4] 귀하는 평화아카데미 수강을 주변 지인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1. 적극 추천 의향 있음 2. 권유할 의향 있음
 3.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음 4. 잘 모르겠음

[Q5] 귀하는 평화아카데미 프로그램 전반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다소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Q6] 귀하는 평화아카데미 참가 기간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우 프로그램 운영 개편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경험, 지식
 평소 접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내용은 생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Q7] 프로그램 내용 중 아쉬웠거나 채우 보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우 프로그램 운영 개편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안 샘플

I. 북한군의 성격/역할

I. 북한의 교육제도 - 1. 북한의 학교교육제도

(1) 학제 : 12년제 전반적 의무교육
 → 유치원 1년+소학교 5년+초급중학교 3년+고급중학교 3년

연도	의무교육의 내용
1950년	5년제 초등 의무교육
1956년	4년제 초등 의무교육
1958년	7년제 중등 의무교육
1967년	9년제 기술 의무교육
1972년	11년제 전반적 의무교육
2012년	12년제 전반적 의무교육

사레로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김일성 권력 강화

- 무정 숙청(영령불복종, 군벌주의적 만행)
- 허가이 숙청
- 박헌영 숙청(미제 간첩)
- 박일우 숙청
- 사회주의 기반도 강화(사기업 파괴, 농업도 파괴)

[2] 아시아대학생 평화아카데미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교수)

① 사업 목적

- 서울대학교, 싱가포르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홍콩중문대학(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중국 제지양대학(Zhejiang University), 태국 출라롱콘대학(Chulalongkorn University), 인도 뉴델리대학(University of New Delhi Hindu College), 인도네시아 에어랑가대학(Universitas Airlangga) 대학 등 아시아지역 13개 대학에서 선발한 25명(국내참가학생 10명 + 외국참가학생 1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일주일 간 평화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남북한 화해공존을 넘어 아시아평화체제 구축을 대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

② 운영 개요

- 개최학기 및 소속 학과(단위): 2019년 여름학기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 평가 방식: 인증서 발급

③ 추진 내용

- 서울 프로그램: 2019. 7. 3. ~ 7. 8.

날짜	추진내용
7월 3일	도착, 숙소 체크인, 웰컴디너 및 오리엔테이션
7월 4일	개회식, 프로그램 소개, 팀 구성, 강의 2회
7월 5일	파주 DMZ 현장학습
7월 6일	팀 토론 및 한국문화 체험
7월 7일	팀 토론 및 팀 발표
7월 8일	체크아웃, 출국

- 참여인원: 총 30명
 - 학생(26명): 서울대학교 학생 10명 + 아시아지역 대학생 16명
 - 교수(1명): 김범수
 - 전문위원(1명): 이하경
 - 조교(1명): 김찬미
 - 중국 푸단대 인솔자(1명): JIAQI, LIU

○ 강좌내용

일자	강의 주제	강사 명 (강사 소속)	강의 내용
7월 4일	Division of Korea, Korean War, and Their Legacies	김범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한민족의 분단 과정과 한국전쟁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전쟁의 상흔에 대해 강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ppt 파일 참조)
7월 4일	Varieties of peace and pacifism	박성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평화'의 현대적 의미를 파악하고, 평화주의(반전주의)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하여 강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ppt 파일 참조)

○ 수강생 명단

번호	성명	학년	소속(단과대/학과)
1	선우다빈	2	자유전공학부
2	김진주	1	자유전공학부
3	윤석원	1	자유전공학부
4	김민지	2	자유전공학부
5	김종훈	2	자유전공학부
6	최정주	2	자유전공학부
7	신동경	1	자유전공학부
8	이성엽	4	자유전공학부
9	임혜지	1	자유전공학부
10	기민서	1	자유전공학부
11	TENG, QU	1	Fudan University
12	YUYANG, WANG	2	Fudan University
13	ZHUOYIN, LIN	2	Fudan University
14	ZIJIAN, YU	2	Fudan University
15	INDRA FAKHRI, AKBAR	4	Universitas Indonesia
16	JIA YIN, LOI	2	Universiti Sains Malaysia
17	KATRINA MARGARITA HERNANDO, SAAVEDRA	3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18	MIGUEL HOWARD, BALAO	3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19	RENEE BEATRIZ VILLAFRANCA, MANUEL	3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20	DARIEN XUAN DE, TOH	1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21	DEWI SYAZA BINTE, AMINUDDIN	2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22	MUHAMMAD FIRHAN BIN, AZHAR	1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23	CHANTAKARN, SUKCHONMAKUL	3	Mahidol University
24	MASARAT, PONGPANISHNUKUL	4	Mahidol University
25	SUPICHAYA, NOBNOM	1	Mahidol University
26	Dooie Doh	1	University of Chicago

④ 사업 성과

-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
- 남북한 화해공존을 넘어 아시아평화체제 구축을 대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

□ 정량 평가

- 아래 표와 같이 6개 평가문항 중 5개 항목에 대한 가중평균은 3점 후반대로 참가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다. ‘평화’에 대하여 다각도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외국 국적의 학생들은 한국의 역사와 현 상황을 이해하고 체감해 볼 수 있었다.

평가문항	1. Do you think the field trip was helpful to understand the issues of Korean unification, peace, and North Korea?		
	응답자수	가중치	가중평균
1. very helpful	24	4	3.92
2. a little helpful	2	3	
3. rarely helpful	0	2	
4. not at all	0	1	

평가문항	2. Do you think your understanding of the issues of Korean unification, peace, and North Korea is changed through this program?		
	응답자수	가중치	가중평균
1. very much changed	14	4	3.35
2. changed	8	3	
3. rarely changed	3	2	
4. not at all	1	1	

평가문항	3. Do you think the field trip was necessary?		
	응답자수	가중치	가중평균
1. very much necessary	22	4	3.81
2. a little necessary	3	3	
3. rarely necessary	1	2	
4. not at all	0	1	

평가문항	4. Do you think the field trip was related with the issues of Korean unification, peace, and North Korea?		
	응답자수	가중치	가중평균
1. very much related	25	4	3.96
2. a little related	1	3	
3. rarely related	0	2	
4. not at all	0	1	

평가문항	5. Will you recommend this program to your friend?
------	--

	응답자수	가중치	가중평균
1. definitely	20	4	3.77
2. yes	6	3	
3. not much	0	2	
4. no idea	0	1	

평가문항	6. Are you satisfied with this program?		
	응답자수	가중치	가중평균
1. very much	24	4	3.92
2. a little	2	3	
3. not satisfied	0	2	
4. very much unsatisfied	0	1	

□ 정성 평가

- 이번 프로그램은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더 많은 강의와 활동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주어진 시간적인 한계에 의한 것으로 추후에는 일정을 좀 더 넉넉하게 잡는 것도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파주 DMZ와 경복궁 답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실제로 북한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에 참가 학생들은 높은 흥미를 보였다. 한국의 역사와 분단의 현실에 대해 공부하고, 서로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 함께 토론하며, 직접 현장을 방문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문항	7. What is the most satisfied th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Z Tour, as I had the privilege to visit many DMZ spot from this program. Really special for all of us. • Well-designed field trip which was full of stories to be learned. Good to know about Korean history & divide of Korea. • The process of discussion and sharing various views, and the knowledge from the field trip. • Being able to look through the binoculars to understand just how close North Korea actually is. • Talking with students from different countries, could learn other cultures good to communicate & interact other students from all over Asia. • Food is generous. Everyday meals, accommodation, downtown outing were well provided. • Korean friends are all so nice and responsible, took care of us really well everyone was so warm-hearted, welcoming. Korean TA & students were very good, helpful and willing to help. 	

⑤ 관련 자료

○ 사진



○ 설문지 샘플

통일교육선도대학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문항지

* 이 설문은 통일교육선도대학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입니다. 후 설문은 추후 익명성을 보장하며,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하여 더 나은 개선을 위한 것으로 통계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개인별 설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Attributes]

Q01. Your University and Maj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Political Science and Administration

Q02. Year
1st year / 2nd year / 3rd year / 4th year /

Q03. Sex
Male / Female

[Questions]

1. Do you think the field trip was helpful to understand the issues of Korean unification, peace, and North Korea?

Very helpful A little helpful
 Rarely helpful Not at all

2. Do you think your understanding of the issues of Korean unification, peace, and North Korea is changed through this program?

Very much changed Changed
 Rarely changed Not at all

3. Do you think the field trip was necessary?

Very much necessary A little necessary
 Rarely necessary Not at all

4. Do you think the field trip was related with the issues of Korean unification, peace, and North Korea?

Very much related A little related
 Rarely related Not at all

5. Will you recommend this program to your friend?

Definitely Yes
 Not much No idea

6. Are you satisfied with this program?

Very much A little
 Not satisfied Very much unsatisfied

7. What is the most satisfied thing?
(Describe as specific as possible for improvement)

The DMZ visit

8. What do you think should be rectified for improvement?
(Describe as specific as possible for improvement)

Thank you very much.

○ 강의안 샘플

Division of Korea, Korean War, and Their Legacies

Bumsoo Kim
College of Libe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VARIETIES OF PEACE AND PACIFISM

SUNGWOO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 학생발표 자료 샘플

1-1 What we discussed

01

Why peace is so difficult to achieve?

02

What is the main reason that countries and people cannot reach peace?

03

Different scale of peace

- Global
- Country
- Individual

Our Stand

Balance is impossible to maintain and will eventually lead to war. Instead, we should focus on mitigating effects of imbalance to achieve peace.

○ 최종보고서 샘플

2019
통일교육선도대학 프로그램
Asian Undergraduate Summit
at SNU College of Liberal studies

TOPIC
"Harnessing Untapped Potential for Peace-building"

Final Report.

Site Visit Review.

I.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DMZ)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or commonly known as the DMZ) is a border barrier along the 38th parallel that divides the Korean Peninsula roughly in half. It is 250 kilometers long, and approximately 4 kilometers wide. Within the DMZ is a meeting point called JSA (Joint Security Area) where political negotiations take place. -

① **Odo-Mountain Unification Observatory:** Located in the northernmost ceasefire line of the western front where Han River and Inhan River meet, Odo-Mountain Unification Observatory was established to console the feelings of dispersed families and provide an educational site for the unification education. -

② **Dorn-Mountain Station:** Dorn-Mountain Station is the northernmost stop on the South Korea's railway 'Gyeongju Line'. Located 56 kilometers from Seoul and 205 kilometers from Pyeongyang, the station was opened to the public as a tourist attraction in 2002. -

③ **The 3rd Tunnel:** The 3rd Tunnel was discovered by the South Korea government in 1978. It spans over 1,635 meters in length, 2 meters in width, and 2 meters in height. It is estimated that approximately 30,000 soldiers could move through the tunnel per hour. The scale is similar to the 2nd Tunnel but more fascinating since it is located only 52 kilometers from Seoul. -

④ **Injingsik Peace Park:** Injingsik Peace Park, located 7 km from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s now at the forefront of tourism related to the Korean War. It was built in 1972 with the hope of unification. Unique military crafts and photos are on display for visitors. -

II. Kyongbok Palace & Downtown.

[3] 서울대·한국냉전학회·한길사 평화학교 (백지운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① 사업 목적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다년간 수행해 온 통일아카데미, 평화아카데미 모델을 한국냉전학회와 결합하여 그 결과를 일반 시민들에게 확산
- 냉전을 지구적 관점에서 보는 기획 강좌를 통해, 분단과 냉전에 대한 시야의 확대를 기함.
- 종로구에 소재한 한길사의 복합문화공간 ‘순화동천’ 을 강의장으로 활용하여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임으로서 통일, 분단, 냉전, 평화에 대한 시민들의 지식과 인식적 깊이를 심화하고자 함.

② 운영 개요

- 개최학기 및 소속 학과: 2019년 10월-11월
- 평가 방식: 수강생의 강의평가와 강사의 강사평가와 결합하여 만족도 조사

③ 추진 내용

- 주차별 강좌내용

일자	강의 주제	강사 명	강사 소속
제1주 (10.08)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형성과 전환	신욱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제2주 (10.15)	아시아 비동맹주의와 신남방 정책의 역사적 정동	백원담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제3주 (10.22)	베트남 통일과 동아시아 냉전지형의 변화	심주형	인천대 중국학술원 HK연구교수
제4주 (10.29)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몽골	이평래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교수
제5주 (11.05)	진먼섬 포격과 동아시아 냉전의 역사적 중층성	백지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제6주 (11.12)	대탕트와 남북한 체제 경쟁	홍석률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제7주 (11.19)	재일조선인의 눈으로 보는 북일관계	조경희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제8주 (11.26)	'신한반도' 시대, 북방정책의 재평가	신종대	한국냉전학회 회장

- 주차별 세부내용

주차	세부내용
제1주 (10.08)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형성과 전환	샌프란시스코 체제 아래 중국의 부상과 미국vs중국의 구도 형성 과정을 짚어보고, 한국의 샌프란시스코 체제 전환의 길을 모색한다.
제2주 (10.15) 아시아 비동맹주의와 신남방 정책의 역사적 정동	반동회와 비동맹운동의 정치·경제·문화적 의제들을 참조체계 삼아 남북관계, 나아가 아시아 지역관계성의 새로운 흐름을 모색한다.
제3주 (10.22) 베트남 통일과 동아시아 냉전지형의 변화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베트남 전쟁과 통일이 세계사 및 냉전지형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짚어보고, 몇 가지 쟁점을 둘러싼 여러 이견들을 함께 살펴본다.
제4주 (10.29)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몽골	몽골사 및 현재 몽골의 전반적 상황을 개괄하고, 몽골의 대외정책, 그중에서도 몽골과 북한의 관계를 통해 동북아 평화를 위한 몽골의 노력을 살펴본다.
제5주 (11.05) 진먼섬 포격과 동아시아 냉전의 역사적 중층성	진먼섬 포격의 전후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1950년대 1, 2차 양한 해협 위기, 나아가 동아시아 냉전구조의 역설성과 중층성을 이해한다. 아울러 진먼섬이 냉전의 기역을 토대로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는 것의 의미를 짚어본다.
제6주 (11.12) 대탕트와 남북한 체제 경쟁	남북한은 대탕트를 맞이해 한편에서는 더욱 격렬한 체제경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개선과 동아시아 대탕트 사이의 상관성, 남북간 대화 및 체제 경쟁의 역사와 숨은 이야기를 살펴본다.
제7주 (11.19) 재일조선인의 눈으로 보는 북일관계	포스트냉전-포스트식민이 중첩되는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진전과 함께 한일관계에는 균열이 발생했다. 이 같은 남·북·일 관계가 재일조선인들의 삶을 어떻게 규정해왔는지 해방 후 귀국사업과 한일회담에 초점을 맞춰 검토한다.
제8주 (11.26) '신한반도' 시대, 북방정책의 재평가	남북 및 시민에 의한 체제, 남북의 평화·경제협력 공동체라는 의미를 반영하는 '신한반도 시대'에, 과거 남한의 북방정책과 대외관계 재편,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 전체 수업 수강생 명단

번호	성명	소속	번호	성명	소속
1	강경호	의사	36	박재성	
2	강천희	회사원	37	송현이	
3	고지혜	대학생	38	신상미	
4	구지윤	대학생	39	신지은	
5	권광선	비영리단체 운영	40	안미화	대학원생
6	권면오		41	양현봉	대학원생
7	권윤지		42	오병관	
8	권은민		43	오세영	
9	권혁의		44	윤석원	
10	권혁일	회사원	45	윤종욱	
11	권현	고등학생	46	윤혜란	단체 활동가
12	김경선		47	윤홍배	변호사
13	김덕중	회사원	48	이민영	
14	김동현		49	이상빈	사회복지사

15	김병규		50	이영우	
16	김보미	강사	51	이종호	
17	김수현		52	이찬우	
18	김엘림		53	이학건	
19	김용범		54	이현민	학생
20	김재원	대학원생	55	이현정	주부
21	김정민		56	이혜경	
22	김정일		57	임성신	
23	김종관	방송인	58	정국진	
24	김종후		59	정선화	학생
25	김주현		60	정정은	
26	김지민	학생	61	최용환	
27	김지석		62	최은철	대학원생
28	김지형	프리랜서(기획, 글)	63	최익제	
29	김춘기	무	64	최후희	
30	김태현		65	하동수	
31	김하나		66	한영국	연구소장
32	김희은	여성단체 활동가	67	현영림	
33	박경수		68	현지혜	학생
34	박범진	군인	69	화덕원	공무원
35	박병욱	사업, 학생	70		

30	정선화	6회
31	최은철	8회
32	한영국	7회
33	현지혜	6회
34	화덕원	7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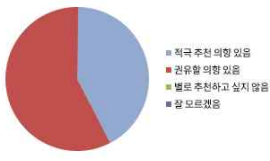


④ 사업 성과

□ 정량 평가

번호	문항	답 변(비율)	비율 그래프
1.	연령	1. 10대(3%) 2. 20대(28%) 3. 30대(3%) 4. 40대(13%) 5. 50대(38%) 6. 60대(9%) 7. 70대(6%)	
2.	평화학교 프로그램이 귀하의 통일·평화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72.7%) 2. 다소 도움(24.2%) 3.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음(0%) 4.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음(3.0%)	
3.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평화학교 프로그램의 강의 수준은 어떠했습니까?	1. 너무 쉬움(6.1%) 2. 다소 쉬움(30.3%) 3. 적당함(51.5%) 4. 다소 어려움(12.1%) 5. 너무 어려움(0%)	
4.	귀하는 평화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3. 매우 높음(33.3%) 4. 다소 높음(45.5%) 5. 다소 낮음(15.2%) 6. 매우 낮음(3.0%) 7. 응답 없음(3.0%)	

○ 수료자 명단

번호	성명	참석 횟수
1	강경호	6회
2	강철희	8회
3	고지혜	7회
4	구지윤	7회
5	권광선	7회
6	권혁일	7회
7	권현	6회
8	김덕중	8회
9	김동현	6회
10	김보미	6회
11	김용범	7회
12	김재원	8회
13	김종관	7회
14	김종후	6회
15	김지민	6회
16	김지형	7회
17	김춘기	8회
18	김하나	7회
19	김희은	7회
20	박범진	8회
21	박병욱	8회
22	안미화	7회
23	윤혜란	6회
24	윤홍배	8회
25	이민영	7회
26	이상빈	8회
27	이현민	7회
28	이현정	7회
29	이혜경	7회

5.	귀하는 평화학교 수강을 주변 분들께 추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1. 적극 추천 의향 있음(42.4%) 2. 권유할 의향 있음(57.6%) 3.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음(0%) 4. 잘 모르겠음(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 추천 의향 있음 ■ 권유할 의향 있음 ■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음 ■ 잘 모르겠음
6.	귀하는 평화학교 프로그램 전반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69.7%) 2. 다소 만족(30.3%) 3. 다소 불만족(0%) 4. 매우 불만족(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만족 ■ 다소 만족 ■ 다소 불만족 ■ 매우 불만족
7.	평화학교 강연 중 가장 유익했거나 흥미로웠던 강연은 무엇이었습니까?	1. 제1강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형성과 전환(신욱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60.6%) 2. 제2강 아시아 비동맹주의와 신남방 정책의 역사적 정동(백원담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57.6%) 3. 제3강 베트남 통일과 동아시아 냉전지형의 변화(심주형 인천대 중국학술원 HK연구교수) (63.6%) 4. 제4강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몽골 (이필래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교수) (51.5%) 5. 제5강 진먼섬 포격과 동아시아 냉전의 역설적 증증성(백지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60.6%) 6. 제6강 대탕트와 남북한 체제 경쟁 (홍석률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63.6%) 7. 제7강 재일조선인의 눈으로 보는 북일관계(조경희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57.6%) 8. 제8강 '신한반도' 시대, 북방정책의 재평가(신중대 한국국전학회 회장) (4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강 '신한반도' 시대... 제7강 재일조선인의 눈... 제6강 대탕트의 남북한... 제5강 진먼섬 포격과 동... 제4강 러시아와 중국... 제3강 베트남 통일과 동... 제2강 아시아 비동맹주... 제1강 샌프란시스코 체...

으로써 통일·평화에 대한 우리 사회 중·장년 계층의 높은 관심도를 볼 수 있었음.

- 수강생들은 평화학교 프로그램이 통일·평화 인식 및 지식향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96.9%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나타냈음. 강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적당했거나 쉬웠다는 의견도 81.8%였음. 이와 같은 의견은 이번 평화학교 프로그램이 수강생들의 지식 향상과 더불어 시민 눈높이에 맞도록 적절하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이외에도 평화학교 프로그램의 추천의향, 만족도와 관련해서 수강생 전체가 추천 의향이 있으며 만족도가 높았다는 의견을 나타냈음.

⑤ 관련 자료

○ 사진



□ 정성 평가

- 평가 결과, 다양한 연령대, 직업군의 시민들이 평화학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프로그램 내용

- 동해평화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춘천교대 통일교육센터가 합류함에 따라, 네 개 학교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함.
- 서울대와 강원대, 강릉원주대, 춘천교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을 모집하여 2박 3일간 세미나와 답사가 결합된 프로그램을 구성.
- 분단 상태의 동해 접경지역의 현황, 평화적 남북교류 및 통일 후 동해 접경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전망 등을 탐색하게 함.
- 진행 및 강연자

전체 진행	한모니카 교수(서울대), 송영훈 원장(통일강원연구원), 이동기(강릉원주대)
인솔 교수	이찬수 연구교수(서울대), 송영훈 원장(통일강원연구원), 이동기 교수(강릉원주대), 황인표 교수(춘천교대)
사회자	송영훈 원장(통일강원연구원)
강연자	김병로 교수(서울대), 이찬수 연구교수(서울대), 이동기 교수(강릉원주대), 한태근 교수(국방대)
초청패널	황인표 교수(춘천교대), 강채연 연구교수(서울대)

○ 추진방법

- 대학(원)생들이 전문가들과의 집중토론 등 본 프로그램에 밀도 있게 참여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2박 3일간 운영함.
-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모이는 만큼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첫날 Icebreaking 방식의 강의를 진행함.
-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한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기념품과 수료증을 수여하는 등 동기를 부여함.

○ 강좌내용

일자	강의 주제	강사 (소속)	세부내용
8. 28	강릉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답사	송영훈 원장(통일강원연구원)	바다부채길 답사를 통해, 동해안의 철책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평화지역으로의 변화 모습과 의미를 상상함.
8. 28	Icebreaking	김병로 교수(서울대)	동해평화학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대학(원)생들이 서로의 생각과 관심 분야를 공감하고, 본 프로그램에 몰입할 수 있도록 Icebreaking을 실시함. 이 과정에서 학생들을

			'평화', '자비', '정의', '진실' 네 개의 조로 구성함.
8. 28	접경지대, 그 실선과 점선 사이: 동해에서 평화를 꿈꾸며	이찬수 연구교수 (서울대)	분단을 의미하는 접경지대 및 동해를 바라보며 느꼈던 감정과 실질적인 평화 추구를 위한 이론적 접근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과거의 분단을 기억하고 미래의 평화를 상상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함.
8. 29	고성통일전망대, 금강산전망대, 고성 DMZ박물관, 남북출입사무소 답사	한태근 교수 (국방대학원)	2019년에 민간인에게 개방된 DMZ 고성구역 '평화의 길' 답사를 통해, 남북한의 군사적·심리적 대치 상황 등을 파악하고 통일과 평화의 길을 적극적으로 상상하도록 함.
8. 29	분단과 통일 사이의 접경지: 독일에서 동해를 보다	이동기 교수 (강릉원주대)	통일을 이뤄낸 독일을 떠올리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분단을 진행해온 접경지역이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평화지역으로 역할 지을 기회를 상상함.
8. 30	조별 발표 및 토론	이동기 교수 (강릉원주대)	동해평화학교의 답사와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이 조별('평화', '자비', '정의', '진실')로 발표하고 토론하며, 교수의 평가가 이루어짐.
8. 30	수료식	임경훈 원장 (통일평화연구원), 송영훈 원장 (통일강원연구원)	

○ 수강생 명단

번호	성명	학년	소속(단과대/학과)
1	김하정	2학년	서울대(사회학)
2	신영수	2학년	서울대(동양사학)
3	김진수	4학년	서울대(사회교육과)
4	정명현	1학년	서울대(서양사학과)
5	이동민	2학년	서울대(불어교육과)
6	이재웅	4학년	서울대(사회학과)
7	권담우	2학년	서울대(의예과)
8	양수영	2학년	조선대(정치외교학)
9	최안나	4학년	서울대(중앙생물학)
10	유수영	4학년	서울대(간호대학)
11	장우석	석사 1학기	서울대(법과대학)
12	강현구	4학년	강릉원주대(사학과)
13	박채은	3학년	강릉원주대(사학과)
14	김승하	2학년	강릉원주대(사학과)
15	신예은	2학년	강릉원주대(사학과)
16	장우성	2학년	강릉원주대(사학과)
17	김수민	1학년	성신여대
18	조석진	4학년	강원대
19	김경철	2학년	강원대
20	박성호	석사 2학기	강원대
21	안수환	3학년	강원대
22	여수진	4학년	강원대

23	유정아	석사 1학기	강원대
24	윤태로	1학년	강원대
25	이은찬	4학년	강원대
26	이재섭	4학년	강원대
27	장성호	4학년	강원대
28	조의빈	4학년	강원대
29	최은주	석사 1학기	강원대
30	김예림	2학년	춘천교대
31	윤태경	2학년	춘천교대
32	이수현	1학년	춘천교대
33	장유정	1학년	춘천교대
34	최단비	2학년	춘천교대

④ 사업 성과

○ 대학(원)생의 동해안 접경지역에 대한 이해와 통일평화 의식의 체계화 및 구체화

- 서울대와 강원대, 강릉원주대, 춘천교대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함. 2박 3일간 세미나와 답사가 결합된 프로그램을 통해, 분단 상태의 동해 접경지역의 안보·평화 현황을 파악하고, 평화적 남북교류 및 통일 후 동해 접경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전망 등을 구체적으로 탐색함.

○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모델의 타 대학에의 확산

- 통일평화연구원은 2018년 황해평화학교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동해평화학교를 개설하였고, 이번 동해평화학교에서는 특히 모델 확산에 중점을 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강릉원주대 사학과,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춘천교대 통일교육센터와 밀접한 네트워킹을 통해 본 연구원이 축적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델을 타 대학에 성공적으로 보급하고 통일평화교육을 확산함.

□ 정량 평가

○ 강의 관련 사전 설문조사 분석 결과

사전설문조사 (강의)					
34명 중 27명 응답					
Q.1) 귀하는 동해평화학교와 비슷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요				
	11명 (40.7%)	16명 (59.3%)			
Q.2) 귀하는 평소 북한, 통일, 평화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조금 관심이 없었	매우 관심이 없었	
	11명 (40.7%)	12명 (44.4%)	3명 (11.1%)	1명 (3.7%)	
Q.3) 귀하는 동해평화학교를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포스터(실외)	포스터(실내)	인터넷 게시물	메일	지인의 추천
	2명 (7.4%)	3명 (11.1%)	4명 (14.8%)	6명 (22.2%)	12명 (44.4%)
Q.4) 귀하는 동해평화학교 강연 중 어떤 강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복체크 가능)	제1강 Ice Breaking: 우리 편 만들기 강사: 김 병로 (서울대학교)	제2강 접경지대, 그 실선과 점선 차 이: 동해에서 평화 를 꿈꾸며 강사: 이 사: 이찬수 (서울 대학교)	제3강 분단과 통 차 일 사이의 접경지 대: 독일에서 동해를 보다 강사: 이 동기 (강릉원주대)		
	9회 (33.3%)	12회 (44.4%)	17회 (63%)		

- 동해평화학교 참가 학생중 59.3%가 동해평화학교와 비슷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으며, 40.7%가 비슷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음.
- 동해평화학교 프로그램 시작전, 학생 40.7%가 북한·통일·평화 주제에 대해 매우 관심이 있다고 답했고, 44.4%가 조금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답함.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이 평소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음. 아울러 동해평화학교 지원신청을 받았을 때 지원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통일 평화 문제에 대해 정치군사적인 면만이 아니라 일상, 전공 분야 등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이 있으며 동해평화학교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음.

○ 답사 관련 사전 설문조사 분석 결과

사전 설문조사(답사)					
34명 중 27명 응답					
[Q.1] 귀하는 강릉, 고성 예 현장을 답사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요				
	18명 (66.7%)	9명 (33.3%)			
[Q.2] 귀하는 평소 강릉, 매우 관심을 가지 고성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 조금 관심이 있었, 매우 관심이 없었다.				
	5명 (18.5%)	14명 (51.9%)	7명 (25.9%)	1명 (3.7%)	
[Q.3] 귀하께서 현장학 습 프로그램 중 가장 기 대하는 프로그램은 무엇 입니까? (중복체크 가 능)	정동심곡 바다부 채길 견학 (강릉)	고성 통일 전망대 견학 (고성)	금강산 전망대 견 학 (고성)	고성 DMZ박물관 견학 (고성)	남북출입사무소 견학 (고성)
	9명	6명	12명	8명	20명

- 참가 학생 중에 66.7%가 강릉, 고성 현장 답사 경험이 있으며, 33.3%가 강릉, 고성 현장 답사 경험이 없다고 대답함. 비교적 해당 지역에 대한 방문 경험이 많은 이유는 강원도 소재 대학인 강원대, 강릉원주대, 춘천교대 학생들의 참여로 보임. 하지만 본 사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답사지에 대해서는 방문하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임.
- 그리고 학생들은 강릉, 고성 지역에 대하여 ‘18.5%가 매우 관심 가짐, 51.9%가 조금 관심 가짐, 25.9%가 조금 관심 없음, 3.7%가 매우 관심 없음’ 등으로 답했음. 대체로 관심 있음이 약 70%, 관심 없음이 30% 정도였음.

○ 강의 관련 사후 설문조사 분석 결과

평가 설문조사 (강의)			
34명 중 23명 응답			
[Q.1] 동해평화학교 프로그램이 귀 하의 통일 평화 인식 및 지식 향상 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 까?	매우 도움	다소 도움	
	13 (56.5%)	10명 (43.5%)	
[Q.2] 귀하가 생각하기에 동해평 화학교 프로그램의 강의 수준은 어 떠했습니까?	적당함	다소 어려움	
	18 (78.3%)	5 (21.7%)	
[Q.3] 귀하는 동해평화학교 프로그 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필요	다소 필요	
	16 (69.6%)	7 (30.4%)	
[Q.4] 귀하는 동해평화학교 수강을 두 번 분들에게 추천할 용의가 있으 십니까?	적극 추천 의향 있음	권유 의향 있음	잘 모르겠음
	12 (52.2%)	10명 (43.5%)	1 (4.3%)
[Q.5] 귀하는 동해평화학교 프로그 램 전반에 얼마나 만족하셨습니 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10명 (43.5%)	13 (56.5%)	

- 동해평화학교 프로그램을 마친 후, 56.5%의 참가자가 본인의 통일, 평화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43.5%의 참가자가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참가자 중 69.6%(16명)가 동해평화학교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 나머지 참가자는 다소 필요하다고 응답.
- 52.2% 참가자는 지인에게 적극 추천하겠다는 의향을 보였고, 10명인 43.5%의 참가자는 권유 의향을, 1명인 4.3%의 참가자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 강의의 난이도에 관해서도 78.3%의 참가자가 적당하다고 응답, 21.7%의 참가자가 다소 어렵다고 응답함.
- 동해평화학교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으로 숙소와 답사 프로그램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함. 또 “평소 접하기 힘든 주제에 대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점이 매우 만족스럽다”, “토론이 좋다” 등의 의견을 보였음.

○ 답사 관련 사후 설문조사 분석 결과

평가 설문조사 (답사)				
34명 중 24명 응답				
[Q.1] 귀하는 동해평화학교 현장학 습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	보통이다		
	11명 (45.8%)	11명 (45.8%)	2명 (8.3%)	
[Q.2] 귀하는 현장학습 내용이 흥미 롭고 교육적이었다고 생각합니 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11명 (45.8%)	11명 (45.8%)	2명 (8.3%)	
[Q.3] 귀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되어 진행됐 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1명 (45.8%)	10명 (41.7%)	2명 (8.3%)	1명 (4.2%)
[Q.4]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인솔자, 지도강사는 친절하게 지도하였습 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17명 (70.8%)	5명 (20.8%)	2명 (8.3%)	
[Q.5]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운전기 사는 안전하게 운행하였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19명 (79.2%)	4명 (16.7%)	1명 (4.2%)	
[Q.6] 현장학습 프로그램 중 식사 의 양은 충분하였으며 맛있었습니 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12명 (50%)	9명 (37.5%)	3명 (12.5%)	

- 현장 학습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11명인 45.8%의 참가자가 매우 만족, 45.8%의 참가자가 만족, 2명인 8.3%가 보통이라 답함.
- 현장 학습의 내용에 대해서는 11명인 45.8%의 참가자가 내용이 매우 교육적이라고 답함. 45.8%의 참가자가 교육적이라고 응답, 2명이 보통이라고 답함.

- 참가자 45.8%가 현장학습의 인원 편성이 매우 적절하게 진행되었다고 응답, 41.7%가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응답, 8.3%인 두 명의 참가자가 보통, 1명인 4.2%가 매우 부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응답함.

□ 정성 평가

○ 동해평화학교, 쉽게 접하기 어려운 좋은 프로그램

- 학생들은 동해평화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자극과 성장을 경험했다고 답함.
- 강의와 답사 모두 유익했는데, 특히 “분단과 통일 사이의 접경지: 독일에서 동해를 보다”(이동기 교수 강의)와 금강산전망대와 남북출입사무소 답사가 인상적이었다고 함.
- 학생들은 답사코스가 평소에 가기 어려운 곳이자 아주 뜻깊은 곳으로 짜였으며, 자세한 설명과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의 시야와 관점을 넓힐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매우 만족해함.

○ 답사와 강의의 결합 방식에 대한 만족

- 본 프로그램은 답사, 강의, 학생들의 토론 등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오전 답사, 오후 강의, 저녁 토론” 방식으로 일정을 구성했음. 참가자들은 이러한 방식의 진행에 대해 매우 만족함. 또한, 적절한 설명과 자율적인 답사가 결합되어 진행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생들이 많았음.
- 다만, 이러한 일정이 다소 빠박한 측면이 있다고 느끼거나, 일부(DMZ박물관 관람) 코스의 경우 자율관람으로 진행되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학생도 있었음.
- 추후에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면서도 일정을 좀 더 넉넉하게 잡는 것도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⑤ 관련 자료

○ 포스터



○ 사진



○ 설문지 샘플

<p>질문 순번 27</p> <p>[Q.1] 귀하는 동해평화학교와 비슷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p> <p><input type="radio"/> 1. 예</p> <p><input type="radio"/> 2. 아니요</p> <p>[Q.2] 귀하는 평소 북한, 통일, 평화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p> <p><input type="radio"/> 1.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p> <p><input type="radio"/> 2.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p> <p><input type="radio"/> 3. 조금 관심이 없습니다.</p> <p><input type="radio"/> 4. 매우 관심이 없습니다.</p> <p>[Q.3] 귀하는 동해평화학교를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p> <p><input type="radio"/> 1. 포스터(광고)</p> <p><input type="radio"/> 2. 포스터(안내)</p> <p><input type="radio"/> 3. 인터넷 기사</p> <p><input type="radio"/> 4. 제원</p>	<p>질문 순번 28</p> <p>[Q.1] 동해평화학교 프로그램이 귀하의 통일·평화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p> <p><input type="radio"/> 매우 도움</p> <p><input type="radio"/> 다소 도움</p> <p><input type="radio"/>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음</p> <p><input type="radio"/>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음</p> <p>[Q.2] 귀하가 생각하기에 동해평화학교 프로그램의 강의 수준은 어떠했습니다?*</p> <p><input type="radio"/> 너무 위함</p> <p><input type="radio"/> 다소 위함</p> <p><input type="radio"/> 적당함</p> <p><input type="radio"/> 다소 저하됨</p> <p><input type="radio"/> 너무 저하됨</p> <p>[Q.3] 귀하는 동해평화학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input type="radio"/> 매우 필요</p>
---	--

○ 강의안 샘플

<p>분단과 통일 사이의 한걸음: 독일에서 통일을 보다.</p> <p>이탈리아(중문헌재대 사학자)</p> <p>1. 독일 분단과 평화 정치</p> <p>1961년 8월 13일 동베를린의 동독 공산주의 지배자들은 주민의 대량 탈출을 막을 요망으로 그 통치권 민족들을 세웠다. 베를린 장벽은 공산주의의 폐쇄성과 억압을 대변하여 높은 동독 주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다. 1961년 8월 13일 8월 25일 첫 회랑자가 발생한 이래 1989년 11월 9일까지 19년이 계속된 장벽에 봉쇄되었다.</p> <p>서독을 비롯한 자유 진영의 대응은 두 가지였다. 먼저, 장벽 건설 직후 서독과 서방의 정치가들은 동독 주민들에게 대해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동독과 대화를 거부하고 국제적 공조로 통해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구했다. 자유 민주주의의 안전을 잃은 장벽이 해체가 되었었다. 1989년 8월 30일 서독의 카타리나 데를링도 서독을 방문하여 방문객들의 안전을 약속을 약속했다.</p> <p>그러나 서베를린을 방문하기 2주 전에 케르너는 이미 '평화의 전당'을 탈출해 남진과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안전인 1년 1개월을 드러냈다. 이틀 뒤 당시 서베를린에서 사망으로 베를린 장벽에 온 것으로 알려진 발터 브로트스 케르너의 자유로 호수면의 일차 발상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공산주의 정권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하며, '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현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상은 종교, 학제 및 정치에서 유사한 평화 구성물이 볼 수 있었다. 통일과정의 세부 내용은 변화명령이었지만 전체는 동일했다. 통일과정의 기본은 대량 결핵을 고지하는 것이다.</p> <p>서베를린 시정에서 시정인 지도자인 브란트는 1989년부터 '집단을 통한 변화'를 주장하며 온</p>	<p>경제, 실상에서 발전으로: 경제성과 경제지대의 구조를 비교하여!</p> <p>이탈리아(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p> <p>들어가는 말</p> <p>결정적대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경제가 서로 밀접히 있는 공간이다. 둘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상생의 희망이 켜질 수도 있다. 한반도의 결정적대도 불안과 갈등, 기만과 회심의 두 흐름이 교차한다.</p> <p>결정적대는 국가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이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안보와 경제가 배타적 호환 속에서 서로 교차하며 움직이는 정치-이념적 구성물이다. 이들 갈등을 '포스트 영토주식'이라고 한다. 국경이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고정되고 자연적인 범주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과정의 구성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경제에는 상징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들이 종종 경합하기도 한다. 국가의 정체성 및 경제 발전과 상호 밀접하면서 기존 경제 체제는 물론 경제적 가치도 파괴되어간다.</p> <p>우연하게 결정적대는 순환적인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경제,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이 때문이다. 경제는 왜 흥흥하는가, 이 글에서는 그것을 경제 내 존재들의 '경쟁적' 문화와 연결하여 살펴볼 것이다. 한국은 국가적 정체성과 무관한 '경쟁적' 문화가 두 가지가 '기</p>
---	---

○ 학생발표문 샘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들'

문화, 교육, 경제에서 바라보다

목차

1. 조선 인정하기
2. 이북도도 위원회 폐지
3. 공동어로 구역화
4. 안보관점에서 평화관점으로
5. 일관된 평화교육 필요성

변화하는 평화

"다원화되고, 평화에 대한 다양한 담론 등장"

경제적 이익 추구

상적 스토레스 해소

개인적인 압박감 해소

1. 문제제기 및 주제선정

- 최근의 남북관계는 주변국이라서 직물이 불안정한 상황 지속
- 남북간의 큰 격차로 인해 활용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5] 한국·유럽 대학생 여름평화캠프
(김학재·백지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① 사업 목적

- 2019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을 기점으로 한 통일·평화 관련 국제 학생교류 프로그램 운영 모델의 개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함.
- 한국학을 전공한 해외 학생들과 한국의 학생들이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의견을 교류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역 평화통일 문제 이해와 국제화 역량 증대를 도모.
- 통일과 남북한 화해공존 문제에 대한 해외 학생들의 지식 및 경험의 확산을 장려.
-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수강생들이 지역의 구체적 상황에 기반한 통일평화 감수성을 제고하고, 한국의 통일·평화 문제를 국제화할 수 있는 경험적 기반 확대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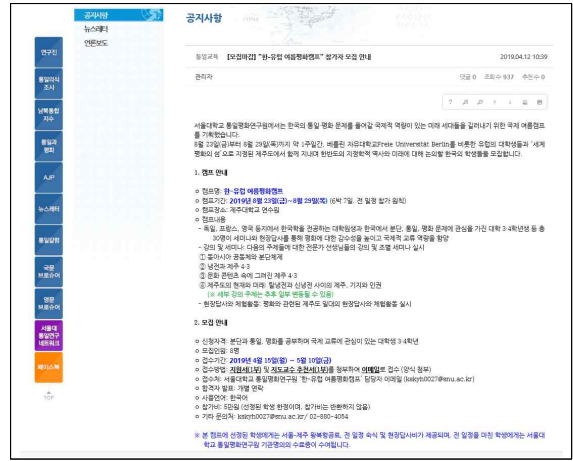
② 운영 개요

- 개최학기 및 소속 학과(단위): 2019년 여름학기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평가 방식: 본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19년 여름학기에 개최하는 프로그램으로, 교과과정이 아닌 바 별도의 성적 평가 방식은 존재하지 않음. 사전 오리엔테이션 및 본 캠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결과물을 제출한 학생에게는 통일평화연구원장·베를린대학교 한국학연구소장·냉전학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

③ 추진 내용

- 시기별 추진과정

날짜	추진내용
2019년 2월	프로그램 계획 수립 ·2019년 2월 23일 통일평화연구원의 김학재 교수·백지은 교수 및 베를린자유대학교 (Free University of Berlin) 한국학과의 김현경, 은정 펠스너 교수가 미팅을 갖고 프로그램 계획 수립.
2019년 3월-4월	강연 및 답사 장소에 대한 사전 자료 수집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대학교 연수원에서 6박 7일 간 캠프를 진행하기로 함. 이를 통해 식민지기와 냉전 시기를 거치며 제주도에 남아 있는 관련 유적지들을 방문하고 기록하기로 함. ·뿐만 아니라 현재 제주도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 발전의 양상과 새로운 지정학적 영향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강연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

	<p>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p> <p>공고를 통한 참가 학생 모집 실시</p> <p>·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홈페이지(http://tongil.snu.ac.kr) 및 서울대학교 포털, 대량 메일 등을 통해 서울대학교 측 참가 학생 모집을 실시.</p> 
	<p>·냉전학회를 통해 서울대학교 외 학교에서 참가할 학생들을 추천받음.</p> <p>강연자 섭외 완료 및 Pre-reading list 협의</p> <p>·2019 통일교육 선도대학 프로그램의 취지에 공감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과 냉전학회 교수, 그리고 제주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강연자를 구성함.</p> <p>·본 캠프에서 실시될 학생들 간의 토론과 교류가 보다 심도 있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단과 관련해 제주도가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영향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사전 읽기 자료를 준비하기로 협의함.</p> <p>선발을 통한 학생 모집 완료</p> <p>·서울대학교내외 학교에서 총 26명의 학생이 지원.</p> <p>·지도교수의 추천서 내용과 학생의 지원 동기, 캠프에 참가하고자 하는 열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15명의 학생을 선발함.</p> <p>* 하단의 '수강생 명단' 참조</p>
2019년 5월-6월	<p>상호 조율 및 협의를 통한 최종 프로그램 확정</p> <p>* 하단의 '프로그램 내용' 참조</p> <p>사전 오리엔테이션 실시</p>

	<p>·2019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모델보급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본 캠프가 학생들에게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기로 함.</p> <p>·2019년 7월 11일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7층 7706호에서 한국 측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오리엔테이션 진행.</p> <p>·사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한-유럽 여름 평화 캠프의 기획 의도와 맥락,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프로그램 안내, 참가자의 자기소개와 관심사,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의견 수렴, 조별 구성과 참여자들의 과제에 대한 안내, 미리 읽고 공부해올 리딩 리스트에 대한 안내와 의견 수렴, 주제별 조원 구성 등을 마침.</p>
2019년 8월	<p>프로그램 진행</p> <p>·2019년 8월 23일~29일 (6박 7일) 제주대학교 서귀포연수원에서 전문가의 강의와 학생들의 답사가 결합된 6박 7일 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함.</p>
2019년 9월	<p>프로그램 평가 및 보고서 제출</p>

○ 프로그램 내용

날짜	시간	내용	비고	
1일차 8/23 (금)	제주도 도착			
	09:00	김포공항 집결 및 제주도 출발		
	11:50	제주공항 도착		
	13:00	점심식사		
	14:30	제주대학교 연수원 도착		
	15:00	숙소 배정 및 조별 모임 - 조장 선출 및 조별 오리엔테이션 - 학습계획 발표	제주대학교 연수원	
2일차 8/24 (토)	한반도 분단체제와 동아시아 평화			
	09:00	아침 식사 후 집결		
	09:00-10:00	강연장 집결,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 환영인사: 임경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 환영인사: 이은정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장)	사회 김학재 (IPUS, SNU)	제주대학교 연수원
	10:00-10:15	휴 식		
	10:15-12:15	■ 기조강연: 동아시아 냉전, 제주 4.3, 한반도 평화 (김세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2:15-13:50	점심식사		
	14:00-15:30	■ 강연1: 포스트 지구화 시대 동아시아 평화의 섬 만들기 (백원담, 성공회대학교 교수)	사회 백지운	제주대학교 연수원

		(IPUS, SNU)	
	15:30-15:40	휴 식	
	15:40-17:30	영화 감상: <지슬>(Jiseul, 2012)	
	17:30-18:30	조별 토론	
	18:30-19:00	휴 식	
	19:00	저녁식사	
3일차 8/25 (일)	제주 첫발딛기 (북촌지역)		
	09:00-10:00	이동	
	10:00-12:00	제주4·3평화공원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선홍 돌돌굴 (제주43 당시 선홍리 주민들이 피산해 있던 곳)	
	14:30-15:30	북촌 너븐송이 기념관	[증언] 고완순: 북촌대학살 생존자 (당시 9세)
	15:30-16:30	북촌 43길 [너븐송이 위령탑, 움팡밭 학살터, 서우봉 일제 진지동굴]	
	16:30-17:30	이동 및 휴식	
	17:30-18:30	저녁식사	
	19:00-20:00	■ 강연2: 평화의 섬과 한반도 평화의 전망 (김학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4일차 8/26 (월)	43을 기억하는 세 가지 방식 (남원지역)		
	08:00-09:00	아침 식사	제주대학교 연수원
	09:00-09:30	이동	
	09:30-10:00	남원을 총혼묘지 (군인, 경찰들을 추모하는 곳)	
	10:00-10:40	사리물굴 (43 당시 의귀리, 수망리 주민들이 숨어있던 곳)	
	10:40-11:20	현의합장묘 (43 때 희생당한 의귀리 주민들의 무덤)	
	11:20-12:00	송령이굴 (43 때 희생당한 무장대들의 무덤)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이동 및 휴식	
	14:00-15:30	■ 강연3: 한반도 분단과 43 (김창후, 前 제주 4.3연구소장)	사회
	15:30-16:00	휴 식	김학재 (IPUS, SNU)
16:00-17:30	■ 강연4: 식민지기 제주 해녀들의 반일투쟁 (박찬식, 제주4·3평화재단 비상임연구원)	제주대학교 연수원	
17:30-18:30	조별 토론		
18:30-19:00	휴 식		
	19:00	저녁식사	
5일차 8/27	난민문제와 한국 사회의 포용		
	09:00	기상 및 아침식사	

(화)	09:00-12:00	4.3 피해자 진아영 할머니 삶터 방문		
	12:00-13:00	점심식사		
	14:00-15:30	■ 강연5: 4.3의 집단적 기억과 재해석 (고성만, 제주대학교 교수)	사회	제주대학교 연수원
	15:30-16:00	휴 식	김현경 (FU-Berlin)	
	16:00-17:30	■ 강연6: 난민과 평화 (김현미, 연세대학교 교수)		
	17:30-18:30	조별 토론		
19:00	저녁식사			
탈냉전과 신냉전 사이의 한반도				
6일차 8/28 (수)	08:00-09:00	아침 식사		제주대학교 연수원
	09:00-09:30	이동		
	09:30-12:30	강정마을 둘러보기		
	12:30-13:30	점심식사		
	13:30-14:30	이동		
	14:30-16:00	[알뜨르 비행장 - 첫알오름 - 셋알오름 고사포진지 - 동알오름 일제강점기 진지동굴 - 송악산 해안 진지동굴]		
	16:00-16:30	백조일손지지		
	16:00-17:30	휴 식		
	17:30-19:00	저녁식사, 숙소로 이동		
	19:00	조별 토론		
	제주에서 통일과 평화를 생각하기			
7일차 8/29 (목)	09:00	기상		제주대학교 연수원
	9:00-10:30	조별 과제 발표 1	사회	
	10:30-10:45	휴 식	이은정 (FU-Berlin)	
	10:45-12:15	조별 과제 발표 2		
	12:30	점심식사		
	14:00-16:00	종합 토론 및 참가자 피드백	사회	백지운 (IPUS, SNU)
	16:00	마무리, 서울로 출발		한국 학생 및 스태프
20:00	서울 도착, 해산			

○ 강좌 내용

일자	주제	강사(소속)	세부내용
8/24 (토)	동아시아 냉전, 제주 4.3, 한반도 평화	김세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과 민주화이후 국가폭력에 대한 성찰과 평화의 의미
8/24 (토)	포스트 지구화 시대 동아시아 평화의 섬 만들기	백원담 (성공회대학교 교수)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발생하는 동아시아적 맥락과 동아시아의 여러 섬들이 대면한 지정학적 문제들과 그 해법
8/26 (월)	한반도 분단과 4.3	김창후 (제주4.3연구소 이사)	냉전이 한반도 분단과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주 4.3의 기원과 전개 과정, 과거청산 과정과 과제들
8/26 (월)	식민지기 제주 해녀들의 반일투쟁(?)	박찬식 (제주학 연구센터 센터장)	식민지 시기 태평양전쟁이 제주에 미친 영향과 제주 공동체 특유의 여성성과 저항의 유산들
8/27 (화)	4.3의 집단적 기억과 재해석	고성만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미디어와 영화 등에 나타난 제주 4.3의 집단 기억과 새로운 해석들의 경향
8/27 (화)	난민과 평화	김현미 (연세대학교 교수)	에멘 난민 사태로 부각된 난민 문제와 한국 사회의 관용의 현황
8/28 (수)	평화의 섬 제주에서 생각해보는 한반도 평화의 전망	김학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평화의 섬 제주에서 생각해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구적/동아시아적/한반도적/지역적 차원의 복합 과제들

○ 수강생 명단

번호	이름	국적	소속	전공	학년
1	Katja Ziegler	Germany	Freie Universität Berlin (FU),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n Studies	Master, 6th semester
2	Sueheon Lee	Republic of Korea	FU, Graduate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Political Science	Ph.D. candidate, 2nd semester
3	Denise Czinczoll	Germany	FU,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n Studies	Master, 2nd semester
4	Benedikt Christoph Staar	Germany	FU,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n Studies	Ph.D. candidate, 12th semester
5	Sabrina Stemmeler	Germany	FU, Institute of Korean Studies	Integrated Korean Studies	Bachelor, 10th semester
6	Kristina Kaltenbach	Germany	FU, Institute of Korean Studies	Integrated Korean Studies	Bachelor, 10th semester
7	Irene Maier	Germany	FU,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n Studies	Ph.D. candidate, 1st semester
8	Leni Gatz	Germany	Ruhr-Universität Bochum (RUB)	Korean Studies & Sinology	Master, 6th semester
9	Rabea Piepenburg	Germany	RUB	Korean Studies & English literature	Bachelor, 4th semester
10	Aya Mahdadi	France	Institut National des	Korean Studies	Master,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INALCO)	(Political sociology)	2nd semester
11	Alexandre Le Marchand	France	INALCO	Korean Studies	Master, 2nd semester
12	Klimkina Polina	Czech Republic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Korean Studies	Bachelor, 2nd semester
13	Viola Janiková	Czech Republic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Korean Studies	Bachelor, 2nd semester
14	조수민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4학년
15	오수연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16	김연두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3학년
17	구동환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산림환경학과	4학년
18	변상훈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3학년
19	윤선아	대한민국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4학년
20	정선화	대한민국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4학년
21	김세영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4학년
22	김보미	대한민국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23	신담희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3학년
24	손세호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4학년
25	조윤재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3학년
26	김형준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4학년
27	이우재	대한민국	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	4학년
28	이하은	대한민국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4학년

④ 사업 성과

2019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육 모델의 성공적 확산

수강생 28명 중 총 26명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수료함.

- 수료자 명단

번호	이름	국적	소속
1	Katja Ziegler	Germany	Freie Universität Berlin (FU), Institute of Korean Studies
2	Sueheon Lee	Republic of Korea	FU, Graduate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3	Denise Czinczoll	Germany	FU, Institute of Korean Studies
4	Benedikt Christoph Staar	Germany	FU, Institute of Korean Studies

5	Sabrina Stemmler	Germany	FU, Institute of Korean Studies
6	Kristina Kaltentbach	Germany	FU, Institute of Korean Studies
7	Irene Maier	Germany	FU, Institute of Korean Studies
8	Leni Gatz	Germany	Ruhr-Universität Bochum (RUB)
9	Rabea Piepenburg	Germany	RUB
10	Aya Mahdadi	France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INALCO)
11	Alexandre Le Marchand	France	INALCO
12	Klimkina Polina	Czech Republic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13	Viola Janiková	Czech Republic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14	조수민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15	오수연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16	구동환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17	변상훈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18	윤선아	대한민국	이화여자대학교
19	정선화	대한민국	성신여자대학교
20	김세영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21	김보미	대한민국	이화여자대학교
22	신담희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23	손세호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24	김형준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25	이우재	대한민국	성공회대학교
26	이하은	대한민국	이화여자대학교

* 수료 기준: 프로그램 전 일정(6박 7일) 참가, 프로그램 종료 후 개인보고서 제출

특히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전원 프로그램을 수료함으로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을 기점으로 한 통일·평화 관련 국제 학생교류 프로그램 운영 모델을 성공적으로 유럽 내 한국학 관련 학과에 정착시켰다고 평가됨.

구체적인 지역과 관련한 역사 지식에 대한 학습과 답사와 강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평화통일 감수성 증대

한국의 냉전과 분단이라는 현실과 평화학이라는 보편 주제를 접목하고자 했던 ‘한국-유럽 대학생 여름평화캠프’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냉전 시기 제주도 지역과 관련한 구체적인 역사 지식과 경험을 습득함.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의 현안의 이슈를 통일과 평화라는 보편적 주제와 접목함으로써, 통일평화 교육의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화하는 데 기여함.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답사 지역, 답사 코스 등, 주제별 강의진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습득함.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 강화

한국과 유럽 각지의 학생들이 6박 7일간의 일정동안 함께 공부하고 최종 발표문을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화 역량 강화에 기여함.

○ 한국의 통일·평화 문제를 지역적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이를 해외의 현안과 연결시켜 국제화할 수 있는 경험적 기반을 확대함.

□ 정량 평가

○ 사전 평가

번호	문항	답 변(비율)
1	귀하는 이번 '한국-유럽 대학생 여름평화캠프'와 비슷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1. 예(35.7%) 2. 아니오(64.3%)
2	귀하는 평소 북한, 통일, 평화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 매우 관심(50.0%) 2. 조금 관심(50.0%) 3. 조금 관심이 없었음(0%) 4. 매우 관심이 없었음(0%)
3	귀하는 '한국-유럽 대학생 여름평화캠프'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1. 포스터(실외) (0%) 2. 포스터(실내) (0%) 3. 인터넷 게시물 (34.6%) 4. 지인의 추천(34.6%) 5. 기타(30.8%)
4	귀하는 '한국-유럽 대학생 여름평화캠프' 강연 중 어떤 강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복체크 가능)	1. 동아시아 냉전, 제주 4.3, 한반도 평화(20.0%) 2. 포스트 지구화시대 동아시아 평화의 섬 만들기(4.3%) 3. 제주에서 생각하는 통일과 평화(14.3%) 4. 한반도 분단과 4.3(17.1%) 5. 식민지기 제주 해녀들의 반일 투쟁 (8.6%) 6. 4.3의 집단적 기억과 재해석(15.7%) 7. 난민과 평화(20.0%)
5	귀하는 4.3 현장을 답사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예(23.8%) 2. 아니오(76.2%)
6	귀하는 평소 제주도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 매우 관심(28.6%) 2. 조금 관심(66.7%) 3. 조금 관심이 없었음(4.8%) 4. 매우 관심이 없었음(0)
7	귀하께서 현장학습 프로그램 중 가장 기대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1. 제주 4.3 평화공원(19.0%) 2. 북촌 4.3길(14.3%) 3. 사리물계(9.5%) 4. 송령이골(7.1%) 5. 진아영 할머니 삶터(9.5%) 6. 강정마을(14.3%) 7. 섯알오름-송악산-진지동굴(26.2%)

○ 사후 평가 [강의]

번호	문항	답 변(비율)
1	본 프로그램이 귀하의 통일/평화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44.4%) 2. 다소 도움(40.7%) 3.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음(14.8%) 4.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음(0%)
2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본 캠프의 강의 수	1. 너무 쉬움(3.8%)

	준은 어떠했습니까?	2. 다소 쉬움(23.1%) 3. 적당함(50.0%) 4. 다소 어려움(15.4%) 5. 너무 어려움(7.7%)
3	귀하는 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매우 필요(50.0%) 9. 다소 필요(42.3%) 10. 다소 불필요(7.7%) 11. 매우 불필요(0%)
4	귀하는 본 캠프 수강을 주변 분들께 추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1. 적극 추천 의향 있음(56.0%) 2. 권유할 의향 있음(36.0%) 3.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음(4.0%) 4. 잘 모르겠음(4.0%)
5	귀하는 본 프로그램 전반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26.9%) 2. 다소 만족(65.4%) 3. 다소 불만족(7.7%) 4. 매우 불만족(0%)
6	본 캠프 강연 중 가장 유익했거나 흥미로웠던 강연은 무엇이었습니까?	1. 동아시아 냉전, 제주 4.3, 한반도 평화(6.0%) 2. 포스트 지구화시대 동아시아 평화의 섬 만들기(13.4%) 3. 제주에서 생각하는 통일과 평화(23.9%) 4. 한반도 분단과 4.3(9.0%) 5. 식민지기 제주 해녀들의 반일 투쟁 (3.0%) 6. 4.3의 집단적 기억과 재해석(17.9%) 7. 난민과 평화(26.9%)
7	귀하는 본 캠프의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만족(26.9%) 2. 만족(42.3%) 3. 보통(26.9%) 4. 불만(3.8%) 5. 매우 불만(0%)
8	귀하는 현장학습 내용이 흥미롭고 교육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38.5%) 2. 그렇다(50.0%) 3. 보통이다(7.7%) 4. 그렇지 않다(3.8%) 5. 매우 그렇지 않다(0%)
9	귀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적절한 인원으로 편성되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50.0%) 2. 그렇다(15.4%) 3. 보통이다(15.4%) 4. 그렇지 않다(19.2%) 5. 매우 그렇지 않다(0%)
10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인솔자, 지도강사는 친절하게 지도하였습니까?	1. 매우 그렇다(42.3%) 2. 그렇다(53.8%) 3. 보통이다(3.8%) 4. 그렇지 않다(0%) 5. 매우 그렇지 않다(0%)
11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운전기사는 안전하게 운행하였습니까?	1. 매우 그렇다(88.5%) 2. 그렇다(11.5%) 3. 보통이다(0%) 4. 그렇지 않다(0%) 5. 매우 그렇지 않다(0%)
12	현장학습 프로그램 중 식사의 양은 충분	1. 매우 그렇다(53.8%)

<p>하였으며 맛있었습니까?</p>	<p>2. 그렇다(42.3%) 3. 보통이다(3.8%) 4. 그렇지 않다(0%) 5. 매우 그렇지 않다(0%)</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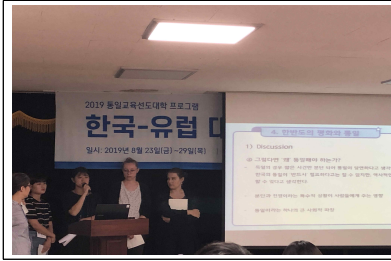
□ 정성 평가

-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한 데 모임으로써 각자 가진 관점의 차이를 공유할 수 있었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제출되었음. 특히 유럽 학생들의 다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으로 한국 학생들과 토론해볼 수 있었던 기회를 꼽음.
- 틀에 박힌 강의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통일과 평화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좋았다는 평가.
- 제주 4.3, 난민 등 구체적인 주제들이 ‘평화’ 나 ‘통일’ 과 접목되는 것이 좋았다는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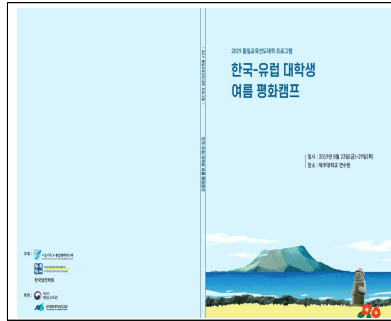
⑤ 관련 자료

○ 사진





○ 강의자료집 샘플



2019년 여름 평화캠프 프로그램	
13:00	개회식 (13:00-13:30)
13:30	교토로 떠나는 여정 (13:30-14:00)
14:00	교토에서 교토로 (14:00-14:30)
14:30	교토에서 교토로 (14:30-15:00)
15:00	교토에서 교토로 (15:00-15:30)
15:30	교토에서 교토로 (15:30-16:00)
16:00	교토에서 교토로 (16:00-16:30)
16:30	교토에서 교토로 (16:30-17:00)
17:00	교토에서 교토로 (17:00-17:30)
17:30	교토에서 교토로 (17:30-18:00)
18:00	교토에서 교토로 (18:00-18:30)
18:30	교토에서 교토로 (18:30-19:00)
19:00	교토에서 교토로 (19:00-19:30)
19:30	교토에서 교토로 (19:30-20:00)

○ 설문지 샘플

한국-유럽 대학 연합 평화캠프 사전 설문조사 (당사자)

본 설문지는 2019년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는 '한국-유럽 대학 연합 여름 평화캠프'에 참가하시는 분께 배포됩니다. 본 설문지는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며,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는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며,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는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며,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1.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는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며,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는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며,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2.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는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며,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는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며,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3.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는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며,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는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며,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4.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는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며,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는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며,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5.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는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며,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는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며,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6.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는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며,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는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며,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7.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는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며,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는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며,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8.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는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며,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는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며,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9.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는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며,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는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며,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10.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는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며,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는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며, 캠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설문지입니다.

○ 학생 보고서 샘플

Report on the
PRRP-KoreaNet Summer School on Jeju Island
from 23 to 29 August 2019

이승환 (Suheun Lee, Graduate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Freie Universität Berlin)

한국-유럽 대학 연합 평화캠프

한국-유럽 대학 연합 평화캠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한일 양국 대학생들의 교류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는 2019년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하여 실시되었다. 이번 캠프는 2019년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하여 실시되었다. 이번 캠프는 2019년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하여 실시되었다.

이번 캠프는 2019년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하여 실시되었다. 이번 캠프는 2019년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하여 실시되었다. 이번 캠프는 2019년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하여 실시되었다.

이번 캠프는 2019년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하여 실시되었다. 이번 캠프는 2019년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하여 실시되었다. 이번 캠프는 2019년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하여 실시되었다.

이번 캠프는 2019년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하여 실시되었다. 이번 캠프는 2019년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하여 실시되었다. 이번 캠프는 2019년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하여 실시되었다.

○ 강의안 샘플

Post-Globalization:
Overlay Contradictions

포스트 지구화
Post globalization

지구화
Globalization

포스트 냉전
Post Cold War

냉전
Cold War

포스트 식민
Post Colonialism

식민
colonialism

2. 냉전과 4-3, 그리고 미국

2-1 존 메릴과 「4-3진상조사 보고서」

○ 존 메릴(John Merrill): 제주4-3은 아시아에서 냉전적 맥락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2차 대전 이후 신식민지 주조를 재분과화하는 시도에 맞서 아시아에서 일어난 일련의 민주쟁탈운동 가운데 하나이다.

○ 「4-3진상조사 보고서」: 4-3 당시 제주도민 대살상사의 책임은 대통령 이승만과 미국에 책임이 있다.

그림 1
2016.10.21. 제주 4·3연구소 방문 제6회 제주4·3 평화포럼 참석 존 메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 (한국 분석관)

[6] 겨레이야기 (서울대-김일성종합대 교류추진위원회)
(강채연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① 사업 목적

- 서울대학교 학우들의 평화, 번영, 통일에 대한 지향을 유도하기 위한 창작(논문, 에세이, 소설, 창업 계획서, 웹툰, 포스터, UCC 등)공모를 통해 학생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 지향,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 조성
- 다가오는 남·북 학생 교류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단기프로젝트로, 서울대학교-김일성종합대학교 교류추진 사업의 기반 마련에 중점적인 의미를 부여
- 남북통일·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진척시키는 데 있어서 미래지향성 있는 남북 청년들의 교류협력을 위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의지와 열망 고취

② 운영 개요

- 개최학기 및 소속 학과(단위): 2019년 1학기/서울대-김일성종합대 남북교류추진위원회 ‘겨레이야기’
- 평가 방식: 민화협, 서울대학교 교수, 총학생회, 통일평화연구원에서 각 교수(급) 1명 공개회의로 진행

③ 추진 내용

- 시기별 추진과정

날짜	추진내용
2019년 3월	서울대-김일성종합대 남북교류추진위원회 ‘겨레이야기’ 공모전 홍보
2019년 5월	출품작 심사
2019년 6월	출품작 시상 및 상금 수여

- 수상자 명단

번호	이름	소속	수상작 제목
1	이동현(대상)	자유전공학부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대북 문화정책을 위한 제언
2	최사라(최우수상)	서어서문학과	언젠가 가고 말거야- “못”가보고 쓴 북녘 기행문
3	곽철민(우수상)	경제학부	남북말고 우리
4	김근호(장려상)	자유전공학부	통일 전후 남북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방안 검토
5	김동운(장려상)	농경제사회학부	고려식당

6	김민주(장려상)	간호학과	통일로의 이상동몽(異狀同夢)을 바라다
7	윤상호(장려상)	경제학부	JSA: 주택, 살림집, 아파트
8	김유연(장려상)	교육학과	응답하라, 1999
9	오승준(장려상)	정치외교학부	다윗과 골리앗의 北美, 효과적 북핵 협상법
10	이혜진(장려상)	산림과학부	마지막 남은 미지의 숲을 찾아서: 몇 가지 기록을 통해 본 한반도 이북의 숲과 산
11	임철환(장려상)	공기업정책학과	우리들의 이야기

* 단체 출품의 경우 대표자만 기재함

④ 사업 성과

-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 차원

: 통일교육선도대학의 일환으로 대학 구성원들의 통일·평화에 대한 관심 증대

- 본 공모전은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원)생들의 지식과 창의적 생각을 결합하여 통일·평화·남북교류에 대해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함.
- 논문 및 기행문, 시집과 UCC제작 등 다양한 방면에서 통일·평화·남북교류를 설명·공감함으로써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함.
- 통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유발시켜 대학(원)생들의 통일·평화·남북교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남북 대학생 교류·협력의 기반 마련을 통해 학내 공모전 및 행사에 틀 제공함.

- 정량 평가

- 약 60팀이 참석하여 공모전을 실시함. 총 11명(팀)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함.
- 공모 기간: 2019.4.22.(월) - 2019.05.31.(금)

- 정성 평가

- 대상

- 저자: 이동현(책임저자), 김현우, 김현서, 유은식
- 논문제목: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대북 문화정책을 위한 제언: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 평가: 남북의 민족동질성 회복과 동시에 북한 당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문화교류 방법을 찾아보고자 노력함. 북한에 널리 퍼져있는 남한의

대중문화를 문화교류의 키워드로 해석함으로써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최우수상

- 저자: 최사라
- 기행문제목: 언젠가 가고 말거야, “뭇” 가보고 쓴 북녘 기행문: 소설 <락엽은 단풍이 아니다>, 다큐멘터리 <두 도시 이야기 1, 2>를 보고
- 평가: 소설과 다큐멘터리를 통해 남북교류와 통일의 연관성을 설명함. 한반도 역사와 향후의 계획을 철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이해 및 공감을 확대함. 정치적 이슈로 인해 중단된 남북교류에 대해 단계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음.

○ 우수상

- 저자: 박철민
- 시놉시스: 남북 말고, 우리
- 평가: 남북교류의 미래를 시놉시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교류학생, 연애 사회적 인간관을 제시하며 이해와 공감 확산에 도움을 주고 있음. 교류의 긍정적인 면을 강화시켜 통일·평화·남북교류에 필요성을 강조함.

□ 현 프로그램 성과 및 학생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국립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타 대학 간 네트워크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⑤ 관련 자료

○ 포스터



○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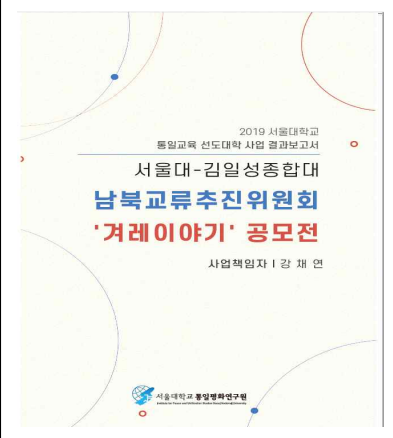


III 2019년 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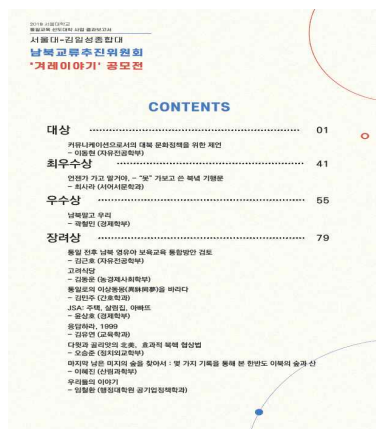
1 잘된 점

- 다양한 전공 영역과 결합한 통일평화교육의 전문성 강화
 - ‘통일의학센터’, ‘건설환경중합연구소’, ‘헌법·통일법센터’, ‘아시아연구소’ 등 서울대학교의 다양한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통일, 평화, 북한 관련 교육의 전문성 강화
 - 기존 인문사회 중심의 통일교육을 보건·의료학, 공학, 법학 등 전방위적 영역으로 확대
- 해외 대학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평화교육의 글로벌 프레임 구축
 - ‘한국·유럽 대학생 여름평화캠프’와 ‘아시아대학생 평화아카데미’와 같은 Summer Intensive Program을 개설하여, 한국의 대학생들이 아시아 및 유럽의 학생들과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문제를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마련
 - 중국 샤먼대학 대만연구원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남북과 중국 양안의 사회 통합과 통일 교육에 관한 상호 참조의 플랫폼 구축
 -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통일평화 교육의 글로벌한 프레임 구축
-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를 통해 국립대 통일평화교육 협력 플랫폼 구축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을 대표하는 ‘통일아카데미’와 ‘평화아카데미’ 모델을 전북대와 부산대와 공유하여, 타 국립대 학생들에게 전문성과 시의성을 갖춘 통일·평화 교육의 기회 확대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 서울대·강원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강릉원주대, 춘천교대가 결합하여 현장성과 전문성이 결합된 단기 집중 프로그램 ‘SNU·KNU 동해평화학교’ 개최
- 찾아가는 시민강좌 개설
 - 도서출판 한길사, 한국냉전학회와 협업한 8주 프로그램 ‘평화학교’를 인사동에 소재한 문화공간 ‘순화동천’에 개설함으로써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공모전 수상작 보고서 샘플



2019 서울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 결과보고서
서울대-김일성종합대 남북교류추진위원회 '겨레이야기' 공모전 사업책임자 1강 채현



CONTENTS

대상 01
최우수상 41
우수상 65
장려상 79

총이 크게 걸렸던 것에 비추어보면, 이번에는 북한 당국이 남북교류추진에 보낸 초창기 최우량한 교육시도를 주는 것이지, 그 최우량함을 절제하지 않은 것 같아 더 많은 교육지원 정책의 추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통해 북한당국의 통일 정책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고, 남북교류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남북교류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남북교류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구분	내용
주요 교육목표	1. 통일교육의 중요성 인식 2. 남북교류의 필요성 인식 3. 남북교류의 가능성 인식 4. 남북교류의 방법 인식 5. 남북교류의 성과 인식
평가	1. 통일교육의 중요성 인식 2. 남북교류의 필요성 인식 3. 남북교류의 가능성 인식 4. 남북교류의 방법 인식 5. 남북교류의 성과 인식
시각	1. 통일교육의 중요성 인식 2. 남북교류의 필요성 인식 3. 남북교류의 가능성 인식 4. 남북교류의 방법 인식 5. 남북교류의 성과 인식
주요 내용	1. 통일교육의 중요성 인식 2. 남북교류의 필요성 인식 3. 남북교류의 가능성 인식 4. 남북교류의 방법 인식 5. 남북교류의 성과 인식
주요 내용	1. 통일교육의 중요성 인식 2. 남북교류의 필요성 인식 3. 남북교류의 가능성 인식 4. 남북교류의 방법 인식 5. 남북교류의 성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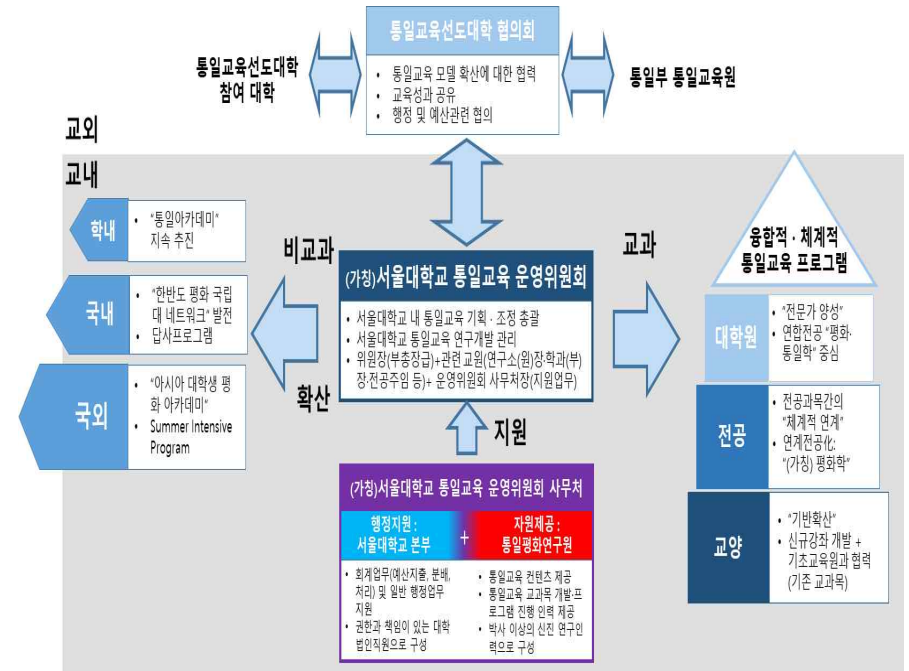
총이 크게 걸렸던 것에 비추어보면, 이번에는 북한 당국이 남북교류추진에 보낸 초창기 최우량한 교육시도를 주는 것이지, 그 최우량함을 절제하지 않은 것 같아 더 많은 교육지원 정책의 추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통해 북한당국의 통일 정책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고, 남북교류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남북교류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의 통일/평화 아카데미 모델을 대중적으로 확산

○ 서울대 통일교육의 평가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수행

-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과제를 발주하여, 지난 4년간 서울대 통일교육선도대학의 사업에 대한 객관적·종합적 평가 시행
- 제2기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을 대비하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 교육 프로그램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

2 향후 발전방안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 발전과 서울대학교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사업 진행방향 모식도

○ 서울대학교의 통일교육 비전 및 방향성 확립

- 제1기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의 종료 후 서울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은 기존에 축적한 경험과 종합대학으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통일평화교육을 학내에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함
- 핵심목표: (1) 대학생들의 통일인식 제고 및 대학 내 통일 논의 활성화, (2) 차세대 통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 (3) 교양-전공-대학원의 3단계 정규과정 체계화 (4)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통일평화교육의 국제화

○ 서울대학교 내 통일교육 컨트롤타워 신설

- 서울대학교는 기관 내부 규정상 새로운 교과목 신설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

이 있음. 이를 극복하고 통일교육의 학내 제도화를 위해 각 단과대가 서로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가칭)‘서울대학교 통일교육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서울대학교 내 통일교육에 관해 기획과 조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만들고자 함

○ 융합적·체계적 통일평화교육을 위한 3단계 교과과정의 체계화

- 서울대학교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기초교육원과 연계하여, 기초교양→ 학부 연계전공→ 대학원 협동과정이 상호 선순환할 수 있도록 통일평화교육의 체계화를 도모할 예정임
- ① 기초교육원의 통일관련 교양교육 교과목 개발 ② 학부 통일·평화 연계 전공 설치 ③ 대학원 ‘평화학·통일학’ 협동과정 개설

○ 비교과 프로그램의 정규화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통일아카데미’와 ‘평화아카데미’를 정규 교양과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 (기초교육원의 ‘관악모듬강좌’)

○ 통일평화교육의 국제화 강화

- 2019년에 처음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던 Summer Intensive Program(‘한국·유럽 대학생 여름평화캠프’, ‘아시아대학생 평화아카데미’)을 확대 강화하여 한국학생과 외국학생들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대해 인식을 교류하는 글로벌한 교육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킬 예정임 (예: 단기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게 하는 ‘International Research School’ 개설 등)

○ 국립대학 통일평화교육 네트워크 강화

- 2019년에 설립한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립대학간 통일평화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과 공동 강의 확대

3 개선 및 건의사항

○ 대학원 지원 사업 확대

- 통일평화 분야의 차세대 전문가 양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학부생 중심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선도대학지원의 일정 부분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

○ 회계처리 문제의 복잡성 해소 필요

- 현재 선도대학사업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예산처리시스템, 통일부 통일교육원 지침,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시스템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단과대에서 혼란과 그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함. 예산체계의 복잡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예산을 학교 법인으로 이관하여 서울대 법인회계시스템으로 단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를 요망.

○ 선도대학 일정을 대학 학기 일정에 맞추어 조정

- 통상 학기 시작이 3월이므로 예산확정 및 지원 시기를 2월 중순 전에 마무리해야 1학기 사업을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음. ☞